

軍

史

2024. 12. 제133호

Military History

[기획논문]

- 1870~1880년대 일본 군함의 조선 정탐 활동과 해도 제작
-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일반논문]

- 신라 선덕 · 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
-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東眞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 연구
-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장수
-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중건과 운영 고찰
-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 연설 연구
- 6·25전쟁 시기 포병 탄약 보급체계 연구
-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 주월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
-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서 평]

- ‘그들’의 전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길어올리다
- 조재근,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

[자료소개]

-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 군사사료 기증
-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사료 소개 -

[참관기]

- 한국군과 미군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보존하는가
- 2024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마치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33호 | 2024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획논문]

- 1870~1880년대 일본 군함의 조선 정탐 활동과 해도 제작
| 박한민 1
-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 박우현 57

[일반논문]

- 신라 선덕·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
-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
| 김덕원 99
-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東眞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 연구
| 강재광 137
-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장수
| 박현규 171
-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중건과 운영 고찰
- 『제승당 고평록(制勝堂 古風錄)』을 중심으로 -
| 김용재 203
-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 연설 연구
- 국가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 김민식·김명섭 243
- 6·25전쟁 시기 포병 탄약 보급체계 연구
- 철도, 도로 수송을 중심으로 -
| 강태윤 279
-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 김선호 321

軍史

- 주월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
- 1967년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중심으로 -
| 심호섭 359

-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전략과 ‘정부정치’의 동학 -
| 류인석 399

[서 평]

- ‘그들’의 전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길어올리다
-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
| 김상규 437

[자료소개]

-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 군사사료 기증
-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사료 소개 -
| 김경록 451

[참관기]

- 한국군과 미군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보존하는가
- 2024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마치고 -
| 최정준 467

[부 록]

- 연구소 동정 477
- 신간 도서 소개 484
-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485
- 『軍史』誌 投稿案内 487
- 연구윤리규정 490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55
<https://doi.org/10.29212/mh.2024..13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1

1870~1880년대 일본 군함의 조선 정탐 활동과 해도 제작*

박한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목 차
1. 머리말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지리정보 수집
 3.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4. 맺음말

초 록 이 글에서는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조선에 파견되어 연안을 측량하여 해도를 제작하고, 정탐을 하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한 일본 군함의 활동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주목한 군함은 가스가함, 다카오마루, 아마기함으로, 조선 항해와 관련된 기록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가스가함은 하나부사가 왜관을 접수하러 조선에 파견될 때 이용한 군함이었다. 가스가함의 조선 파견 당시 하나부사와 승조원들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4-기획연구-03).

미국 함선이 제작한 해도, 조선의 제도와 역사, 지리 관련 서적을 휴대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1875년 운요함 사건 이후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될 무렵에는 조선의 연안을 측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서가 일본 내에서 나왔다. 연안 측량 건은 「조일수호조규」 제7관에 반영되었다. 조선의 개항 이후 개항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과 함께 조선에 파견된 일본 군함으로는 다카오마루, 아마기함이 있었다. 일본 군함은 조선 연안을 측량하고 정탐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측량 기록은 해도로 작성되었고, 해마다 측량 작업을 거듭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증보하였다. 또한 항해일지 가운데 일부 내용을 편집, 가공하고 수로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갔다.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개항장 파견 사례는 일본 거류민 보호 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정치 변동이나 지역 사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에서 정탐 활동과 측량을 통해 수집한 결과물은 청일전쟁에서 활용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주제어 : 개항, 정탐, 조일수호조규, 해도, 연해 측량, 아마기함, 운요함, 개항장, 하나부사 요시모토, 청일전쟁

(원고투고일 : 2024. 10. 9.,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7.)

1. 머리말

정탐(偵探)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탐 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일은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여러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주재국 외교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한일 관계 속에서라면 동래부(東萊府)에 설치되어 있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대표적으로 양국인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서로의 내밀한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일 양국 관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던 왜관이 철폐된 것은 1872년이였다.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외무성(外務省)의 지령을 받고 도한하여 쓰시마 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일 관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서계 접수 문제로 인하여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단행하면서 대일 관계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핵심 세력의 절반은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으로 구미 여러 국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남아 있던 정치 세력을 중심

으로 정한론(征韓論) 정변이 발생하였다. 조선과의 외교적 경색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두고 노선이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내치우선론(內治優先論)’의 입장에 서있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鄉隆盛)에게 승리를 거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본 국내의 식산흥업 문제에만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조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완급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1874년 타이완 침공 후 청국과의 류큐(琉球) 귀속 문제 협상, 1875년 러시아와의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등의 현안을 처리하고 난 뒤 일본 정부는 조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해금(海禁)’과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을 명분으로 문호개방을 거부하고 있던 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조한 함선을 파견하여 정탐과 측량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조선 연안에서 측량한 결과물인 해도(海圖)를 입수하여 여기에 자신들의 정탐과 측량 활동 결과를 반영, 수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갔다.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해도·외방도(外邦圖) 제작, 정탐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888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參謀本部)에서 조선 내 정탐 활동 결과를 집대성한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을 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가쓰히코(村上勝彦)가 상세하게 정리하였다.¹⁾ 이후 지리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국 일본이 제작한 ‘외방도’에 주목하여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1) 村上勝彦, 「解説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東京: 龍溪書舎, 1981.

작업이 한국과 일본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 또한 ‘외방도’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작업을 통해 2010년대 이후 측량도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개항 초기 조선에 들어와 정탐 활동을 벌이고 측량도를 제작한 인물로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그가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 가이즈를 비롯하여 조선에 활동하던 하나부사 요시모토 등이 관여한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의 활동에 주목해 회원들의 명단과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른 기관 등에 대한 논문까지 포함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⁴⁾

한편으로 조선 연안 측량 결과물 속에 울릉도·독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를 일본 해군 수로국에서 간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와 해도 등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⁵⁾ 한철호는 1876년 호쇼함(鳳翔艦), 1878년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살펴보았다.⁶⁾ 최근에는 1875년 9월 20일 강화

2) 양윤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박사 학위논문, 2010 ; 小林茂·岡田郷子渡辺理絵, 「東アジア地域に關する初期外邦圖の編集と刊行」,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4,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10 ; 小林茂, 『外邦圖 : 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東京: 中公新書, 2011) ;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강점기』, 法文社, 2011 ; 小林茂 編,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2017.

3) 安岡昭男, 「初期の東京地學協會と軍人」, 『政治經濟史學』 400, 東京: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99 ; 小林茂·岡田郷子,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2,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08 ;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정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歷史學報』 217집, 2013.

4) 최혜주, 『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출판부, 2019.

5)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187~195쪽.

6)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 50호, 2015 ; _____,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일본 군함 호쇼(鳳翔)의 조선 해안 최초 측량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83호, 2021.

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켰던 운요함(雲揚艦)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도항과 원산 개항 과정을 추적하면서 관련 기록을 새로 발굴하여 조선 측의 대응과 일본 내 언론 보도까지 폭넓게 다루는 연구로까지 연안 측량과 정탐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⁷⁾

이 글에서는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료를 발굴, 활용하여 1870~80년대의 정보 수집과 유통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활용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霞城文庫),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과 방위성 방위연구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검토의 출발점은 1872년 하나부사가 왜관 철폐를 목적으로 도항할 당시 승선한 군함 가스가함(春日艦)으로 삼는다. 가스가함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에서 처음으로 조선에 파견한 함선이었기 때문이다.⁸⁾ 1875년 운요함 사건 발발 전후로는 일본 정부 내에서 연안 측량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의견서가 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조일수호조규」의 제7관 조항으로 반영되고 있었던 만큼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와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의 의견서 내용을 새로 소개해 보려 한다. 구로다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전권대신이었고, 모리는 청국에서 이홍장(李鴻章)과 조선 문제를 두고 교섭을 진행한 자였다. 둘 다 조약 체결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

7) 박한민,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韓國史研究』 202호, 2023a ; _____, 「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연구』 107호, 2023b.

8) 가스가함은 1871년 홋카이도(北海道) 연해를 측량하였다. 이때 함장은 야나기 나라요시(柳澤悦)였다. 이해 10월 가스가함장에서 면직된 야나기는 이후 수로국을 창설하고 초대 수로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야나기는 1878년 각국의 수로부와 관상대 시찰을 하기 위해 구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日本水路史 1871~1971』, 東京: 日本水路協會, 1971, 15~25쪽.

문에 이들이 연안 측량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항 전후로 활발하게 동해와 남해, 황해 연안을 왕래하면서 지역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 해도(海圖)를 제작한 다카오마루(高雄丸)와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들 함선에서 남긴 항해일지와 측량도가 편집과 가공 과정을 거쳐 어떠한 매체에 수록되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정탐과 측량 정보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축적, 가공, 확산되어 갔는지를 추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수집된 조선 관련 정탐 정보와 해도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 당시 육해군에서 작전 수립과 운용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의 구성과 지면 관계상 1894년 청일전쟁 개전 이후의 상황은 소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1880년대 후반 반조함(磐城艦)의 대동강 연안 해도 작성과 아마기함이 대동강 연안에 정박하던 당시의 상황 보고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지리정보 수집

가.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의 조선 파견과 가스가함

1) 하나부사의 파견과 조선 관련 지리 서적의 참고, 수집

1872년 8월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하나부사 외무대승을 왜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관을 접수할 목적으로 조선에 파견

하였다. 파견 명령은 8월 18일에 있었다.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파견될 때 이용한 선박은 가스가함과 유코마루(有功丸)였다. 출발에 앞서 하나부사는 조선국 지도 7매를 해군성(海軍省) 관리 엔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회람하였고, 해군성에서는 이 지도를 필사한 다음 외무성에 돌려주었다.⁹⁾ 이 문서에 첨부된 도서 목록을 보면, 조선 도한과 관련하여 외무성에서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참고자료가 여러 종이였다. 목록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관원고(朝鮮官員考)』 같은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과의 교섭 기사가 수록된 『조선통교시지서(朝鮮通交始之書)』와 『통교대기(通交大紀)』, 울릉도쟁계(鬱陵島爭係)에 대한 조일 간 교섭 전말을 기록한 『죽도기사(竹島紀事)』, 『해동기(海東記)』 등의 자료가 등장한다. 지리와 풍속 관련 서적으로는 『조선속고(朝鮮俗考)』와 『조선각도도리(朝鮮各道[各邑各山]道里)』가 있었다. 공무로 조선에 도항할 때 제도와 역사, 지리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서적을 구비하고 수시로 참고하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스가함에서도 미국 군함이 제작한 강화도 해도와 측량도를 외무성에 요청하여 대여하였다.¹⁰⁾

하나부사 일행은 8월 28일 시나가와(品川)에서 가스가함을 타고 출항하였고, 9월 15일 부산포 초량항에 도착하였다. 함선의 입항 당시 부산에서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철시(撤市)로 인하여 왜관에는 통역들만 드나들고 있었다.¹¹⁾ 일행에는 육군성(陸軍省) 관원 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기타무라 시게요리(北村重頼) 육군 소좌, 벳부 신스케(別府晋介)

9) 丙第1385號 壬申 9月 15日 海軍省→外務省, 「明治五年ノ七ノ卷之十七 係于花房大丞渡韓」/ 2 壬申八月二十七日至」(Ref. B03030170600).

10) 金義煥, 『朝鮮對日交渉史研究』, 文館, 1966, 244쪽;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308~309쪽.

11) 壬申 9月 17日 花房 外務大丞→大少丞,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육군 대위가 있었다. 이들 육군 장교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에게 조선 정탐을 수행하고 오라고 지시를 받은 자들로, 삼남 지방의 물정을 정탐하였다.¹²⁾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9월 23일 새벽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를 청원하는 조선인 한 명과 접촉하였다. 이때 그 조선인은 「팔도경성노정기(八道京城路程記)」와 지도를 휴대하였다.¹³⁾ 10월 3일에는 전 교린과(交隣掛)가 가지고 나온 『동국여지지략(東國輿地誌略)』 같은 자료를 열람하면서 조선 측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하나부사는 초량왜관에서 공무를 마친 후, 가스가함을 타고 귀국하였다. 11월 6일에는 외무경(外務卿)에게 복명하였다. 같은 달 10일에는 정원(正院)에 출석하여 참의(參議) 이타가키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 제출을 마쳤다.¹⁵⁾

하나부사 일행이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접수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도 조선과의 교섭은 서계 접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일본 국내의 정한론 정변 발발, 조선 정계에서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단행 등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고 있었다. 1874년 5월 15일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조선으로 파견하는 외무성 6등 출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 조선으로 건너가 지역 내 정세를 상세히 탐색하고, 교섭을 위한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⁶⁾

12) 金義煥, 앞의 책, 244쪽 ; 村上勝彦, 앞의 글, 5쪽.

13) 1872년 9월 22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4) 1872년 10월 3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5) 1872년 11월 10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6) 金義煥, 앞의 책, 301~302쪽 ; 김홍수, 앞의 책, 350쪽.

우선 나가사키(長崎)에 가서 증기선을 고용하여 쓰시마(對馬)로 향해함에 따라 소형 일본선 세 척으로, 하나는 초량관으로 파견하여 자세하게 동정을 살핀다. 두 번째는 탐색(探索)으로 거제, 울산 근처의 해안에 표착하도록 하여 저들의 접대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도록 한다. 이 증기선이 쓰시마에 계박하는 것은 대략 20일 동안으로 할 예정이며, 미리 약속을 정해 두고 임기(臨機)로 진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탐색선(探索船) 각자가 귀향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신속하게 증기선 고용을 해제할 것.¹⁷⁾

이것은 탐색선 세 척을 동래와 거제, 울산으로 각각 보내어 현지에서 조선 지방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색해 보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발포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선박이 부산포 항구에 가서 만약 저들로부터 갑자기 발포 등을 하는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쓰시마로 퇴각하고, 오히려 임기(臨機)로 관내의 동정을 탐지할 수단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 시찰할 방도가 끊어질 때는 속히 상경하여 그 취지를 보고할 것.¹⁸⁾ (밑줄은 인용자)

일본 선박의 부산 입항 후 조선 측의 발포라는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왜관 내 상황의 ‘탐지’에 주력하되, 더 이상 확인할 방도마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도쿄로 상경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한론 정변이 발생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발포’ 같은 무력 충돌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일방

17)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18)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적인 생각에 불과하였다. 조선 측으로서는 ‘유원지의(柔遠之義)’에 따라 통사를 파견해 문정을 하면서 일본 선박의 도항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발포부터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운요함(雲揚艦)의 1차 도한 당시 함경도 덕원부(德源府), 경상도 영일현(迎日縣)의 지방관이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함장 일행에 대하여 문정을 실시하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¹⁹⁾

2) 운요함 사건 전후 연안 측량에 대한 의견서와 「조일수호조규」 제7관

1875년 5월 25일 운요함이 부산에 입항하였다. 다음날 훈도 현석운(玄昔運)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 만나 운요함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들으면서 문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모리야마는 운요함의 “함장은 해군 소좌 이노우에 요시카로 승조 인원은 대략 100명 정도”며, 일본 측 사절을 파견할 때는 “반드시 보호를 위해서 군함을 붙이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²⁰⁾ 이때 운요함의 전체 승선 인원은 76명이었으므로, 이때 언급된 인원수에는 과장이 있었다.²¹⁾ 이보다 3년 전인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을 왜관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군함을 파견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파견된 군함은 앞서 나온 다카오마루였다.

정사 : 군함 파견은 조정의 특명이 있었고, 우리들이 이것을 가타부터 말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함이 내박하도록 한 앞바다

19) 박한민, 앞의 논문(2023a), 285~292쪽.

20) 五月二十六日午前十二時訓導玄昔運就館二付正副理事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21) 『日本外交文書』卷8, #36 軍艦雲揚渡鮮後朝鮮國側ヨリ決答ノ期日ヲ約束スルニ至リタル旨報告ノ件 附記, 92~93쪽.

는 무엇도 걱정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조금이라도 이 해변을 통항하는 선함이 많으므로, 만약 귀국 좌우의 주변 해안(邊岸)에 표착하여 도달할 때는 선례에 따라 잘 대우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도 : 제반 선박이 와서 정박할 때는 반드시 문정을 위해서 그 선박에 승선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규칙입니다. 문정을 하기 위해 그 함선에 가고 싶습니다.

정사 : 다른 포구나 나루(浦津)에 계박할 때는 문정을 함은 물론입니다. 지금 이 공관에 공무가 있어서 온 선박이므로, 이 공관에서 문정해야 옳습니다. 또한 군함은 하나의 해성(海城)과 같아서 규칙이 엄중하여 우리들이 마음대로 승선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견(拜見)하고 싶다고 간청한다면 그 취지를 함장에게 의뢰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²²⁾ (밑줄은 인용자)

훈도는 “선박이 와서 정박할 때는 반드시 문정을 위해서 그 선박에 승선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규칙”이라며 조선 측의 문정 원칙을 일본 측에 전하였다. 하지만 모리야마는 함선이 ‘하나의 해성(海城)’과 같아서 마음대로 승선시키기 어려우며, 함내 ‘배견’은 함장에게 의뢰해 볼 수 있는 정도라면서 문정을 위한 조선 관리의 승선 요구를 거절했다. 5월 30일에도 훈도는 “군함의 도착 건은 내심 몹시 걱정”이고 조선인들에게도 “의구심도 적지 않다”면서, 군함의 도착은 조일 양국이 우호 관계를 꺾이기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는 자도 있어 자신이 “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였다. 모리야마는 운요함이 “이사관 보호를 위해 도

22) 五月二十六日午前十二時訓導玄昔運就館二付正副理事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

항시킨 군함”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발언에 훈도는 군함 한 두 척의 입항이 두렵지는 않으나, 조선 정부 내에서 일본이 ‘화호(和好)’를 추진하려는 뜻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질 것을 염려하였다.²³⁾ 훈도가 운요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조선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한 가운데, 운요함은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영흥만 일대까지 왕래하며 정탐을 한 후 귀향하였다.

1875년 9월 20일 이노우에 함장과 승조원들이 보트를 타고 염하(鹽河)를 무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 측에서 발포하자, 포격을 구실로 삼아 운요함은 22일까지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를 공격하고 노획물을 챙겼다. 나가사키로 귀향한 운요함장은 상황을 일본 정부에 즉시 보고하였다. 국제법 위반 문제를 의식한 일본 정부는 3일간의 전투를 하루에 발생한 일로 함장 보고서를 조작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게다가 급수하려다가 일본 군함이 조선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응전에 나섰다는 식으로 대외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국내에서는 조선을 응징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정한 여론이 들끓었다.

10월 5일 외무성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 발발 전 강화도 인근 지역까지 다녀온 영국인 제임스(James)를 불러 운요함 사건 발생 이전에 조선 측의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제임스는 강화 일대를 그린 개략도를 통해 프랑스와 미국 군함이 마찬가지로 최근에 돌아온 운요함도 암초가 적지만 강화도와 마주한 대안(對岸)에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남로(南路)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남로는 염하 쪽을 가리킨다. 현

23) 五月卅日訓導別差就館正副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

재 일본 해군성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도 선본(善圖)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여준다면 좀 더 이야기해 줄 내용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가 강화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조선 관리가 와서 속히 퇴거하라고 독촉하였다. 또한 강화부사가 병력을 대동하고 오기도 했으며, 청국에 연행사로 다녀오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70살 정도의 고관도 와서 만났다고 한다. 제임스는 이들에게 물품 교역을 희망해서 도항하였다고 하였다. 그 고관은 조선이 “오직 청국과 다소 무역하고 있을 뿐”으로 “결코 타국과 통교, 무역 등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제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15일간 정박하면서 제임스는 내하(內河)를 거슬러 올라가며 수심을 측량하고, 강화부 시가까지 둘러보면서 이때 목격한 조선인에 대한 인상, 나가사키 시가보다 광활하였던 강화부에 대해 말하였다. 그를 만나러 온 조선 관리들은 접대를 돈독히 하면서 닭과 돼지, 채소 등의 식료를 제공해 주었다.²⁴⁾ 제임스의 과거 경험담을 통해서도 조선 측이 출몰한 이양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정을 나와 필담을 나누고, 필요한 식료를 제공하는 노선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리 아리노리는 운요함 사건 발생 후 조선 연안을 측량할 권리를 취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서를 기초, 번역하여 외무성의 국제법 고문 에라스무스 페샤인 스미스(Erasmus Peshine Smith, 1814~1882)에게 자문을 구하였다.²⁵⁾ 이것이 「조선국

24) 「明治八年十月五日午後二時外務省ニ於テ海軍省雇ヒ英人ゼームス氏ヲ招キ同氏カ曾テ朝鮮國江華島ニ航シ至リシトキノ景況ヲ問フゼームス答話聞書」(Ref. B03030131600).

25) 스미스는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던 법률가로, 1871년 당시 미국에 파견되었던 모리 아리노리 소변무사(少辨務使)와 고빙 계약을 체결하여 이해 10월 중순 도일하였다. 1871년 11월 1일부터 외무성 고문으로 있으면서 마리아 루즈호 사건, 운요함 사건 등의 처리에 자문으로 관여한 후 1876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귀

연해 측량 권리의 건(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이다. 조선국이 “발포하여 흉포한 해를 가한” 운요함 사건 발발 이후 조선 연해를 측량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여 선박의 편리가 필요한 우리 섬나라 같은 곳은 그 연해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웃 나라의 해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박이 이르는 곳은 모두 그 얕고 깊음, 위험한 암초의 유무를 상세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선박의 보안을 예방한다. 또한 이로써 운수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 상업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상 만국이 각기 해안을 상세히 파악하는 일을 힘써서 설정하고, 스스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것을 허락하여 항해 선택이 편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선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 연해를 방지하여 불행한 운수의 난처함을 무수한 항해객이 당하도록 만들었다. 때로는 외국인이 저 나라에 가서 측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망령되게 이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포를 발사하면서 흉포한 해를 가하였다. 그렇지만 외국은 아직 깊이 여기에 화내지 않고, 일이 많아서 주로 관대하게 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정략과 술법 역시 이것을 잘 모방할 수 있다. 이것은 필경 저들을 다른 나라의 공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여러 나라와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 나라는 우리와 이웃하며, 그 연해는 우리 선박과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 곳이었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가령 그 죄는 잠시 체쳐두고 따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그 해안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선박과 사람의 보안을 예방해야 한다. 이것을 하는데 이르러 만약 저들이 포악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여기에 응할 다른 방도는 없으며, 상당한 징

국하였다. 今井庄次, 『お雇い外国人：外交』, 東京: 鹿島出版會, 1975, 47~60쪽 ; 왕위안중 지음, 손성욱 옮김,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너머북스, 2024, 199~200쪽.

계를 가하여 그 포악함을 제어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측량을 수행하고 중지할 뿐. 그렇다면 그 업무를 시작하는 쪽에서는 우선 일단 저들 정부에게 그 일을 예고함이 올다. 여기에 문맥의 대략을 아래에 기록한다.

첫째, 우리 선함(船艦)을 통해 조선의 연해를 측량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조난선(難船) 예방을 위하는 데서 나오며, 또 다른 의도는 없음.

둘째, 조선 정부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측량도(測量圖)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득이하나 거액의 자금을 들여 조선 연해에서 아직 측량하지 않은 부분을 자세하게 측량함으로써 우리 조난선의 예방을 하는 일은 확실히(的然)하게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셋째, 조난선 예방은 정부가 인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무로, 그 주의는 애초부터 인도(人道)의 대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이것을 도와서 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행위는 여기서 나오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망녕되게 우리 측량선을 향하여 발포 등의 폭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애초에 역시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앞서 논한 내용은 전적으로 연해 측량의 권리 한 가지 건에 관련된다. 이것을 실지에서 시행하더라도 조선국에 대하여 조금도 예의를 잃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만국의 판단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명예를 칭함을 얻더라도 결코 그 모함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밑줄은 인용자)²⁶⁾

26) 「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1875년 11월 7일), 『自明治八年至同九年 朝鮮關係 考證彙輯』(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이 의견서를 보고 모리와 대화를 나눈 스미스는 “포탄이 도달하는 곳의 연해는 여기를 소유한 국가의 권리 안이기 때문에 윤택을 받지 않고서 마음대로 침입하여 측량하는 일은 공법의 조리에 따르자면 심히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선국은 “아직 공법의 지배를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獨立)한 일국으로 스스로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해 측량의 거부도 “그 권리 내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조선이 독립국인 이상 당연히 타국의 ‘연해 측량’을 허가할지 말지의 여부는 주권국이 가진 권리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리가 주안점을 두었던 연해 측량과 관련된 내용은 「조일수호조규」 제7관에 반영되었다. 제7관의 연해 측량은 일본이나 중국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조일 간에 체결한 조약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다.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서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수시로 연해를 측량해 그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만들어 양국 항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²⁷⁾

이 규정은 1874년 10월 1일 모리야마가 훈도 현석운을 통해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였던 11개 조항에 없던 내용이기도 하다.²⁸⁾ 요컨대 「조일수호조규」 제7관의 연해 측량은 일본 측이 조선 진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신설해 넣은 조항이었다.

27) 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36쪽.

28) 金義煥, 앞의 책, 337~338쪽. 이 문서(「口演」)에는 양국민을 관리할 관리의 명칭, 도고(都賈) 폐지, 관리의 자체적인 무역 금지, 표류민과 표류 선박의 대우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나.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함선 파견과 개항장 물색

1876년 2월 27일 조일 양국은 12개 조관으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부산 이외에 추가로 두 곳을 조사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장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통상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별도로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규칙」을 협의할 목적으로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 이사관(理事官)이 파견되기에 앞서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관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 구로다 기요타카는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 연해를 측량하는 일이 ‘금일의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통상장정은 그 조목이 자못 번잡하고 자잘하므로 상세하게 고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순일(旬日)의 공을 허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해로(海路)가 요원(遼遠)하고 항정(航程)을 저애하고 지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시기를 지체함이 있다면 신의를 외국에게 상실하고, 그 모욕하고 업신여김(輕侮)에 편승하니 그 해(害)가 어찌 깊이가 얕고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원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 나라의 연해(沿海)를 측량하여 그 험난함과 용이함(嶮易)을 고찰, 강구하고, 통상에 편리함이 있는 지역을 택하여 조약 가운데 20개월을 기약하여 개항할 곳의 항구를 예정하는 일은 금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선은 연해가 위험(危嶮)한 지역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가 격량인 시기를 맞아서서 항행이 불편하므로, 모쪼록 지금에 이르러 군함을 파견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²⁹⁾ (밑줄은 인용자)

구로다로서도 조선의 연해 측량을 통해 통상에 편리한 개항장을 설정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태정대신

29) 1876년 5월 25일 參議 黒田清隆→太政大臣 三條實美, 『三條家關係文書』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51.朝鮮-黒田清隆意見書 51-10(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에게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곳의 추가 개항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할 때 군함이 수행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1877년부터 1879년 사이 조선에 파견된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이 대표적인 함선으로, 연해 측량 및 정탐 자료가 잘 남아 있어 주목된다.

1)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7년 10월 4일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부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부사 일행이 타고 온 다카오마루 안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선내를 소독하고 병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10월 7일 부산포에서 출항, 나가사키(長崎)로 일시 귀향하였다.³⁰⁾ 하나부사는 동래부사와 면담 등을 한 후, 다카오마루가 돌아오자 11월 3일 부산포를 출발, 전라도의 남해안 일대를 거쳐 한성으로 향하였다. 대리공사 일행이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한 후 조선 정부에서는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와 예조참판 홍우창(洪祐昌)이 이들을 맞아 답판에 임하였다.³¹⁾ 개항장 설정 건의 경우 “다시 탐색을 실시하여 나중에 지명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탐색의 편의를 위해서 함선에 석탄을 적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함경도 문천군 송전(松田), 전라도 거문도와 진도 세 곳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12월 20일 홍우창은 하나부사와 7개 조관으로 된 「석탄위장약조(石炭圍場約條)」를 조인하였다. 함선의 측량에 필요한 석탄 등의 물품을 전라도 진도 벽파정과 거문도, 함경도 문천의 송전촌에 적치해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민을

30) 『復命概略』,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1) 『花房義實關係文書』 406-3에는 1877년 대리공사 일행의 입경 당시 통진 공해문(控海門)에서 한성 청수관(淸水館)에 이르는 경로를 그린 약도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아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가 소지한 회중시계와 자석 등으로 시간과 방향을 표시한 기록이 들른 장소별로 기재되어 있다.

고용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둔다는 내용이었다.³²⁾

하나부사 일행은 12월 21일 서울을 출발, 30일 부산에 도착하여 1주일 체류한 다음 출항하여 1878년 1월 20일 요코하마(橫濱)로 돌아갔다.³³⁾ 조선을 왕래하면서 하나부사가 이용하였던 다카오마루가 부산에서 전라도 서남 지역과 충청도 연안을 거쳐 경기도까지 항해하면서 수집한 지역 정보와 측량 내역은 「메이지 10년 조선기사」에 일자별로 상세히 나온다. 작성자는 측량 업무에 종사한 장교 가이즈 미쓰오와 시모무라 슈스케(下村修介)였다. 이들은 조선이 “쇄국(鎖國)을 원대한 방책으로 삼은” 나라이지만, 국제정세상 동북 국경을 청과 러시아에 접하고, 서남쪽은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쇄국으로 외교(外交)를 막으려는 일은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³⁴⁾ 본인들이 이번 도한에서 맡은 소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재 하나부사 대리공사가 다카오함으로 하여금 항행하도록 하는 길에 진도, 목포, 아산의 여러 지역을 우회하여 항만이 좋은지 여부를 조사, 측량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무릇 1개월 정도 저들 나라 서남 해안의 지세, 풍토, 그 견문한 바에 기초하여 이것을 기술한다. 또한 영국 해도(海圖)와 우리 해군 사관의 실측도(實測圖)에 기초하여 이것을 보완하여 기술을 부수함으로써 참고에 제 공한다.³⁵⁾ (밑줄은 인용자)

이 내용은 「조선기사」를 작성하게 된 연유와 목적을 도입부에서 소개한 것이다. 경기도 인천까지 항해하는 도중에 전라도 서남 지역에 위치한 진도, 목포를 거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정

32) 1877년 12월 20일 乙號「石炭園場約條」,『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3) 「復命概略」,『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4) 辯言,「明治十年 朝鮮紀事」,『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第1卷(Ref. B03030183400).

35) 辯言,「明治十年 朝鮮紀事」,『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第1卷(Ref. B03030183400).

보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기존에 있던 영국 해도를 참고하여 실측도를 새로 제작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부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라도 강진현 소안도(所安島), 해남현의 오마로도(五馬路島), 진도 내 벽파정(碧波亭), 사도(沙島) 등산진(登山津), 목포(木浦), 경기도 남양만(南陽灣)의 풍도(豐島)와 고온포(古溫浦), 인천만(仁川灣) 제물포(濟物浦), 영종도와 월미도, 통진부에서 한강을 거슬러 한성에 들어가는 길 등을 지역별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들은 들른 지역마다 경위도, 호구수, 주요 생산물과 생업, 방어시설과 선박 계류 상황, 주둔 병력수, 주변의 풍경과 조류, 수심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이들이 상륙할 때마다 각 지방관은 문정을 하기 위해서 속관(屬官)이 일본인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진도 벽파정에서는 진도군수 속관 김갑진(金甲鎭), 목포에서는 상존위 문진규(文珍奎)와 만호 김진우(金振祐), 청산첨사 정용묵(鄭容默)의 속관 박홍성(朴弘性), 인천에서는 인천부사 이남집(李南輯)과 영종첨사 양주성(梁柱星)이 나와서 함선 승조원을 맞이하였다.

목포 지역을 둘러본 측량 장교들은 “항구 안의 위험과 평온함을 추측하고 포구가 개항장에 적당한지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 입항하였으나 이곳은 “개시장(開市場)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³⁶⁾ 오마로도(五馬路島)와 목포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 담당 장교들이 기록한 「조선국 남해안 화성돈 해만 기사(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와 「11월 10일 토요일 오마로도에서 목포에 이르는 기사」, 그리고 목포 측량도가 한 장 남아 있다.³⁷⁾ 오마로도에서 목포로 갈 때는 다지리(田尻) 중위, 고다마 가네타카

36) 木浦,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第1卷(Ref. B03030183400).

37)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甲圖 木浦」,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兒玉包孝)와 다카스기 하루키(高杉春祺) 해군 소위, 가이즈 육군 소위, 야마노조 스케나가 외무 5등속이 하선하여 소증기선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목포 지역을 둘러볼 때는 석탄과 식량이 부족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견취도(見取圖)」만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정밀한 측량은 나중에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기록해 두었다.³⁸⁾ 이 기사는 원래 「다카오마루 항해일지」에서 발췌한 문건인데, 『하나부사 요시모토 관계문서(花房義質關係文書)』에도 필사본이 남아 있다.³⁹⁾ 활자본은 일본 해군 수로국(水路局)에서 1879년 6월에 간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 제18호에 「조선국 남안과 서안 약기(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란 제목으로 편집 작업과 내용 보완을 거쳐 수록되었다.⁴⁰⁾ 잡지 수록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의 출전과 더불어 향후 정교하게 대조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였다.

이 기사는 메이지 10년(1877) 중 해군 소좌 스기 모리미치(杉盛道)가 다카오마루를 타고 조선해(朝鮮海)에 도항할 때 그 승조원 해군 소위 고다마와 동 다카스기가 실제 경험하고 필기한 내용이다. 이후 이 지역에 항해하는 자는 모쪼록 여기에 일치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지(水路誌)를 비교 대조하고, 면밀히 그 상황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¹⁾

38)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9) 『花房義質關係文書』M/F 404-1(北泉社 제작,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0)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第18號, 1~12쪽.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는 「華盛頓海灣」,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는 「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海路 附雜記」로 수록하였다. 수로국은 항적(航跡)을 표시한 지도로 「從五馬路島至木浦略圖」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41)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第18號, 15쪽.

다카오마루 승선 장교가 남양부에 상륙하였을 때는 이 근처에 “현재 역력(疫癘)가 유행”하여 “사망한 자가 수천 명 정도”라는 상황을 전해 들었다.⁴²⁾ 여기서 언급된 ‘역력’은 조선의 개항 직후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로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측량 정보는 「조선국 남양만 기사(朝鮮國南陽灣記事)」에 실려 있으며, 남양만 측량도가 한 부 남아 있다.⁴³⁾ 이 기록 역시 수로국의 편집 작업을 거쳐 『수로잡지』 제18호에 같이 수록되었다.⁴⁴⁾ 영종도에 대해서는 「조선전도(朝鮮全圖)」에 ‘호도(虎島)’라고 기재한 것이 착오였음을 밝히며 오류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원래 성안에 민가 60여 호가 있었는데, 왕년에 운요함의 일거(一舉)로 병요가 발생하여 지금은 겨우 11호가 남았을 뿐이다. 첨사가 거주하는 관사도 이곳에 있다가 병요 후 여기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운요함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내 변동 상황을 탐문하였다.⁴⁵⁾ 통진(通津)에서 김포로 가는 길은 4리 정도인데, 도로는 진흙탕인 데가 있어서 “야포(野砲)나 치중(輜重)이 통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⁴⁶⁾ 또한 목제 교량도 “야포를 통과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일본 장교들은 한성 안에 가 있는 동안 조선의 병제(兵制)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 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많으며, 특히 고루한 한인(韓人)

42) 新里,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3) 「朝鮮國南陽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乙圖 南陽灣」,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44)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2~15쪽. 「朝鮮國南陽灣記事」는 「南陽灣」이라는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45) 永宗島及ヒ永宗城,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6) 여기에 소개한 일본 기록상의 1리는 한국에서 10리(4km)에 해당한다.

이 자국 제도를 타인에게 누설하기를 싫어”하는 분위기였다. 몇몇 조선인에게 몰래 듣게 된 병력수는 훈련도감(訓練都監) 5,772명, 금위영(禁衛營) 2,504명, 오위영(五衛營) 2,504명이었다. 무기와 화약은 군기시(軍器寺)에서 제조하며, 훈련은 봄과 가을 두 차례 교외에서 실시하며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⁴⁷⁾

다카오마루가 활동을 마치고 돌아간 후,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석탄위장약조」에 따라 1878년 4월부터 측량선을 조선 연안에 파견하여 “충분히 탐색한 다음 계속해서 개항 담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해군성에 하명하여 측량선을 파견하도록 해 달라고 태정대신에게 요청하였다.⁴⁸⁾ 3월 4일 태정대신은 외무성에서 요청한 조선국 함경도와 전라도 연안 측량을 위한 측량선 파견을 허가하였다. 이때 조선으로 파견한 선박이 아마기함으로, 선장은 해군 소좌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였다.⁴⁹⁾ 아마기함의 이번 파견에는 해군 중위 요시다 시게치카(吉田重親)와 소위 가토 시게나리(加藤重成), 소위보 고바야시 슌조(小林春三), 육군 소위 가이즈 미쓰오가 동행하였다.⁵⁰⁾ 해군 수로국을 비롯하여 1878년 12월에 설치되는 참모본부(參謀本部)에서 활동하게 되는 장교들이 조선 정탐을 위해 같이 파견하고 있

47) 兵制及租税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8) 1878년 2월 20일 外務卿 寺島宗則→太政大臣 三條實美, 『日本外交文書』 卷11, #139, 284쪽.

49) 1878년 4월 13일 海軍大輔 川村純義→外務卿 寺島宗則, 『日本外交文書』 卷11, #141, 286쪽.

50)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屈」(Ref. Ref. C09112941600). 가이즈는 아마기함을 타고 조선에 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간 다음, 이해 12월 22일 다시 조선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西海新聞』 1878년 12월 23일 2면 1단). 가이즈가 이 시기 조선 연안에 대한 정탐과 지도 제작에 해마다 연속으로 파견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시다 1875년 7월 다이니테이보함(第二丁卯艦)에 승선하여 해군 대위 아오키 스미사네(青木住眞)와 함께 부산 일대를 측량한 결과물로 「朝鮮國釜山港(Korea East Coast FUSAN HARBOUR)」(海軍水路寮 第60號)를 제작하였다.

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마기함이 측량선으로 조선 연안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법은 외무성에서 작성한 「측량선 파견목적」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⁵¹⁾ 측량 탐색할 지역의 우선 순위는 함경도 원산진과 북청, 전라도 흥덕과 옥구, 충청도 해미와 결성 지역으로 정하였다. 지역에 갈 때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무성 관원이나 어학생도를 대동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측량 외에도 해안 지형, 상선 출입과 매매 품목, 호구수와 다수의 종사 직업, 기본 인프라와 운수의 편리 여부 등을 명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문건의 부전(附箋) 가운데 “함경도 측량 순서로 마쓰시마(松島)의 실황은 ‘차이나 디렉토리(China Directory)’에 실린 바와 같은지 여부를 답사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란 문구가 있다. 함경도에 측량을 다녀오는 길에 ‘차이나 디렉토리’라는 구미 측 자료에 소개된 ‘마쓰시마’ 항목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1873년도판 『The China Sea Directory』에 나오는 울릉도(MATU SIMA, Dagelet Island)에 근거한 지시였다.⁵²⁾ 실제로 아마기함이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길에 울릉도를 들르면서 경위도를 실측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³⁾ 아마기함은 함경도의 영흥만과 송전만 일대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출항하였다.⁵⁴⁾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릉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지형을 살펴본 다음 부산으로 귀항하였다.⁵⁵⁾

51) 1878년 4월 16일 寺島 外務卿→河村 海軍大輔, 『日本外交文書』 卷11, #142, 287~289쪽.

52) 한철호, 앞의 논문(2015), 32~33쪽.

53) 한철호, 앞의 논문(2015); 박한민, 앞의 논문(2023b).

54) 박한민, 앞의 논문(2023b), 20~25쪽. 일본인들의 측량에 대한 조선 지방관의 인식과 대응은 여기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55) 1878년 7월 4일 外務五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書記官 田邊太一, 『日本外交文書』 卷11, #145, 292~293쪽.

아마기함은 나가사키로 돌아가 선박 수리를 마친 후, 8월 13일 저녁에 출항하여 다음 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⁵⁶⁾ 부산 관리관 야마노조 스케나가는 동래부사 윤치화(尹致和)에게 서한을 보내 아마기함이 곧 전라도 무안에서 옥구, 충청도 비인에서 결성까지 측량을 하러 출항하므로 조선 각 지방에 관문을 발송해 주의하고 협조할 사항을 알렸다. 여러 곳에 다양한 색상의 측량용 깃발을 설치하더라도 지역민이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 측량기계가 파손될 경우 야장(冶場)을 설치하고 장인이 수리와 보수를 하도록 할 것, 측량으로 모사하는 중 심한 더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가옥을 임차할 수 있을 것, 음료수는 항상 필요하므로 가는 곳마다 급수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⁵⁷⁾ 부산에서 통역 아비루 유사쿠(阿比留裕作), 다케다 구니타로(武田邦太郎),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가 승선한 후, 23일 아마기함은 출항하였다.⁵⁸⁾

이날부터 9월 30일 부산으로 귀향할 때까지의 일자별 동향은 「아마기함 승조 중 일지(天城艦乗組中日誌)」에 실려 있다.⁵⁹⁾ 8월 24일에는 전라도 홍양현 삼도(三島), 즉 거문도에 도착하여 촌락 대표들과 만났다. 28일은 비인현에 가서 현감 이용주(李用周)와 만나 문정하는 가운데 옥구만(沃溝灣) 측량 건을 알리고 식량 공급, 길 안내자 고용 건을 요청하였다.⁶⁰⁾ 31일에는 김제군수(金堤郡守) 겸 옥구현감 송기로(宋綺老)가 와서 문정하고 접대를 하였

56) 『橫濱毎日新聞』(1878년 8월 15일 2면 2단); 『西海新聞』(1878년 8월 17일 2면 2단).

57) 1878년 8월 15일 署管理官 山之城祐長—東萊府伯 尹致和, 「管理官先示兩南測水事件及發船日期書」, 『同文彙考』 卷4 附編 通商(國史編纂委員會 編, 1978), 4155~4156쪽.

58) 1878년 8월 25일 外務五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輔 森有禮, 『日本外交文書』 卷11, #146, 293쪽; 『橫濱毎日新聞』(1878년 9월 13일 2면 3단).

59) 「天城艦乗組中日誌」,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60) 1878년 8월 28일, 「天城艦乗組中日誌」.

다.⁶¹⁾ 9월 8일에는 천수만(淺水灣)에 닻을 내렸다. 여기서는 홍주영장 겸 목사 조의인(趙義仁)이 문정을 하러 함선을 방문하였다.⁶²⁾ 다음날에는 부함장과 사관들이 통역 아사야마를 대동하였다. 이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보령(保寧) 지역 수영(水營)에 담수를 탐색하러 나갔다. 수영에서는 이들을 맞아 문정을 실시하였고, 성내의 사공청(沙工廳)으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내어 접대하였다.⁶³⁾ 홍주 지역에서 아비루 유사쿠는 “깃발을 세우고 석회를 도포하여 측량 표목을 삼고” 측량을 실시하였다. 9월 16일에는 충청도관찰사 사절로 절충장군 박응순(朴膺淳)이 함선에 와서 인근 가옥을 빌려 요양하는 건을 논의하였다.⁶⁴⁾

9월 22일에는 요시다 중위와 아사야마가 결성(結成) 지역으로 측량하러 나갔다. 이들이 산을 넘어가 성호동까지 가자 지역민들이 물려와 도로를 막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란이 발생하자 군관들이 와서 제지하면서 요시다 일행과 대화를 나누었다. 조선 관리들은 감영에서 일본인의 측량 건에 대하여 알려 왔지만, 등산과 육로행까지 허가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사야마는 “측수(測水) 방법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우리 군함이 이미 각지에 가서 측량을 하였는데, 아직 등산과 육로행을 방해한 부현(府縣)이 없었다”고 하고, 결성 지역에서만 이를 금지한다면 이 행위를 함장에게 보고한다고 답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정탐 행위를 제지한 것은 결성현감(結成縣監)이 일본 사람들의 산행과 육로행을 스스로 멋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요시다, 아사야마는 결성현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만나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61) 1878년 8월 31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2) 1878년 9월 8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3) 1878년 9월 9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4) 1878년 9월 16일, 「天城艦乗組中日誌」.

결성현감 : 지난번에 등산 길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상륙하여 등산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인가?

아사야마 : 이번 측량은 양국 정부의 약조에서 기인하였다. 그러한 것을 이 지역에 제한하여 자유롭게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명을 받드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 역시 부득이하여 등산하게 된 까닭이다.

결성현감 : 공들이 지금 등산한다면 나는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역시 부득이하다.⁶⁵⁾

일본인들의 측량을 핑계로 산에 올라가고, 육로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성현감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일본 측은 양국이 조약 체결을 통해 ‘자유로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정탐 활동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긴장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 연회를 연 결성현감은 “주객(主客)의 길은 교린(交隣)의 마땅함을 두터이 하는데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술을 권하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받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제지당한 것을 항의하였다. 해미(海美)와 결성 지역에서 5일 동안 체류하면서 측량과 정탐 활동을 마친 아마기함은 9월 28일 천수만에서 출항, 30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⁶⁶⁾ 천수만 일대를 측량하고 견문을 채록한 결과물은 아사야마가 「시울 만 근방 섬 명칭과 견문기」라는 문건으로 남겼다.⁶⁷⁾ 10월 중순 아마기함은 ‘조선해 측량’을 마치고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고베를 거쳐 도쿄로 복귀하였다.⁶⁸⁾ 아마기함장 마쓰무라

65) 1878년 9월 25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6) 1878년 9월 28일·30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7) 淺山顯藏, 「附錄 ショー 灣近傍島名并見聞記」,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68) 『東京日日新聞』(1878년 10월 21일 2면) ; 『東京日日新聞』(1878년 10월 24일 2면).

는 동해진수부사령관 이토 스케마로(伊東祐麿)에게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측량 결과와 승선 수병들의 상황을 보고하였다.⁶⁹⁾ 아마기함장은 이번에 측량을 지정하였던 해미, 결성, 옥구 지역은 실전한 결과 간만(干滿)의 차이가 크고, 정박할 만한 좋은 항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서에 보면 수로국에서 연안 측량을 위해서 가토 소위와 고바야시 소위보 두 명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⁰⁾ 11월 1일자로 해군성에 제출된 아마기함의 출장 결과물로 문서와 제작 지도 11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⁷¹⁾

〈표 1〉 1878년 아마기함 제출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전라 충청 양도 중 비인 옥구 결성 해미 지방 견문기 수로잡지(水路雜誌)	1책 1책	
조선국 충청도 천수만문(淺水灣門) 지도	1장	해도 100호 → 해도 74호(1892.04.08.). 측량자로 요시다 중위와 가토 소위 기재
동국(同國) 동도(同道) 결성현 하성호악 약측도 동국 동도 해미 근해 약도 동국 전라 충청 양도의 경계 장포강 약측도 동국 전라도 옥구만 약도	1장 1장 1장 1장	

69) 1878년 10월 1일 天城艦長 松村安種→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麿, 「外入842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諸港測量等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200). 나가사키에 기항한 아마기함은 10월 14일 고베에 입항하였다(『大阪日報』[1878년 10월 18일 2면]).

70) 아마기함장이 승선 장교 명단을 보고하고, 이것을 동해진수부사령장관 해군소장 이토 스케마로가 해군대보 스미요시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2941600).

71) 1878년 11월 1일 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麿→海軍卿 川村純義,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300).

문서명	수량	비고
동국 천수만문(淺水灣門) 원점과 나침편차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경위도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투연부(投鉛簿)	1책	
동국 측량 각소 기사		

* 출처 :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 ; 小林茂 編, 앞의 책(2017), 51쪽.

2) 1879년 대리공사 도한 당시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9년에도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대리공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개항장을 물색하고 선정하려는 협상은 계속되었다. 하나부사 일행이 조선으로 건너가는 데 이용한 함선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 두 척이었다.⁷²⁾ 하나부사 일행은 3월 31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하여 고베, 부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 고온포(古溫浦)에 상륙한 다음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의 서대문 밖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하였다. 한성에서 조선 정부 강수관(講修官)과의 현안 교섭은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이어졌다.⁷³⁾

하나부사의 도한 중 개항 적합지 물색을 위한 ‘서안 탐항(西岸探港)’ 작업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이 수행하였다. 다카오마루에 수로국 관리 네 명이 ‘근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승선하였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었다.⁷⁴⁾ 이 당시 측량과 정탐 활동을 통해 생산된 문서와 지도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2) 『朝日新聞』(1879년 4월 6일 1면 1단) ; 『大阪日報』(1879년 4월 9일 2면).

73) 1879년 조일 양국의 교섭 안전과 협상의 진행 과정은 다음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박한민,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호, 2011.

74) 『東京日日新聞』(1879년 5월 17일 2면).

〈표 2〉 1879년 하나부사 대리공사 도한시 생산된 정탐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진강기(鎭江記)	1건	『東京地學協會報告』 1권 수록 (1879.11.29.)
진강약도(鎭江略圖)	1책	
아산기(牙山記)	1건	
조선국 아산요지(朝鮮國牙山錨地)	1장	해도 74호 「朝鮮西岸諸錨地」 수록 (1892.04.08.) 여기서 동경은 '40분'을 '42분 10초'로 수정. 측량자로 아오키 소좌와 요시다 중위 기재
등쌍봉기(登雙峯記)	1건	
신리면기(新里面記)	1건	
자인천경통진입경성약기(自仁川經通津入京城畧記)	1건	
자고온포지한성약도(自古溫浦至漢城略圖)	1장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1장	해도 79호(1877.03.08.) 정보 추가
교동도약측도(喬桐島畧測圖)	1장	해도 133호(1881.04.22.) → 해도 74호(1892.04.08.) 喬桐錨地 '1879년 다카오마루 약측'으로 기재하고 수심 표기
송도강견취도(松都江見取圖)	1장	마쓰모토(松本) 해군 소위 제작 (1879.09.06.)
교동기행(喬桐紀行)	1건	
구진(口陳)	1건	
인천항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하는 의견(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1건	

* 출처 :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 小林茂 編, 앞의 책(2017), 51쪽.

5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鎭江)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나부사는 다카오마루 선장과 호쇼 함장, 곤도 마스키(近藤眞鋤), 이시바타 사다(石幡貞), 가이드 중

위, 통역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太郎)와 아사야마를 데려갔다.⁷⁵⁾ 작년에 아마기함이 한산군(韓山郡)까지만 들어가 측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은진현(恩津縣)까지 가서 현감 정기우(鄭基雨)와 만났다. 가이즈는 목측(目測)으로 「진강약도(鎭江略圖)」를 제작하였다.⁷⁶⁾ 그는 들렀던 각 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별도 기사가 있으니 모조록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곤도가 작성한 「진강기」를 가리킨다. 측량도와 기사를 같이 보아야 금강 유역에 접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산만 근방에 대한 탐사와 측량을 진행하였다.⁷⁷⁾ 탐사에 앞서 이들은 아산 현감 이승지(李承旨)와 만났다. 이승지는 “일본인이 내지에 진입하는 일은 조약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선 내지로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⁷⁸⁾ 곤도는 지역별로 가서 채집한 정보를 「아산기(牙山記)」로 남겼다. 「진강기」와 마찬가지로 「아산기」를 집필하는 중에도 곤도는 『팔역지(八域誌)』에 수록된 지명과 비교하여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명칭으로 된 지명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론된 『팔역지』는 이중환(李重煥)이 저술한 『택리지(擇里志)』를 곤도가 부산에서 사본으로 입수한 책자로, 1881년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간행하는 책의 저본이다.⁷⁹⁾ 다카오마루에서

75) 「鎭江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6) 陸軍中尉 海津三雄, 「鎭江略圖」(1879년 5월),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7) “朝鮮通信”, 『大阪日報』(1879년 7월 15일 3면).

78)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9) 靑華山人 著, 近藤眞鋤 譯, 「題言」, 『朝鮮八域誌』, 東京: 日就社, 1881. “왕년에 내가 조선국 부산포에 있을 때 등본 하나를 얻었는데, 팔역지(八域誌)란 제목을 붙여 있었다. 즉, 청화산인이 이를 저술하였다. 이것을 열람하니 팔도 지리, 산천, 시세 변천의 대개를 살필 수 있었다.”(밑줄은 인용자)

는 「조선국 아산묘지(朝鮮國牙山錨地)」를 제작하였다. 작성일자는 1879년 5월이며, 동경 126도 40분, 북위 36도 59분 54초, 나침편차 4도 15분 4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⁸⁰⁾ 측량으로 일본 함선이 고온포 지역에 체류한 일자는 20일(二旬)이었다.⁸¹⁾ 측량 결과 고온포는 근처에 “큰 고을과 유명한 마을이 없고 통상의 편의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곳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⁸²⁾

이외에도 다카오마루 승선 인원은 9월 3일부터 교동도 내 화개산(華蓋山)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지역을 측량한 아오키 함장은 「교동도약측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작성 날짜가 1879년 9월로만 기재되어 있다.⁸³⁾ 여기에도 동경과 북위, 나침편차 등의 측량 정보를 같은 양식으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교동도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탐 내역은 「교동기행」에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9월 6일 예성강 하구까지 정탐하고 마쓰모토 해군 소위가 「송도강견취도(松都江見取圖)」를 작성하였다.⁸⁴⁾ 두 지역에 대한 측량과 정보 수집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졌다.

호쇼함장 야마자키 가케노리(山崎景則)는 작년에 아마기함이 기항하였던 비인만과 금강, 천수만을 재차 탐사하면서 조류의 흐름과 지세 등은 작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항구로 삼을 만한 좋은 데가 없다고 보았다. 그로서는 “충분히 해도를 열람하

80) 「朝鮮國牙山錨地」,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1)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1879년 6월 4일 代理公使 花房義實—禮曹判書 沈舜澤, 「代理公使測量古溫浦海灣後請令隨員早路赴京代觀地理書」, 『同文彙考』卷4 附編 通商, 4156쪽. “我政府茲據修好條規第五款, 命本官就貴國忠清 京畿兩道間海岸, 探良港指定通商要地, 以五月十三日泊船古溫浦, 測量海灣者既及二旬, 略竣其功矣.”

82)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3) 「喬桐島畧測圖」,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4) 박한민, 앞의 논문(2013), 291~292쪽.

여 숙고해 보더라도 축조 비용이 약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 연코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정하는 것”이 다른 장소보다 낫다고 판단하였다. 제물포와 월미도 사이에 부두를 축조하고 도크(Dock)를 만드는 편이 선박 수리와 물자의 육지 운송에 편익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제물포 내 거류지가 “번식(繁殖)하여 협애”해지면 가옥과 창고 등의 시설을 확장, 증축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⁸⁵⁾

두 함선의 연안 측량은 「인천만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작성으로 이어졌다. 의견서는 다카오마루 선장 아오키 스미사네와 호쇼함장이 연명으로 작성하였다.⁸⁶⁾ 먼저 진강(鎭江)의 만과 하천을 아마기함이 전해 약측(略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시찰하였지만, 하천과 만 모두 “좋은 항구(良港)가 아니므로 측량을 중지”하였다. 아산만(牙山灣) 지역도 “애초에 좋은 항구가 아니지만” 격랑의 우려가 없는 지세이고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우선 가능한 항만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천만의 해안은 “보트로 곧바로 착안하여 왕래할 자유가 있고, 일찍이 진강과 아산에 비할 곳이 아닌 천연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두를 신설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해륙 모두 경성에 가깝고, 왕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안은 개항장으로 삼기에 충분하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이 소식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85) 1879년 5월 17일 海軍少佐 山崎景則—花房 代理公使, 「口陳」,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5 仁川開港.

86) 1879년 6월 25일 高雄丸船長 海軍少佐 青木住眞鳳翔艦艦長 海軍少佐 山崎景則—代理公使 花房義實, 「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5 仁川開港.

서 1주일 동안 나가사키로 회항한 다카오마루발 통신으로 언론에 “개항장에 적당한 지역을 측량하여 이윽고 경기도 인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⁸⁷⁾

의견서에 첨부된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에는 영종도, 물치도, 월미도, 사도, 제물포 등의 수심 곳곳을 측량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육필로 기재된 지도의 영문 제목은 ‘West Coast of Korea The Sketch of OLEE STRAIT’이었다. 이 지도의 제작자는 다카오마루에 승선한 미우라 기신(三浦義深) 해군 소위보와 아라키 료이치(荒木亮一) 해군 소위보 외 한 명이였다. 작성일자는 1879년 9월이었다. 아울러 1876년 8월 당시 측량한 결과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3분 50초’, ‘간만 차이 29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측량자는 해군 대위 나카무라 유헌(中村雄飛)와 소위 고다마 가네타카, 대위 반 마사토시(伴正利)였다.⁸⁸⁾ 아울러 향산도(項山島)의 투묘지에 이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해군 수로국에서 기재한 내용까지 나온다. 이렇게 조선 연안을 측량하는 작업을 해온 다카오마루는 1880년 3월 미쓰비시회사(三菱會社)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먼저 돈 후, 히젠(備前)의 호상 세 명이 대가 17만 엔을 일본 정부에 지불하고 이 선박을 구입하였다.⁸⁹⁾ 1880년대 초반 조선 연안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정탐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은 주로 아마기함이 담당하였다.

87) 『郵便報知新聞』(1879년 7월 14일 2면 4단).

8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는 「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峡」이란 제목의 지도로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도는 1877년 3월, 해도 ‘제79호’로 난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89) 『朝日新聞』(1880년 3월 19일 2면 1단) ; 『朝日新聞』(1880년 3월 23일 2면 1단).

3.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1880년 2월 초부터 일본 언론은 아마기함이 조만간 ‘조선해(朝鮮海)’를 도항해 부산과 원산으로 간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⁹⁰⁾ 이해 4월 해군경(海軍卿)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아마기함장 다키노 나오토시(瀧野直俊)에게 8개 조항의 훈령을 내렸다. 아마기함의 조선 파견은 이번에 새로 개항하게 된 함경도 원산진과 관련하여 거류민의 보호와 무역 편리 도모에 있었다(제1조). 원산진으로 부임할 예정인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총영사와 부산에서 만난 후 그를 태우고 원산에 다녀오도록 지시하였다(제2조). 부산에서 원산까지 다녀오는 연안에 500~600톤 규모의 범선이 정박할 만한 항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제3조). 조선으로 도항한 이후 해군 이외의 관리 승선, 소총 사격이나 대포 발사 훈련 등 필요한 업무는 조선 재류 총영사나 영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제5조~제7조). 만약 조선인들이 거칠고 사나운 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여 총영사나 영사에게 통첩하도록 지시하였다(제8조).⁹¹⁾ 조선에 파견된 이후에는 부산과 원산 주재 외무성 관리와 협의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물론 아마기함의 기본 업무는 항만 탐색과 측량, 지도 제작에 있었다.

90) 『大阪日報』(1880년 2월 1일 3면); 『郵便報知新聞』(1880년 2월 6일 2면 3단); 『郵便報知新聞』(1880년 2월 9일 2면 2단).

91) 1880년 4월 海軍卿 榎本武揚→天城艦長 海軍少佐 瀧野直俊, 訓令, 「往出521 天城艦出発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花房義實關係文書』M/F 406-5.

조선국 연해(沿海) 순항 중에는 원산 총영사, 부산 영사와 상의하여 두 곳 거류민의 안녕을 보호하고, 무역의 편리를 도모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한(餘閑)으로 강원도, 경상도의 동안(東岸)에서 선박 피난을 충족할 수 있는 항만을 탐색하고, 그 위치를 정하여 형상을 살피는 일에 종사하며 정밀한 지도(精圖)를 작성하여 훗날의 준거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 … 단, 공사 담판의 형세에 따라 군함의 체박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부산으로 복귀하여 전 조관에 기재한 내용의 준비와 더불어 측량(測量)에 종사해야 한다.⁹²⁾ (밑줄은 인용자)

4월 18일 요코하마에서 출항, 다음날 고베에 입항해 3일간 정박한 아마기함은 5월 3일 부산에 착함하였다.⁹³⁾ 5월 18일 부산에서 출항한 아마기함은 20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6월 2일 원산진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출항하였는데, 도중에 기상 악화로 인하여 아마기함은 강원도 통천군 장전동(長箭洞)에 잠시 기항하였다. 이 지역에서 이를 동안 ‘항구 탐색’을 실시하면서 “해안선과 수심에 대한 약측(略測)을 실시”하였다. 4일 이곳에서 출발한 후 아마기함은 5일 아침 “울령도(鬱靈島, 우리나라[일본-인용자]에서 마쓰시마[松島]라 칭하는 곳) 근방으로 회항”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울령도’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울릉도로는 1878년에 이어 두 번째 항해였다. 아마기함 승선 장교들은 울릉도에 “항구와 정박지 등이 없고 단지 동쪽 해변에 작은 만(灣)이 있어서 좋은 날씨라면 보트를 타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짧게 기술하였다. 아마기함은 울릉도에서 경상도

92) 天城艦へノ訓條大意, 『往々521 天城艦出帆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 『花房義實關係文書』 M/F 406-5.

93) 『東京日日新聞』(1880년 4월 19일 2면) ; 『大阪日報』(1880년 4월 22일 2면) ; 『大阪日報』(1880년 4월 23일 2면) ; 『朝鮮釜山浦通信』, 『東京日日新聞』(1880년 5월 21일 3면).

영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항구 탐색을 계속한 다음, 6월 7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⁹⁴⁾ 부산항 정박 중에는 거류지 ‘수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내 개최 행사에 승선 사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⁹⁵⁾ 아마기함은 부산과 원산을 왕래하며 울릉도를 비롯하여 곳곳을 측량하고 항구를 탐색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6월 19일에는 웅천(熊川) 지방에 가서 아마기함장과 승선원들이 웅천 현감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기상 악화로 잠시 부산에 복귀한 다음 23일에는 울산에 들른 후 원산으로 향하여 25일 입항하였다.⁹⁶⁾ 측량도 제작 작업은 1882년 연말까지 계속하였다. 이것은 아마기함에서 제출한 「조선국 남양만 마산포 약측도(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로 확인할 수 있다.⁹⁷⁾ 중함대사령관 니레 가케노리(仁禮景範)는 새로운 실측도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개항이 확정된 제물포보다 마산포가 “오히려 나은 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⁹⁸⁾ 이 무렵부터 조선의 각 개항장을 순시하며 현지에서 탐문한 조선 국내의 정세 변동까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양상을 아마기함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다케조에 변리공사 도한 시기 인천 정박과 정세 보고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반조함,

94) 1880년 6월 9일 海軍少尉補 小掠元吉海軍少尉 有川貞白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柳檣悅水路局副長 伴鐵太郎,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屈」(Ref. C09114129500).

95) 『西海新聞』(1880년 7월 1일 2면).

96) 『西海新聞』(1880년 7월 3일 2면); “朝鮮通信 元津山發”, 『東京日日新聞』(1880년 7월 30일 3면).

97) 1882년 12월 25일 海軍卿→太政大臣, 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上呈, 「普4169의 3 水路局へ通牒 朝鮮國麻山浦測量圖を天城艦にて調製済」(Ref. C09103597500).

98) 1882년 12월 16일 中艦隊司令官 海軍少將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國南陽灣麻山浦測量圖二付上申, 위의 문서(Ref. C09103597500).

닛신함(日進艦), 곤고함(金剛艦), 히에이함(比叡艦), 세이키함(清輝艦), 모순함(孟春艦), 아마기함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다.⁹⁹⁾ 함선에 장교를 승선시켜 조선 현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선에 건너간 참모본부 소속 호리에 요시스케(堀江芳介) 대좌는 ‘지리실사와 기타 정탐’을 할 목적으로 이소바야시 신조(磯林眞三) 외 3명의 장교를 하나부사 공사가 인천부에 갈 때 동행하도록 하였다. 호리에도 ‘지리연구’를 위해 인천부에 다녀왔다.¹⁰⁰⁾ 이소바야시 일행은 제물포에서 강화도에도 다녀왔는데, 호구 1만 가운데 병력 3천 명이 있으며, 성내에 3백 명이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⁰¹⁾ 이소바야시 대위는 한성 입경 후 ‘남대문 바깥의 지리 연구’를 실시하였고, 호리로부터 “지리 실사의 건을 시기에 따라서 적당히 착수”하라는 지시도 받아 정탐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²⁾

조선과의 협상을 통해 사태 수습을 마친 일본 정부는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군함 두 척이 조선의 개항장에 정박해 있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척은 인천항에 가서 항시 정박해 있도록 지시하였다.¹⁰³⁾ 이해 11월 30일 아마기함은 바칸(馬關)으로 귀항

99) 하나부사 일행의 인천 도착 이후 보고를 위해 부산으로 돌아가거나 원산진으로 기항한 함선별 동향은 니레 해군소장의 전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은 여기에 정박 중인 아마기함만으로는 1,400~1,500명의 거류민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병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본국에 요청한 마에다(前田) 부산총영사의 서한 내용도 미야모토(宮本)가 시모노세키에서 타전한 전보 속에 남아 있다. 1882년 8월 24일 宮本 電報, 『大木喬任關係文書』書類の部 36-8(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1882년 9월 2일 仁川 仁禮 海軍少將一川村海軍卿, 같은 문서.

100) 西村榮雄 編, 『堀江芳介壬午軍亂日記』, 山口縣: みずのわ出版, 2018, 21쪽, 8월 13일 기사.

101) 西村榮雄 編, 앞의 책, 45쪽, 9월 1일 기사.

102) 西村榮雄 編, 앞의 책, 54쪽, 9월 11일 기사; 같은 책, 58쪽, 9월 13일 기사. “兼而御示諭申置候 瀬戸口 磯林 地理實査之御時期見計着手被致度事”

103) 丙號ノ四 1882년 11월 13일 太政大臣 三條實美一海軍省, 「3月9日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하여 인천과 부산 지역 동향을 탐지한 결과물로 「조선국 근시 경황 보고」를 해군성에 송부하였다.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해군경은 이 문건의 내용을 외무경에게도 회람함과 동시에 태정대신에게도 보고하였다.¹⁰⁴⁾ 이듬해 1월 17일에는 일본 정부 내 참의(參議)들에게도 이 문건을 회람하여 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를 일본 정부 내에서 공유하였다.¹⁰⁵⁾ 「조선국 근시 경황 보고」에서는 현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물포에서 영사관 건축이 진행 중이며, 전 ‘훈련대장’ 저택을 공사관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육군 소대 병력이 경비를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⁶⁾ 청국 측 동향과 관련해서는 함선이 매달 6회 텐진(天津)에 가서 보고하거나, 상하이(上海)에 가서 군수품을 운반해 온다고 기록하였다. 근래에 조선 정부에서 척화비(斥和碑)를 제거하였다는 점도 특기하였다. 조선 정계 내 정치 세력은 친청파(親淸派)가 정부 내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친청파 인사로는 김윤식(金允植), 조영하(趙寧夏), 어윤중(魚允中), 김굉집(金宏集)을 들었다. 임오군란 이후 외척 민태호(閔台鎬)는 민응식(閔應植)·민긍식(閔肯植) 형제와 달리 처신하여 국왕과 왕비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민영익(閔泳翊)은 “일본당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청파에 대항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청국 보정부(保定府)에 유폐된 대원군 외에 왕족 이재원(李載元)과 이재면(李載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현명하지 않다’거나

104) 1882년 12월 26일 海軍卿 川村純義→外務卿 井上馨 海軍卿 川村純義→太政大臣 三條實美, 普第4136號ノ3,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5) 1883년 1월 17일,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6) 임오군란 발발 이후 8월 16일 하나부사 공사 일행과 호위 병력이 입경하여 숙소로 삼은 곳은 진고개(泥峴)에 있던 전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종승(李鍾承) 집이었다. 西村榮雄 編, 앞의 책, 25쪽, 8월 16일 기사; 花房義實, 「辦理公使日承」(1882),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卷7, 8월 16일 기사.

‘완고’하다는 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부산포를 잠깐 들렀을 때의 조일 상인 간의 교역 현황은 ‘점차 번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의 대일 수출품은 콩과 쌀이며, 곡물 매입은 조선 동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지 않다고 소개하였다.¹⁰⁷⁾

12월 28일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변리공사는 4차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 일행과 요코하마를 출발, 이듬해 1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¹⁰⁸⁾ 이로부터 5일 후 다케조에는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國書)를 바쳤다.¹⁰⁹⁾ 국서 봉정 소식은 2주 후 일본 정부에도 알려졌다.¹¹⁰⁾ 1월 19일 아마기함장은 인천에서 근황 탐문을 하였다. 한성과 제물포 모두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서 외무성 관리들의 출항과 부임 소식, 조선 정부의 신설 아문으로 ‘내무기무아문’과 ‘외무기무아문’, 직책에 임명된 관리 명단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에 대하여 “이번에 조선국에 와서 자국 풍속을 바꾸어 조선의 의관을 입고 그 나라 직책을 받들어 내외의 기무에 참여”한다고 소개하였다. 뮐렌도르프의 ‘목린덕(穆麟德)’이란 이름은 조선 정부에서 만든 한자식 표기란 점도 부기하였다.¹¹¹⁾

2월 12일자 보고에서는 조선의 ‘개혁아문’에 대하여 좀 더 세

107) 朝鮮國近時景況之報告, 「普4136의2 太政官屈 天城艦仁川釜山等停泊中探知の景況」(Ref. C09103598300);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8) 杉村濬, 『杉村君日記』(日本 栃木縣佐野市郷土博物館 所藏), 1883년 1월 5일; 박한민, 「유길준 《世界大勢論》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 외 지음,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65쪽.

109) 竹添進一郎, 『赴韓日記』, 1883년 1월 10일(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1월 10일.

110) 公第15號 1883년 1월 24일 外務卿 井上馨→太政大臣 三條實美,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11) 城3第10號 當灣近況之報告, 1883년 1월 19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부적으로 명단을 제시하였다. 관서는 ‘군국사무아문’과 ‘총리교섭 통상사무아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직책과 담당자, 의정부 및 지방관, 6조 관리의 명단을 나열하였다.¹¹²⁾ 1월 24일 민영익이 중국으로 출항한 목적은 ‘해관세(海關稅)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하였다.¹¹³⁾ 이 외에는 장악원(掌樂院)에 주둔 중인 일본 병사 가운데 각기병에 걸려서 사망한 자가 다섯 명, 치료를 받는 자가 1중대 안에 5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아마기함은 2월 17일 제물포에서 출항하였다.¹¹⁴⁾

2월 21일 아마기함장은 니레 중함대사령관에게 조선 내 상황을 견문하여 보고하였다.¹¹⁵⁾ 조선 정부 내에서 ‘완고당(頑固黨)’은 그대로인데, ‘개화당(開化黨)’은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져 “알력이 심한” 상태라고 보았다. 국왕의 특단으로 불필요한 관리와 과세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무상의 가난함” 때문에 조선은 “충분히 개화에 이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혁을 단행한 관서와 직원 명단은 ‘군국사무아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기존 관서의 보직자 명단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을 ‘홍순박(洪淳朴)’으로 오기(誤記)한 것만 제외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명단이었다. 민영익과 뮐렌도르프의 상하이행은 관세 조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조약 체결과 100만 엔 정도의 외국채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고 적었다. 함경도에서는 초적(草賊)이 안변(安邊) 지역에

112) ‘군국사무아문’은 통리군국사무아문, ‘총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정확한 기구 명칭이다. 조선 정부는 1883년 1월 12일에 통리내무아문과 통리아문을 각각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하였다.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181쪽.

113) 城第17號 韓京并二仁川灣近時之景況報告, 1883년 2월 12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14)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2월 17일.

115) 1883년 2월 21일 朝鮮政府及京城近時之景況報告,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준동하여 관찰관(辦察官)과 일본인 거류지를 습격하러 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원산 주재 마에다 영사가 호위 군함을 요청한 사실도 기록하였다. 실제로 원산 재류 일본인 가운데 일부가 ‘한행이정(間行里程)’을 벗어나 안변 지역까지 진입하였다가 조선인들과 충돌하여 살상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1882년 3월 31일에 발생한 적이 있었다.¹¹⁶⁾ 안변에서 초적이 습격하러 올 수 있다고 하는 풍문을 듣고 마에다가 호위 병력을 원산에 파견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전년에 경험한 사건의 기억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마기함은 히에이함(比叡艦)과 교대하기 위해 바칸으로 회항하였다.¹¹⁷⁾ 1월과 2월 중 제물포에 정박하면서 아마기함장이 견문하여 채록한 보고 문건은 3월 20일 니레 중함대 사령관이 가와무라 해군경에게 일괄 제출하였다.¹¹⁸⁾

나. 마에다 부산총영사 일행의 남해안 시찰과 신문보도

1883년 당시 아마기함은 인천에만 정박해 있지 않았다. 이해 4월 6일에 아마기함은 이미 부산에 정박 중이었고, 동래부사는 본인의 환갑 연회에 마에다 총영사와 함께 다키노 나오토시(瀧野直俊) 아마기함장을 초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¹⁹⁾ 4월 17일부터 5일 동안 경상도 남해 연안의 통영(統營)과 거제(巨濟), 마산포(馬山浦)를 순시하였다. 통영으로의 항해는 이미 1880년 11월 28일에 한 차례 있었다. 이때 통영의 중군 우후 김병철(金炳哲)이 문정을 위해 함선을 방문하였다. 김병철은 아마기함의 선체

116)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호, 2014, 150~156쪽.

117) 『朝野新聞』(1883년 3월 2일 1면 4단).

118) 1883년 3월 20일 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119) “朝鮮通信”, 『郵便報知新聞』(1883년 4월 24일).

내부를 둘러보고, 공포 발사와 보트 훈련, 총기 사용법 등을 관찰하였다. 통제사 측은 백미와 계란 등의 식품류를 증여하였고, 아마기함에서는 답례로 이불, 부채 등을 주었다고 한다.¹²⁰⁾ 1883년 아마기함에는 마에다 겐키치 총영사, 니시(西) 해군 중위, 통역 쓰노에 나오키(津江直助), 혼간지 별원(本願寺別院)의 오타 유키(太田祐慶), 스즈키 준켄(鈴木順見), 조선인 통역이 승선하였다. 조선인 통역은 동래부사가 통제사에게 보낸 서류를 휴대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의 종자로 일행을 따라간 자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한이 센타로(半井泉太郎)로, 그는 기행을 다녀온 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 기사를 투고하였다.¹²¹⁾

마에다 일행은 4월 17일 오후 6시 통영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다키노 아마기함장과 사관 10명, 니시 중위 등의 일행이 상륙하였고, 통제사 이원회(李元會)와 만났다.¹²²⁾ 19일에는 통제사의 종사관 심의영(沈宜永)과 면담을 한 후 3도 소관 병력 3만 5,878명, 대소 선함 548척, 성 내외의 인구 3만 2천여 명, 지역 특산물, 시장 개설 등을 조사하였다. 20일에는 물길안내인을 소개받아 거제로 이동하였다. 도착 후 마에다 총영사와 아마기함장, 통역 등의 수행원이 상륙, 제승루(制勝樓)에 올라 거제부 백 윤영규(尹泳奎)와 만났다.¹²³⁾ 21일에는 마산포로 이동하였다. 마산포는 “영국인이 가장 주목할 정도”의 장소로 “항구가 꽤나 광대”한 곳이었다. 이들은 창원부백(昌原府伯) 최치영(崔致永)을 만나러 보트를 이용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와 사관들, 통역 등이

120) 『東京横濱毎日新聞』(1880년 11월 27일 2면 4단).

121) 『朝日新聞』 특파원으로 부산에서 오래 활동한 한이 초스이(半井桃李)의 전반적인 활동은 다음 연구가 상세하며, 1883년 당시 마에다 일행의 경남 연안 지역 시찰에 참여한 내용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観：半井桃李と日朝關係』, 東京: 筑摩書房, 1996.

122) 『朝日新聞』(1883년 5월 4일 3면 4단~4면 1단).

123)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昨日の續)”, 『朝日新聞』(1883년 5월 6일 3면 4단~4면 1단).

동행하였다. 마산포의 호구수는 3천 5백 명으로 상인들이 많으며, 물산으로는 곡물과 목면, 사금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다. 최치영은 종자들을 데리고 답례차 아마기함을 방문하였고, 함선 내부를 둘러본 후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8시 아마기함은 마산포에서 출항, 정오에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기행문의 필자는 통영과 마산포 근처에 일본 군함이 들렀다고 하여 상륙을 거절당하거나, 조선인이 돌팔매질로 공격하는 일 없이 우호적으로 맞이해 준 점에 대하여 조일 양국의 교제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친밀해짐을 강조하려는 입장에 서 있었다.¹²⁴⁾ 부산으로 복귀한 아마기함은 5월 20일 제물포에 잠시 들른 다음 나가사키로 돌아갔다.¹²⁵⁾ 6월 9일에는 고베로 이동한 다음 도쿄로 돌아가는 일정을 밟았다.¹²⁶⁾ 이해 10월 인사 발령으로 다키노 아마기함장은 아즈마함장(東艦長)으로, 곤고함 부함장(金剛艦副長) 미우라(三浦) 소좌가 아마기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¹²⁷⁾

1888년 6월 20일 한성에서 ‘유아납치’ 소동이 벌어지면서 불온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아마기함과 반조함에서는 곤도 마스키 주한 일본공사의 정식 파견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해제한 채 ‘시찰’을 명분으로 삼아 병력을 도성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급히 철수시킨 적이 있었다.¹²⁸⁾ 갑신정변 발발 후 청과 일본이 1885년 체결한 「텐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병력 파견을 공문으로 상대국에 사전 통고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124)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一昨日の續)”, 『朝日新聞』(1883년 5월 8일 3면 4단~4면 1단); 上垣外憲一, 앞의 책, 212쪽.

125)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5월 20일.

126) 『朝日新聞』(1883년 6월 12일 1면 2단).

127) 『朝日新聞』(1883년 10월 12일 1면 1단).

128) 박한민,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의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9호, 2018, 422~426쪽.

사례는 아마기함이 조선의 각 개항장을 왕래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는 국면마다 관여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맺음말

1890년대 들어서 아마기함이 다시 조선에 파견되어 지역에 대한 정황을 보고하는 기록은 청일전쟁에서 평양 전투가 진행되던 9월에 나타난다. 9월 20일 아마기함장 하야사키 겐고(早崎源吾)는 상비함대사령관 이토 유코(伊東祐亨)에게 9월 15일부터 5일 동안 대동강 경비를 위해 어은동(漁隱洞) 일대에서 전개한 활동을 보고하였다.¹²⁹⁾ 9월 15일은 평양 전투가 시작된 날이었다. 대동강 입구를 경비하는데 아마기함 외에 반조함과 야마시로마루(山城丸)를 동원하였다. 대동강과 철도(鐵島) 일대는 이미 1889년과 1890년에 반조함이 수심과 지형을 측량한 결과물에 기초해 해군 수로부는 해도 제148호(1891년 9월)과 제149호(1890년 10월), 제151호(1891년 1월), 제59호(1893년 5월)를 각각 간행하였다.¹³⁰⁾ 따라서 간행된 해도를 함선마다 구비하여 정

129) 1894년 9월 20일 天城艦長 早崎源吾一常備艦隊司令長官 伊東祐亨 軍艦天城大
同江回航報告, 「明治28年 朝鮮國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130) 해도 제148호 「朝鮮西岸 大同江」; 해도 제149호 「朝鮮西岸 大同江口」; 해도
제151호 「朝鮮西岸 大同江 鐵島錨地」; 해도 제59호 「朝鮮西岸 延平列島至大同
江」. 반조함의 1889년 측량에는 해군 소좌 다카키 히데지로(高木英次郎), 해군
대위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 해군 대위 오카베 류조(岡部柳造), 1890년에는
해군 소좌 다카키 히데지로, 해군 대위 스즈키 다마키(鈴木環), 해군 소위 오타
산지로(太田三次郎)가 참여하였다. 1890~1891년 해도 간행 당시 수로부장은 해
군 대좌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였다.

박지 내의 함대 운용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6일에는 철도, 17일에는 기진포(棋津浦) 일대까지 보트를 보내 정찰 활동을 하였다. 이때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중영장(中營將) 토포사(討捕使) 아문 외막(外幕) 김광찬(金光燦)과 박영숙(朴永叔)이 위문을 한다면서 아마기함을 방문하였다. 이들과 접촉하면서 육군 병력의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 18일에는 해양도(海洋島) 부근에서 함대의 개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강의 경비를 위해 투묘지를 석도(席島)로 옮겼다. 19일 함선이 기진포로 이동한 후, 병참부 사령관 육군 기병소좌 야마가타 요시아키(山縣則顯)가 함선을 찾아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육지에서 전투 소식이 함선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인근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적지 않게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야마가타의 전언에 따르면 9월 15일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해가 질 무렵 청국군이 백기를 게양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야간에 불의의 급습이 있어 여기에 전군이 분격하여 다음 날 새벽 평양성으로 입성하였다. “적군의 사상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사체가 도로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일본군에서는 “중위 아무개 한 명이 즉사하고, 기타 사상자는 중대마다 5~6명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기록하였다. 9월 16일 육군에서 평양 전투 직후 현지에서 상황을 전보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아마기함장의 전언과 비교해 볼만하다.

사단은 양식 운수의 커다란 곤란에도 불구하고, 각도에서 평양을 향하여 전진하여 어제로 도착한 성의 사면을 포위하고 격렬한 전투를 하던 중 큰 승리를 얻어 오늘 아침 미명으로 완전히 이를 약취(略取)하였다. 적의 대장 좌보귀(左寶貴) 이하 사상, 생포. 기타 병기, 미곡으로 우리 수중에 떨어진 것이 극히 다수이다. 적의

병력은 2만을 청하는데, 어제 이래 무리 한 둘을 이루어 우리 초병선(哨兵線)에서 도망하였을 뿐이다. 기타는 대개 사상 및 포로가 되었다. 우리 군의 사상은 장교 이하 약 3백 명이다.¹³¹⁾

평양에서의 승전 소식을 접한 후 아마기함장은 다시 어은동으로 복귀하여 강 입구의 경비를 계속하였다.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군령부장(軍令部長)의 명을 받고 다음 날 아마기함은 어은동에서 닛을 올려 출항하였다.

이 글에서는 1870년대 하나부사 외무대승이 초량 왜관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러 조선에 파견될 때 승선하였던 가스가함의 활동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1875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운요함의 도발 사건 이후 이듬해 2월에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부산 외 두 곳의 개항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다카오마루, 아마기함 등 일본 군함이 연해에서 어떠한 측량 활동을 벌이고,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을 남겼는지 관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측량 기록은 해도로 작성되었고, 해를 거둬서 측량 작업을 거둬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증수(增修)하는 과정을 거쳤다.¹³²⁾ 또한 「항해일지」 가운데 일부 내용을 편집, 가공하여 『수로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에 게재하면서 항해 관계자의 활용도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갔다. 여기

131) 1894년 9월 16일 오후 1시 50분 中和發 野津 師團長 電報, 「明治28年 朝鮮國 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132) 이 글에서는 군함의 활동에 집중하여 다루지 않았지만, 1884년 12월부터 1885년 1월 사이 육군 참모본부 측량국(測量局)에서 10만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한성, 부산과 원산 지역 지도는 선행연구에서 육군 장교 와타나베 노부루(渡邊述)와 가이즈 미쓰오가 제작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지도는 「釜山近傍略圖」(4장)과 「元山近傍略圖」(5장), 「漢城近傍之圖」(6장)이다. 이 지도는 청일전쟁 당시 제2군 사령관이었던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서에 들어 있다. 『大山巖文書』 60-232425(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小林茂·岡田郷子, 앞의 논문(2008), 21쪽.

서는 조선 연안을 측량하였던 여러 일본 군함 가운데 아마기함이 18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전개한 정탐에 주목하여 활동상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개항 초기 조선 연안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항해일지와 견문록, 해도를 작성한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함선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파견한 함선의 정탐 활동을 동해 연안과 울릉도 측량,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등의 특정 소재로 국한하여 접근한다면 개항 초기 일본 군함의 정탐과 측량 활동 전반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시야를 좁히고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측량 정보의 축적과 연속성은 이듬해 다른 함선의 개항장 선정에서도 기록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조선 연안을 수시로 왕래한 일본 함선의 측량 기록은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적 구성의 연속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880년대 조선의 개항장에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정박하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조선 내부의 정치 변동이나 지역 사회의 분위기 등에 대한 탐문까지도 진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아마기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국면마다 함선별로 조선의 각 개항장에 기항하며 조선의 내정, 개항장 인근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인적 구성의 연속성과 조선에 대한 정보 축적을 고려하면서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마기함 외에 반조함, 닛신함, 가이몬함(海門艦) 등 조선 연안에 파견되었던 일본 함선의 정탐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同文彙考』卷4(國史編纂委員會 編, 1978)

「明治五年ノ七／卷之十七 係于花房大丞渡韓／2 壬申八月二十七日至」
(Ref. B03030170600)

「外入842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諸港測量等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200)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2941600)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300)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3月9日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普4136の2 太政官屈 天城艦仁川釜山等停泊中探知の景況」(Ref. C09103598300)

「普4169の3 水路局へ通牒 朝鮮國麻山浦測量圖を天城艦にて調製濟」(Ref. C09103597500)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屈」(Ref. C09114129500)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明治八年十月五日午後二時外務省ニ於テ海軍省雇ヒ英人ゼームス氏ヲ招キ同氏カ曾テ朝鮮國江華島ニ航シ至リシトキノ景況ヲ問フゼームス答話聞書」(Ref. B03030131600)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堀江芳介壬午軍亂日記』(西村榮雄 編, 山口縣: みずのわ出版, 2018)

『大木喬任關係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山巖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赴韓日記』(竹添進一郎,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三條家關係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杉村君日記』(杉村濤, 日本 栃木縣佐野市郷土博物館 所藏)
- 『水路雜誌』 第18號(日本 水路部 編)
- 『日本外交文書』 卷8-11(日本 外務省 編,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49-1955)
- 『自明治八年至同九年 朝鮮關係 考證彙輯』(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 『朝鮮八域誌』(靑華山人 著, 近藤真鋤 譯, 東京: 日就社, 1881)
-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 卷7(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 『花房義質關係文書』 M/F(北泉社 제작,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樺山資紀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大阪日報』, 『東京日日新聞』, 『東京橫濱每日新聞』, 『西海新聞』, 『郵便報知新聞』, 『朝野新聞』, 『朝日新聞』, 『橫濱每日新聞』

2. 저서

- 金義煥, 『朝鮮對日交涉史研究』, 通文館, 1966
-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강점기』, 法文社, 2011
- 왕위안충 지음, 손성욱 옮김,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너머북스, 2024
-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 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혜주, 『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출판부, 2019

-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 今井庄次, 『お雇い外国人 : 外交』, 東京: 鹿島出版會, 1975
-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と日朝關係』, 東京: 筑摩書房, 1996
- 小林茂, 『外邦圖 : 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東京: 中公新書, 2011
- 小林茂 編,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2017
-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日本水路史 1871~1971』, 東京: 日本水路協會, 1971

3. 논문

- 박한민,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호, 2011
- ,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경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歷史學報』 217집, 2013
- ,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호, 2014
- , 「유길준 《世界大勢論》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 외 지음,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韓國史研究』 202호, 2023a
- , 「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연구』 107호, 2023b
- 양윤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 50호, 2015

_____,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일본 군함 호쇼(鳳翔)의 조선 해안 최초 측량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83호, 2021

小林茂・岡田郷子,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2,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08

小林茂・岡田郷子・渡辺理絵, 「東アジア地域に關する初期外邦圖の編集と刊行」,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4,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10

安岡昭男, 「初期の東京地學協會と軍人」, 『政治經濟史學』 400, 東京: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99

村上勝彦, 「解説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東京: 龍溪書舍, 1981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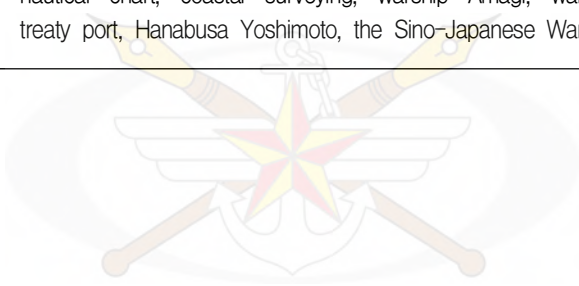
Reconnaissance activities and chart production of Japanese warships in Joseon in the 1870s and 1880s

Park, Han-Mi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activities of Japanese warships that were dispatched to Joseon from the 1870s to 1880s to measure the coast to produce a nautical chart and collect regional information during reconnaissance activities. The warships noted here are Kasuga, Takaomaru, and Amagi, and the records related to the voyage to Joseon remain well. The Kasuga was a warship used by Hanabusa Yoshimoto when he was dispatched to Joseon to take over the Waegwan. At the time of the dispatch of the Kasuga to Joseon, Hanabusa and crew members carried and used books related to the system, history, and geography of Joseon, charts produced by U.S. ships as reference materials. By the time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were signed in 1876 after the warship Unyo incident in 1875, an opinion raising the need to measure the coast of Joseon came out in Japan. The coastal survey was reflected in subsection 7 of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Japanese warships dispatched to Joseon along with diplomatic envoys to explore the treaty ports after the opening of Joseon included Takaomaru and Amagi. The survey record was prepared as a chart, and information on the area was added as the survey work was repeated over the years. In addition, some of the contents of the navigation log were edited and processed

and published in pilot magazines to increase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1880s, the dispatch of Amagi to the port of opening of Joseon shows not only the protection of Japanese residents, but also the political changes inside Joseon and the atmosphere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attern of reporting it to their home country.

Keywords : opening port, reconnaissance,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nautical chart, coastal surveying, warship Amagi, warship Unyo, treaty port, Hanabusa Yoshimoto, the Sino-Japanes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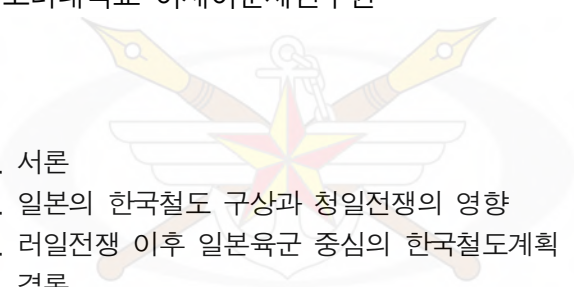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57-97
<https://doi.org/10.29212/mh.2024..133.5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2

청일 ·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박우현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 목 차
1. 서론
 2. 일본의 한국철도 구상과 청일전쟁의 영향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 중심의 한국철도계획
 4. 결론

초 록 이 글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한반도에 철도를 구축하는 과정과 계획을 분석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철도를 부설했기에 처음부터 그 목적은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게다가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철도가 없는 상태로 병참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경부선과 경의선 부설뿐 아니라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반도 철도망 계획은 모두 병참선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1909년 일본육군 참모

본부의 철도 계획은 향후 한반도에 실제로 건설된 철도망과 동일했다. 이처럼 군사적 목적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망 구축은 현재 까지도 한국철도에 동서 간 연결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주제어 : 일본 제국주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철도망, 병참선

(원고투고일 : 2024. 10. 4.,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서론

세계사적으로 철도는 전신, 증기선과 함께 19세기 이후 팽창주의적 제국 체제를 형성하는 동맥이었다. 근대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나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함께한 교통수단이 었다. 큰 규모의 자본 투자,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유통 혁신, 대량 고용 등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는 철도와 함께 성장했다.¹⁾

하지만 전신과 증기선이 그러하듯이 철도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면모만으로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이끌어간 교통기관이라는 점에서 철도가 가진 군사적 측면은 중요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획득하고 그곳에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철도의 군사적 측면은 부각되었다. 가령 비용 대비 편익이 좋지 않더라도, 제국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철도가 부설되었다. 프랑스가 중국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부설했던 윈난철도나, 독일이 탄자니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인 마지마지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키고마(Kigoma) 간 철도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

1) 에밀리 S. 로젠버그 편, 조행복·이순호 역, 『하버드 C.H. 베크 세계사 5, 1870~1945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민음사, 2018, 409~412쪽.

2) 윈난철도에 관해서는 정재현, 「윈난 철도의 건설과 프랑스 제국주의」,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Jean-François Rousseau,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The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5, no. 1, 2014. 독일의 탄자니아 철도 건설은 Charis Enns·Brock Bersaglio, “On the Coloniality of “New” Mega-Infrastructure Projects in East Africa”, *Antipode* 52, no 1, 2020.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과 철도교통을 관련지어 생각할 때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일본의 식민지 철도정책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원난철도를 제외하고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군사적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건설한 철도들은 대부분 국경 충돌이나, 내부 반란 진압이 목표였다.³⁾ 이와 달리 일본이 한반도에 구축한 철도망은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에 둔 것 외에도, 그 군사적 목표가 외부 침략 즉, 식민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가 가진 특성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를 이해하려면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이 목표로 했던 지향점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본격화했던 20세기 초는 이미 전 지구가 제국들에 의해 남김없이 분할된 상태로 주권을 가진 국가는 10개에 미치지 못했다.⁴⁾ 오히려 유럽의 제국들이 끊임없이 진행했던 식민지 확대가 19세기 말, 동북아시아에 이르러 현상 유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확대가 식민본국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식민 지배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지에 대해 회의론이 커졌고,⁵⁾ 전통적 의미의 제국이었던 중국을 특정 국가가 독점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의 패권국가였던 영국은 직접 지배가 어려워진 동북아시아를 경쟁자들, 특히 러시아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 방안으로 택한 방식이 영일동맹에

3) 독일의 탄자니아 철도 건설 사례가 대표적인 내부 반란 진압용이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고자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건설한 철도 역시 국경 충돌을 방어할 목적을 우선 고려한 철도 건설이었다(Ganeswar Nayak,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economy, ecology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3, 2021, pp. 21~22).

4)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7~28쪽.

5) 도널드 서순·유강은 역, 『불안한 승리』, 뿌리와 이파리, 2020, 696~705쪽.

기초한 지역 내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육성이었다.⁶⁾ 일본으로서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직접 지배를 포기한 지역이 눈앞에 놓여있었다. 게다가 패권국의 승인을 얻었기에 군비 확장의 명분을 얻었고, 애초에 군부 세력의 성장이 근대화의 동력이었기에 대외 침략은 손쉬운 선택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제가 구축한 한반도 철도망의 군사적 성격은 영일동맹으로 나아가던 청일·러일전쟁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략을 현실화한 최초의 전쟁이었고, 향후 만주·중국 침략과 러시아(소련)와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확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일·러일전쟁에서의 병참선 운영 경험이 실제 일제의 한반도 철도 부설 및 운영 어떻게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위기감으로 일본이 한반도 철도부설권 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점, 육군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철도망 부설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정치·외교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바 있다.⁷⁾

하지만 실제 청일·러일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한반도 철도망 구축의 방향성,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쟁 당시의 병참선 운영을 분석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일본군이 최초로 해외에서 병참선을 구축했던 청일전쟁의 양상 분석이 중요했는데, 인천-용산 간 병참선 구축에 관한 연구⁸⁾가 제출된

6) 박상현, 「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식민국가의 정치경제」, 『사회와 역사』 111, 2016, 31~32쪽.

7)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大學出版會, 1978;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新平』, 南窓社, 1996;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 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지식산업사, 2005.

8) 遠藤芳信, 「動員実施と1894年兵站体制構築」, 『近代日本の戦争計画の成立』, 桜井書店, 2015.

이래 최근 청일전쟁 시기 일본육군의 한반도 병참 운영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졌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개설적으로만 이해되었던, 인천-용산, 부산-한성, 원산-한성 간 병참선 구축과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부설 등의 구체상이 밝혀졌다.⁹⁾ 본고도 이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청일·러일전쟁을 전후 일본이 한반도 철도에 관해 단행한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하고, 그 조치들이 전쟁을 전후로 겪은 변화들에 집중한다. 나아가 실제 철도가 전쟁에서 병참선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이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 운영 방안과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가 보여주는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한국철도 구상과 청일전쟁의 영향

가. 일본의 대러시아 위협 인식과 경부철도 선로 조사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던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였던 첫 번째 전쟁부터 그 배경에 철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⁰⁾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은 일본뿐 아니라 영국 등 동아시아 패권을 노렸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러시아는

9)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0) 하라 아키라(原朗)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점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각기 '제1차 조선전쟁',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하라 아키라·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38~41쪽).

1877~78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878년 베를린회의에서 영국 등 서유럽 제국들에 의해 발칸 반도, 오스만 제국으로의 남진에 실패한다.¹¹⁾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방향을 바꿔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도모했다. 다만, 시베리아를 넘어 우랄산맥 동쪽으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건설이 필요했다.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 간 대립의 결과였다.

당시 제해권 장악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패권국가로 군림했던 영국으로서는 러시아만이 해상이 아닌 육로라는 지리적 차별성을 매개로 영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 개통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조치였다. 러시아의 육군을 동아시아로 단시일 안에 대량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는 데 반해, 영국의 해군력은 이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은 영국·러시아 간 아프가니스탄 문제나 아시아의 기존 권의 문제까지 균열을 가할 수 있었다.¹²⁾

이에 대응해 영국은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핵심은 영국 외교의 전통이었던 “영광스러운 고립”정책의 포기과 “동맹정책”의 추진이었다.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자금을 제공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 협약(1892.08.18.)과 동맹조약 체결(1894)도 영국의 대외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게 했다.¹³⁾ 영국은 러프동맹과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응할 동맹체제 구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¹⁴⁾

11) 김현수, 「동방문제와 영국정치 1876~1878」, 『사학지』 38, 2006, 185~193쪽; 강윤희,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러시아연구』 28-2, 2018, 15~32쪽.

12) 아마무로 신이치·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 2010, 64~66쪽.

13) 전홍찬,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국제정치연구』 25-1, 2022, 5~11쪽.

14)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4)」, 『군사』 113, 2019, 99~100쪽.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은 인접 국가에도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대륙침략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일본이 향후 국제정치, 군사전략을 재편 즉, 전쟁을 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5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약 7,400km의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 계획이 발표되고 3년 후인 1888년 1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작성한 「군사의견서」에 이미 일본이 느끼는 위협이 반영되어 있었다.¹⁵⁾

야마가타는 「군사의견서」에서 영국·러시아 간 대립이 커지며 분쟁의 씨앗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조선을 꼽았다. 그런데도 아직 양국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두 국가가 동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준비가 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이라고 보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완공되어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연결되면 병력 수송이 원활해지고, 부동항을 찾아 조선을 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러시아가 조선 침략을 개시하는 날은 “동양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 날”이라고 경계했다.¹⁶⁾

물론 이 철도에 관해 무역, 공업 진흥의 관점에서 낙관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그러나 일본 정부 내 여론은 강경론이 우세했다. 앞서 언급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뿐 아니라 1889년 12월 제1차 야마가타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도 러시아가 극동에서 부동항을 구하려 함에 따라 섬나라인 일본의 세력범위를 축소하고 외교활동을 견제함으로써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

15) 하라다 게이이치·최석완 역, 『청일 러일 전쟁』, 어문학사, 2011, 46~47쪽.

16) 大山梓 編, 『軍事意見書』(1888.01),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177~180쪽.

17) 하라다 게이이치, 앞의 책, 2011, 50~51쪽; 최덕규, 「동청철도와 러시아의 만주인식(1894-1904)」, 『만주연구』 36, 2023, 42~44쪽.

건설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항하는 군비 확장 노선을 지지했다.¹⁸⁾ 배경에는 영국의 대러 견제 정책과 동맹체제 필요성 인식이 존재했고, 반러 공동전선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양국이 호응해 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1890년 12월 6일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가 제1회 제국의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1889년 6월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서 배운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을 사용해 ‘이익선’까지 보호하기 위한 군비 확장을 주장하면서 청일전쟁의 단초는 만들어졌다.¹⁹⁾ 1891년 5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이 시작되자, 일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로 청일·러일전쟁기 국수주의, 국민주의 경향의 대외경운동(對外硬運動)²⁰⁾에 앞장섰던 언론인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도 1892년 조선특파원으로 파견된 후 작성한 논설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위협을 강조했다.²¹⁾

그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현재 계획대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성되더라도 공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블라디보스토크는 빙결항(氷結港)이므로, 약 3개월간 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데 러시아가 철도를 부설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항구에 만족할 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분명히 황해를 끼고 있는 항구나 함경도까지 철도를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은 반드시 부산에서 경성을 거쳐 인천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18) 하라다 게이이치, 앞의 책, 2011, 49~50쪽; 최덕규, 앞의 논문, 2019, 101~102쪽..

19) 하라다 게이이치, 위의 책, 2011, 78~79쪽; 가토 요코·윤현명, 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106~112쪽.

20) 대외경운동에 관해서는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8.

21) 나카이 기타로에 관해서는 정애영, 「‘병합사안’을 통해 본 한국병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7, 2007;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28, 2008.

부설해야 하고, 일본의 무역항도 하코다테(函館)나 마이즈루(舞鶴)보다 한반도와 인접한 시모노세키(下関)나 모지(門司)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²²⁾

위기감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거쳐 만주까지 군사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관철도 부설을 추진했다.²³⁾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었다. 경부선뿐 아니라 강제병합 이전 한반도에 놓인 철도망은 대부분 청일·러일전쟁을 계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목적이 농후했다.

물론 철도망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노선 등으로 나누는 방식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일단 놓이면 군사·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철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이 적게 드는 도로만으로 유지해도 뭍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해 철도를 건설하는 지역과 노선이 있다면 지배권력이 그곳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890~1910년까지 일본이 한반도의 특정 지역에 철도망을 급설해야 할 만큼 중요했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군사적 목적뿐이었다.

첫 번째 조치는 철도선로 조사였다.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착수한 다음 해인 1892년 4월, 부산 주재 총영사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가 귀임하자 일본군 참모차장이었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는 그에게 서울~부산 간 철도 부설을 위한 선로 측량 조사를 의뢰하였다. 가와카미 소로쿠는 무로타 요시아야에게 “일본은 장래 필연적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운명인데, 반드시 그 전에 조선에 철도를 부설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²⁴⁾ 무로타는 같은 해 10월에 측량을

22) 中井喜太郎, 「サイベリア大鐵道落成後の朝鮮と日本」, 『讀賣新聞』, 1892.09.26.

23) 경부철도 부설권 획득을 위한 일본 등 열강과 한국 정부의 대립에 대해서는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1~50쪽.

24)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183쪽.

마쳤다.²⁵⁾



〈그림 1〉 : 1915년 조선철도사 수록 경부철도 답사 노선도

* 출처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25) 이노우에 유이치, 앞의 책, 2005, 99~100쪽.

조사 결과를 보면 종래 경성-부산 간 교통망 중 서울(남대문)-용인-죽산-청주-문의-상주-대구-밀양-삼랑진-부산진 노선에 36개 역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²⁶⁾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종래 경성-부산 간 교통망은 3개 노선이었는데, 경상북도 동부 영주에서 죽령을 거쳐 충청북도 단양 부근으로 나아가 서울에 도달하는 동로(東路), 경상북도 김천에서 추풍령을 거쳐 충청북도 영동으로 나가 서울에 도달하는 서로(西路), 두 노선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조령 즉, 문경새재를 넘어 충청북도 괴산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중로(中路)가 그것이었다.

결국 소백산맥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1892년 일본군이 의뢰한 선로 조사에서는 서로와 중로 사이인 문의와 상주 구간을 택했다. 보고서에도 기존 교통망 중 중로는 상주에서 북상해 함창, 문경을 거쳐 조령을 향하는데, 본 조사는 상주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보은, 문의로 나아가는 노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²⁷⁾ 이유는 상주-문경-충주에 이르는 구간에 넘어야 했던 조령의 험준함이었다.²⁸⁾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교통망 중 중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올라가다가 상주에서 서쪽의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나. 청일전쟁기 일본의 한반도 병참선 운영

무로타 요시아야는 측량을 마친 지도를 참모본부, 외무성에 제출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이 지도가 청일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해

26) 정재정, 앞의 책, 1999, 51쪽.

27) 室田義文 → 陸奥宗光, 「自釜山至京城鐵道線路踏查報告書」, 『京釜鐵道敷設一件附京釜鐵道線路保護ノ爲メ巡查常派ノ件・京釜鐵道線路二沿ヒ我利權扶殖計畫ノ件第一卷』(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886900), 1892.11.16.

28)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94~96쪽.

일본군의 행동에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서술했다.²⁹⁾ 이 서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 보고서가 채택한 노선으로 병참선을 구축하고, 군사수송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서울 간 병참선 설치와 일본군의 행군 양상은 보고서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청일전쟁 당시 부산-서울 간 병참선이 설치되어 일본군의 행군이 이뤄졌던 1894년 7월까지 경부철도는 건설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로망을 토대로 병참선이 설치되었고, 병사들은 행군을 통해 이동하였다. 물론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더라도, 무로타가 제출한 노선대로 일본군의 행군이 이뤄졌다면 그의 보고서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 당시 설치된 부산-서울 간 병참선은 위 보고서가 채택한 노선과 달랐다.

청일전쟁 당시 부산-서울 간의 육로 병참선은 부산-인천 간 해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이었다. 풍도해전에서 일본해군이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에 대본영은 해상수송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본영은 거리가 길고, 이른바 신작로도 깔리지 않은 전통적인 도로망뿐이었으나 부산-서울 간 육로 병참선을 설치하는 ‘대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병참총감이 지정한 병참선로는 부산-대구-상주-문경-충주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이었다. 앞서 무로타의 보고서의 기존 교통망 중 중로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간선도로 중 영남대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선이었다.³⁰⁾ 조령 즉, 문경새재를 넘어야 해 험준하다고 평가한 구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에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기 남동부로 올라

29)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187쪽.

30)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46~147쪽.

가 한양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도로였다.³¹⁾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로보다 도로 상태가 좋다고 판단했고, 낙동강과 한강의 수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 병참로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³²⁾ 또한 제1전신가설지대가 북쪽으로 가설했던 일본군용 전신선 루트와 일치하는 노선이었다. 참모본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행군하는 부대에 배포했던 지도도 1892년 무로타가 제출한 보고서가 아닌 1894년 간행한 〈부산항부터 경성에 이르는 동로지〉와 〈부산항부터 경성에 이르는 서로지〉 그리고 〈부산항부터 경성 중로에 이르는 연도지〉였다.³³⁾ 1892년 무로타가 제출한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철도가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도로망을 택하는 것이 비록 문경새재가 험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무더위까지 겹쳐 군수품이 담긴 짐수레는 물론 마필의 통행도 어렵고, 고용한 조선인 인부들의 도망과 식량 부족까지 겪으며 행군을 이어갔다. 그러한 와중에 조령을 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문경새재에서 암석들 사이를 빠져나오며 행군해야 했는데, 경사가 심한 바위를 넘는 도중에 말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결국 행군하던 일본군 제5사단장 일행은 근처에 있던 전신가설지대에게 도로 수선을 지시하여 후발 부대의 안전을 꾀해야 했다. 이처럼 중로를 따라 만든 병참선을 행군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지휘관이었던 제5사단장은 보병 1개 대대만 중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병력은 원산에 상륙시키겠다고 대본영에 보고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본영은 서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에 이를 불허하였다.³⁴⁾

31) 朴相衍, 「小白山脈地域의 交通路와 遺蹟」, 『국사관논총』 16, 1990, 161~163쪽.

32) 조재근,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2024, 185~186쪽.

33) 조재근, 앞의 책, 2024, 167쪽.

34) 魏晨光, 앞의 책, 2023, 150~155쪽.

결과적으로 가와카미 소로쿠 참모차장의 요청으로 무로타 요시아야가 주도해 작성한 1892년 부산-서울 간 철도선로 측량 보고서는 2년 뒤 청일전쟁의 병참선 구축에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의 병참선 운용은 일본 육군이 한반도에 군용철도 부설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후일 최초의 조선총독이자 청일전쟁 직전에 운수통신장관에 임명되어 병참을 책임졌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이후 한반도와 만주에 군사적 목적에 의한 철도 건설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³⁵⁾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된 일본 육군의 대응은 전쟁 중에 수행한 조치와 전쟁 이후의 정책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전쟁 중 수행한 조치는 병참선 운영을 위한 경편철도 부설과 경부철도 노선의 제2차 답사였다. 먼저 경편철도 부설 필요성은 일본군이 평양까지 북상한 후에도 인천에서 용산까지 병참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편철도 부설 필요성은 고다마 겐타로(児兒玉源太郎) 육군차관의 지시로 다케우치 세이사쿠(竹內正策) 혼성제9여단 병참감이 용산-인천 간 도로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894년 9월 10일 작성된 다케우치 보고서는 경인 구간이 땀감과 식수가 매우 부족하고 양화진의 나무터는 홍수가 나면 길이 물에 잠긴다고 지적하며 “더코빌을 부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코빌’은 경편철도의 모델 중 하나로 궤간이 일본의 협궤

35) 이형식,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조선통치」, 『역사와 담론』 91, 2019, 29~30쪽. 이에 더해 데라우치는 1893년 3월 22일부터 철도회 의원으로 참여했고, 의화단사건 이후에 철도회 의장에 임명되는 등 철도교통의 군사적 운영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이후 대륙철도의 광궤식(표준궤를 의미함) 운영, 경부철도 속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임시군용철도감부 편성, 압록강 철교 완공에도 영향을 끼쳤다(黒田甲子郎 編纂, 『元帥寺內伯爵傳』, 元帥寺內伯爵傳記編纂所, 1920, 424~427쪽).

(1,067mm)의 절반에 불과한 5~600mm였다.

육군성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일에 고다마 차관은 다케우치에게 더코빌 경편철도를 경인 구간에 부설할 예정이니 도로를 정찰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5일에 정찰이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고다마는 곧바로 내무성, 체신성, 외무성 등 관련 부처에 통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다마는 무쓰 무네미스(陸奥宗光) 외무대신에게 경편철도를 놓는 이유를 경인 간 병참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겨울에 한강이 결빙되면 군수품을 오로지 육로 운반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³⁶⁾ 무쓰 외무대신도 이를 수용해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재정성 특명전권공사에게 경편철도 부설에 관해 조선 정부가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³⁷⁾

그러나 평양전투가 끝나고 중요 전장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급한 병참선이 인천-용산 구간에서 진남포-평양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병참총감을 겸임했던 가와카미 소로쿠는 10월 7일 고다마 차관에게 결빙기에도 급양을 유지하기 위해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경편철도 부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인천-용산 간 경편철도 건설을 위해 확보한 자재를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건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³⁸⁾ 조선에도 경편철도 부설 구간 변경을 알리도록 했다.³⁹⁾

36) 魏晨光, 위의 책, 2023, 198~200쪽.

37) 陸奥宗光 → 大鳥圭介, 「機密送第六二號 京仁間 軍需品輸送 兵站線路 확보를 위한 교섭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1894.09.17.

38)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335~336쪽; 魏晨光, 위의 책, 2023, 201~202쪽.

39) 陸奥宗光 → 大鳥圭介, 「南浦·馬馳浦와 平壤 간 도고빌 철도부설에 관한 조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1894.10.10.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재료가 운송되지 않았고, 땅이 얼어붙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육군은 서해안을 이용한 해상 운송도 5월까지 이용이 어렵고, 짐꾼을 쓰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전장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남포에서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 연결되는 병참선을 중시하고 있었다. 일회성의 병참선을 위해 철도를 부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육군은 1895년 2월 2일 진남포-평양 간 경편철도를 완공하였다. 물론 이 시기 일본의 주력군은 대부분 의주를 넘어 만주로 진입한 상황이었기에 완공된 경편철도가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았고, 예비 병참선으로만 유지되었다.⁴⁰⁾ 하지만 이후 평양-진남포 간 철도 부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부설이 전쟁 상황에서의 단기적 목표를 위한 조치였다면, 경부철도 부설을 위해 두 번째로 진행된 선로 측량 답사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조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894년 11월 두 번째 경부철도 선로 측량 조사를 실시했다.⁴¹⁾ 주도한 세력은 육군성이었다. 조사도 ‘軍路調査’라고 지칭할 만큼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노선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고, 전쟁 중에 주요 병참선으로 기능했던 인천-서울 구간 조사도 병행했다.⁴²⁾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혼란 상황이라 답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조사대를 호위하던 부대가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동학 세력이 컸던 전라도, 충

40) 魏晨光, 앞의 책, 2023, 202~203쪽.

41) 정재정, 앞의 책, 1999, 51~52쪽.

42) 西郷從道 → 井上馨, 「京城·仁川·釜山間の 철도부설을 위한 軍路調査의 件-軍路 조사 관련」, 『駐韓日本公使館記録』 3, 1894.11.01.

청도는 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⁴³⁾ 물론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까지 답사를 계획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경부철도 구간 이외에도 철도 부설을 위한 선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언급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경부철도 2차 답사노선은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1차 답사노선과 같으나 대구에서 상주가 아닌 인동-김산(현재 김천)⁴⁴⁾에서 추풍령을 넘어 영동, 청주로 올라가 서울에 다다르는 경로였다.⁴⁵⁾ 청일전쟁에서 병참선을 기존의 영남대로를 답습해 구축하며 겪었던 문제들로 인해 일본 육군은 가능한 지형이 험하지 않은 곳을 찾고자 했다. 특히 소백산맥을 어디서 넘어야 할 것인가를 1차 답사 당시 채택했던 상주-보은 구간보다 험하지 않은 곳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육군은 상주에서 보은으로 넘어가는 구간도 문경새재보다는 완만하지만, 여전히 난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추풍령을 횡단하는 구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⁴⁶⁾ 군의 병참선 구축, 군사수송의 원활한 운영을 철도부설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군부에게 노선을 선정하는 기준은 서울 나아가 만주까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느냐 뿐이었다. 실제로 채

43) 井上馨, 「京城·仁川·釜山間の 철도부설을 위한 軍路調査의 件-踏査要員 護衛兵 靑山附近에서 東徒 遭遇 擊退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894.11.27;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第1卷: 創始時代』, 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255쪽.

44) 김산군(金山郡)은 1914년에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개령군(開寧郡), 지례군(知禮郡) 및 성주군 신곡면(薪谷面)과 함께 김천군에 통합된 행정구역이다(「府郡廢合ニ關スル件」, 『府郡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46), 1913.08, 617쪽; 「第二号調査書 面ノ名稱 名稱ノ由來」, 『面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52), 1913.12, 859~861쪽). 20세기 초반 김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이대화, 「20세기 초반 지방제도 개편의 목적과 추진과정」, 『승실사학』 23, 2009.

45) 朝鮮總督府 鐵道局, 앞의 책, 1915, 96쪽.

46) 채택한 본선에 대한 비교선으로 청주에서 조령을 넘어 문경으로 나와 상주, 선산, 인동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노선과, 부산에서 경주를 거쳐 문경에 달하는 노선도 답사했다(朝鮮總督府 鐵道局, 앞의 책, 1937, 255쪽).

택된 경부철도 노선도 위의 2차 답사노선과 1900년 3월에 일본 육군이 재차 주도해 실시했던 4차 답사노선에 가까운 형태로 확정되어 부설되었다.⁴⁷⁾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 중심의 한국철도계획

가. 철도정책의 전환과 러일전쟁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해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부분은 단지 한반도 철도에만 국한되는 정책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어질 전쟁에서 신속한 병참선 운영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주까지 하나의 연결망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도부대의 창설이다. 대본영은 청일전쟁 기간에 한반도에서 인부와 우마의 도주로 인한 병참 기능의 마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병참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로나 수로가 아닌 육로 병참선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철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청일전쟁이라는 실전을 통해 확인했다.

일본 육군의 수뇌부는 전쟁 막바지부터 철도부대에 관련된 법안 제정에 착수했고, 1895년 5월 「임시 철도대 근무령」, 「임시 경편철도대 근무령」이 완성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쟁이 끝난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일본 육군에 의해 작성된 「육군 군비 확장안」에는 철도부대 신설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1896년 3월

47) 정재정, 앞의 책, 1999, 55~58쪽.

일본 육군은 철도대대의 평시편제를 확정했다. 철도부대 상설의 이유로 일본 육군은 시간 절약, 인마 인부의 현지 조달 어려움, 교통과 연락의 확실성 확보 그리고 유럽 각국이 평시에도 철도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이번 전쟁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임시로 1개 철도대를 편성하려 했지만 강화조약으로 포기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술 습득을 위해서라도 개전 이전부터 충원, 소집, 집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⁴⁸⁾ 일본 육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두 번째 조치는 일본에서 실행된 철도 국유화였다. 주지하다시피 1905년까지 일본은 사설철도 노선이 관설철도 노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6년 3월 공포된 「철도국유법」을 통해 일거에 17개 사설철도회사가 국유화된 것은 큰 사건이었다. 그만큼 일본의 철도 관료, 군부, 재계의 의견이 사설철도 주도에서 국유론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⁴⁹⁾

군부의 철도 국유화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청일전쟁 이전까지 참모본부는 ① 표준궤 혹은 광궤 채택, ② 간선의 복선화 ③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간선 경로 변경을 우선시했고, 철도 국유화를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는 청일전쟁을 겪고 난 후 협궤로도 차량제조기술이 향상되어 궤간의 3배까지 적재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속도보다 전국적인 수송 체계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궤간 개축보다 국유화가 시급하다고 견해를 바꾸게 되었다.⁵⁰⁾ 외지에서의

48) 魏晨光, 앞의 책, 2023, 222~227쪽.

49) 일본의 철도국유화 조치에 관해서는 武知京三, 「日本鐵道史に関する一覽書 - 鐵道國有化前後の動向 -」, 『近畿大學短大論集』 14-2, 1982; 松下孝昭, 『近代日本の鐵道政策-1890~1922年』, 日本經濟評論社, 2004; 老川慶喜, 「鐵道國有化の歷史的過程について」, 『立教經濟學研究』 58-4, 2005; 『日本鐵道史-幕末・明治篇』, 中央公論新社, 2014; 恩田睦, 「渋沢栄一の鐵道觀と鐵道國有化政策」, 『明大商學論叢』 106-4, 2024.

50) 老川慶喜, 위의 책, 2014, 190~191쪽.

전쟁을 통해 병참선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군부의 의견 전환이었다. 이는 1906년 3월 철도 국유화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도 국유법안과 동시에 제국의회에 제출된 경부철도 매수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추진한 철도 국유화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와 만주까지의 철도 운영 일원화였다.⁵¹⁾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해 일본 육군이 주도한 정책적 대응의 마지막은 직접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철도를 부설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강제병합 이전 일제에 의해 구축된 한반도 철도망의 핵심은 경부선과 경의선으로 일본에서 만주로 빠르게 직행할 수 있는 종관철도망이었다.⁵²⁾ 그런데 이 외에도 최초의 철도망인 경인선과, 경부·경의선의 지선이었던 마산선(마산-삼랑진)과 평남선(평양-진남포)이 강제병합 이전에 다른 노선들에 비해 빠르게 완공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노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청일전쟁 혹은 러일전쟁 기간에 일본군이 병참선 확보를 위해 경편철도를 부설했거나, 부설할 계획을 하고 있던 구간이라는 점이었다. 평남선과 경인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병참선 확보를 위해 경편철도 부설을 계획했거나, 부설을 시행한 구간이었고, 마산선은 일본이 러일전쟁 도발 직후 경편철도를 부설한 구간이었다.

우선 경인선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유일하게 준공된 한반도 철도였다. 부설권 획득을 위한 열강 간 대립이 치열했으나, 철도가 놓인 노선은 인천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동안 오류동을 거치는 등 청일전쟁 당시 병참선, 병참분견소를 설치했던 곳을 지나갔다.⁵³⁾

51) 정재정, 앞의 책, 1999, 106~110쪽.

52) 경부철도와 경의철도의 부설권 대립, 부설과정과 한국인의 저항 등에 관해서는 정재정, 앞의 책, 1999, 34~110쪽.

53) 遠藤芳信, 『近代日本の戦争計劃の成立』, 櫻井書店, 2015, 814쪽.

그리고 마산선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도발한 직후 마산-삼랑진 구간을 경편철도로 부설해 경부선과 접속하도록 만들었다. 러일 전쟁 시기 일본 정부는 부설 중인 간선철도 경부선에 연결하는 지선 건설을 경계했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인이나 한국인 등에게 지선 부설을 허가하는 것을 경계했다.⁵⁴⁾ 육군의 의도가 가장 크게 반영된 조치였다. 1905년 7월 8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에게 경부선과 경의선에 지선 부설을 청원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철도는 모두 “일본의 군사상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⁵⁵⁾

물론 일본육군의 필요에 따라 부설하는 지선이었던 마산선은 불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산선은 일본 정부가 경부선, 경의선 등 주요 간선만큼 중요시한 철도였다. 러일전쟁 발발 후 한국에서의 정치·군사적 실권 및 경제 이권 확장을 도모한다는 「제국의 대한방침」의 실행지침으로 마련된 「대한시설강령」에도 마산-삼랑진 간 철도 부설권 확보가 명시되어 있었다.⁵⁶⁾ 그 이유는 진해만에 인접한 마산포는 한국 남단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군사 및 경제상 유용하다는 논리였다.⁵⁷⁾

하지만 마산포를 철도로 연결하는 구상은 군사적 목적이 더 컸다. 본래 일본 군부는 부산보다 마산포가 군항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청일전쟁 시기부터 태

54) 萩原 代理公使 → 小村壽太郎, 「京釜鐵道 支線を 충청·전라 양 도에 부설하는 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06.14.

55) 寺內正毅 → 桂太郎, 「(陸軍省 送達) 滿密發 第991號」, 『朝鮮鐵道關係雜件』(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942300), 1905.07.08.

56) 「대한시설강령」(1904)에 대해서는 한성민, 「‘韓國併合’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72, 2021.

57) 小村壽太郎 → 林權助, 「일본 정부의 對韓 施政 방침 훈령 示達 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07.08.

평양 연안에서의 부동항 해군기지로 마산포를 조차하고자 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으로서는 마산포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러일전쟁이 시작되고 발틱함대가 동아시아에 파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상의 군사 거점으로서의 마산포가 더욱 중요해졌다.⁵⁸⁾ 따라서 전쟁 중에도 마산선 부설은 추진되었고, 경편철도가 아닌 표준궤 궤간을 채택해 정부선과 직접 연결하도록 결정해 1905년 5월 21일 준공하였다.⁵⁹⁾

평남선은 러일전쟁 중 추진했다가 선로 부설에 이르지 못했는데, 통감부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09년 9월부터 부설을 재개해 1910년 10월 16일 전 구간을 개통했다. 진남포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로 1897년 7월 목포와 함께 개항장이 되었다. 이후 진남포에는 각국 거류지회, 세관, 일본과 청의 영사관 등이 개설되었다.⁶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남포의 중요성이 부각된 계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일전쟁 당시 경편철도를 부설해 병참선을 유지할 만큼 일본 육군에게 요충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일전쟁 당시 부설했던 경편철도를 근간으로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철도를 부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개항장임과 동시에 청일전쟁 당시부터 확인된 군사적 요충지라는 명분이었다.⁶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육군을 중심으로 추후 한반도에서의 병참선 활용을 위한 철도정책을 다양

58) 러시아의 마산포 획득 시도는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1, 1999; 이노우에 유이치, 앞의 책, 2005, 159~160쪽.

59) 한국철도문화재단 외, 앞의 책, 2019, 45쪽.

60)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26~27쪽.

61) 染谷成章 → 林權助, 「北韓 지방에 日文 電信 개시 건과 平壤·鎮南浦 간을 연락하고 철도 부설의 의의에 대한 上申」,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10.27; 「平壤·鎮南浦 철도에 관한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5.07.01.

하게 펼쳤다. 하지만 마지막 조치인 철도 부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4년 2월 일본이 러일전쟁을 도발할 무렵 한반도에 준공된 철도망은 경인선뿐이었다.⁶²⁾ 경부선·경의선은 물론, 마산선·평남선도 부설 중이거나 계획만 세운 상황이었다. 경부선이 라도 급하게 부설하기 위해 1903년 12월 28일 가쓰라 내각은 칙령으로 「경부철도 조기 완성 명령」을 포고하고, 미착공된 구간의 공사비를 특별보조의 형식으로 1년 한도의 국고보조를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작된 공사는 1904년 3월부터였고, 성현-부강, 영등포-초량 구간은 11월 10일에서야 개통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이미 남만주로 북상하고 있었다.⁶³⁾

결국 러일전쟁 개전 당시 육로 수송이 필요한 부대는 청일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마산에서 도보 행군으로 서울까지 이동해야 했다. 중도에 인천 및 여순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자 해상수송을 통해 인천에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철도가 부설되지 않아 육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청일전쟁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⁶⁴⁾ 한반도 철도망의 병참선 활용은 러일전쟁 시기에도 불가능했다. 주요 기반 시설로써 제국주의 침략의 침병으로 철도와 함께 언급되는 전신은 청일·러일전쟁에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면, 철도는 오히려 전쟁에 활용되지 못하면서 일제가 필요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설적으로 이 시기까지를 한반도 철도망 구축의 역사에서 군사적 목적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까지 침략하겠다는 목적 아래 경

62) 이노우에 유이치, 앞의 책, 2005, 158쪽.

63) 黒田甲子郎 編纂, 앞의 책, 1920, 426~427쪽; 이노우에 유이치, 위의 책, 2005, 159~160쪽.

64) 黒田甲子郎 編纂, 위의 책, 1920, 261~262쪽.

부·경의선의 부설권을 획득하고 속성으로 건설하는 과정까지만 군사적 목적이 다른 요소를 압도했던 시기로 이해한다.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1910년대 경원선 호남선 등 주요 간선이 완공하는 시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육군 등 이른바 대륙침략을 통한 식민지 확대를 꿈꿔왔던 세력은 중국침략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한반도에 구축한 철도·항만 등 교통인프라에 관한 군사적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단지 시기별로 일본 내 정치권력의 중심이 어떤 세력인지에 따른 정책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는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때 식민 본국에 필요한 상품에 편중된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다.⁶⁵⁾

나. 「만한철도경영에 관한 의견서」와 군사철도 구축

결국 러일전쟁 이후, 철도 건설로 이야기하면 경의선 속성 이후에 일본의 한반도 철도정책이 보여주는 군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09년 9월 21일 일본육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만한철도경영에 관한 의견서(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이하 의견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의 대한반도·만주 철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자, 향후 실제로 진행된 한반도 철도망 구축 양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참모본부가 작성한 의견서는 당시 육군대신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제출되었다.

의견서 앞에는 참모총장이 육군대신에게 우선 러일전쟁 후 러

65) 박우현, 「일제시기 조선철도 건설의 성격에 관한 세계사적 검토」, 『식민지적 근대와 조선사회 1』, 선인, 2024, 155~204쪽.

시아의 극동 경영이 활발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고, 만주와 한국에서의 철도망이 러시아에 대항할 중요한 시설임과 동시에 일본군 승패의 관건이므로 이 의견서 내용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⁶⁶⁾ 러일전쟁에 승리했음에도 여전히 일본군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의 남하였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복선화 등 러시아의 극동 철도정책이 완성되면 하루에 34회의 직통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0사단에 달하는 대병력을 가진 러시아가 단시간에 군사수송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견서 작성의 이유였다.⁶⁷⁾

의견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만주·한국 철도망 정비를 한반도 종관철도, 안봉선(안동-봉천), 봉장선(봉천-장춘)을 일대 간선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노선을 지선으로 두는 것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3기로 나눠서 제시했다. 그중 1기만 ‘시베리아횡단철도 복선화 준공 전까지’라는 기한이 제시되어 있었다. 1기 계획은 ① 마산 기점의 한국 종관선 개축, ② 안봉선 개축, ③ 소가둔(蘇家屯) 이북 (주)남만주철도(이하 만철) 본선의 복선화, ④ 경성-원산 철도 부설(경원선), ⑤ 경원-회령-청진 철도 부설(함경선, 도문선)이었다. 2기 계획은 ① 안봉선의 복선화, ② 한국 종관선의 복선화, ③ 원산-청진 철도 부설(함경선), 3기 계획은 평양-원산 철도 부설(평원선)이었다.⁶⁸⁾

이후 의견서는 한국의 종관철도망과 만철 노선을 주요 간선으로 설정하는 이유부터 설명한다. 군의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육상수송과 해상수송이 함께 해 단시일에 병력을 집중

66)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 09.21, 157쪽.

67)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66~167쪽.

68)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0~172쪽.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해운력을 보조할 수 있는 육상교통기관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때에 따라 육상수송력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종관철도망부터 안동-봉천-장춘 간 만철 노선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로 연결된다. 핵심은 제해권이었다. 즉, 제해권 장악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만주로 병력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러일전쟁 후 러시아가 해군 재건에 착수해 6~7년 뒤 황해와 동해의 재해권을 지금처럼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해상수송을 통해 대련으로 향해 거기서부터 만철 본선으로 장춘에 이르는 루트를 대체하는 육상수송루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었다.⁶⁹⁾

또 하나의 이유는 해상수송에 의지해 황해를 거쳐 대련에 도착한 후 장춘에 이르는 해상수송루트에 비해 한국 종관철도와 만철의 지선인 안봉선을 거쳐 장춘에 이르는 육상수송루트가 1일 수송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이었다. 참모본부는 해상수송 루트로 군대와 군수품을 수송할 경우 1일 17열차(군대 13열차, 군수품 4열차), 6,800톤 수송이 가능하다고 계산하였다. 하지만 마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종관철도를 개량해 활용하면 1일 37열차(군대 28열차, 군수품 9열차), 14,800톤까지 수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마산 기점의 한국 종관철도가 대련 기점의 해상수송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육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도 제해권에 의지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참모본부는 한국 종관철도를 군사수송에 적합한 수준까지 건설 및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⁷⁰⁾

69)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3~177쪽.

70)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9~183쪽.

의견서 주장의 골격에 해당하는 위 내용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된 사항이 1기 계획의 ① 마산 기점의 한국 종관선 개축, ② 안봉선 개축, ③ 소가둔 이북 만철 본선의 복선화였다. 특히 1909년 현재 일본육군은 경부선을 한국철도의 주요 간선으로 설정하면서도, 남부 종단항을 부산이 아닌 마산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러일전쟁 당시 마산선 부설 필요성을 제기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육군은 부산은 방비가 곤란해 대군을 양륙시키는 데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마산포는 이미 해군이 군항을 건설하고 있는 진해만이 감싸고 있어 엄호가 가능한 지형이므로, 속히 항만 확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¹⁾ 마산선의 표준궤 개축과 마산항 수축은 일본육군의 군사적 목적에서 부산항보다 중요한 부분이었다.⁷²⁾

이처럼 일본육군은 경부·경의선으로 설명되는, 이른바 한국의 종관철도망을 군사수송에 적합한 수준으로 건설·개량을 진행함과 동시에 함경북도로 향하는 경성-원산 철도, 두만강 일대를 연결하는 경원-회령-청진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유는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북도에 반드시 일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데, 지세가 험하고 물자가 부족해 신속하게 군을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의견서는 북만주에서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장악하기 위한 발판으로 길림-회령 간 철도 즉 길회선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⁷³⁾

건설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시된 노선이 평양-원산 간 철도

71)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184~1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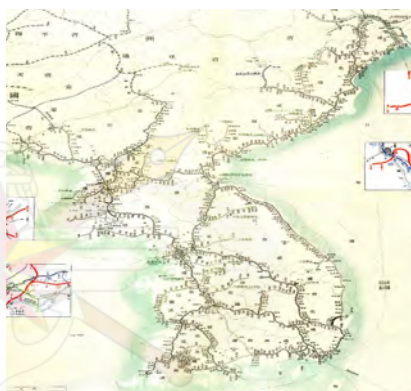
72) 이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는 1930년대 후반에도 마산항은 부산항과 함께 일본군이 중점적으로 조선총독부 재정을 투입하고자 했던 항만으로 자리했다(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141~146쪽; 「1930년대 후반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전시(戰時) 인프라 개발」, 『역사와현실』 132, 2024, 176~184쪽).

73)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188~193쪽.

였다. 의견서에 제시된 모든 노선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노선이었던 것과 달리 평원선은 유일하게 동서를 완벽히 횡단하는 노선이었다. 의견서는 만철 부속지 등 압록강 이북에 주둔할 일본군과 함경북도 두만강 주변에 주둔할 일본군 간 제2 연락선 역할로 작전을 지도하기 위한 철도망으로 평양-원산선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다른 노선에 비해 시급하지 않으므로 3기 계획으로 배치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⁷⁴⁾



〈그림 2〉: 「의견서」 수록 철도망 계획도



〈그림 3〉: 1945년 현재 조선철도망

* 출처: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09.21

* 출처: 朝鮮總督府 交通局, 「朝鮮鐵道略圖」, 1945.8.

의견서가 제시한 한국철도망 건설 및 개량안은 실제로 건설된 철도망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경원선, 함경선, 도문선, 평원선 등은 모두 1910~30년대에 걸쳐 건설되었다. 물론 의견서 상의 계획과 순서 면에서 차이가 있고, 기공 혹은 준공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강제병합 직후 경성-원산을 연결

74)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94쪽.

하는 경원선은 호남선과 함께 부설을 시작했지만, 경원-회령-청진을 연결하는 함경선, 도문선은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도문선은 1927년 실시한 조선철도12년계획에서야 신설 노선으로 포함될 정도로 시간이 걸렸다.

설사 기공했더라도, 공황 등에 의한 일본 재정의 악화, 일본 내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 식민지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의견서에 제시된 일본육군의 계획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른바 정당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군부 세력이 일본정치의 권력을 잡으면 한국철도망 건설 및 개량에 자금이 조달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⁷⁵⁾ 1914년에 기공했으나,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었던 함경선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호전과 철도확장을 통한 대륙침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총리가 되면서 군비확장을 포함한 확장재정정책의 추진이 함께 이뤄지면서 1918년부터 건설비가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⁷⁶⁾

평원선은 1922년 내각과 제국의회에 부설을 승인받았으나, 오랜 기간 완공무용론에 시달리다가,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군사수송 측면에서 동서 횡단철도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1941년에야 완공될 수 있었다.⁷⁷⁾ 의견서 상 2기 계획에 속했던 한국 종관선의 복선화도 1936년에 2.26사건으로 군부가 정권을

75) 특히 1926년 말 1927년 초 조선철도12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헌정회 계열 주요 인사들의 조선철도 건설을 주장하는 움직임에서 잘 나타난다(浜口雄幸傳刊行會編, 『浜口雄幸傳』, 浜口雄幸傳刊行會, 1931, 209~212쪽; 杉山伸也, 「金解禁論爭—井上準之助と世界經濟」, 『帝國日本の學知 第2卷 「帝國」の經濟學』, 岩波書店, 2006, 152쪽; 李炯植,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2007, 107~115쪽).

76) 박우현, 「191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의 전개와 난맥상」,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106~111쪽.

77)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20, 211~232쪽.

장악하자 추진되었다. 일본은 물론 대만보다 조선철도의 복선화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는데, 군부의 정권 장악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물론 경부·경의선에 한정된 복선화였다.⁷⁸⁾

이처럼 의견서에 제시된 계획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을 이해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참모본부의 계획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 조선철도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선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강제병합 이후 조선철도에 관해 육군성·조선군과 조선총독부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⁷⁹⁾

하지만 의견서 상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중단되거나 승인받지 못하는 시기가 길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의견서가 작성된 시기는 육군세력이 일본내각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권력과 경제 상황이 군사계획 혹은 철도·항만 등의 대형 인프라 구축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가깝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일본 내 정치 지형의 변화, 러일전쟁 이후 일본경제의 불황, 제1차 세계대전, 관동

78) 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144~146쪽.

79) 일례로 1925년 5월 조선철도의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영이 재개된 후 조선군과 철도국은 철도의 건설·개량, 차량, 수송 등을 군에 통보·협의하고, 선로 신설, 복선화 개량, 군사수송 등은 사전 협의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參謀本府, 「朝鮮鐵道關係事項に就テ總督府トノ連絡ニ關スル件」, 『密大日記 大正14年 6冊の内第4冊』(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T14-4-9), 1925.04.20.). 특히 군사수송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군사수송위원회를 만들어 조선군사령부 소속 장교가 참여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林采成, 『戰時經濟と鐵道運營』, 2005, 25~26쪽;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23쪽). 또한 1933년 예산편성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철도건설 및 개량비 예산책정 과정에 육군성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까지 했다. 만주사변과 만주국 성립 이후의 정세를 반영한 조치였다(박우현,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재정 위기와 제국의 차별적 대응」, 『한국사학보』 94, 2024, 136~138쪽).

대지진, 세계대공황까지 1910~20년대 일본의 정치·경제적 격변은 계획의 안정적 실현을 어렵게 했다. 참모본부가 대륙침략과 연계된 군사적 목적으로만 대규모 재정자금을 철도·항만 구축에 조달할 수는 없었다.

특히 식민지의 철도·항만 구축에 조달되었던 조선사업공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식민본국인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의 정치·경제적 변화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에 따라 일본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세력의 의사결정에 휘둘렸고, 그 사이에 조선인, 나아가 조선 내 일본인 세력의 의사나, 조선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의견서가 중요하게 제기한 내용인 이른바 ‘만한철도의 통일’ 즉, 만철과 한국철도를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실행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식민통치의 양상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⁸⁰⁾ 이 내용은 강제병합 이후 1911년 5월 참모본부가 한 차례 더 작성해 육군대신과 조선총독을 겸하고 있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제출한 「조선·만주의 철도경영방안(朝鮮・滿州ニ於ケル鐵道經營方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⁸¹⁾ 이는 1917년 7월 31일부터 실시된 조선철도의 만철 위탁경영으로 실현되었다. 이 사안 역시 함경선 건설비 증가처럼 데라우치 내각에서 현실화되었다는 점과 1920년대로 들어서며 일본육군 중심의 대륙침략 시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환원되었다. 일제의 식민정책상 병참선으로서의 조선철도망 구축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0)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204~205쪽.

81) 「朝鮮・滿州ニ於ケル鐵道經營方案」,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文庫-宮崎-49), 1911.05, 454~457쪽.

4. 결론

본고는 청일·러일전쟁의 배경이 된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부터 시작해, 전쟁이 한국철도망 구축의 방향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해보았다. 한반도에 놓인 철도망이 남북을 연결하는 종관노선에 집중되었던 점은 현대 한국의 교통과 도시발달 방향을 결정했다. 여전히 경부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동했다.

물론 산업화를 매개로 철도가 발전했던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안이고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적 연계, 지역 내 발전 등을 고려하며 중심지를 향하는 철도만을 부설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기에 중심지를 거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철도 부설이 함께 진행되었다. 철도의 순기능은 여러 지역을 연결해 다양한 사람과 물자를 옮겨낼 수 있어야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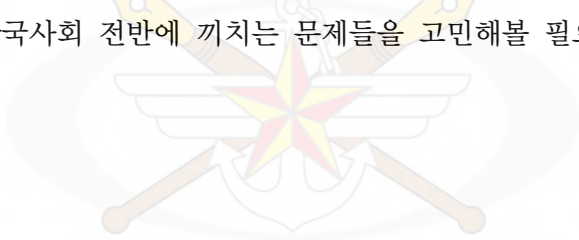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식민지 확대 즉, 대륙침략을 최우선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된 한반도 철도망 건설의 방향성은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30년대 말이 되면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를 향하는 종관철도망이 3개, 40년대 초에는 4개로 늘어났고, 군사수송을 위해 확장된 남부 항만도 4개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철도를 통해 드러낸 욕망은 군사적 목표만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한반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횡단철도 부설을 통해 지역 내 유통망 확대를 요구했다. 대구-남원, 강릉-군산, 대구-광주 간 철도 부설은 조선총독부 계획에도 자리하고 있었던 중요한 노선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철도부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조차 공채를 발행해야 가능했다. 조선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채를 발행할 권한은 식민본국인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대륙침략으로 요약되는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세력이 권력을 잡은 시기에 조선 내 횡단철도 부설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만주로 향하는 철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철도12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부횡단선인 경전선도 결국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한국철도망에 부족한 횡단철도는 동서 간 교류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자,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었다. 수도권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연계해 새로운 경제 권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망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비용-편익을 계산하는 현대사회에서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권역을 만들자는 주장은 굳이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의지해 사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넘어서기 어렵게 되었다.

태생부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확대라는 군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한반도 철도망은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 시기까지 대부분 기간을 동일한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되었다. 흔히 한국철도의 군사적 성격을 이야기

할 때 경제적 성격을 대칭으로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군사적 성격을 중시했으므로 경제적 성격이 반감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경제적 성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철도를 부설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부설했다고 하더라도 평시에는 경제적 목표에 순응해 운영되기 마련이다. 단지 전통적인 중심지와 구별되는 지역이 발전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군사적인 부문에만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소외다. 한국 철도가 처음 부설되던 시기에 나타났던 군사적 목표로의 편중이 만든 종관철도 집중과 횡단철도 소외라는 불균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반에 끼치는 문제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讀賣新聞』『駐韓日本公使館記錄』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 09.21.

「府郡廢合ニ關スル件」, 『府郡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46), 1913.08

寺內正毅 → 桂太郎, 「(陸軍省 送達) 滿密發 第991號」, 『朝鮮鐵道關係雜件』(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942300), 1905.07.08

室田義文 → 陸奧宗光, 「自釜山至京城鐵道線路踏查報告書」, 『京釜鐵道敷設一件附京釜鐵道線路保護ノ爲メ巡查常派ノ件・京釜鐵道線路ニ沿ヒ我利權扶殖計畫ノ件第一卷』(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886900), 1892.11.16

「第二号調査書 面ノ名稱 名稱ノ由來」, 『面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52), 1913.12

「朝鮮・滿州ニ於ケル鐵道經營方案」,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9), 1911.05.

參謀本府, 「朝鮮鐵道關係事項に就テ總督府トノ連絡ニ關スル件」, 『密大日記 大正14年 6冊の内第4冊』(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T14-4-9), 1925.04.20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浜口雄幸傳刊行會 編, 『浜口雄幸傳』, 浜口雄幸傳刊行會, 1931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第1卷 : 創始時代』, 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黒田甲子郎 編纂, 『元帥寺内伯爵傳』, 東京: 元帥寺内伯爵傳記編纂所, 1920

2. 저서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파주: 서해문집, 2018

도널드 서순, 유강은 역, 『불안한 승리』,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20

아마무로 신이치, 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 서울: 소화, 2010

에밀리 S. 로젠버그 편, 조행복·이순호 역, 『(하버드 C.H. 베크) 세계사 5, 1870~1945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서울: 민음사, 2018

오가와라 히로유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파주: 열린책들, 2012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 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5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조재근,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 전쟁과 휴머니즘』, 서울: 푸른역사, 2024

하라 아키라·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파주: 살림, 2015

하라다 게이이치·최석완 역, 『청일 러일전쟁』, 서울: 어문학사, 2011

老川慶喜, 『日本鐵道史-幕末・明治篇』,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4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8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新平』, 東京: 南窓社, 1996

松下孝昭, 『近代日本の鐵道政策-1890~1922年』,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4

遠藤芳信, 『近代日本の戦争計画の成立』, 東京: 桜井書店, 2015

林采成, 『戰時經濟と鐵道運營』,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5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8

3. 논문

강윤희,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러시아연구』 28-2 (2018)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2021)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현수, “동방문제와 영국정치 1876~1878”, 『사학지』 38(2006)

朴相份, “小白山脈地域의 交通路와 遺蹟”, 『국사관논총』 16(1990)

박상현, “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식민국가의 정치경제”, 『사회와 역사』 111(2016)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2020)

박우현, “191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의 전개와 난맥상”, 『한국근현대사연구』 93(2020)

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2023)

박우현, “1930년대 후반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전시(戰時) 인프라 개발”, 『역사와현실』 132(2024)

박우현,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재정 위기와 제국의 차별적 대응”, 『한국사학보』 94(2024)

윤대원,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2015)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이대화, “20세기 초반 지방제도 개편의 목적과 추진과정”, 『승실사학』 23(2009)
- 이형식,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조선통치”, 『역사와 담론』 91(2019)
- 전홍찬,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국제정치연구』 25-1(2022)
- 정애영, “‘병합사안’을 통해 본 한국병합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7(2007)
- 정애영,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28(2008)
- 정재현, “원난 철도의 건설과 프랑스 제국주의”,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1(1999)
-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4)”, 『군사』 113(2019)
- 최덕규, “동청철도와 러시아의 만주인식(1894-1904)”, 『만주연구』 36(2023)
- 한성민, “‘韓國併合’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72(2021)
- 老川慶喜, “鐵道国有化の歴史的過程について”, 『立教経済学研究』 58-4(2005)
- 武知京三, “日本鐵道史に関する一覽書”, 『近畿大学短大論集』 14-2(1982)
- 恩田睦, “渋沢栄一の鐵道觀と鐵道国有化政策”, 『明大商學論叢』 106-4(2024)
- 李炯植,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 『朝鮮學報』 204(2007)
- 杉山伸也, “金解禁論爭-井上準之助と世界經濟”, 『帝國日本の學知 第2卷』, 岩波書店, 2006
- Charis Enns · Brock Bersaglio, “On the Coloniality of “New” Mega-Infrastructure Projects in East Africa”, *Antipode* 52, no 1(2020)
- Ganeswar Nayak,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economy, ecology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21

Jean-François Rousseau,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The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5, no. 1(2014)



<Abstract>

Expa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 network as a Japanese military supply line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Park, Woo-Hyun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and plans of Japan to build railroad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nvade the continent during the Sino-Japanese and Russo-Japanese wars. Japan built the railroa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countering Russia, so its purpose was military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the Japanese realized from the First Sino-Japanese and Russo-Japanese wars that it was impossible to build a logistics system without railroads. As a result, not only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Line and the Gyeongju Line, but also the plans for the Korean Peninsula Railway Network, which were centered on the Japanese Arm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gave priority to the role of logistics lines. In fact, the railway plan drawn up by the General Staff of the Japanese Army in 1909 was identical with the railway network that was eventually buil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rioritization of the rail network for military purposes left behind a lack of east-west connectivity that remains a problem for Korea's railways to this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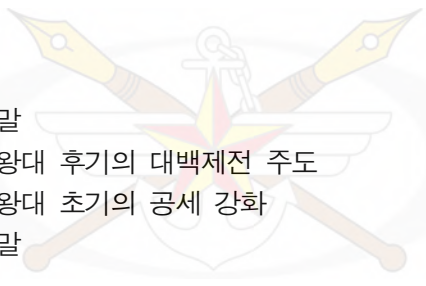
Keywords : Japanese imperialism, First Sino-Japanese War, Russo-Japanese War, Korean railroad network, supply lin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99-135
<https://doi.org/10.29212/mh.2024..133.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라 선덕·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

-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

김덕원 | 명지대학교 강사

- 
- 목 차
1. 머리말
 2. 선덕왕대 후기의 대백제전 주도
 3. 진덕왕대 초기의 공세 강화
 4. 맺음말

초 록 신라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압량주 군주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642년 이전까지 신라는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인 644년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후 진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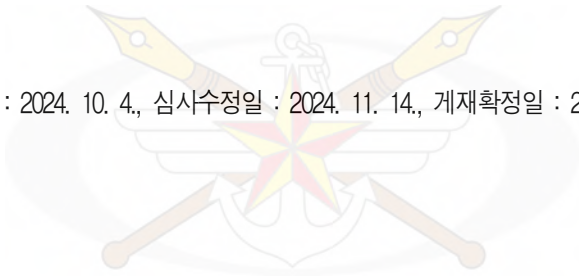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였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김유신, 대백제전, 대야성, 김춘추, 대당외교

(원고투고일 : 2024. 10. 4.,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8.)



1. 머리말

김유신(595~673)은 신라의 진평왕대부터 문무왕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는 대내적으로 상대에서 중대로 왕통이 변화하였고, 대외적으로 삼국통일과 그 연장으로써 나당전쟁이 발생하였다. 김유신은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은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¹⁾ 그의 연령과 활동을 고려하면 진평왕대를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진평왕이 죽은 632년(진평왕 54)에 김유신은 38세인데, 이때는 그의 생애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김유신의 활동은 진평왕대를 기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²⁾ 그 이후는 선덕·진덕왕대와 무열·문무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의 시기들은 김유신의 연령에서 각각 약 20년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과도 일정하게 연관되었다.³⁾

1)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은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신형식은 김유신의 생애를 제1기(10~20대), 제2기(30~40대), 제3기(50~70대)로(신형식,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1981, 342쪽), 정구복은 성장기, 장년기, 노년기로(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유신강인구교수정년기념 동북아고문화논총』, 민창문화사, 2002), 이상훈은 김유신의 활약을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되는 시기, 압량주 군주로서 군사적 입지를 다지는 시기, 군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활약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론총』 17, 2016, 34쪽 주 18) 참조).

2) 김덕원, 「신라 진평왕대 김유신의 활동」, 『신라사학보』 10, 2007 ; 『신라 상대 정치와 불교』, 문현, 2021, 118쪽.

3) 김유신은 선덕·진덕왕대에는 38세~60세이고, 무열·문무왕대에는 60세~79세이다. 또한 그의 활동은 선덕·진덕왕대와 무열·문무왕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을 구분하였던 선행 연구성과의 시기 구분과도 차이가 있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동시대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에서 누락된 부분도 적지 않다. 즉 595년(진평왕 17)에 태어난 이후부터 609년(진평왕 31) 15세에 화랑이 되기 이전까지의 14년과 612년(진평왕 34) 18세에 화랑의 수련을 끝낸⁴⁾ 이후부터 629년(진평왕 51) 35세에 낭비성 전투에 출전하기 이전까지의⁵⁾ 17년, 그리고 낭비성 전투 이후 642년(선덕왕 11) 48세에 대야성이 함락할 때까지 13년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김유신의 생애에서 약 45년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며,⁶⁾ 이 기간은 김유신의 생애와 활동에서도 중요한 시기였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김유신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⁷⁾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김유신의 활동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김유신 개인보다는 선조나 후손들이 포함된 그의 家系, 즉 ‘가야계’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4) 일반적으로 화랑은 15세부터 18세까지 약 3년 정도 수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학보』 82, 1979 ;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339~340쪽).

5)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김춘추의 아이를 가진 누이동생 문희를 불태우려고 하였던 기록이 있다(『삼국유사』 권1, 기이2, 태종춘추공). 문무왕은 626년(진평왕 48)에 태어났기 때문에(이영호, 「신라 문무왕릉비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8, 1986, 68쪽), 이 기록은 적어도 625년 무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김유신은 31세였고, 낭비성 전투에 출전하기 전이었다.

6)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에 김유신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활동이 신이하고 과장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하기에는 부적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춘추도 625년 무렵에 문희와의 혼인하는 기록 이외에 642년에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다. 김춘추가 이때까지 기록이 없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180~183쪽 참조.

7) 김유신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수태, 「신라의 삼국통일과 김유신」, 『영남학』 80, 2022, 117~119쪽 참조.

김유신의 활동보다는 홍무대왕 추봉과 관련된 문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유신의 활동을 연대 기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김유신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유신의 활동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유신의 생애에서 후반기에 속하는 선덕·진덕왕대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김유신 생애 후반기의 절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주목되는 것은 선덕왕대와 진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에서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각 시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후 무열·문무왕대와의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이미 다루어진 분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선덕왕대 후기의 대백제전 주도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629년(진평왕 51) 35세 때 낭비성 전투에 출전한 이후 13년

만의 기록이다. 선덕왕대의 백제 침입은 642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는 백제 무왕대부터 침입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대에도 지속되었다.⁸⁾ 그러나 의자왕의 침입은 이전의 무왕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특히 642년에는 신라의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쪽 변경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⁹⁾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유신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의 싸움을 보복하기 위해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 본국 왕에게 알리니, 왕이 ①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②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¹⁰⁾

2. 선덕대왕 11년 임인에 백제가 대량주를 격파하였을 때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춘추가 이를 한으로 여겨 고구려에 청병하여 백제의 원한을 갚으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춘추가) 장차 떠나려 할 때 유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공과 한 몸이고 나라의 팔다리이다. 지금 ①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면, 공은 무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유신이 말하기를 “공이 만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임금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8) 박종욱, 『백제 사비기 신라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시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8월.

1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겨울.

니까?”라고 하였다. 춘추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공과 더불어 함께 손가락을 깨물며 피를 마시며 맹세하기를 ②“내가 날짜를 계산하여 보건대 60일이면 돌아올 것이다. 만약 이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만나 볼 기약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서로 작별하였다. 후에 유신은 ③압량주 군주가 되었다. 춘추가 사간 훈신과 함께 고구려에 예방하러 갈 때 대매현에 이르니, 고을 사람 사간 두사지가 청포 300보를 주었다. … 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유신은 국내의 ④용감한 군사 3천 명을 선발하고, … 드디어 왕에게 청하여 군사 출동 기일을 정하였다. 그때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이를 (고구려) 왕에게 아뢰었다. (고구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서를 받았고, 또 간첩의 말을 들었으므로 (춘추를) 더 잡아 둘 수가 없어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 유신은 (선덕왕 11) ⑤압량주 군주가 되었다가 13년에 소판이 되었다. … 11)

3. (11년) 유신을 압량주 군주로 삼았다.¹²⁾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고구려 사신 파견에 대한 내용이다. 사료 A-1보다는 A-2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춘추는 고구려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영토 반환 문제로 오히려 감금되었다. 사실 김춘추는 고구려 사행이 신변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료 A-2-①에서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면[我若入彼見害]”이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김유신을 만났던 것은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만약의

11)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1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사태에 대비하여 김유신이 무력으로 구원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은밀하게 내비쳤고, 이에 김유신은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화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되는데, 먼저 당시 김유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한 문제이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629년(진평왕 51) 낭비성 전투에 출전한 이후부터 642년에 대야성이 함락할 때까지 전하지 않는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김유신은 사료 A-1-①에는 대장군으로, A-2-③·⑤와 A-3에는 압량주 군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료 A-1-②에는 결사대 1만 명, A-2-④에는 용감한 군사 3천 명을 모집하고, 선덕왕에게 직접 출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당시 김유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특히 631년(진평왕 53)에 발생하였던 칠숙의 모반 사건은 김용춘과 김서현이 진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⁵⁾ 김유신은 여기에 참여한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도 신라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것으

13) 이문기는 이 시기에 김유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출신 가문의 한계와 골품제로 인한 제약으로 무장으로서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213~214쪽).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겨울의 기록에는 고구려의 보장왕이 평소에 김춘추의 명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에서 김춘추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유신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특히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더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구려에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맹서한 것과 김유신이 김춘추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침입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는 형식적인 이유였고, 후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5) 김덕원, 앞의 책, 2007, 140쪽.

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김유신은 629년 낭비성 전투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였기 때문에 압량주 군주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고구려 사행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계산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사료 A-2-②에서 김춘추는 고구려 사행에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60일이라는 기간은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왕복하는 기간과 고구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김춘추가 사행 기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당시 삼국은 승려 등을 첩자로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첩보전을¹⁶⁾ 전개하였고, 이들은 상대국을 왕래하면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마도 김춘추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행 기간을 미리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춘추 역시 대매현을¹⁷⁾ 거쳐 고구려 경내에 들어간 이후부터 평양성으로 가는 교통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김춘추가 수집한 정보들은 662년(문무왕 2)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할 때 중요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첩자와 첩보전에 대한 연구성과는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檀原考古研究所論集』 5, 吉川弘文館, 1979 ; 김복순,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 1992 ;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 김영수, 「고대 첩자고」, 『군사』 27, 1993 ; 이도하, 「눈부신 신라의 첩보공작」,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2001 ; 강준식, 『우리나라 몰랐던 삼국시대 스파이』, 아름다운책, 2004 ; 김영수, 「고대 첩자연구 시론」, 『백산학보』 77, 2007 ;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군사』 62, 2007 참조.

17) 대매현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신라와 고구려를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고구려 영역에 가까운 곳이나(김창석, 「신라 현재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 연구』 48, 2007, 136쪽) 또는 임진강 근처에 위치한 지명(전덕재, 「신라 중고기 말·중대 초 현재의 실지와 지방관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58, 2021, 270쪽)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무렵에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가 되었다. 그런데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시기를 사료 A-2-③과 A-3에는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기 전으로, A-2-⑤는 신라로 돌아온 후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시기는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전과¹⁸⁾ 사행 후로¹⁹⁾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A-2-⑤의 기록은 뒤이은 13년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의 A-2-③의 기록을 다시 삽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것은 김춘추가 없는 상황에서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김유신은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 이후에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량주 군주가 된 것이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행으로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643년에 신라로 돌아온 이후 김유신과 다시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649년에 당에서 돌아온 이후 김유신을 만났던 사료 G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춘추는 선도해 등 고구려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연개소문 정변 이후의 고구려 국내 정세와 대당 관계 등의 대내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려동맹에 대한 첩보도 확인하였던 것 같다.²⁰⁾ 김춘추는 이러한 내용을 김유신에게 알리면서 백제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 박승범, 「김유신의 생애와 역사적 의의 -그 가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2015, 374쪽 ; 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15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1쪽.

19)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77쪽 주 21) 참조.

20)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a, 20~21쪽.

642년에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부터 대백제전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1. 가을 9월에 왕이 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쳐서, 크게 이겨 7성을 뺏었다.²¹⁾

1-2. 가을 9월에 신라 장군 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와서 7성을 뺏어갔다.²²⁾

1-3. (13년) 가을 9월에 왕이 명하여 상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해성·성열성·동화성 등 7성을 치게 하여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해 가해진을 개통하였다.²³⁾

2. 을사년 정월에 (유신이 왕경으로) 돌아와 왕을 뵈기도 전에 변경을 지키던 관리[封人]가 급하게 백제의 대군이 와서 우리 매리포성을 공격한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또한 유신을 상주장군으로 임명하고, (백제의 공격을) 막도록 하였다. 유신은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말을 타고 아내와 자식을 만나지 않고 (매리포성으로 가) 백제군을 맞아 싸워 물리쳐 2천 명의 목을 베었다.²⁴⁾

3. 3월에 (유신이) 돌아와 왕궁에서 복명하고 미처 집으로 귀가하지도 못하였는데, 또한 급하게 백제 군사가 그 국경 지역에 출동하여 주둔하고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 국경에 이르자, 백제인들이 우리 군대의 방위 태세를 바라보고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곧바로 물러갔다.²⁵⁾

4-1. 여름 5월에 (당) 태종이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므로 왕이 군사 3만 명을 내어 (당 태종을) 도왔다. 백제가 그 빈틈을 타서 나라 서쪽의 7성을 뺏어갔다.²⁶⁾

2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3년 가을 9월.

22)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4년 가을 9월.

23)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5)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

4-2. 여름 5월에 (당) 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신라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는 장군 유신을 보내 쳐들어 왔다.²⁷⁾

위의 기록은 642년 이후 대백제전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642년 이전과는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신라는 642년 이전까지 백제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며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였지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인 644년(선덕왕 13)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료 B-1~3의 기록과 같이 644년 9월에 김유신은 백제를 공격하여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았고 가혜진을 개통하였다.²⁸⁾ 이것은 선덕왕대에 신라가 백제를 처음으로 공격한 기록이다. 그러나 645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는 3만 또는 5만²⁹⁾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백제는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는 등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김유신의 활약으로 이를 물리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한 이후부터 백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전의 방어적인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644년에 백제의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으며 가혜진을 개통하였는데, 이것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⁰⁾ 이로써 신라는 대백제전

2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5년 여름 5월.

28) 최희준은 신라가 가혜성 등 7성을 빼앗은 것은 향후 대고구려전 출병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백제의 역습에 대비하여 서쪽 변경의 보다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비책이라고 하였다(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신라사학보』 54, 2022, 19~21쪽). 그러나 당시 신라가 이러한 문제까지 염두해 두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2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에는 3만 명으로, 『구당서』 권199 (상), 열전149 (상), 동이 신라 및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신라에는 5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30) 박승범, 앞의 논문, 2015, 375쪽.

에서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는 진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선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은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대백제전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47년(선덕왕 16)에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김유신이 진압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1. 봄 정월에 비담과 염종 등이 말하기를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女主不能善理].”라고 하며 반역을 꾀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8일에 왕이 죽었다.³¹⁾

2. 정월 17일에 비담을 목 베어 죽였는데, 그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30명이었다.³²⁾

3. 16년 정미는 선덕왕 말년이고 진덕왕 원년이다. 대신 비담과 염종이 “여자 임금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며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려고 하니, 왕은 스스로 왕궁 안에서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대는 월성에 머물고 있었다. 공격과 방어가 10일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다. … (김유신) 여러 장수와 병졸을 독려하여 힘껏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9족을 죽였다.³³⁾

위의 기록은 상대등 비담의 반란에 대한 내용이다. 645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는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은 실패로 끝났고, 백제는 이 틈을 이용하여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았다. 결국 신라는 아무런 이득 없이 피해만 입는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에 이찬 비담이 상대등이 되었다.

3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 봄 정월.

3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 정월 17일.

33)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비담이 상대등이 된 것은 당시 대당외교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목되는 것은 비담이 상대등이 된 이후 646년의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다.³⁴⁾ 비담은 645년 11월에 상대등이 되었고, 647년 정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646년에 발생하였던 어떤 일이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주불능선리’였기 때문에 646년에 발생하였던 어떤 일은 이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비담은 “여주불능선리”를 주장하며, 선덕왕의 후임과 관련된 왕위계승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⁵⁾

비담의 반란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김유신의 활동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료 C-3에는 김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을 독려하여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여기에 참여하였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김유신의 활동을 부각하여 영웅화시키기 위한 후대의 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덕왕대 말년이 되면 그는 이미 정계의 실세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유신은 642년에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하면서³⁶⁾ 중요한 실세로 급부상하였기 때문에 비담의 반란도 그가 진압하였던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631년(진평왕 53)에 칠숙의 모반 사건을 진압하였던 경험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선덕왕대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642년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김춘추의 고구려 사행과 관련하여 다시 등장하였다.

34) 김덕원, 앞의 책, 2007, 197쪽.

35) 김덕원, 「신라 중고기 반란의 원인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38, 2008 ; 앞의 책, 2021, 105~110쪽.

36) 박승범은 김유신은 선덕왕 말년부터 전쟁을 전담하다시피 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박승범, 앞의 논문, 2015, 370쪽), 642년에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가 되어 대백제전을 주도하며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대백제전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대백제전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계의 실세가 되어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후 진덕왕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진덕왕대 초기의 공세 강화

백제의 침입은 진덕왕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³⁷⁾ 이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주목되는 것은 대백제전에 대한 기록이 648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8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648년 이전의 대백제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1.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무산성·감물성·동잠성의 3성을 에워쌌으므로, 왕이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고전하여 기운이 다 빠졌는데, 유신의 부하 비령자와 그의 아들 거진이 적진에 들어가 급히 공격하다가 죽으니, 무리들이 모두 분발하여 쳐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³⁸⁾

2. 겨울 10월에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감물성과 동잠성 두 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유신이 친히 군사를 격려

37) 이문기는 640년대 말의 전쟁부터 본격적인 신라의 “삼국통일(통합)전쟁”의 개시로 이해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197~198쪽).

3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 겨울 10월.

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싸워 크게 깨뜨리니, 의직은 한 필을 말을 타고 혼자 돌아왔다.³⁹⁾

3.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무산성·감물성·동잠성 등 3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자 왕이 유신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도합 1만 명을 이끌고 막게 하였으나 고전하여 기세가 꺾이자 유신이 비령자에게 말하기를 …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는 감동하고 격분하여 다투어 진격하여 적병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⁴⁰⁾

4. … 진덕왕 원년 정미에 백제가 많은 군사로 무산성·감물성·동잠성 등을 공격하여 오자 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막았는데, 백제 군사가 매우 날쌔어 고전하고 이기지 못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지쳤다. 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적진 깊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 말하기를 … 군사들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감격하여 다투어 나가니, 향하는 곳마다 적의 칼날을 꺾고 진을 함락하여 적병을 대패시켜 3천여 명을 목 베었다. …⁴¹⁾

위의 기록은 647년에 무산성 등 3성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의 보병과 기병 3천여 명이 무산성 등 3성을 침입하자 김유신은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으로 이를 방어하였다. 신라의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군사들이 매우 날쌔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기세가 꺾였다. 위의 사료 D-3의 “죽기를 결심하고 싸워[決死而戰]”라는 기록과 같이 신라는 크게 고전하였다. 이때 김유신의 명을 받은 비령자의⁴²⁾ 활약으로 결국 신라는 백

39)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7년 겨울 10월.

40)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1) 『삼국사기』 권47, 열전7, 비령자.

42) 비령자를 김유신의 소모병(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1978 ;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262쪽)이나 김유신의 사병(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지성인, 2018, 168쪽 주 143) 참조, 또는 김유신의

제를 크게 물리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³⁾

647년에 발생하였던 무산성 등 3성의 전투는 진덕왕대에 발생하였던 최초의 대백제전이였다. 이 전투는 백제의 침입으로 비롯된 것으로 선덕왕대 대백제전의 연속선상에 해당한다. 다만,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가 된 이후부터는 많은 성과를 거두며 승리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대백제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은 647년과는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1-1. 3월에 백제 장군 의직이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압독주도독 유신에게 명하여 이를 도모하게 하였다. 유신은 이에 사졸을 타이르고 격려하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이에 대항하자 유신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협격하였다. 백제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니 유신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⁴⁴⁾

1-2. 봄 3월에 의직이 신라 서쪽 변방의 요거성 등 10여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⁴⁵⁾

2-1. 그때 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에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며 몇 달을 보내니, 주의 사람들이 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여 헐뜯어 말하기를 ... (유신이) 주의 군사[州兵]를 선발 훈련시켜 적에게 나가게

낭도(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813쪽)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43) 김유신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여 극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 ;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232쪽 ;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5쪽 주 66) ; 장창은, 「4~7세기 삼국 간 전쟁포로의 동향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67, 2021, 265쪽).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3월.

4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8년 봄 3월.

하여 대량성에 이르니, 백제가 맞서 대항하였다. 거짓으로 이기지 못하는 척하여 옥문곡까지 후퇴하니, 백제가 가볍게 보아 대군을 이끌고 왔으므로 복병이 그 앞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았고, 목 베거나 포로로 잡은 수가 1천 명에 달하였다. 이에 사신을 백제 장군에게 보내 말하기를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뼈가 너희 나라 옥중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있어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 그대가 죽은 두 사람의 뼈를 보내 살아 있는 8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이에 품석 부부의 뼈를 파내어 관에 넣어 보냈다. … 46)

2-2. 여름 4월에 옥문곡으로 군사를 나아가게 하니, 신라 장군 유신이 맞아 두 번 싸워 크게 이겼다.⁴⁷⁾

3. 드디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을 목 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이찬으로 승진되고 상주 행군대총관에 임명되었다.⁴⁸⁾

4. 다시 적의 영토에 들어가 진례성 등 9성을 무찔러 9천여 명을 목 베고 6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⁴⁹⁾

5-1.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 죽지, 천존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 이곳저곳 이동하며 10여 일 동안 싸웠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도살성 아래 나아가 주둔하였다. 유신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틀림없이 백제인이 와서 염탐할 것이다.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함부로 검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 이에 유신 등이 진격하여 크게 이겨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의

4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8년 여름 4월.

4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9)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목을 베었으며, 전마 1만 필을 획득하였고, 병기와 같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⁵⁰⁾

5-2.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은상을 보내 정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뺏아갔다. … (은상이) 이롭지 못하므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살성 아래에 진을 치고 다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⁵¹⁾

5-3. 태화 2년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왔다. 왕은 유신과 죽지, 진춘, 천존 등의 장군에게 명하여 나가 막게 하였다. 3군을 나누어 다섯 방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승부가 10일이 지나도록 나지 않았다. … 이에 도살성 아래에 진을 쳐서 말을 쉬게 하고 군사를 잘 먹여 다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때 물새가 동쪽으로 날아 유신의 군막을 지나가니 장군과 병사들이 보고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였다. 유신이 이는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금일 반드시 첩자로 오는 백제인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검문하지 말라.”고 하였다. … 이에 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장군인 달술 정충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았으며, 좌평 은상과 달술 자견 등 10명과 병졸 8,980명을 죽이고, 말 1만 필과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다. 그 밖의 (획득한) 각종 기계들도 이와 비슷하였다. 돌아오다가 길에서 항복해 오는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만나자 모두 석방하여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맡겼다.⁵²⁾

위의 기록은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에 대한 내용이다. 648년에는 4차례의 대백제전이 발생하면서 횡수와 규모가 상당하였다. 특히 648년 4월에는 진덕왕대 최초로 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648년은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전

5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3년 가을 8월.

51)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9년 가을 8월.

52)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개하였던 시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던 대당외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김유신은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사료 E-2-1에서와 같이 압량주 주민들의 인심을 확인하였고,⁵³⁾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⁵⁴⁾ 이 과정에서 옥문곡에서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여 품석 부부의 유해와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⁵⁵⁾ 또한 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토를 침입하여 악성 등 12성과 진례성 등 9성 등 21성을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2만 9천여 명의 목을 베고 9천 6백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 약 4만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전개할 때 대내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백제전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김춘추가 대당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김유신은 김춘추의 대당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백제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실제로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유용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53) 사료 E-2-1에서 압량주 주민들이 김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고 헐뜯어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사료 E-1-1의 ‘타이르고 격려하여[訓勵]’라고 하며 인심을 바꾸었다.

54) 이문기는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648년 정월 무렵에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로 재취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2쪽). 김유신은 642년에 압량주 군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약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임한 것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취임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55) 품석 부부 유해의 반환은 처음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품석 부부의 유해와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지 못하였다면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품석 부부의 유해와 백제 장군 8명과의 교환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김유신이 즉흥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태종 황제가 “너희 나라 유신의 명성을 (내가 이미)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유신은 비록 다소의 재주와 지략이 있으나 만약 황제의 위엄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쉽게 걱정거리인 이웃 나라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⁵⁶⁾

위의 기록은 당 태종이 김유신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이다. 당 태종은 이미 김유신에 대한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김춘추에게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다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김춘추는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당 태종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⁵⁷⁾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648년에 이루어진 김유신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것은 김춘추가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이미 김유신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648년에 당으로 떠나기 전에 아마도 김춘추와 김유신은 만났던 것 같다. 이것은 642년에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만났던 사료 A-2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때의 만남에서 김춘추는 대당외교의 성공을, 김유신은 대백제전의 성공을 약속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때에도 역시 삼혈을 하

5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57) 김수태, 앞의 논문, 2022, 124쪽. 김수태는 태종대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 의지가 너무나 강하였으며, 실제로 649년에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되었다. 따라서 당의 전략 수정은 고종대인 65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김덕원,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b, 129~130쪽).

면서 서로 다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당에서 돌아온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다시 만났을 때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G. 춘추가 당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얻기를 청하고 (신라로 돌아)와서 유신을 만나 말하기를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는 명이 있어 살아 돌아와 다시 공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라고 하니, 유신이 답하기를 “저는 국가의 위엄과 명령의 힘에 의지하여 두 번이나 백제와 크게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또 품석공과 그 부인의 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⁵⁸⁾

위의 기록은 당에서 돌아온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다. 648년에 김춘추는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해 12월에⁵⁹⁾ 당에 도착하였다. 당시 전당사는 대체로 3개월,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⁶⁰⁾ 아마도 김춘추는 648년 9~10월 무렵에는 신라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당에 도착한 이후 649년 정월에 당 태종과의 면담에서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⁶¹⁾ 이후 2월에 당에서 출발하여⁶²⁾ 4~5월 무렵에는 신

5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59) 『구당서』에는 윤12월로 기록되었다(『구당서』 권3, 본기3, 태종 정관 22년 윤12월 계미).

60)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220쪽 및 230쪽.

61) 나당동맹은 648년에 성립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48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해이다.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이후 성공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희망’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당 태종의 3가지 계책 등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648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2a, 31~32쪽).

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료 G는 4~5월 무렵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료 G의 기록은 김춘추가 당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 발생하였던 대백제전의 성과를 김유신이 보고하는⁶³⁾ 형식인 것 같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유신이 백제와 크게 싸운 것은 ‘두 번’이라고 한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이라고 한 것은 악성 등 12성과 진례성 등 9성 전투를 의미한다.⁶⁴⁾ 648년에는 ‘두 번’의 전투뿐만 아니라 3월의 오거성 등 10여 성 전투와 4월의 대량성 전투 등 총 4회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량성 전투는 언급하지도 않고, 굳이 ‘두 번’의 전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악성 전투와 진례성 전투는 김춘추가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악성 전투와 진례성 전투는 김춘추가 당으로 떠났던 9~10월 이후에 발생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김유신은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받은 것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즉 김유신은 대야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생포한 백제 장군 8명과 품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자고 백제에 제의하였다. 당시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것이다. 김춘추도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대당외교를 위하여 당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품석 부부의 유해가 반환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품석 부부의 유해 반환도 9~10월 이후에 발생

62) 『책부원귀』에는 649년 2월에 한국한 것으로 기록되었다(『책부원귀』 권109, 제왕부, 연향1, 정관 23년 2월 기사).

63) 이문기는 이때 대화의 주요 내용은 김춘추의 성공적인 외교활동에 대한 述懷와 김유신의 대백제전 전과에 대한 自評이라고 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6쪽).

64)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46쪽. 한편, 이문기는 ‘두 번’의 전투는 옥문곡 전투와 악성 등 12성 공함이라고 하였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6, 226쪽). 그러나 김춘추가 이미 알고 있는 악성 등 12성 공함에 대한 결과를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백제는 악성과 진례성 등에서 많은 피해를 당한 이후 병력 충원의 차원에서 품석 부부의 유해를 반환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유신이 “한 티끌이 쌓인다고 하여 큰 산이 불어나지 않는다[一塵集 大山無所增]”라고⁶⁵⁾ 말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649년에도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여 석토성 등 7성을 함락시켰고, 이에 신라는 김유신 등을 보내 막게 하였다. 그런데 649년의 전투 기록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주목된다. 먼저 이때의 전투에는 김유신 이외에도 진춘, 죽지, 천존 등이 함께 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전까지의 전투에는 김유신만이 기록되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다른 인물들도 함께 기록되었다. 당시 신라 군제의 개편과 더불어 백제의 병력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의 전투 상황이 신라군과 백제군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10여 일 동안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도살성⁶⁶⁾ 아래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첩자를 이용한 反間計를 사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하였다.

다른 하나는 김유신이 출전한 전투에서 처음으로 첩자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은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에 적극적이었으며, 김유신 역시 고도의 심리전과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에 능하였다.⁶⁷⁾ 이것은 김유신이 화랑일 때 첩자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65)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66) 김병남은 649년에 백제의 석토성과 도살성 공격은 한강유역으로 통하는 신라 교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고구려와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신라를 공격한 것이라고 하였다(김병남, 『문헌기록에 보이는 백제와 신라 교전 지역의 이해』, 『전북사학』 70, 2024, 26~27쪽).

67) 주 16) 참조.

H. (유신낭은)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에 검술을 닦아 국선이 되었다. 이때 백석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여러 해 동안 (유신낭의)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유신)낭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백석이 그 계략을 알고 (유신)낭에게 고하기를 “제가 청컨대 공과 함께 은밀히 저편을 먼저 정탐한 후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유신)낭이 기뻐하며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길을 떠났다. ... 68)

위의 기록은 김유신과 백석에 대한 내용이다. 609년(진평왕 31)에 김유신은 15세의 나이에 화랑이 되었다. 이때 고구려와 백제 등이 신라의 국경을 침입하자 이들을 평정할 뜻을 품고 611년에는 중악 석굴에서, 612년에는 열박산에서 수련하였다.⁶⁹⁾ 특히 18세 때인 612년에는 자신의 낭도인 백석과 함께 고구려를 정탐

68) 『삼국유사』 권1, 기이2, 김유신.

69)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김유신이 17세와 18세 때 각각 중악 석굴과 열박산에서 홀로 수련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김유신의 단독 수련이 아니라 그의 무리 즉 용화향도와 매년 함께 하였던 정례적인 수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 김유신은 낭도들과 신의를 맺으며 교류하였고, 낭도들에게는 그가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후 김장창이 김유신의 『행록』을 저술할 때 그를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신이한 행적이 가미되면서 김유신의 단독 수련으로 바뀌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김유신의 낭도 중에서 기록에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62년(문무왕 2)에 68세의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수송을 할 때 함께 출전하였다. 노태돈은 김유신과 열기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화랑과 낭도의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노태돈, 앞의 논문, 1978 ; 앞의 책, 2009, 261쪽 주 27) 참조). 그러나 김유신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대와 더불어 놀 때[吾少與爾遊]”라고 말하였던 기록을 따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김유신의 승려낭도는 그와 일찍부터 두텁게 교류하였던 『삼국유사』 밀본최사에 기록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늙은 거사—老居士’였을 것으로 보인다(『삼국유사』 권5, 신주6, 밀본최사). ‘거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효가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던 사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려고 시도하였다.⁷⁰⁾ 아마도 당시 수가 고구려를 정벌하자 고구려의 대내적인 상황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은 고구려의 첩자였는데, 김유신을 유인하여 고구려로 납치하기 위하여 그의 낭도로 있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나림·혈레·골화 등 3곳의 호국신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어린 김유신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자 첩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⁷¹⁾ 즉 김유신은 백석의 꾀임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하였던 경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첩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첩자들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실제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목되는 것은 백석의 연령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료 H에는 백석이 ‘여러 해 동안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屬於徒中有年]’라고 기록되었다. 화랑도는 청소년 수련단체로써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약 3년 정도 수련하였고,⁷²⁾ 백석도 김유신의 낭도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시 고구려의 첩자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차원을 넘어서 적국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포섭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있다.⁷³⁾ 백석도 잠재적인 적국의 요인인 김유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납치를 시도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첩자 활동을 청소년인 백석이 수행할 수 있었을지

70) 백석과 관련된 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문기, 『『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의 재음미』,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9, 2018, 26~31쪽 참조.

71) 김영수, 앞의 논문, 2007, 38쪽.

72) 주 4) 참조.

73)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 1, 돌베개, 2003, 78~79쪽 ; 김영수, 앞의 논문, 2007, 40쪽.

의문이 든다.⁷⁴⁾ 따라서 백석은 청소년인 일반 낭도보다는 연령이 좀 더 많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⁷⁵⁾

이와 같이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전개하였던 대당외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김유신이 활동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백제의 서남쪽에 이어 서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⁷⁶⁾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648년 3월의 요거성 등의 전투에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백제군을 거의 다 죽였으며, 4월의 옥문곡 전투에서는 1천여 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또한 악성 등 12성의 전투에서 2만여 명을 목 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고, 진례성 등 9성의 전투에서는 9천여 명을 목 베고 6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649년 8월의 도살성 전투에서는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을 목 베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648년 이후의 대백제전에서 김유신은 백제의 군사 약 4만 9천여 명을 목 베거나 사로잡았다. 여기에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는 요거성 전투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인원은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과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⁷⁷⁾ 649년의 도살성 전투와 같이 8,980명

74) 백석이 여러 해 동안 김유신의 낭도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구려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첩자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75) 이와 관련하여 화랑보다 낭도의 연령이 더 많았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참조된 대(이순근, 「신라 귀족세력과 결합한 무인세력」, 『성심여자대학논문집』 23, 1991, 62쪽; 이종욱, 「신라 중고시대의 화랑도」, 『성곡논총』 27-4, 1996, 635쪽; 조범환, 「신라 중고기 낭도와 화랑」,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428~429쪽).

76) 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4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0쪽.

77) 이분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280쪽 ;

이라고 자세한 숫자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제의 병력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제 사비기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최대 4만 명 정도였음을⁷⁸⁾ 감안하면, 백제의 병력 손실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649년 이후 백제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⁷⁹⁾ 이때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이전의 선덕왕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첫째, 선덕왕대에는 대체로 방어적인 면을 보였지만, 진덕왕대에는 648년에 대야성을 탈환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환하였다.⁸¹⁾ 둘째, 선덕왕대에는 비교적 소규모 전투 위주로 발생하였지만, 진덕왕대에는 대규모 전투로 확대되었다. 셋째, 진덕왕대에는 압량주민들을 훈련시키는 등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선덕왕대에 비해 진덕왕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비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430~43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57쪽

78) 강종원, 「백제 사비기 군사 운용체계의 변화와 황산벌 전투」, 『백제학보』 22, 2017, 81~82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2쪽.

79) 649년에 김유신이 스스로 항복해 온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풀어준 것은 이 병사들이 정예군이 아니라 임시로 선발된 노약한 疑兵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는(이문기, 앞의 논문, 1998, 279~280쪽)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록은 당시 백제의 병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0) 장창은은 백제가 642년 이후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5회에 걸쳐 10,729명의 포로를 빼앗겼는데, 이러한 전쟁포로의 동향을 통해서 백제 멸망의 전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장창은, 앞의 논문, 2021, 260쪽). 그러나 전쟁포로보다는 목 베어 [斬首] 죽인 군사의 숫자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81) 김병남은 647~649년 사이의 전투는 백제의 선공→신라의 반격 성공이라는 양국 간의 전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김병남, 앞의 논문, 2024, 26쪽). 그러나 648년에는 신라의 선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담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김유신이 진덕왕대에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8년에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여섯째, 진덕왕대는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손실을 입혔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제의 전력이 약화되면서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선덕왕대 후가진덕왕대 초기의 대백제전 양상

순번	왕대	연대		지역	형태	결과	내 용	비 고
		연	월					
1	선 덕 왕	643	11	당항성	신←백	(승?)	당에 구원 요청, 백제 철수	신본은 642년 8월, 고본은 643년 9월에 기록
2		644	9	가해성	신←백	승	가해성 등 7성 뺏음, 가해진 개통	선덕왕대 최초의 공격
3		645	정월	매리포성	신←백	승	2천 명 참수	
4			3	국경	신←백	(승?)	백제 후퇴	
5			5	국서 7성	신←백	패	7성 빼앗김 김유신이 침입하나 승패는 미상	백본에는 김유신이 침입
6	진 덕 왕	647	10	무산성 등 3성	신←백	승	3천여 명 참수	
7		648	3	요거성 등 10성	신←백	패	요거성 등 10성 함락	
8			4	대량성, 옥문곡	신←백	승	장군 8명 생포, 1천 명 참획	(9~10월 이후 품석 부부의 유해 반환)
9			(9~10 이후)	악성 등 12성	신←백	승	2만여 명 참수, 9천 명 생획	
10			(9~10 이후)	진례성 등 9성	신←백	승	9천여 명 참수, 6백 명 노획	
11		649	8	석토성 등 7성, 도살성	신←백	승	1백 명 생획, 8,980명 참수, 1천 명 석방	

범례 : 신본=『삼국사기』 신라본기, 고본=『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백본=『삼국사기』 백제본기

()는 추정

649년 이후에 백제의 침입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이에 짝하여 김유신에 대한 기록 역시 보이지 않는다. 신라는 백제의 침입으로부터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당제를 수용하며⁸²⁾ 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김춘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그는 무열왕으로 즉위하였다. 김유신은 이러한 과정에서 김춘추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I-1. 진덕왕이 죽자 여러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청하였으나, 알천이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저는 늙고 이렇다 할 덕행이 없습니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 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세상을 다스릴 뛰어난 인물이라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니, 춘추는 세 번이나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왕위에 올랐다.⁸³⁾

2. 영휘 5년에 진덕왕이 죽고 후계자가 없자 유신은 재상 이찬 알천과 논의하여 이찬 춘추를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니, 이가 바로 태종대왕이다.⁸⁴⁾

3. (진덕)왕대에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자장의 아버지이다.>·염장공·유신공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산에 있는 오지암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좌중에 뛰어들어 여러 공들이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붙잡아 땅에 매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았으므로 수석에 앉았으나 모두 유신공의 위엄에 복종하였다.⁸⁵⁾

82) 한준수, 「신라 진덕왕대 당제의 수용과 체제정비」, 『한국학논총』 34, 2010 ; 김덕원,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 49, 2020 ; 박수정,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제도 수용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52, 2021.

8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즉위년.

84)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85) 『삼국유사』 권1, 기이2, 진덕왕.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즉위에 대한 내용이다. 진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유신은 알천과 같이 김춘추의 즉위에 깊이 관여하였다.⁸⁶⁾ 이것은 진덕왕대 김유신의 위상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시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에서 비롯된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김유신의 위상은 사료 I-3의 오지암회의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⁷⁾

당시 왕위계승의 최우선 순위는 알천이었지만, 김유신이 그와 논의한 이후에 김춘추가 즉위하였다. 즉 김유신은 새로운 왕이 선출되기 전에 알천과 담판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바뀌면서 김춘추가 즉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김유신의 위엄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김유신이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킹메이커(kingmaker)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의 활동은 김춘추가 즉위한 이후의 중대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덕·진덕왕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4. 맺음말

신라 선덕왕대에 김유신의 활동은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압량주 군주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김유신이 대백제전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86) 김병곤, 「신라 중대로의 전환기 알천의 역할과 위상」, 『신라문화』 40, 2012.

87) 박남수는 오지암회의가 선덕왕 즉위년부터 5년 사이에 개최된 것이라고 하였다(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168쪽).

것이고, 이후 대백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는 642년 이전까지는 백제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며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644년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대백제전에서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선덕왕대 김유신의 활동은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대백제전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47년(선덕왕 16)에 상대등 비담이 일으킨 반란을 김유신이 진압하며 이후 진덕왕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진덕왕대의 대백제전은 647년(진덕왕 원년)부터 649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647년 무산성 등 3성의 전투는 진덕왕대에 발생하였던 최초의 대백제전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침입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선덕왕대의 연속선상에 해당하지만, 김유신이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648년의 대백제전은 김춘추가 추진하던 대당외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김유신의 대백제전에서의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648년에 대야성의 탈환을 계기로 신라는 대백제전에서의 우위를 점하였고, 신라와 백제의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백제에게 병력면에서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후 전쟁의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백제는 많은 병력을 손실하며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이후 백제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진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유신은 새로운 왕의 선출과정에 관여하며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킹메이커(kingmaker)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김유신의 활동은 김춘추가 즉위한 이

후의 중대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덕·진덕왕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신이한 내용의 설화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유신의 활동을 결론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과대평가하여 확대해석하는 면도 없지 않다.⁸⁸⁾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김유신의 활동을 검토한다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8) 이상훈은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과 관련하여 “... 신라 조정은 전쟁영웅인 김유신을 압량주 군주로 파견하여 방어를 강화했다. 일반 백성들도 김유신의 부임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환영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6, 41쪽). 그러나 김유신은 629년 이후에 활동한 기록이 없으므로 ‘전쟁영웅’과 같은 표현은 결론론에 의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낭비성 전투에서의 김유신의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전쟁영웅’이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1. 저서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G901:A-0008478864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덕원, 『신라 상대 정치와 불교』, 문현, 2021

김복순, 『신라 사상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G901:A-0006617859

노태돈,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G901:A-0006207780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G901:A-0006456812

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 지성인, 2018

신형식,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81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G706+NLKF02-F.oaiInfo.CNTS-00006978788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2. 논문

강종원, 「백제 사비기 군사 운용체계의 변화와 황산벌 전투」, 『백제학보』 22, 2017

DOI : 10.23269/jbs.2017.22.79

김덕원, 「신라 진평왕대 김유신의 활동」, 『신라사학보』 10, 2007

G901:A-0002554243

- 김덕원, 「신라 중고기 반란의 원인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38, 2008
G901:A-0002487774
- 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a
DOI : 10.17948/kcs.2022..95.9
- 김덕원,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b
DOI : 10.23067/tjokch..30.202211.103
- 김병남, 「문헌기록에 보이는 백제와 신라 교전 지역의 이해」, 『전북사학』 70, 2024
G901:A-0011391745
- 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
G704-001251.2008..31.008
- 김수태, 「신라의 삼국통일과 김유신」, 『영남학』 80, 2022
G901:A-0010661600
-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군사』 62, 2007
DOI : 10.29212/mh.2007..62.33
-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G901:A-0002020734
- 박남수, 「통일주도세력의 형성과 정치개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박승범, 「김유신의 생애와 역사적 의의 -그 가계와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1, 2015
DOI : 10.16880/SEC.2015.61.12.351
-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 1, 돌베개, 2003
-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학보』 82, 1979
-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G901:A-0001274570
-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G704-001251.2016.47..008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론총』 17, 2016

DOI : 10.22861/tiks.2016..17.31

장창은, 「4~7세기 삼국 간 전쟁포로의 동향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67, 2021

G901:A-0010599864

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유산강인구교수정년기념 동북아고문화논총』, 민창문화사, 2002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G901:A-0000983372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신라사학보』 54, 2022

G901:A-0010706864



〈Abstract〉

Kim Yu-shin's activities in the King Seondeok and Jindeok period of Silla

— Focusing on the War against Baekje —

Kim, Deok-Won

Kim Yu-shin's activities began after Daeya Castle fell in 642, when he became the Abryangju gunju. This means that Kim Yu-shin became dedicated to the Daebaek Festival, and it later beca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War against Baekje.

Until 642, Silla was on the defensive, but began attacking Baekje in 644. Also, this was shown by Kim Yushin's active activities in the Jindeok period.

The War against Baekje of 648 was carried out in close connection with Daedang diplomacy promoted by Kim Chun-chu. Therefore, Kim Yu-shin's activities at the War against Baekje influenced Kim Chun-chu's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a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Silla-Tang Alliance.

With the recapture of Daeya Castle in 648, the civil war between Silla and Baekje was reversed. Baekje's power weakened due to heavy military damage, and this later became an important cause of its destruction.

Keywords: Kim Yu-shin, the War against Baekje, Daeya Castle, Kim Chun-chu,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37-170
<https://doi.org/10.29212/mh.2024..133.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東眞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 연구

강재광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1219~1222년 동진과 고려의 군사·외교 관계
 3. 1224년 동진의 대고려 화친 시도와 그 성격
 4. 1225~1229년 동진의 고려 침공 및 화친 재시도와 고려의 대응
 5. 맺음말

초 록 고려는 1219년 몽골과 형제맹약을 체결한 후에 동진국과도 외교관계를 맺었다. 동진 사신은 1219~1222년에 갈라로 방면으로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고려에 왔는데, 몽골 사신을 위한 사행길 안내, 몽골 사신 호위 및 세공 운반, 몽골 사신과 세공 배분, 조군 요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224년 1월 몽골에 이반한 동진은 고려에 각장 설치를 조건으로 화친을 제의하였다. 동진 측의 각장 설치 요청은 그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고려는 동진과 화친하고 몽골을 배반하는 것은 장차 몽골군의 침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각장 설치를 거부하였다.

고려가 동진의 화친 제의를 거부하자 1225년부터 고려-동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1227년 9월에 동진군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자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편성하여 맞섰지만 의주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하지만 북계 군사들을 이끌고 화주성으로 들어온 낭장 김이생이 동진군과 싸워 적군을 1,100명이나 베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동진군과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동진은 1229년 2월부터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는데, 이는 몽골이 다시 요동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파견한 특사인 식목녹사 노연은 동진과의 화친 체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무인집정 최우는 예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는데, 진용갑은 동진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북변 사람 예작을 동진국으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예작은 첩자로 오인 받아 동진국에서 처형되었다. 예작 처형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우정권은 외교문서 왕래 등 동진국과 외교적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루트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동진, 동진군, 갈라로, 화친, 각장, 화주성전투, 김이생, 진용갑, 예작, 최우정권

(원고투고일 : 2024. 10. 7.,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동진은 금나라의 요동선무사 蒲鮮萬奴가 1216년(고종 3) 요동의 요양에 세운 大眞國이 몽골세력에 의해 두만강 유역으로 쫓겨 오면서 불리게 된 국호이다.¹⁾ 동진은 1218년(고종 5)을 전후하여 몽골에 복속되어 그들의 부용국이 되었는데,²⁾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에 참전하여 고려와 몽골이 契丹遺種을 섬멸하는데 기여하였다.³⁾ 강동성전투 이후에 동진은 고려 국경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몽골 사신과 더불어 고려에 와서 공물 요구를 하는 등 고려 측과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맺었다. 대몽전쟁기(1231~1259) 이전에 고려는 동진과 화친을 시도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대동진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외교적 현안이었다.

그동안 고려시대사 학계에서는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동진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를 전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는 형편이다.

1) 13세기 초반 등장한 東眞(東夏)에 관한 연구는 국외 학계에서 동진의 건국 과정, 국가적인 성격 및 흥망성쇠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王愼榮·趙鳴岐, 『東夏史』,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朴眞爽, 『東夏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魏志江, 「論金末蒙古·東夏與高麗的關係」, 『韓國學論文集』8, 2000; 薛磊, 『元代東北統治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2) 1216년(고종 3) 10월 몽골군 장수 木華黎에게 투항했으나 얼마 안 있어 反蒙自立 하였던 동진이 다시 몽골에 복속되었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동진이 몽골의 부용국이 되어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에 참여했으므로 1218년(고종 5) 혹은 그해 직전에 동진이 몽골에 다시 복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3) 『高麗史』권103, 列傳16, 趙冲·金就礪·金仁鏡 및 『高麗史節要』권15, 高宗 6년 1월 契丹賊 항복 기사' 참조.

다만, 강동성전투 직후 고려-몽골 사이에서 체결된 兄弟盟約을 중요하게 다루고 나서 부수적으로 강동성전투에서 동진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한 연구들이 산견되고,⁴⁾ 고려 고종 때에 국한하여 고려와 동진의 관계 추이를 분석한 석사학위논문도⁵⁾ 제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동양사적 시각에서 동진이 건국한 후 1233년(고종 20) 멸망하는 시기까지 고려-몽골-금-동진의 역학관계 변화를 분석하면서 고려와 동진의 외교적인 문제(특히 고려-동진 사이 화친 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⁶⁾ 눈에 띄며, 대몽전쟁기(1231~1259)에 동진이 몽골의 부용국이 되어 고려의 동계·춘주도 방면을 침공한 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가⁷⁾ 발견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동진의 전쟁과 화친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1219년 강동성전투에서 대몽전쟁 발발 직전인 1229년(고종 16)까지⁸⁾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벌어진 군사(전쟁 포함)

4) 고병익,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6, 1969; 이개석,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101, 2010; 신안식, 「고려 고종초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연구』30, 2011;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209, 2011; 이개석, 「몽골·동진·고려 연합군에 의한 강동성 함락과 여몽형제맹약의 성격」,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歷史學報』225, 2015; 이익주, 「1219년(高宗 6)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東方學志』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몽골-고려 관계 연구』, 해안, 2019; 이명미, 「강동성의 맹약에서 강화(講和)에 이르기까지」,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5) 이재선, 「고려 고종대 대몽진관계의 추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50, 2017.

7) 강재광, 「대몽전쟁기 동진(東眞)의 고려 침입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한국중세사연구』75, 2023.

8) 대몽전쟁(여몽전쟁)은 1231년(고종 18)에 발발하였지만, 대몽전쟁 이전 고려-동진 사이의 외교관계 기록의 하한선은 1229년(고종 16)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229년까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관계, 외교 관계의 변화상을 분석하여 그 시기 고려-동진 사이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가 지니는 역사적 성격을 밝혀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기에 해당하는 1219~1222년(고종 9)에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과 함께 고려에 파견된 모습을 통해서 동진 사신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사신으로서의 입지가 몽골 사신에 비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을 보필하는 수행자 자격으로서 사행길 안내 및 호위, 고려 측 세공(공물) 운반 및 몽골 사신과의 분배, 금나라 정벌을 위한 助軍 요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론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진이 1224년(고종 11)에 고려에 대해 화친을 시도한 내막과 고려의 외교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동진이 화친 조건으로 고려에 요청한 사안이 무엇이며 고려가 그들의 요청에 쉽사리 호응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여진문자를 이해하고 있었던 동진 사람 周漢의 고려 내투 배경과 개경 조정의 내투인 활용(여진문자 교육)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우선 1225년(고종 12)부터 개시된 동진의 고려 침공과 고려 측의 군사적 대응 모습 및 전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1229년(고종 16)에 동진이 갑자기 고려 측에 다시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왕 고종 및 무인집정 최우가 동진과 화친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개경 조정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북변 사람 銳爵을 통해 동진과 화친을 시도한 내막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천착할 것이다. 특히 대동진관계에 있어서 ‘예작 처형 사

건'이 고려-동진 사이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 하에서 1229년 이후 고려-동진 사이에 최소한의 외교적 교섭 창구는 열어두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그간 관심밖에 있었던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동진 사이의 전쟁 및 화친 시도의 변화가 지니는 역사적 성격이 한결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해본다.

2. 1219~1222년 동진과 고려의 군사·외교 관계

고려가 동진과 맨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은 1219년 강동성 전투 때였다. 1218년 12월 1일에 몽골군 원수 합진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동진군 2만 명과 더불어 거란적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맹주·순주·덕주 4개 성을 공파하고 강동성으로 곧바로 향하였다.⁹⁾ 이때 몽골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던 주체는 동진국왕 포선만노가 파견한 완안자연 휘하의 2만 병력이었는데, 이들의 병력이 몽골군보다 2배가 더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완안자연이 거느린 동진군 2만 명은 몽골군의 부용세력으로 고려의 화주·맹주·순주·덕주 등 4개 성을 공파하였다. 동진군 2만 명이 몽골군과 함께 동계의 화주를 먼저 깨뜨리고 나서 북계의 맹주·순주·덕주를 공파했다는 점에서 동진군은 몽골군과 더불어 동계를 넘어서 북계 방향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진군은 화주·맹주·순주·덕주를 공파하는 데 있어서나 강동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나 몽골 측의 주된 병력으로 활용되었고 공성전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9) 『高麗史』권22, 高宗 5년 12월 己亥.

1219년 1월 강동성전투에서 고려군 원수 조충이 몽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인경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쌀 1천석을 제공하고 몽골·동진 군사와 연합하여 강동성에 농성 중인 거란유종을 섬멸함으로써¹⁰⁾ 3년여에 걸친 거란유종과의 전쟁은 종식되었고 고려-몽골 사이에 야전에서 형제맹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 몽골군은 고려에서 철수하게 되었다.¹¹⁾

이후 동진은 몽골과 화친관계를 끊어버릴 때까지¹²⁾ 몽골의 부용세력으로서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고려 국경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사신 등으로 자주 고려에 왕래하였다. 이보다 먼저 강동성전투 승전 이후 동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주목된다. 1219년 2월 22일에 몽골군 원수 합진이 몽골로 돌아가면서 동진 관인과 겸종 41명을 고려 의주에 남겨두면서 “너희들은 고려 말을 배우면서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¹³⁾라고 말하였다. 몽골군 원수 합진이 동진 관리와 겸종에게 한 말은 유사시 몽골군이 다시 고려에 진입해 올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물론 고려 말을 미리 배워둔 동진 관리와 겸종은 향후 유사시 몽골군의 향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몽골군 원수 합진의 철수 이후 1219년 8월 29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몽골과 동진이 군사를 보내 진명성 밖에 진을 치고 세공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개경 조정에 보고하였다.¹⁴⁾ 진명성은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¹⁵⁾ 지금의 북한 강원

10) 『高麗史』권103, 列傳16, 金仁鏡 및 『高麗史』권103, 列傳16, 趙冲.

11) 『高麗史』권22, 高宗 6년 2월 己未.

12) 동진은 몽골의 칭기즈칸이 호라즘(Khorazm, Khwarezm) 원정을 떠나 자국에 전혀 신경을 쓸 틈이 없게 되자 1224년(고종 11)에 몽골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동진이 몽골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몽골 皇太弟 국왕 幹赤斤의 동진에 대한 탐학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3) 『高麗史』권22, 高宗 6년 2월 己未.

14) 『高麗史』권22, 高宗 6년 8월 壬辰.

15)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조항에서 鎮溟城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도 원산시 용천리에 있던 성이다.¹⁶⁾ 이곳 진명성에 都部署가 설치되어 船軍을 운용하였으므로 진명성은 동계의 북쪽 해안을 여진족으로부터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⁷⁾ 몽골·동진 군사가 도부서가 위치한 진명성에까지 와서 세공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장면이 흥미롭다. 몽골군은 동진군을 향도로 삼아 그들의 도움을 받고서 진명성에까지 내려와서 무력시위를 벌였음에 틀림없다. 이때 몽골군이 동진군과 더불어 진명성을 공격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나¹⁸⁾ 진명성을 최대한 압박하는 한편 향후 세공 독촉을 위한 몽골 사신이 고려에 올 것임을 미리 주지시켰다고 보아진다.

1219년 8월 몽골·동진 군사의 진명성 앞에서의 무력시위 직후, 같은 해 9월 9일에 몽골 사신 11명과 동진국 사람 9명이 고려에 왔다.¹⁹⁾ 이는 동진인이 몽골 사행에 포함되어 고려에 온 최초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몽골인 11명은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온 사신이 분명하고, 동진인 9명은 몽골 사신의 길안내와 호위를 맡은 동진 사신으로 여겨진다. 몽골 사신 11명이 동진인 9명과 함께 왔다는 것은 몽골 사신이 동진국을 경유하여 고려 영토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여·몽 간 ‘형제맹약체제’에서 몽골 사신이 동진국을 경유해서 고려 영토에 들어오게끔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동진국이 위치한 曷懶路 방면을 통하여 고려 동계로 들어왔을 것으로²⁰⁾ 보인다.

이후 1220년(고종 7) 9월에 몽골의 대두령관 감고약과 저고

16) (사)평화문제연구소, 『진명성』, 『조선향토대백과』, 2008.

17) 신성재, 「11세기 동계지역 해상방위와 도부서(都部署) - 진명원흥 도부서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244~250쪽.

18) 1219년(고종 6) 당시는 麗·蒙 사이에서 ‘兄弟盟約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몽골군은 동진군과 더불어 고려의 진명성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19) 『高麗史』권22, 高宗 6년 9월 辛丑.

20)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40쪽.

여²¹⁾가 다시 동진의 2인과 더불어 다시 황태제 幹赤斤²²⁾ 국왕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가 와서 공납할 것을 재촉하자 고려가 다시 방물을 바쳤다.²³⁾ 몽골 대두령관 감고약과 저고여는 동진 사신 2인과 함께 고려에 왔는데,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향도가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감고약·저고여가 다시 황태제 옷치긴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에 왔다고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 해인 1219년 9월 9일에도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²⁴⁾ 감고약·저고여가 요구한 공물 품목과 수량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고려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수효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공 독촉뿐만 아니라 몽골은 고려 측에 조군을 요청해왔다. 1221년(고종 8) 7월에 몽골 사신 山木觥 등이 동진 등 4인과 더불어旨를 전하여 고려에게 여진을 정벌하는 일에 관하여 선유하였다.²⁵⁾ 몽골은 산목대 등 사신을 파견해서 고려가 몽골의 금나라 정벌 사업에 동참해주기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산목대 등 사신을 보낸 주체는 칭기즈칸이라기보다는 황태제 옷치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칭기즈칸은 몽골제국의 전 병력을 소집하여 호라즘 왕국을 이미 공격하고 있었으

21) 著古與는 『高麗史』 高宗世家에서 著古與·瓜古與·扎古也, 『新元史』 本紀와 高麗傳에서는 著古與, 『元史』·『新元史』 洪福源傳에서는 着古與, 『元史』 고려전에서는 扎古雅, 『元高麗紀事』에서는 著古敷로 표기되어 있으며 모두 6가지 異稱으로 나타난다.

22) 幹赤斤은 몽골어로 태무게 옷치긴(Temüge Odčigin)이고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인데, 동방3왕가의 일원으로서 만주의 영토를 지배하였다.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옷치긴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 소나무, 2010 참조.

23) 『元高麗紀事』 太祖皇帝 15년 9월.

24) 『高麗史』 권22, 高宗 6년 9월 辛丑에서는 몽골 사신 11명이 나타나는데 인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런데 몽골 大頭領官 堪古若·著古與가 다시 皇太弟 국왕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에 와서 공납할 것을 재촉했다고 하는 장면을 눈여겨본다면, 감고약·저고여는 몽골사신단 11명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25) 『元高麗紀事』 太祖皇帝 16년 7월.

로²⁶⁾ 고려에 대한 일은 옷치긴이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고려왕은 몽골 사신 산목대 등이 가지고 온 표문을 받고 하례하였으나 그들의 조군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다.²⁷⁾

같은 해에 몽골은 고려에 다시 세공 압박을 위해 사신을 보내왔다. 1221년 8월 8일에 몽골 사신 저고여 등 13명과 동진인 8명 및 부녀자 1명이 고려에 왔다.²⁸⁾ 몽골 사신 저고여는 공물 징수의 총책임자로서 동진인 8명과 더불어 동진국을 경유하여 갈라로 방면으로 고려에 왔던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13일에 몽골·동진 사신 21명 중에서 8명만 대관전의 전에 오르는 것이 허용되자²⁹⁾ 전에 오른 몽골·동진 사신이 몽골 황태제의 군지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고려 측에게 수달피 10,000장,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솜 10,000근, 용단먹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000장, 자초 5근, 홍화·남순·주홍 각 50근, 자황·광칠·동유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몽골 사람이 선호하였던 수달피를 몽골 사신이 맨 먼저 요구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나머지 공물들도 지나치게 많은 수효이거나 고려가 감당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있었다.³⁰⁾ 저고여가 제시하였던 세공 품목들은 이미 동방3왕가의 수장이었던 황태제 옷치긴이 강요했던 것이었다고 보아서 무리가 아니다. 저고여는 옷치긴의 명령에 따라 고려 측이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과도하고도 희귀한 세공 품목들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26) 『元史』에 의하면, 몽골 황제 칭기즈칸은 1218년(고종 5) 호라즘(Khorazm, Khwarezm)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1220년(고종 7)에 호라즘을 멸망시켰다.

27) 당시 고려는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몽골 사신의 금나라 정벌을 위한 助軍 요청에 선뜻 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8) 『高麗史』권22, 高宗 8년 8월 己未.

29) 몽골 사신 13명 중에서 8명만 大觀殿의 殿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몽골 사신 13명 중의 대표자와 동진 사신 8명 중의 대표자를 합한 8명이 대관전의 전에 올랐을 가능성도 높다.

30) 姜在光, 앞의 책, 2011, 41쪽.

동진 사신도 대관전의 전에 올랐다는 점에서, 몽골 사신과 더불어 그들도 고려 세공을 분배해서 나눠가졌을 것으로³¹⁾ 판단된다.

그런데 저고여 등은 몽골 황태제 옷치간의 균지를 전달한 후 각자 품속에 지니고 있던 거친 명주를 고려왕 앞에서 내던져버리는 오만무례를 범하였다.³²⁾ 이는 전년도에 자신이 고려에게서 세공으로 걷어간 명주의 품질이 거칠었던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저고여 등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몽골 원수 찰랄과 포흑대의 서한을 한통씩 꺼내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몽골의 세공 요구는 그 주체 면에서 단일화 되지 못하고 다원적인 것이었으므로³³⁾ 고려 조정으로서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임진일³⁴⁾에 몽골 사신 3명과 동진인 17명이 고려에 다시 왔다.³⁵⁾ 몽골 사신은 동진인의 도움을 받아 고려에 왔을 터인데, 몽골 사신보다 동진 사신의 수효가 훨씬 많은 점이 이례적이다. 이때의 몽골 사신은 고려 측에 세공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로 세공을 걷어가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고 보아지며, 동진인 17명은 고려가 바친 세공을 실제로 갈라로 방면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1222년(고종 9) 5월 22일에 동진에서 소신·아전·훈

31)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67쪽. 고명수는 강동성전투 당시 契丹遺種 토벌에 동진군 2만의 공이 가장 컸으므로 몽골이 고려에 납공을 명할 때 동진에게도 일정량의 물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했고 고려가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다.

32) 著古典 등 몽골 사신의 고려 국왕 고종 앞에서 벌인 험오스러운 오만무례는 향후 고종이 무인집정 최우의 대몽항전을 돕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33) 姜在光, 앞의 책, 2011, 41~42쪽.

34) 『高麗史』世家에 나오는 壬辰日是 日子의 干支 계산에 의하면 고종 8년 12월에는 임진일이 없고, 壬申일이 있다. 이는 『高麗史』찬자가 간지 계산을 잘못했거나 원래 임신일이 맞는데 임진일로 잘못 기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임신일은 12월 21일, 혹은 22일에 해당한다.

35) 『高麗史』권22, 高宗 8년 12월 壬辰.

원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내왔다.³⁶⁾ 이때 동진 사신만 확인되고 몽골 사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³⁷⁾ 그래서 몽골의 부용세력이었던 동진이 소신·아전·혼원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다.³⁸⁾ 같은 해 8월에 몽골 사신 31명이 고려에 왔고,³⁹⁾ 같은 해 10월에 저고여 등 몽골 사신 12인이 고려에 파견되어 고려 측의 세공 납부 실정을 살폈던⁴⁰⁾ 점에 주목한다면 몽골 사신 파견에 훨씬 앞서서 동진이 단독으로 사신 8명을 고려에 파견한 목적이 무엇이었던지가 불투명한 것이다. 아마 생각건대,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고려와 동진이 국경 지대에 각자 榷場을 설치해서 상호 무역을 하자고 설유하기 위해 고려에 파견된 사신이 아닐까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1223년(고종 10) 8월에 몽골 사신 산목대가 동진인 12명과 더불어 고려에 다시 와서 옷치간의 서신을 보여주며 고려 측에게 공납을 재촉하였다.⁴¹⁾ 몽골 사신 산목대와 함께 온 동진인 12명은 산목대를 호위하는 한편 고려의 공물을 갈라로 방면으로 운반해가기 위해서 온 동진 사신들로 여겨진다. 이때 파견된 동진 사신들은 몽골과의 화친관계를 깨트리기 직전에 몽골 사신과 더불어 고려에 온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⁴²⁾

이상을 요약하면, 동진은 몽골군과 더불어 고려 국경에서 무

36) 『高麗史』권22, 高宗 9년 5월 甲子.

37) 동진이 1224년(고종 11) 몽골과 화친을 깨뜨리기 이전에 단독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유일한 사례이다.

38) 1222년(고종 9) 5월 22일에 동진에서 단독으로 召信·阿典·渾垣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내와 그들이 고려 측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9) 『高麗史』권22, 高宗 9년 8월 癸巳.

40) 『元高麗紀事』太祖皇帝 17년 10월.

41) 『元高麗紀事』太祖皇帝 18년 8월.

42) 1223년(고종 10) 8월까지만 동진은 몽골 사신과 동행하면서 고려에 왔고, 1224년(고종 11) 1월 이후에 동진은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력시위를 하며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강요하여 결국 형제맹약 체제에 의거하여 몽골이 고려로부터 해마다 세공을 받아가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갈라로 방면으로 고려에 입경하였는데, 몽골 사신을 위한 길안내, 호위 및 세공 운반 역할을 담당하였고 금나라 정벌을 위한 조군도 요청하였다. 몽골 사신뿐만 아니라 동진 사신의 대표자도 고려 궁궐 대관전의 전에 올라갔을 만큼 고려는 동진 사신을 대우해야 했으며,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과 협의 하에 고려 측 세공을 나눠가지는 등 형제맹약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1224년 동진의 대고려 화친 시도와 그 성격

동진은 1224년에 몽골과의 우호관계를 끊고, 갑자기 고려와 화친을 시도하였다. 동진이 고려 측에 화친을 청한 진정한 내막이 무엇이였을지 궁금해진다. 1224년 1월 11일에 동진은 사신을 고려에 보내 첩문 2통을 가지고 왔다.⁴³⁾ 첩문 1통에서는 칭기즈칸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와적혼은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어질지 못하여 이미 예전의 우호 관계를 끊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칭기즈칸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한 것은 몽골이 호라즘 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와적혼 곧 황태제 웃치긴은 동진에 대해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어질지 못한 행동을 하여 몽골과 예전의 우호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43) 『高麗史』권22, 高宗 11년 1월 戊申.

다른 첩문 1통에서는 동진은 청주에, 고려는 정주⁴⁴⁾에 각기 각장을 설치해서 예전처럼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진이 몽골과의 외교를 단절시켰으므로 예전처럼 서로 무역하자고 고려를 설득한 것인데, 동진은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부족한 곡물과 생필품을 충당하려고 의도했음에 틀림없다. 동진이 고려 측과 무역하는 방식은 서로 정한 장소에 각장을 설치해서 상호 왕래하면서 교역품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동진이 본국에 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청주는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에 해당하며,⁴⁵⁾ 고려 측에 제안한 각장 장소는 고려 동계 관문인 정주였다.

이어서 같은 해 3월 6일에 동진국 사신이 2개월 만에 다시 고려에 왔다.⁴⁶⁾ 이때 동진국 사신이 몇 명이나 파견되었는지, 그리고 사신 파견 목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1224년 1월 동진 사신 파견과 연관 지어 고찰해보면, 동진 사신은 고려-동진 사이에 각장 설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고려에 온 것이 분명하다. 동진 사신은 고려에 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고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 과거에 금나라가 몽골 침입을 받아 요동에서 패권을 상실했을 때 고려가 금나라 측의 곡물 교역 요청을 거부한 전례가 있었으므로⁴⁷⁾ 동진에 대해서도 각장 설치를 반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224년 3월 동진 사신 파견에 후속하는 각장 설치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한 가능성을 상정케 해준다. 고려가 동진의 각장

44)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定州조. 정주는 동계 안변도호부 등주 소속으로 옛날에 바只라고 불렀고, 1041년(정종 7) 定州防禦使로 하고 關門을 두었다. 정주는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에 해당한다(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국역 고려사: 世家 6』, 景仁文化社, 2008, 320쪽).

4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위의 책, 2008, 320쪽.

46) 『高麗史』권22, 高宗 11년 3월 癸卯.

47) 『高麗史』권22, 高宗 3년 閏7월 丙戌.

설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체결된 형제맹약을 크게 의식한 탓이며, 고려가 일반적으로 형제맹약을 깨트리고 동진과 화친을 맺었을 경우 몽골의 침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⁴⁸⁾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당시 신생국이었던 동진이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찾고 급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진은 고려 측으로부터 각장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자 1224년 3월 6일 이후로는 더 이상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런 대외관계 속에서 이듬해인 1225년 1월에 고려에 온 저고여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도적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발하였다. 그간 학계에서는 저고여 살해의 주범을 고려로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⁴⁹⁾ 더러는 파속로에서 몽골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고려 북계 방면을 약탈하였던 금나라의 哥不愛나 亏哥下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⁵⁰⁾ 근래에는 1224년에 몽골과 단교한 동진이 고려 측이 각장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화친을 맺지 않자 고려-몽골 사이를 이간질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몽골 사신 저고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⁵¹⁾ 이 견해는 그 당시 국제정세 상으로 보면 충분히 입론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고려가 1232년 몽골에 보낸 외교문서에 의하면 고려는 동진 사람 王好非의 진술을 듣고 저고여를 살해한 주범을 우가하로 여기고 있었는데⁵²⁾ 고려 측 외교문서에서처럼 우가하가 저고여를 살해

48)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0쪽.

49) 箭内互, 「蒙古の高麗經略-附: 蒙使著古與の遭難-」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4, 1918, 270~275쪽;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209, 2011, 129~132쪽.

50) 姜在光, 앞의 책, 2011, 53~54쪽.

51)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4~376쪽.

52)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1월 「陳情狀」 참조.

한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동진이 저고여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고려와의 화친 체결이 어렵게 되자 그 대신에 고려-몽골 사이를 이간질하여 고려-몽골의 전쟁을 유발한 주범일 수 있다.

동진이 각장 설치 요청을 매개로 하여 고려와 화친을 시도한 지 1년 후에 동진 사람의 내투가 눈에 띈다. 1225년(고종 12) 6월 2일에 동진인 주한이 고려 북계 홍화도 서창진으로 내투했는데, 주한은 小字文書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최우정권이 그를 개경으로 불러서 고려인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여진문자를 배우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⁵³⁾ 1225년에 동진 사람 주한이 고려에 내투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경지대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장차 고려-동진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고려에 귀순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주한이 여진문자인 소자⁵⁴⁾로 적힌 문서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동진의 지식인층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진국의 관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문자인 소자를 이해하고 있었던 내투인 주한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소자를 고려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이로써 고려에서 여진문자인 소자를 배우는 것이 시작되었다. 고려 조정에서 주한을 개경으로 불러들인 것은 여진문자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한으로부터 동진 내부의 정황을 상세하게 알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高麗史』권22, 高宗 12년 6월 辛卯.

54) 사료 D에서 나오는 小字는 김나라 熙宗(完顏亶) 때인 1138년(인종 16)에 만들어진 '女眞小字'를 말한다. 鄭光, 「契丹·女眞文字と高麗の口訣字」 『일본문화연구』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405쪽.

4. 1225~1229년 동진의 고려 침공 및 화친 재시도와 고려의 대응

고려 조정은 1224년 동진의 화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고여피살사건의 진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몽골과의 형제맹약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에 몽골과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린 동진이 1225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해왔다.

먼저, 1225년 8월 3일에 동진군 100여 명이 북계 최전방 관문인 삭주를 침략하였다.⁵⁵⁾ 동진군의 북계 삭주 침입은 동진 사람 주한이 북계 서창진으로 내투한 지 2개월만의 사건이었다. 동진군의 침입은 이때로부터 개시되어 1229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동진군 100여 명의 삭주 침입은 2개월 전 동진인 주한의 내투를 받아준 고려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 각장 설치 제의에 고려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군사행동이었다고 보아진다. 동진군 100여 명의 삭주 침입 결과 및 동진군에 대한 고려 측 방어 내용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13일에 변방 장수인 최량이 우가하의 부하인 焦周馬 등 여러 명을 사로잡아서 조정에 바친 사실이 발견된다.⁵⁶⁾ 우가하는 금나라에서 자립한 요동의 군벌로 파속로에 근거지를 두면서 고려 북계를 노략질하였는데,⁵⁷⁾ 고려가 같은 해

55) 『高麗史』권22, 高宗 12년 8월 辛卯.

56) 『高麗史』권22, 高宗 12년 8월 辛丑. 여기서 崔亮은 그가 ‘邊將’이었다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변장’이 북계 주진군 장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경에서 북계로 파견된 分道將軍·防守將軍이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최량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펼쳐 亏哥下의 막료였던 焦周馬 등을 사로잡아 조정에 바친 것을 통해서 그는 개경에서 파견된 분도장군·방수장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57)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1월 「陳情狀」 참조.

8월 3일 동진군의 침입을 받은 지 10일 후에 변방 장수 최량이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 등을 사로잡는 큰 전과를 올렸다. 고려 북계 장수 최량은 삭주를 침입한 동진군 100여 명을 8월 3일 이후에 추격하다가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 부대와 조우하게 되어 그들을 제압하고 생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년 후인 1227년 9월 6일에 동계병마사가 동진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였다고 보고하자 우군병마사에 상장군 조염경, 우군지병마사에 대장군 김승준, 중군병마사에 추밀원사 정공수, 중군지병마사에 김양경, 후군병마사에 상장군 정순우, 후군지병마사에 대장군 김지성을 임명하여 3군을 거느리고 동진군을 방어하게 하였다.⁵⁸⁾ 이때 최우정권이 3군을 편성할 정도였다면 정주·장주를 침략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⁵⁹⁾ 고려 3군은 같은 해 10월에 동계 宜州⁶⁰⁾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⁶¹⁾ 같은 달 18일에 동진군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자 고려군이 패배하였다.⁶²⁾ 이때 고려 3군은 동계 의주의 군사적 요충지인 철관에 이미 매복해 있던 동진 기병대로부터⁶³⁾ 기습을 받아 패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우정권은 같은 해 11월 18일에 고려 3군 원수부가 동진군에게 패배당한 책임을 물

58) 『高麗史』권22, 高宗 14년 9월 壬午.

59) 그 당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 때 동진군 2만 명이 참전하였으므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최대 2만 명 이내였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수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였다고 여겨진다.

60) 宜州는 고려 초에 湧州라 불렀고, 995년(성종 14)에 防禦使를 두었으며, 1108년(예종 3)에 성을 쌓았다. 의주에는 要害處로 鐵關이 있는데 東界 방어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宜州 참조.

61)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0월 己未.

62)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0월 甲子.

63) 동계 요해처 鐵關에 매복해서 고려 3군을 기습 공격하였던 동진군의 주력은 기병대였다고 판단된다. 1227년(고종 14) 철관전투 이후에도 동진은 주력군이었던 기병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로 동계 지역을 방어하였던 고려군을 상당히 괴롭혔다.

어, 정공수는 남경유수로, 조염경은 명주부사로 좌천시켰고, 정순우는 백령도에 귀양 보내는⁶⁴⁾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1월 14일에 낭장 김이생⁶⁵⁾이 자문지유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북계의 병사들을 이끌고 밤에 화주성에 들어가 적군으로부터 성을 굳게 지켰으며 기습적으로 출성전을 전개하여 적군을 1,100명이나 베었으므로 이 직책을 받았다는 기록을⁶⁶⁾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적군은 동진군이 분명하며, 낭장 김이생은 북계 병사들을 이끌고 동진군에게 침입을 당한 동계를 구원하기 위해 화주성으로 급히 달려갔던 북계의 지원군으로 생각된다. 이때 낭장 김이생은 북계병마사(서북면병마사)의 지시 하에 북계 병사들과 더불어 화주성에 급히 입성했다고 보아진다. 그가 화주성에 들어간 시점은 고려 3군이 동진군에게 패배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다. 하여튼 낭장 김이생 휘하 북계 병사들의 활약으로 화주성을 지켜냈고 적군을 1,100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은 1227년 10월 동진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하지는 못했어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1228년(고종 15) 6월 11일에 동진의 모극⁶⁷⁾인 왕노비, 사력인 고린·간란가가 고려에 내투하였음이⁶⁸⁾ 확인된다. 동진의 모극 왕노비 등이 고려에 내투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64)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1월 癸巳.

65) 金利生은 1227년(고종 14) 당시 북계를 방어하였던 낭장이었고, 대몽전쟁기에는 상장군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1226년(고종 13)에는 하급 무관직인 별장이었는데, 西北面知兵馬事 李允誠의 명령을 받고 군사 200여 인을 휘하에 거느리고 서 압록강을 건너 石城을 공격하여 亏哥下의 군대를 깨뜨린 장본인이었다. 이때 석성 공파에 대한 전공을 인정받아 별장에서 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66)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1월 己丑.

67) 동진의 矛克은 金나라 때 百夫長을 일컫는 謀克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金史』권44, 志25, 兵志 참조.

68) 『高麗史』권22, 高宗 15년 6월 壬子.

이들이 고려에 내투하였다는 것은 동진 조정 내부에서 매우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불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왕노비 등이 1227년 동진의 고려 동계 공격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선만노에 의해 처벌받을 운명에 처하자 1228년 6월에 고려에 내투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어서 같은 해 7월 29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동진군 1,000여 명이 장평진⁶⁹⁾에 와서 진을 친 것을 보고하였다.⁷⁰⁾ 장평진에 진을 친 동진군 수효가 1,000여 명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그들은 전체 동진군의 선봉대였을 것으로 보이며, 장차 동진군 본대를 기다리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동진군의 장평진 내습에 대하여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보내 방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진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3군을 출동시키지 않았다.⁷¹⁾ 동진군 1,000여 명이 갑자기 퇴각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고려 3군이 곧 동계 장평진 쪽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을 접한 상황 속에서 동진군 본진이 그때까지 장평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여튼 1228년 7월 하순에 동진군은 장평진을 침입해왔으나 얼마 안 있어 그대로 철군함으로써 고려-동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동진군의 침입 방식은 고려 측을 난감하게 하였는데, 이는 고종의 조서를 보면 그러한 상황이 자세히 드러난다. 같은 해 8월 16일에 고종은 조서를 내려 “동진이 국경 근처에 몰래 진을 치고 있다가 여러 차례 변방을 침략하였는데, 고려가 군대를 출동시켜 토벌하면 매번 도망갔다가 고려군이 철군하면 다시

69) 長平鎮은 옛날에 古叱達이라고 불렀고, 969(광종 20)에 처음으로 城堡를 쌓았으며, 鎭將이 있었다.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長平鎭.

70) 『高麗史』권22, 高宗 15년 7월 庚子.

71) 『高麗史』권22, 高宗 15년 7월 庚子.

침입하여 틈을 엿보니 그들을 방어할 어떤 책략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⁷²⁾ 문·무 4품관, 대성⁷³⁾ 6품관 이상은 각기 좋은 계책을 써서 올리라고 하였다. 그 당시가 최우정권 시기였고, 고종이 최우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으므로⁷⁴⁾ 고종이 조서를 내려 말한 내용은 실제로는 무인집정 최우가 조정의 문·무 관료에게 지시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외형상 고종의 조서라는 형식을 통해 최우는 동진의 치고 빠지기 식의 전술에 대한 마땅한 방어책을 문·무 4품관, 대성 6품관 이상에게 물어보았던 셈인데, 이는 그만큼 치고 빠지는 데 능숙한 동진 군대를 제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려가 동진의 동계 침입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그들을 막을 계책을 논의하자 1229년부터 동진이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다. 1229년 2월 13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동진 사람이 함주⁷⁵⁾에 도착하여 화친을 요청한다고 개경 조정에 보고하였다.⁷⁶⁾ 동진 사람의 화친 요청에 대응하여 국왕 고종이 친히 식목녹사 노연을 파견하여 화친의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보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진이 갑자기 화친을 먼저 제의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1229년 이전에 몽골의 요동 파속로 경략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동진이 고려에 화친을 제의해서 반몽연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견해가⁷⁷⁾

72) 『高麗史』권22, 高宗 15년 8월 丙辰.

73) 臺省은 고려시대에 御史臺의 臺官과 中書門下省의 省郎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74) 고종은 최씨무인정권에 잘 순응하였던 임금이었다. 특히 著古興 등 몽골 사신이 고종 자신에게 오만무례를 범한 이후부터는 무인집정 최우와 더욱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몽골·동진에 대한 和戰兩面策 등 최우정권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75) 咸州는 동계 지역에서도 북방에 위치하는데, 1108년(예종 3)에 성을 쌓았으며 윤관이 개척한 동북 9성에 포함되었다. 『高麗史』권36, 兵志2, 城堡.

76) 『高麗史』권22, 高宗 15년 8월 丙辰.

77)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6~378쪽.

있다. 그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 상으로 보면 타당한 견해라고 여겨지는데, 1229년 2월 당시 동진 사람이 고려 측 노연에게 내 걸었던 화친의 조건은 전혀 알 수 없다.⁷⁸⁾

그런데 같은 해 5월 7일 노연이 동계에서 돌아왔고 동계부방 장군 김중온이 노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김중온이 상소를 올린 이유는 노연이 겁을 먹어서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무인집정 최우가 노하여 노연을 가구소에 가두고 이전 거제현령인 진용갑을 장평진장으로 임명하여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⁷⁹⁾ 김중온이 상소를 올려 노연이 겁을 먹어서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노연이 겁을 먹어 동진 사람을 아예 만나보지도 않았거나 동진 사람과 만났어도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기보다는 그가 동진국의 화친 조건을 듣고서 고려 측에게 유리하게끔 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한 노연은 최우에 의해 가구소에 감금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후 최우는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장평진장으로 삼아 다시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⁸⁰⁾ 이때 장평진장 진용갑이 동진과의 화친 체결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생각건대, 진용갑은 동진 사람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정황을 증명하는 사례로써 같은 해 5월 11일에 동진이

78) 고려 동계 咸州에 도착한 동진인이 화친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해보았을 때, 고려-동진 사이의 樞場 설치 및 물물교역 시행, 고려 측에서 동진으로의 식량 지원, 몽골군 이동 상황과 전황에 대한 정보 공유, 亏哥下·哥不愛에 대한 견제 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9) 『高麗史』권22, 高宗 16년 5월 甲戌.

80) 최우가 국왕 고종이 파견한 式目錄事 盧演을 대신하여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 長平鎭長으로 삼아 동진과 화친을 체결케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혹시 진용갑이 예전에 동계 국경 근처에서 근무하면서 여진족과 교류하는 데 능숙해서 그를 발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볼 뿐이다.

화주를 침입하여 소와 말, 사람들을 약탈하였는데, 장평진장 진용갑이 사람을 보내어 설득하자 모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진용갑의 설득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용갑과 동진 사람이 화친 조건을 조율하였고 몇 가지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주를 침입한 동진군이 약탈한 고려인과 소·말 등을 모두 버려두고 갔을 리가 없다. 화주를 침입하여 약탈하였던 동진이 진용갑의 설득에 동의하여 물러났더라도, 그 당시 진용갑이 고려 측 대표자로서 동진과의 화친을 일괄 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같은 해 6월 15일에 고려의 북변 사람으로 예전에 변방의 별장이었던 예작이 동진에서 처형되었음을⁸¹⁾ 확인할 수 있다. 북변 사람 예작은 여러 차례 사기죄를 범해 일찍이 화주에 유배된 자였는데, 그 자신이 동진의 도로가 평탄한지 험난한지,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동북면병마사였던 최종재가 이러한 예작의 말을 믿고 예작 등 3명을 동진에 보내어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게 하였다. 예작이 원래 북변 사람이었고 변방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으며 그가 동진의 지리를 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북변에 살았던 여진족 출신으로 생각된다.⁸²⁾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예작이 말한 바를 신빙하고서 그를 동진에 보내어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게 하였던 것인데, 최종재는 개경 조정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작을 동진에 보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그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예작을 동진에 보낸 것은 동북면병마사로서

81) 『高麗史』권22, 高宗 16년 6월 辛亥.

82) 『高麗史』에서는 銳爵이 北邊 사람이었고 예전에 북변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북변은 꼭 북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북쪽 변방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예작은 북계 혹은 동계의 최전방을 지키는 별장이었던 셈이다. 그가 성씨가 없고 본래 북변 사람이었다 하였으므로 아마 추측컨대 여진족 출신 토착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동진과의 화친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보아진다.⁸³⁾

최종재가 몰래 파견한 예작은 동진에게 우리나라(고려)가 귀국과 화친을 맺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동진은 예작의 말을 신빙하고서 예작의 일행 중 1명을 고려로 돌려보내 고려 측의 회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동진에서 보낸 예작 일행의 말을 의심하여 주저하면서 회답하지 않았다. 고려 조정은 동진에서 보내온 예작 일행 1명이 국가가 보낸 공식적인 사신이 아니었고, 동진이 고려와 화친을 체결하겠다고 나선 저의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을 법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동진에서는 예작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그를 붙잡아 참수하였던 것이다. 고려 조정에서, 특히 최우정권이 예작 일행 1명의 말을 의심하였던 것은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로부터 동진과의 화친 교섭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북면병마사 최종재의 독단적인 판단과 예작의 선부른 행동이 예작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⁸⁴⁾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 교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예작 처형 사건’으로 동진과의 화친 체결이 난항에 부딪히자 최우는 같은 해 7월 27일에 양부(중서문하성과 추밀원)의 재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동진군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였다.⁸⁵⁾ 최우는 ‘예작 처형 사건’이 벌어졌더라도 동진과의 화친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진군을 막을 계책을

83) 1229년(고종 16) 당시 동진과의 화친 교섭은 장평진장 진용갑이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그보다 직위가 높은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자신이 역량을 발휘하여 동진과의 화친 교섭에서 공을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다.

84) 동진에서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화친 체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파견한 예작을 고려 측의 밀정으로 여겼을 것이며, 즉시 예작을 처형해서 동진의 내부사정을 고려에 알리지 못하게 했을 법하다.

85) 『高麗史』권22, 高宗 16년 7월 壬辰.

논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같은 해 8월 15일에 유사에서 최종재가 함부로 예작을 동진에 보내서 국경지방에서 틈을 만들었다고 탄핵하였으므로 최종재를 양주부사로 좌천시켰다는⁸⁶⁾ 점이다. 유사가 최종재를 탄핵한 이유는 최종재가 함부로 동진에 예작을 보내서 고려-동진 사이에 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최우가 최종재를 양주부사로 좌천시킨 것도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 체결에 최종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8월 28일에 동진 사람 40명이 온적한을 추격한다는 말을 핑계 삼아 동계의 화주까지 도착하였는데,⁸⁷⁾ 이는 대몽전쟁 이전 동진과의 마지막 외교관계였다. 화주에 도착한 동진 사람 40명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화주 일대에서 약탈행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재차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하기 위해서 혹은 고려 측의 동향을 정탐하기 위해서 화주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진 사람 40명이 추격하였다는 온적한은 『금사』 열전에 의하면, 溫迪罕青狗로 여겨지거나⁸⁸⁾ 그는 그 당시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진 사람들이 온적한 추격을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려 동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만약 화주에 도착한 동진 사람들이 재차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몽

86) 『高麗史』권22, 高宗 16년 8월 庚戌.

87) 『高麗史』권22, 高宗 16년 8월 癸亥.

88) 『金史』列傳 完顏阿里不孫을 보면, 知廣寧府事 溫迪罕青狗가 金나라 婆速路 蓋州에 주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金나라 말엽 參知政事·權右副元帥·行尙書省·元帥府로 임명되어 파속로 일대를 통괄하였던 完顏阿里不孫에게 황제의 詔書를 받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다. 『金史』 열전에 등장하는 溫迪罕青狗가 『高麗史』에 나오는 溫迪罕과 동일 인물이 아닌까 생각된다. 『金史』권103, 列傳41, 完顏阿里不孫 참조.

골의 요동 경락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동진이 고려와 전쟁을 회피하고 서로 연대하는 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최우정권은 ‘예작 처형 사건’과 동북면병마사 최종재 좌천 등 동진과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과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그들과 외교적 협상과 타협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1229년 8월 이후 1231년 대몽전쟁 직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⁸⁹⁾ 1232년 몽골 제2차 침입 때 처인성 승첩 직후 최우정권이 동진에 외교문서(『答東眞書』)⁹⁰⁾를 보내 처인성에서 패배한 몽골군의 동태와 철군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⁹¹⁾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1229년에 고려-동진 사이에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서 화친 체결 노력이 있어왔다. 다만, ‘예작 처형 사건’ 등으로 고려-동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화친 체결은 수포로 돌아간 형편이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외교문서 왕래 등 외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외교적 루트는 유지한 채로 1231년 대몽전쟁을 맞이하였다고 판단된다.

89) 1229년(고종 16) 8월 28일부터 제1차 몽골 침입이 있었던 1231년(고종 18) 8월 이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90) 1232년(고종 19) 12월에 동진에 보낸 외교문서(『答東眞書』)는 최우정권의 문사 이 규보가 작성한 것이다.

91)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2월 「答東眞書」 참조.

5. 맺음말

이 글에서 대몽전쟁기(1231~1259) 이전인 1219~1229년까지 고려-동진 사이에서 군사·외교 관계 변화 모습을 분석하여 형제맹약기 고려가 동진에 대하여 화·전 양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떠한 군사·외교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밝혀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기에 해당하는 1219~1222년에 몽골 사신과 함께 고려에 파견된 동진 사신의 주된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사신으로서의 입지가 대략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동진은 몽골군과 함께 고려 국경인 동계의 진명성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강요하여 결국 몽골이 해마다 고려로부터 세공을 받아가게 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갈라로 방면으로 자국을 거쳐 고려에 입경하였는데, 총 7회(몽골 사신 동행 6회, 단독 파견 1회) 고려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몽골 사신을 위한 사행길 안내, 몽골 사신 호위 및 세공 운반, 몽골 사신과 세공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몽골에 부응하여 금나라 정벌을 위한 조군도 고려 측에 요청하였다. 몽골 사신뿐만 아니라 동진 사신의 대표자도 고려 궁궐 대관전의 전에 올라갔을 만큼 고려로서는 동진 사신을 몽골 사신 못지않게 대우해주어야 했다. 형제맹약기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과 협의 하에 고려가 바친 세공을 나눠가졌던 것으로 이해하여 보았다. 동진이 몽골과 화친을 깨뜨리기 이전에 동진은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진이 1224년에 몽골에 이반하고 고려에 대해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 측의 외교적 대응 모습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조명해보았다. 동진은 1224년 1월에 몽골에 이반하였는데, 그때는 칭기즈칸이 이미 호라즘 원정을 떠났던 시기였다. 동진이 몽골에 이반한 이유는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으로서 그 당시 몽골제국을 감국하고 있던 옷치긴이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동진은 1224년 1월에 몽골과 절교했음을 고려 측에 알리면서 고려-동진이 국경 근처(동진은 청주, 고려는 정주)에 서로 각장을 설치해서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동진 측의 각장 설치 요청은 그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 해결을 위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고려는 동진의 각장 설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 체제에서 고려가 동진과 화친하고 몽골을 배반하는 것은 장차 몽골군의 침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와 더불어, 신생국가였던 동진이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찾고 급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고려가 동진의 각장 설치 요청을 거부한 이후 1225년부터 개시된 동진의 고려 침공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모습 및 전과를 상세히 분석해보았다. 또한 1229년에 동진이 고려 측에 다시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왕 고종, 무인집정 최우,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동진과 화친을 체결하기 위해 펼친 외교적 노력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진은 고려가 각장 설치 등 화친 제의를 거부하자, 1225년 8월 3일에 군사 100여 명을 보내 삭주를 침공하였다. 동진군의 삭주 침공 결과는 사료 상에서 보이지 않으며, 북계 분도장군(혹은 방수장군)으로 여겨지는 최량이 동진군의 뒤를 쫓아 압록강을 건너다가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를 사로잡아 개경 조정에 바치는 뜻밖

의 전과를 세웠다. 이후 1227년 9월에 동진군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자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급히 편성하여 동계 방면으로 내보냈고 고려 3군은 동진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계 의주 방면으로 진군했으나 동진군에게 패배하였다. 이때의 패배는 동계의 요해처 철관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동진 기마병들에게 급습을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계의 낭장 김이생이 서북면병마사의 명령 하에 북계 병사들을 이끌고 미리 화주성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동진군과 화주성에서 싸워 적군을 1,100명이나 베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자문지유로 승진하였다. 이는 고려 3군의 패배 속에서도 전세를 전환시키는 고려군의 승리였으며, 대동진전쟁에서 고려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승 사례였다.

그런데 1229년 2월부터 동진이 전쟁을 멈추고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는데, 이는 호라즘원정을 끝마친 몽골의 동방정략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어 몽골군이 요동으로 진입해옴에 따라 동진이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려와 화친을 모색했기 때문이었다. 동진의 화친 제의에 고려왕 고종은 식목녹사 노연을 동계로 파견해 동진의 화친 조건을 알아보게 하였다. 하지만 노연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무인 집정 최우는 노연을 가구소에 가두었으며 그 대신에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 최우가 믿고 파견한 진용갑은 동진과 완전하게 화친을 체결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들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그 근거로써, 1229년 5월 11일에 동진이 화주를 침입하여 소와 말, 사람들을 약탈하였는데, 장평진장 진용갑이 사람을 보내어 설득하자 모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진용갑이 동진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지 않았다면 그의 설득

이 통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진용갑이 동진을 설득하고 있던 시기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고려 조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북변 사람 예작을 동진국으로 몰내 보내 동진과 화친을 도모하였다. 최종재가 단독으로 예작을 동진국으로 보낸 것은 북변 사람 예작이 변방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던 데다가 동진의 지리적인 상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진국에 파견된 예작은 여진족 출신으로 생각되는데, 그는 고려 측의 화친 답변이 오지 않자 동진국에서 참수당하였다. 예작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최우정권에 의해 좌천되었고 고려-동진 외교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예작 처형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최우정권은 동진과 외교적 협상과 타협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1231년 대몽전쟁 직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1232년 몽골 제2차 침입 때 처인성 승첩 직후 최우정권이 이규보를 통해 동진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몽골군의 동태와 이동 방향 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1229년 당시 최우정권은 외교문서 왕래 등 외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외교적 루트는 유지한 채로 이후 대몽전쟁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史』 『元史』 『元高麗紀事』

2. 단행본

강재광,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고명수, 『몽골-고려 관계 연구』, 혜안, 201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국역 고려사: 世家 6』, 景仁文化社, 2008.
윤용혁,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이명미,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朴眞奭, 『東夏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薛磊, 『元代東北統治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王慎榮·趙鳴岐, 『東夏史』,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3. 연구 논문

강재광, 「대몽전쟁기 동진(東眞)의 고려 침입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한국중세사연구』 75, 2023.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歷史學報』225, 2015.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
연구』 50, 2017.
고병익,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69.
신성재, 「11세기 동계지역 해상방위와 도부서(都部署) - 진명원흥 도부
서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
구소, 2021.

- 신안식, 「고려 고종초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 이개석,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01, 2010.
- 이개석, 「몽골·동진·고려 연합군에 의한 강동성 함락과 여몽형제맹약의 성격」,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 이명미, 「강동성의 맹약에서 강화(講和)에 이르기까지」,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 이익주, 「1219년(高宗 6)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東方學志』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 이재선, 「고려 고종대 대동진관계의 추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 魏志江, 「論金末蒙古·東夏與高麗的關係」, 『韓國學論文集』 8, 2000.
- 箭内互, 「蒙古の高麗經略-附: 蒙使著古與の遭難-」,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1918.
- 鄭光, 「契丹·女眞文字と高麗の口訣字」 『일본문화연구』 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4. 기타 자료

- (사)평화문제연구소, 「진명성」, 『조선향토대백과』,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Militar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Dongjin(東眞) before the War period against Mongol

Kang, Jae-Gwang

After signing a brotherhood pact with Mongol in 1219, Goryeo also established certain diplomatic relations with Dongjin(東眞). The Dongjin envoy came to Goryeo from 1219 to 1222 as an assistant to the Mongol envoy toward Galaro(曷懶路). They were responsible for guiding the Mongol envoy, escorting and transporting Mongol envoys, and distributing Mongol envoys and crafts.

Dongjin fell to Mongol in January 1224, and offered Hwachin to the Goryeo side on the condition that Gakjang(榷場) be installed. Dongjin's request for the installation of Gakjang was intended to solve their food shortages and daily necessities. Goryeo did not accept Dongjin's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Gakjang, mainly because of concerns that Goryeo's friendly relations with Dongjin and betraying Mongol would lead to Mongol invasion in the future.

After Goryeo rejected Dongjin's offer to installation of Gakjang, the war began between Goryeo and Dongjin from 1225. Later, in September 1227, when Dongjin-gun invaded Jeongju(定州) and Jangju(長州), the Choi Woo(崔瑀)'s political power formed three Goryeo troops to fight, but was defeated in the Battle of Uiju(宜州). However, Kim Yi-saeng(金利生), Nangjang(郎將) of Bukgye, fought

the Dongjin Army at Hwaju Castle(和州城) and cut 1,100 enemies. This put an end to the war with Dong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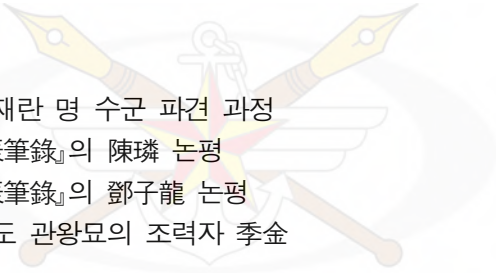
Dongjin suddenly offered Hwachin to the Goryeo in February 1229. This was because Dongjin had a great sense of crisis as Mongol, which began to attack Liaodong(遼東). King Gojong(高宗) dispatched No Yeon(盧演), Sikmoknoks(式目錄事) to Dongjin to find out the conditions of Dongjin's Hwachin, but No Yeon was unable to carry out his mission. As a result, the military ruler, Choi Woo sent Jin Yong-gap(陳龍甲), a former Geoje-hyeon-ryeong(巨濟縣令), to form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Dongjin, and it is estimated that Jin Yong-gap had reached a state of coordinating the conditions of reconciliation with Dongjin. At a time when Jin Yong-gap was persuading Dongjin, Choi Jong-jae(崔宗梓), Byeongmasa of Donggye(東界兵馬使) sent Yejak(銳爵) to Dongjin to promote Dongjin and Hwachin without reporting it to the Goryeo Dynasty. However, Yejak was mistaken for a spy and executed in Dongjin. Despite Yejak execution case, it is believed that the Choi Woo's political power has maintained an attitude to pursue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Dongjin, such as the exchange of diplomatic documents.

Keywords : Mongol, Dongjin(東眞), Galaro(曷懶路), Hwachin(和親), Gakjang(樵場), Kim Yi-saeng(金利生), Hwaju Castle battle, Jin Yong-gap(陳龍甲), Yejak(銳爵)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71-201
<https://doi.org/10.29212/mh.2024..133.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장수

박현규 | 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 목 차
1. 서론
 2. 정유재란 명 수군 파견 과정
 3. 『壬辰筆錄』의 陳璘 논평
 4. 『壬辰筆錄』의 鄧子龍 논평
 5. 고금도 관왕묘의 조력자 季金
 6. 결론

초 록 본 논고에서는 정유재란 시기 고금도 통제영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명 수군의 파병은 정유재란 직전에 선조가 일본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주사이니 명 수군과 조선 수군이 연합하여 적들을 섬멸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에서 발단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 군부는 자국의 영해를 사전에 방비하고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을 들어 수군 5천 명을 편성하였다. 칠천량 해전 직후 명 군부는 크게 2차례 수군 조달 방안을 거쳐 총 2만 1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순천 왜교성 전투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은 1만 9천 8백 명이고, 여기에서 미도착한 張良

相의 수군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수군 조달 방안의 병력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陳璘은 당초 육군인 광동영병을 거느리고 육로로 오다가 도중에 수군부장 楊文의 질병으로 부임할 수 없자 그 직책을 이어받아 조선 해역에 참전한 명 수군을 총괄했다. 鄧子龍은 절강수군을 거느린 沈茂가 육군으로 보직 변경이 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아 조선 해역에 나왔다. 참전 당시에 수족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으나 노량해전 때 최일선에서 돌격하다가 끝내 전사했다. 진린이 등자룡이 높고 쇠약한데 참전했다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남겼듯이 명 수군의 수뇌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견제와 마찰이 있었다.季畚은 가장 먼저 고금도 통제영에 내려와 첫 번째 조명연합수군을 결성했다. 고금도 관왕묘의 창건은 진린이 주도하고, 계금이 조력했다.

주제어: 고금도 통제영, 고금도 관왕묘, 조명연합수군, 이순신, 진린, 등자룡, 계금

(원고투고일 : 2024. 10. 8.,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8.)

1. 서론

전남 완도군 고금도는 임진왜란 때 국운이 거의 꺼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준 이순신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다. 1598년(선조 31) 2월 17일에 이순신은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진을 옮겨 고금도 통제영 시기를 열었다. 이 시기에 조선 수군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조국을 침략한 일본 수군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전투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수군들을 보내어 조선 수군과 연합하여 일본 수군에 맞서 싸웠는데, 고금도가 바로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된 또 하나의 역사적 장소이다. 고금도 통제영 시기에 조명연합수군은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식한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둘 수 있는 군사력 증강과 합동 작전의 기틀을 닦았다.

필자는 일전에 정유재란 발발부터 명량대첩까지 명 수군의 파병과 운영에 대해 고찰한 바가 있다.¹⁾ 이번에 그 연구 작업의 연장으로 명 수군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經略御倭奏議』, 『壬辰筆錄』 등 국내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를 중심으로 명 수군이 조선 해역으로 파견된 과정과 명 수군의 수뇌부 역할을 한 세 명의 장수, 즉 陳隣, 鄧子龍, 季金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임진필록』 중 진린 조항과 등자룡 조항은 다른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명 수군

1) 朴現圭, <丁酉再亂부터 鳴梁大捷까지 明 水軍의 派兵과 運營 고찰>, 『전라남도 정도 1000년의 해 명량대첩 기념 전남 권역별 학술 세미나』,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18.09.08., 쪽45~62; 「명 邢玠 『經略御倭奏議』의 丁酉再亂 史料 考察」, 『中國史研究』, 113집, 中國史學會, 2018, 쪽35~62; 『임진왜란 중국 사료 연구』, 보고사, 고양, 2018.

수뇌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명 수군의 파병 규모에 대해 여러 논고가 나왔으나 제1차 원전인 『경략어왜주의』를 활용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 정유재란 명 수군 파견 과정

여기에서는 명 수군이 조선 전장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 약술해본다. 1592년(선조 25)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5월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주축이 되어 옥포에서 일본 전선을 물리치는 첫 승전을 거두었고, 곧이어 사천, 당포, 당항포, 울포 등지에서 잇달아 일본 전선을 격파하였다. 8월에 한산도에서 대규모 일본 함대를 맞이하여 크게 격파하여 일본 수군의 전의를 상실시켰다. 이로부터 조선 수군은 사실상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대해 명 군부가 조선 전장에 보낼 군사를 편성할 때 후방 발해만 방어와 물자 해상 운송을 관장하는 수군 외에 따로 전투에 나설 수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1597년(선조 30) 1월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 이보다 두 달 앞선 1597년(선조 30) 11월에 조선 조정은 명나라에 일본군이 재침해온다는 다급한 형세에 대한 주문을 보내면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사이니 浙·直·閩 등의 주사도 함께 보내 주어 한산 등의 조선 수군과 합동하여 적들을 소탕해주기를 요청했다.²⁾ 또 정유재란 발발 직후에도 선조는 명 군문과 요동도 사에게 명 수군의 파견을 요청하라는 전교를 내렸다.³⁾

2) 『선조실록』 29년 11월 10일(임인)조.

3) 『선조실록』 30년 4월 20일(경진)조.

한편 명 군부는 주화파에서 주전파로 바뀌었다. 1597년(만력 25) 3월 19일에 孫鑛이 경략에서 체직되고, 29일에 그 직책에 邢玠가 나섰다. 이보다 앞선 15일에 楊鎬가 경리에 임명되었다. 명 군부는 자국의 해양 방위와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수군의 조선 파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형개가 올린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에는 자국 수군을 조선 해역에 보낼 이유와 방안이 적혀 있다. 한산도 통제영은 전라도와 등주, 내주, 천진을 지키는 요새지이다. 조선 수군의 숫자가 1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 전투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5천 명이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이 자명하니, 절강수병 3천 명 외에 복건수군 1천 명과 오송 수군 1천 명을 증파해서 조선 해역에 보낸다.⁴⁾ 다시 정리하자면 명 군부는 정유재란 초기 한산도 통제영이 존재했을 때 조선 해역으로 파견할 명 수군의 병력 인원을 총 5천 명으로 정했다.

1597년(선조 30) 2월에 조선 삼도 해역을 지키던 이순신이 조정의 명을 거역했다는 죄명으로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체직되고, 원균이 그 직책을 이어받았다. 7월에 원균의 조선 수군은 조정의 명에 의해 부산포 해역까지 진격한 뒤 별다른 전공 없이 되돌아오다가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의 매복에 걸려 거의 전멸하였다. 곧이어 통제영이 있던 한산도를 비롯한 남해 제해권이 일본 수군에게 넘어갔다.

칠천량 패전은 조선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명 군부에게 큰 충격이었다. 명 군부는 만약 일본 수군이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 조선 왕경(한양)과 발해만, 본토 연해안의 해상 안

4) 『經略御倭奏議』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至於倭奴多半依水, 閑山一島爲全羅·登·萊·天津咽喉屏翰之地. 此中朝鮮水軍頗稱強勁, 而近該經理撫臣查其數雖有一萬, 而堪戰止五千. 該臣已逆知其必不足用, 故於浙江水兵三千之外議增福建·吳淞兵船各一千.”

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겼다.⁵⁾ 이에 대해 접반사 張雲翼은 명 제독 麻貴와 상의한 긴급조치를 조선 조정에게 보고했다. 조선 수군은 남은 전선을 모아 물길이 험난하기로 이름난 안흥랑에 해상 방어선을 구축하고, 명 수군은 강화도를 지키는 해상 방어책을 강구했다.⁶⁾ 명 군부는 절직유격 徐成으로 하여금 전투 능력을 갖춘 절강수군 3천 명을 선발대로 삼아 급히 강화도로 보냈다. 하지만 도중에 서성이 질병으로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 직책에 여순에 머물고 있던 계금으로 교체했다.

곧이어 명 병부는 조선 해역에 보낼 수군 증원 조달 방안을 수립했다. 조달 방안은 크게 두 차례 이루어졌다. 1차 조달 방안은 칠천량 이전에 수립했던 기존 방안, 즉 절강수병 3천 명, 오송수병 1천 명, 복건수병 1천 명 외에 남경수병 3천 명을 더하여 도합 8천 명을 보내는 것이었다.⁷⁾ 2차 조달 방안은 1차 조정 방안 외에 절강수병 3천 명, 오송수병 1천 명, 복건수병 1천 명씩을 각각 증액 모집하고, 또 강북수병 3천 명, 광둥수병 3천 명을 각각 신규 모집하는 것이다.⁸⁾ 명 군부는 1차 조달 방안과 2차 조달 방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 1천 명을 정하였다. 명 신종은 병부의 요청에 따라 2만 1천 명으로 정하였다.⁹⁾

이어서 조선 참전에 나설 명 수군을 통솔할 수병부장 선정에

5) 『경략어왜주의』 권2 「催發水陸官兵本折糧餉疏」: “夫閑山島水兵, 朝鮮內地所恃以障西南半壁. 此而失守, 賊自西南沿海而下, 若南海, 若濟州, 折而向北, 若全羅, 若忠清, 若王京, 若黃海, 又王京之漢江, 江華, 折而正西, 若登·萊, 若天津, 再北則平壤之大同江, 再東北則義州之鴨綠江, 皆通一水, 皆可揚帆而來.”

6) 『선조실록』 30년 8월 15일(계유)조: “雲翼曰: 小臣有迷劣之憂, 浮海之賊, 若不意繞出西海, 則腹背受敵, 尤無措手之地. 如安興梁收聚船隻, 以爲防守之計, 爲今日最急矣. 上曰: 此意, 予曾於閑山見敗之日, 已言之矣. 聞清正至今不動云, 此甚可憂. 雲翼曰: 禍必生於所忽, 所當熟思而預處之. 信元曰: 收集餘船, 設一陣於安興梁, 又請天朝水兵, 駐於江華, 以爲聲援, 賊未得容易衝突. 備邊司必爲處置矣. 上曰: 此言是矣.”

7) 『경략어왜주의』 권2 「守催閩直水兵并募江北沙兵疏」.

8) 『경략어왜주의』 권2 「守催閩直水兵并募江北沙兵疏」.

9)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12일(경자)조.

나섰다. 명 병부는 급사중 徐成楚가 천거한 원임부총병 楊文과 광동순안어사 劉會가 천거한 원임부총병 진린 등 2명을 후보로 올리니, 신종은 양문을 수병부장으로 삼았다.¹⁰⁾ 그 대신 진린은 육군으로 뽑아 조선 참전에 나서도록 했다. 도중에 양문이 병이 나서 부임할 수 없게 되자, 육군으로 나섰던 진린을 수군 도독으로 올리고 조선 해역에 나서도록 했다. 반면 주우덕은 提督天津登萊旅順等處防海禦倭總官으로 삼아 후방인 발해만과 산둥 일대의 해상 방어를 맡도록 했다.¹¹⁾

4월에 이순신은 옥사에서 방면되어 백의종군하다가, 8월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용되었다. 칠천량 패전 이후에 남은 전선을 모으고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섰지만, 수군 병력과 전함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9월에 조선 전함 13척, 초탐선 32척과 일본 함대 133척이 물살이 거세기로 이름난 명량(울돌목)에서 격돌하는 해전이 펼쳐졌다. 이순신은 ‘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자세로 사력을 다해 싸워 많은 일본 전선들을 격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부터 일본군은 서해로 해상 진출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¹²⁾

명량대첩 직후 이순신은 여러 차례 진을 옮기다가 고군산도까지 올라갔고, 10월에 되어 다시 남하하여 전라 우수영, 보화도 등을 거쳐 고하도에 진영을 치며 겨울철을 보냈다. 1598년(선조 31) 2월 17일에 삼도수군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겼다. 이순신은 고금도에서 전선을 건조하고 군량을 확보하여 칠천량해전 이후 무너졌던 조선 수군을 본격적으로 재건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한편 명 군부는 이순신의 명량대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자국의 수군을 모집하여 조선 해역으로 보내는 시간을 벌

10) 『정략어왜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11)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무신(20)일조.

12) 『선조실록』 30년 11월 10일(정유)조.

었다. 1598년(선조 31) 4월에 선발대로 나와 있던 계급의 절강 수병 3천 명이 고금도로 내려오면서 조명연합수군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7월에 진린의 명 수군 본진이 고금도에 내려오면서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9월에 조명연합수군은 사로병진전략의 일환으로 순천만으로 진격하여 獐島를 장악하여 일본군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곧이어 劉綎의 서로군과 협동하여 수륙으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였다. 10월에 들어와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는 수륙협동작전은 유정의 비협조, 小西行長の 완강한 저항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島津義弘의 사천왜성을 공략하던 董一元의 중로군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1월에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식을 고하는 대규모 전투인 노량해전이 펼쳐졌다. 조명연합수군은 순천 왜교성에 고립된 小西行長을 지원하고자 노량해협으로 들어온 島津義弘, 立花宗茂 등의 대규모 일본 함대와 격돌하여 2백여 척 분멸, 1백여 척 포획 등 대첩을 거두었다.

아래에 정유재란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선행학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개관해본다. 선행학자들이 근거로 삼은 자료를 살펴보면 크게 『선조실록』 31년 3월 29일(갑인)조의 경리 양호가 보낸 사로군 편성 자문, 신흠 『象村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諸葛元聲 『兩朝平攘錄』의 진린 휘하 병력 등이다. 여기에 대해 선행학자들은 상기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기준과 계산법에 따라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1만 3천 명부터 3만 2백 9십 명까지,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2만 3천 9백 명부터 2만 4천여 명까지로 보고 있다.¹³⁾

13) 이민웅, 『임진왜란해전사』, 청어담미디어, 서울, 2004, pp.259~251; 박제광, 「丁酉

또 일각 선행학자는 명 군부가 자신들의 성세를 가장하기 위해 명 수군의 실제 병력 규모보다 크게 부풀려 말했기 때문에 상기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등자룡은 진린의 부장이기에 휘하 수군 병력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또 1598년(선조 31) 3월 사로군 편성 자문 통계 가운데 1천 5백 명(장양상 수군을 지칭함)은 노량해전 때까지 미 도착하였다.

그런데 선행학자들이 상기 자료를 고찰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적지 않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명군 병력의 변화를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명 장수는 조선 전역에 나올 때 도중에 보직 변경으로 다른 장수의 병력을 거느린 경우가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등자룡의 절강수군 3,154명은 원래 심무가 거느린 수병이었다. 도중에 심무의 보직이 육군으로 바뀌면서 등자룡이 대신 심무의 수군을 이끌고 조선 해역으로 나왔다. 신희의 『상촌집』에는 심무가 수병 1천 명, 등자룡이 수병 3천 명을 각각 이끌고 왔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일부 선행학자가 등자룡 휘하에 수군 병력이 없다는 견해도 잘못되었다.

진린이 거느린 광동영병 5천 1백 명은 원래 육군이었다. 도중에 진린의 보직이 조선 해역을 총괄하는 수군부장으로 바뀌고, 진린이 거느린 광동영병은 吳廣에게 넘겨졌다. 오광이 대신 거느린 원 광동영병은 서로군 유정 소속에 편입되었다.¹⁴⁾ 따라서

再亂期 朝 · 明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이순신연구논총』, 6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6, pp.8~9;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pp.96~97; 이종화 · 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3, pp.98~105 등.

- 14) 『경략어왜주의』 권4 「補統領廣兵副將疏」: “而臣以廣兵陸兵也, 急不得相宜之將, 故暫屬陳璘統領, 而仍以書達部, 再加詳擇相應之將代之. 如有將, 異日仍當屬之劉綎. --- 查得吳廣原系粵將, 素與此兵相習, 合即以本官充統領廣兵副總兵.”

진린의 원 광동영병은 조선 참전 명 수군의 병력 규모를 계산할 때 삭제해야 한다.

이천상의 수병 2천 7백 명은 단독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진린이 통솔한 수군 병력에 포함해야 한다. 이천상은 조선 해역에 나왔을 때 직급이 부장급인 천총인데, 노량해전 때 일본군 269급 등 큰 전과를 거둔 공적으로 유격으로 승진되었다. 따라서 이천상의 수병은 중복되기에 삭제해야 한다.

萬邦孚의 남경수병 2천 2백 8십 명은 후방인 발해만 해역을 지키기 위해 요동에 주둔했다. 또 白斯淸의 복건수병 1천 6백 명, 張良相의 수병 1천 5백 명(일설 3천 명), 병력 미상의 吳宗道 수군과 賈祥 수군 등은 노량해전 이후 또는 조선 선후책의 일환으로 들어온 수병이다. 따라서 이들 수병도 사로병진전략 또는 노량해전 때 수군의 병력 규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칠전량 패전 직후에 명 군부가 최종적으로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은 2만 1천 명이다. 이후 명 군부가 병력을 조달함에 미세한 조정이 있었겠지만, 사로병진전략이나 노량해전 때에는 최종 계획상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598년(선조 31) 10월 12일에 이덕형이 서로군과 수로군이 순천 왜교성을 공략한 것을 실패했다는 일을 치계한 뒤에 적은 실록 기록에서 명 수군의 병력이 1만 9천 4백 명이라고 했다.¹⁵⁾ 이 숫자, 즉 1만 9천 4백 명에다 순천 왜교성 전투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았던 장양상의 수군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군부가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인 2만 1천 명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조명연합수군이 순천 왜교성 전투가 펼쳐진 순천만에서 곧장 노량해협으로 이동했기에 노량해전 때 참전한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순천 왜교성의 병력 규모인 1만 9천 4백 명에

15) 『선조실록』 31년 10월 2일(갑자)조

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종합하면 명 군부가 최종적으로 세웠던 수군 조달 병력은 2만 1천 명이다. 이들 가운데 장양상의 수군 1천 5백 명만 노량해전 이후에 들어왔고, 나머지 1만 9천 4백 명은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고금도 통제영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壬辰筆錄』의 陳璘 논평

『임진필록』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 문무 장리의 행적을 기술한 책자이다. 『임진필록』 책자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필자가 따로 발표한 논고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¹⁶⁾ 『임진필록』 가운데 명 수군을 이끌어간 수뇌부 장수인 진린과 등자룡의 기록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진린 기록의 전문을 옮겨본다.

도독 진린의 자는 朝爵이고, 호는 龍崖이며, 廣東 羅定州 東安縣 사람이다. 무술년에 수군을 이끌고 나왔다. 사람됨이 질박하고 곧고 전투를 잘하였다. 노량대첩으로 사로군에서 으뜸이 되었다. 그러나 성품이 잔인하고 포학하여 지나가는 주·군의 수령들이 붙잡혀 곤장을 맞지 않는 자가 없었다. 노량해전 때 小西行長이 유정·진린과 강화를 모색하면서 유정 진영에게 수급 2천 금, 진린 진영에게 수급 1천 금을 보내주기로 약조하니 포위망을 풀어주기를 원했다. 도독이 말하기를 “나에게 1천 금을 더해 보내주면 약조대로 행하겠다.” 小西行長이 연일 무수한 금은 비단을 보내주자, 도독은 이를 모두 받았다.

하루는 小西行長이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사위가 南海에 있

16) 朴現圭, 『對壬辰倭亂中明軍相關史籍—《壬辰筆錄》의 考察』, 『中華文明與古代中外關係國際學術研討會』,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 2023.10.14. pp.221~242.

오니 만나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하니 한 선박을 보내어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이순신이 말하기를 “이 적이 사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병을 청하는 것이니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도독은 이를 듣지 않았다. 18일에 소선 1척을 보내주었는데, 왜인 8명이 타고 있었다. 22일 밤에 이순신이 말하기를 “왜선이 떠나간 지 이미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먼저 섬에 가서 지킨다면 저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도독이 이를 따랐다. 4경에 출발하여 해양 바깥에 이르니 구원하는 적이 이미 들어왔기에 합동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小西行長은 구원병이 패한 것을 바라보고는 먼저 도망쳤다. 당시 만약에 투합하여 급습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적선들이 들이닥쳐 주사들을 협공하고, 小西行長은 유정과 결전을 펼쳤을 것이다. 도독이 이순신의 책략을 듣는데 힘입어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돌아가자 도독은 슬프고 서럽게 울었고, 조의 물품이 아주 후하였다. 돌아오는 도중에 牙山을 찾아가 (이순신) 영구에 곡을 하고 처와 자식에게 조문한 뒤에 떠났다.¹⁷⁾

여기에서 진린의 고향을 羅定州 東安縣으로 적었다. 동안현은 1577년(만력 5)에 德慶州와 新興縣에서 분리된 행정구획이다. 1914년에 雲浮縣로 바뀌었다가 1994년 시로 승격되었다. 진린의 원 고향은 韶州 翁源縣이다. 옹원현 周陂鎮 龍田村에는 진린 조상의 분묘들이 남아 있다. 진린이 東安參將을 맡을 때 가솔을

17) 『壬辰筆錄』 陳璘 조항: 「陳都督璘, 字朝爵, 號龍崖, 廣東羅定州東安縣人. 戊戌領水軍出來, 爲人樸直, 善戰, 露梁之捷, 爲四路最, 然性殘暴, 所過州郡守令無不被拿梃者. 露梁之戰, 行長與劉·陳講和, 劉處約送首級二千, 陳處約送首級一千, 督曰: “加我一千, 可以如約.” 行長連日餽以金銀錦綺無算, 都督悉受之. 一日, 行長使人乞曰: “有壩郎在南海, 欲邀與計事, 請出一船以招之.” 李舜臣曰: “此賊非邀其壩, 乃請援兵, 決不可許.” 都督不聽. 十八日, 出送一小船, 坐倭八人. 二十二日夜, 舜臣曰: “倭船出去已四日, 援兵當至, 我船先守驪島, 則彼無能爲.” 都督從之, 四更出船, 至洋外, 則賊救已至, 合擊大破之. 行長望見援兵之敗, 先遁. 當時若不相機急擊, 則賊船大至, 合攻舟師, 而行長則欲與劉協決戰, 賴都督聽舜臣之策, 迄至成功. 及舜臣之亡, 都督哭之慟, 賻贈甚厚, 來途入哭靈柩於牙山, 弔其妻子而去。」

데리고 동안으로 이주하여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진린의 성품은 질박하고 직설적이다. 韶州都護, 拓林守備, 肇慶遊擊, 狼山副總兵 등을 역임할 때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3년(만력 21)에 진린은 복건과 광둥 해역을 담당한 南澳副總兵이 되었다. 곧이어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진린은 한때 천진, 등주, 내주, 여순 등지의 북방해역을 관장할 防海禦倭總官 또는 水兵副將의 후보에 올랐으나, 周于德과 楊文이 각각 그 자리에 임명됨에 따라 무산되었다.¹⁸⁾ 1597년(만력 25) 9월에 진린은 명 군부의 명에 따라 다시 부총병으로 기용되어 광둥영병 5천 1백 명을 거느리고 조선 전역에 나섰다.¹⁹⁾ 진린의 광둥영병은 육군이다. 북경과 화북을 잇는 張家灣,²⁰⁾ 중원과 북방의 경계인 山海關을 거쳐 육로로 요동으로 향하였다.²¹⁾ 그러다가 1598년(만력 26) 초 명 군부의 사로병진전략이 수립될 때 진린은 欽差統領水兵禦倭總兵官으로 보직 변경되어 수로군을 총괄했다. 당시 명 군부는 강화도를 기준으로 북쪽 해역은 주우덕이 맡고, 남쪽 해역은 진린이 맡도록 했다.²²⁾ 7월 16일에 진린은 명 수군의 본진을 거느리고 충청 당진을 거쳐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는 고금도에 도착하였다.²³⁾ 이로부터 본격적인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되었다.

18)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20일(무신)조 및 『경략어왜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19) 『명신종실록』 권314, 만력 25년 9월 9일(정유)조: “起陳璘爲副總兵, 統領廣東營兵五千赴朝鮮援救.” 여기에서 진린이 거느린 광둥영병의 인원수가 5천 명으로 적고 있는데, 아래 주석에서 기술할 『경략어왜주의』 「催發續調兵馬疏」에 따라 5천 1백 명으로 수정 보완했음.

20)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查得續到陸兵內陳璘所統廣兵五千一百名, 已于三月二十一由張家灣起行.”

21) 『명신종실록』 권321, 만력 26년 4월 8일(임술)조.

22) 『선조실록』 31년 4월 3일(정사)조.

23) 『이충무공전서』 권9 李芬 「行錄」: “(제해)七月十六日, 天朝水兵都督陳璘, 領水兵五千來到.”

이보다 앞서 7월 8일에 이순신은 韓孝純으로 추정되는 선비에 게 보낸 서찰에 도독 진린이 내일 진중에 당도한다고 하니 계급과 함께 강진으로 가니 보름 사이에 한 번 왕립하여 도독의 위풍을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물어보았다.²⁴⁾ 따라서 진린은 7월 9일경에 강진에 도달한 뒤 잠시 머물다가 16일에 고금도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사로병진전략이 펼쳐졌다. 유정의 서로군과 진린의 수로군은 합동하여 육·해로로 小西行長の 순천 왜교성을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한때 육지에서는 순천 왜교성의 외곽 철책, 바다에서는 순천 왜교성의 바다 밑동까지 진격했으나, 서로군과 수로군 간의 비협조, 小西行長の 완강한 저항 등으로 큰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때마침 董一元의 중로군이 사천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더 진격을 멈추고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

한편 小西行長은 豐臣秀吉의 사망과 五大老의 명에 따라 일본 열도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뇌물 공세를 펼치며 진린과 유정에게 접근하였다. 유정은 일찌감치 小西行長の 뇌물 공세를 받고 순천 왜교성을 공격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진린은 자신이 받는 수급이 유정보다 적다며 불만을 터트리며 만약 수급을 더 준다면 순천 왜교성의 해로 포위망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곧이어 많은 뇌물을 받은 진린은 小西行長이 남해왜성에 주둔한 사위 宗義智와 만나 이 일을 상의해야 한다는 음모에 넘어가 연락선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도록 묵인해주었다.²⁵⁾

24) 이순신 무술 7월 8일 간찰한효순: “陳都督明日間當到陣, 孤哀與季爺偕往康津, 月望間枉見都督威風如何?”(이상훈, 「李舜臣 簡札에 보이는 明 水軍의 參戰 初期 樣相」, 『해양문화연구』, 9집,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3, p.86)

25) 『李忠武公全書』 권13 「紀實」 중 「宣廟中興志」 참조.

小西行長이 진린에게 뇌물로 접근하여 남해왜성에 주둔한 사위 宗義智와 통교한다는 첩보를 접한 이순신은 진린을 찾아가 이것은 사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병을 청하는 것이라며 허락해주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진린은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않고 小西行長이 보낸 왜인 8명의 소선 1척을 놓아 주었다.

며칠 후 이순신은 다시 진린을 찾아가 적의 소선이 떠난 지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니, 먼저 노량 바다로 이동하여 적선을 기다리면 승세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진린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순신과 함께 노량 앞바다로 이동하여 노량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島津義弘의 대규모 구원함대를 맞서 싸워 수백 척을 깨뜨리는 대첩을 거두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보인다. 만약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일본 구원함대로부터 협공당하여 조명연합수군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천 왜교성을 지키는 小西行長도 서로군 유정과 결전을 펼치고 명군 전체에게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듣고 전군을 노량 앞바다로 출정하여 대첩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다.

진린은 이순신과 첫 만남부터 진심을 드러내고 교류하고 싶은 걸출한 장수로 받아들였다. 7월 진린은 명 수군의 본진을 거느리고 고금도 해역에 들어오니, 이순신이 최대한 예를 갖추어 친히 영접하고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서 명 수병들까지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범한 장수인지를 감지했다.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된 직후에 절의도해전이 펼쳐졌다. 진린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출격하여 일본 전선을 깨부수는 장면을 지켜보고, 또 조선 수군이 거둔 일본군의 수급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이순신이 도량을 갖춘 장수임을 깨달았다.

11월에 진린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자 무척이나 비통하였다. 이후 전란이 마무리되자 진린은 해로를 통해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특별히 이순신의 영구를 찾아보고 가족들을 조문할 목적으로 선박에서 내려 신창을 거쳐 아산으로 들어갔다. 이 사실은 李芬의 『(이순신)行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린은 신창에 들어와서 먼저 차사를 보내 조문을 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때마침 군문 형개의 차관이 와서 급히 상경해야 한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조위금 백금 수백량을 보내고, 아산에 들어와서 이순신의 아들들을 불러 길에서 만나 조문했다.²⁶⁾

4. 『壬辰筆錄』의 鄧子龍 논평

『임진필록』에 기술된 등자룡 논평을 옮겨본다.

부총병 등자룡은 □□□ 사람이다.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손과 발이 모두 마비되고 또한 귀가 먹었다. 노량전투 때 선박에 불이 나서 적에게 살해되었다. 일찍이 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말에 따라 나가고 물러나는 것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도독이 이순신의 부장이 되었다.” (등자룡이) 전사하자, 도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늙고 쇠약하여 당초 출전하지 않아야 했다. 이제 죽게 되었으나 또 누구를 원망하리오?²⁷⁾

26) 『이충무공전서』 권9 李芬 「行錄」: “都督入新昌縣, 先通來祭之意. 適邢軍門差官催上王京, 故都督只以白金數百兩齎送之, 至牙山縣, 邀見公之諸孤, 營往過於道, 下馬謁之, 都督亦下馬摻手痛哭.”

27) 『壬辰筆錄』 鄧子龍 조항: 「鄧副總子龍, □□□人, 年過七十, 手足俱不仁, 且耳聾. 露梁之戰, 火發其船, 爲賊所殺. 嘗譏陳都督進退必從李舜臣之言, 曰: “若此, 則乃都督爲舜臣副將也.” 及死, 都督曰: “此人老衰, 本不當出來, 今雖死, 又誰咎乎?”」

여기에는 기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 등자룡의 건강 상태였다. 등자룡의 나이가 70세 넘어 손과 발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다. 둘째, 진린과 등자룡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진린이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출을 행하자, 등자룡은 이와 같으면 도둑 진린이 이순신의 부장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등자룡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자, 진린은 등자룡이 늙고 쇠약한 몸으로 출전하다가 죽었다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아래에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선 과정과 전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등자룡의 나이에 대해 등자룡 집안의 문헌 기록과 집안 바깥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부터 적어본다. 등자룡의 집안 기록인 「家人旺八續報」는 등자룡이 1531년(가정 10)에 태어나서 1598년(만력 26)에 돌아갔다고 했다.²⁸⁾ 향년 68세이다. 반면 집안 바깥의 문헌 기록은 모두 등자룡의 나이가 70세 또는 70세가 넘는다고 적어놓았다. 『임진필록』과 『象村集』은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 나이가 70세라고 했고,²⁹⁾ 『明史』 「鄧子龍傳」에서는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고 했다.³⁰⁾

등자룡이 조선 참전에 나설 때 나이가 등자룡 집안의 문헌과 집안 바깥 문헌의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70세 전후의 고령임이 분명하다. 이때 등자룡은 수족이 마비되고 귀가 먹은 정도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등자룡은 장수로서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심리에서 자신의 건강

28) 『橫戈存稿』 「家人旺八續報」: “老爺(등자룡)於萬曆二十六年戊戌十一月十九日辰時, 歿於朝鮮國順天府南海露梁島地名, —— 老爺生於嘉靖十年辛卯庚子月丙辰日壬辰時.”

29) 『象村先生集』 권57 「曹副總票下官」: “鄧子龍以欽差備倭副總兵署都督僉事令水兵三千, 戊戌六月從水路, 九月到古今島, 十月戰亡, 時年七十.”

30) 『明史』 권247 「鄧子龍傳」: “子龍素慷慨, 時年踰七十. 意氣彌厲. 欲得首功, 急携壯士二百人躍上朝鮮舟, 直前奮擊, 賊死傷無算.”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어서 등자룡이 조선 전역에 참전한 과정을 적어본다. 1593년(만력 21)에 등자룡은 隴川, 干崖, 南甸 등지로 공격해오는 미얀마 군사와 맞서 승전을 거두었으나, 운남순찰어사 馮應鳳으로부터 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탄핵을 하는 바람에 끝내 혁직되고 고향 풍성으로 돌아갔다.

1598년(만력 26)에 명나라는 자국 발해만과 조선 해역을 지킬 수군 장수의 부족 현상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초 발해만을 지킬 수군부장 楊文이 질병으로 부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군문 형개는 육전에 적합한 장수는 많으나 수전에 적합한 장수가 적다며 재야에 있는 등자룡이 수전에 뛰어나다며 기용해서 旅順等處水營副總兵으로 삼았다.³¹⁾ 등자룡 자신도 평생 수전에 능하고 자신이 세운 전공이 절반 바다에 있으며 적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다.³²⁾

곧이어 당초 절강수군을 거느리기로 했던 유격 沈茂가 자신은 수전보다는 육전에 강하다며 보직 변경을 요청해왔다.³³⁾ 이에 대해 형개는 萬世德의 조사를 거쳐 사실을 파악한 뒤 병부를 통해 주본을 올렸고, 4월에 신종은 등자룡에게 심무의 절강수군을 거느리고 조선 해역에 나서도록 재가했다.³⁴⁾ 등자룡이 거느린

31)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該兵部覆議。--- 再照今日之役, 以計征調不爲不多, 以供戰守不爲不足, 仍其用衆用寡之妙, 可水可陸之奇, 其機不在兵而在將領。今三帥陸地并馳, 已成鼎峙之勢。而各營副。協亦不乏人, 獨水營雖有周于德總之, 然協守未備, 終非完局。先該督臣于楊文患病之後, 久以擇人以代, 奈未有當者。蓋近來將官宜于陸者多, 宜于水者少, 人各有其長, 未可強用其短耳。”

32)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頃據取到聽用原任副總兵鄧子龍稟稱, 生平慣于水戰, 立功半屬鯨波, 且有橫海揚虛, 誓不賊俱生之志, 以補楊文員缺似屬相位。”

33) 『경략어왜주의』 권4 「催發續調兵馬疏」: “又據浙江管領水兵原任遊擊沈茂稟稱, 奉文取用順領船兵, 及稱平生涉歷山林川澤, 陸地決鬪似優于水戰, 則本官之技能長短大都可知。---- 應并行天津海務撫臣, 俟沈茂督兵到鎮之日, 再加面試, 果無長于樓船而長于陸技, 卽改從陸用之責, 令星夜馳赴經略標下, 聽拔陸兵管領得職銜。定議咨部, 以憑奏請。所有順領船兵, 卽以付之鄧子龍, 亦一便也。”

원 심무의 절강수군은 3,154명이다. 『상촌집』에 등자룡의 수군이 3천 명, 千萬里의 『思庵實記』에 등자룡의 수군이 4천 명으로 적어놓았는데, 모두 개략적인 숫자이다.

등자룡이 절강수군을 거느리고 조선 참전하는 과정도 순탄치만 않았다. 후방 발해만을 지키는 수군부장에서 조선 해역에 나가 참전하는 장수로 나섰으나, 급작스러운 보직 변경과 준비가 많은 수군 특성상 진군 속도가 한참 늦어졌다. 과신 張輔之는 조선 해역의 사정이 급한데 등자룡은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두 차례 강하게 비난했다.³⁵⁾ 급사중 徐觀瀾도 등자룡이 한가하게 머물며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본을 올렸다.³⁶⁾

게다가 중군 方日新이 거느린 전선이 조명연합수군의 고금도로 내려가는 도중에 치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일신은 원래 심무의 중군이었는데, 등자룡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9월 9일에 방일신의 절강전선이 예로부터 거센 해역으로 알려진 충청도 九龍島에서 갑자기 돌풍과 파도가 솟구치는 바람에 선체가 파손되어 소선으로 갈아타고 탈주하다가 상륙 직전에 익사 당했다.³⁷⁾

34) 『명신중실록』 권321, 만력 26년 4월 2일(병진)일조: “兵部題稱: —— 頃據取到聽用原任副總兵鄧子龍, 慣習水戰, 宜令戴罪管旅順等處水營副總兵事, 責選精堅統領出洋, 便宜掃穴截糧, 扼衝邀擊, 與陸兵互相夾持. 其管領水兵遊擊沈茂, 陸鬪優于水戰, 宜改從陸用之, 所領水兵即以付之鄧子龍, 亦一便也. 從之.”

35) 張輔之『太僕奏議』 권2 「防播剿倭疏」: “至所稱水師獨守海島, 則僅僅季金三千耳. —— 最可恨者, 鄧子龍以債轅債帥, 戴罪立功, 職在統兵出奇, 橫截海面, 乃用兵之地, 曾無子龍之迹, 何耶?”; 권3 「島山功罪未明疏」: “臣等近取旬月章奏, 反復看詳, 見勘科本月十七日一疏, 其參鄧子龍逗遛避戰是也. 乃鄧子龍原有死罪, 招由暫令立功自贖, 而遷延悞事, 功無足贖, 即死亦何詞.”

36) 『선조실록』 31년 12월 14일(을축)조.

37) 諸葛元聲『兩朝平攘錄』 권4 「朝鮮」: “忠清道有九龍島者, 水族靈怪居間. 浙水營中軍方日新, 統浙兵三千, 自義州卸糧, 將赴鼓今島(古今島의 오기)鄧子龍所, 九月念九日至島, 夜發定更, 銃驚動水族, 海颶頓起, 波濤播蕩, 下觸鐵板沙, 二更樓船首尾俱裂墮, 止存中倉, 急呼小舟接登岸, 方始下船, 軍伴五六人齊上, 一時覆沒, 去岸止尋丈矣.”

등자룡의 절강수군은 애초부터 진군 일정이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과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도중에 소속 선박이 치패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군사 전력과 전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등자룡 집안의 기록인 『鄧維新等報』에 의하면 등자룡이 고금도에 도착한 일자가 10월 12일이다.³⁸⁾ 이 일자는 조명연합수군이 사로병진전략에 따라 순천만으로 이동하여 순천 왜교성 전투가 펼쳐진 이후였다. 9월 20일에 조명연합수군은 순천만 입구에 소재한 장도로 진격하여 적의 군량과 장비를 획득하고 또한 피로인을 구출해내었다.³⁹⁾ 따라서 등자룡은 전선의 해난 사고 수습과 전력 정비를 하는 바람에 진군 일정이 크게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에 등자룡은 순천만 해역에 도착했고, 18일에 조명연합수군과 함께 노량 해역으로 이동했고, 19일에 노량해전에 참전했다. 등자룡은 노량해전에서 장사 2백 명과 조선 수군 15명을 이끌고 조선 판옥선으로 갈아타고 전투에 나섰다.⁴⁰⁾ 전투에 임한 등자룡은 지난 조정의 탄핵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이 가장 큰 전공을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선봉으로 나서 오로지 공격만 일삼아 바닷물이 붉게 물들 정도로 수많은 일본군을 도륙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때 등자룡이 火毬를 던져 적선을 불태우는 화공 방식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진린은 등자룡이 시

38) 『橫戈存稿』「鄧維新等報」:“(등자룡)至十月十二到汎地”

39) 陳景文『剡湖集』 권하 「曳橋進兵日錄」:“二十日辰時合攻, 一一 午時, 陳都督率統制使, 乘潮列陳, 天兵望見, 舟師盛至, 莫不踴躍, 士氣益倍. 陳都督襲獐島, 取敵軍糧三百餘石, 并牛馬, 刷還囚擄人三百餘口. 分兵又搜剔三日浦賊寨, 列戰艦于獐島前洋, 皆揭白旗.”

40) 『명사』 권247 「鄧子龍傳」:“璘遣子龍偕朝鮮統制使李舜臣督水軍千人, 駕三巨艦爲前鋒, 邀之釜山, 南海. 子龍素慷慨, 時年踰七十. 意氣彌厲. 欲得首功, 急携壯士二百人躍上朝鮮舟, 直前奮擊, 賊死傷無算.”; 『선조실록』 32년 2월 2일(정사)조: “本國出身十五人, 同載於鄧子龍之船而皆死, 公州出身一人生還, 問其相戰曲折, 則可謂壯也.”

도한 화공 방식을 보고 전군에게 화구로 공격하라는 명을 내어 많은 적선을 불태웠다.⁴¹⁾

불행히도 아군이 쏜 화구가 잘못 쏘아 등자룡이 탄 판옥선에 떨어져 불이 나서 패선 위기에 봉착했다. 이 광경을 본 일본 전선이 마구 몰려와 판옥선으로 올라와 살육을 자행하였다. 등자룡은 이들과 맞서 싸웠으나 끝내 중과부적으로 왼쪽 다리에 자상 1곳, 오른쪽 다리에 2곳, 아랫배에 1곳, 왼팔에 2곳, 가슴에 총탄 1곳을 맞아 전사했다.⁴²⁾ 이때 같은 배에 승선한 등자룡의 가병과 조선 수군 14명도 전사하였다.

등자룡의 목은 일본군이 전리품으로 베어 가져갔고, 나머지 유해는 전투 후에 袁州 병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등자룡이 압록강 입구 해역을 지날 때 사람 얼굴과 닮은 침향목을 건졌는데, 사라진 그의 목을 대신하였다. 등자룡의 유해는 같은 날에 전사한 이순신의 유해와 함께 노량에서 고금도로 옮겨와서 관왕묘 앞 월송대 둔덕에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자룡은 군중의 돈을 한 푼도 따로 챙기지 않은 정도로 청렴한 행품을 보여주었다. 동생 鄧維新 등이 집안에다 서찰을 보내어 등자룡의 영구를 고향으로 옮겨갈 반전을 요청하며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⁴³⁾

조선 선조, 군문 형개, 제독 마귀 등은 모두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표시했다. 특히 등자룡의 喪車가 한양으로 들

41) 徐希震『東征記』: “黎明副將鄧子龍駕船奔赴, 計投火毬, 將倭船燎焚. 陳璘見火知鄧來救, 省悟火攻, 傳言被我燒了. 我兵得令, 各各放火, 遇倭船即燒. 倭見船船着火, 我沙蒼各船又集, 慌忙轉蓬星散, 如龍脚燭, 通海紅光, 奔趕二十里收兵, 燒過倭船七八百.”

42) 『형과존고』「家人旺八續報」: “[建北·雅四·丑仔俱陣亡, 老爺於二十六年十一月十九日辰時, 歿於朝鮮國南順天府南海露梁島地名. 身受左腿一鎗, 右腿二鎗, 左手一鎗, 胸前一彈.”

43) 『형과존고』「등유신등보」: “不要兵中之錢, 無銀用, 與俞千總借用. --- 今老爺陣亡, 俞千總又取銀七八十兩外, 眾千總們共一百六七十兩, 此系老爺借他們銀用的. 今老爺只有四十九兩四錢紙張口糧銀, 今俞千總執去了. 今我發張聰等二三人往邢老爺處, 討路費, 扶柩而歸. 良十先發上京, 或回接二叔·三叔來. 愚叔在後, 各處告狀, 家中可帶盤纏, 來接老爺棺柩.”

어오자, 선조는 친히 거동하여 치제했다.⁴⁴⁾ 반면 도독 진린이 부장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밝힌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진린이 왜 등자룡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했는가에 대해 사료 결핍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린이 등자룡과 경쟁 관계와 그의 강한 개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진린은 1532년(가정 11)에 광동 용원에서 태어났고, 등자룡은 1531년(가정 10)에 강서 풍성에서 태어났다. 진린과 등자룡은 모두 아집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였다. 이들은 평생 광동, 운남 등 남방 지역에서 여러 지방 토호나 미얀마 군사를 진압할 때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웠다. 이들이 역임한 관직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린이 등자룡보다 조금 빨랐다. 진린은 1576년(만력 4)에 羅旁山 瑤民을 진압한 공적으로 부총병이 되었고, 등자룡은 1585년(만력 13)에 姚關에서 미얀마 침공을 막아냈다는 공적으로 부총병이 되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진린은 御倭總兵官으로 승진하여 수로군을 이끌어갔고, 등자룡은 여전히 備倭副總兵으로 진린의 부장이 되어 조선 해역에 나왔다. 진린의 입장에서 등자룡을 바라보는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다. 등자룡의 나이가 많고 신체가 쇠약한 상태였고, 또한 부하 통솔과 작전 운용에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 등자룡의 절강수군이 조정 과신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정도로 조선 해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지체되었고, 또한 도중에 충청도에서 치패되는 사고를 당하여 수로군 전체의 전력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게다가 진린은 등자룡이 자신에게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퇴를 행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44) 『선조실록』 31년 11월 21일(정미), 32년 1월 9일(경인), 3월 6일(을유)조.

5. 고금도 관왕묘의 조력자 季金

여기에서는 명 수군 장수 가운데 고금도 통제영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또 고금도 관왕묘를 세울 때 조력자였던 계금에 대해 알아본다.

계금의 자는 長庚이고, 호는 龍崗이며, 절강 松門 출신이다. 1568년(융정 3)에 무진사가 되었고, 海鹽備倭, 廣東潮州參將 등을 역임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유격이 되어 오송 전선 10척을 거느리고 여순에 머물렀다.⁴⁵⁾ 곧이어 보직 변경이 되어 조선 해역으로 나왔다.

정유재란 초기 명 군부는 급하게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수군과 전함을 모아 조선 해역으로 보냈다. 이때 가장 먼저 파견한 수군은 유격 徐成의 浙直水兵이었다. 서성은 중군 王啓予 등 천·파총과 절직수병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들어왔다. 하지만 서성이 갑자기 질병이 나는 바람에 군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직책에 요동 해역에 나와 있던 계금으로 교체되었다.

1597년(선조 30) 10월에 계금은 조선 해역에 들어왔고, 11월 초에 한양에서 선조를 알현했다. 곧이어 절직수병과 선단을 거느리고 충청수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일부 선박이 침몰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때 계금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의젓하게 대처하였다. 이듬해 4월에 절직수병과 선단을 이끌고 오천항을 떠나 통제영 고금도로 내려갔다. 이때 오천 민초들은 계금이 그동안 자신들을 잘 보살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季金

45) 『경략어와주의』 권2 「增調宣大薊遼兵馬覓調閩海商船疏」, “蓋此海道近遊擊季金見領吳淞兵船十隻, 不二十日已到旅順, 無一毫損失.”

淸德碑」를 세워주었다. 비문은 교리 安大進이 쓰고, 글씨는 판관 朴思濟가 지었다. 현 오천초등학교 뒤편 언덕에 비석이 남아 있다.

1598년 4월에 계금이 이끈 명 질직수병이 통제영 고금도에 들어와 첫 번째 조명연합수군이 형성되었다. 『난중일기』 4월 26일 조에 계금과 부장들이 이순신에게 보내준 예물이 적혀 있다. 계금이 보낸 예물은 靑雲絹 1단, 藍雲絹 1단, 綾襪 1쌍, 雲履 1쌍, 香棋 1벌, 香牌 1벌, 浙茗 2근, 香椿 2근, 四靑茶甌 10개, 산닭 4마리 등이다.⁴⁶⁾ 이해 여름철에 계금의 부하들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역질에 걸린 병든 자가 많았다.

7월에 금당도 해전이 펼쳐져 조선 수군이 일본군 69급을 참획했다. 이때 계금이 수하를 보내 수급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자, 이순신은 수급 5기를 나누어주었다. 9월에 계금은 순천 왜교성 전투에서 무장으로서의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계금이 탄 전선이 물때를 알지 못해 벌에 걸리자 일본군이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이때 계금은 팔에 총탄을 맞은 상처를 입었으나, 일본군과 맞서 싸워 10여 급을 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⁴⁷⁾ 11월 노량해전 때 계금은 많은 적을 무찌르는 전과를 거두었다. 훗날 선조가 계금을 만났을 때 노량해전에서 공이 먼저 선박에 올라 싸웠다면 덕담을 했다.⁴⁸⁾

완도 고금면 덕동리에 옛 고금도 관왕묘, 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이 세워져 있다. 1599년(선조 32) 정월에 명 무진사 李天常

46) 『난중일기』 무술년 4월 26일조: “季遊擊所貺, 四月廿六日, 靑雲絹一端, 藍雲絹一端, 綾襪一雙, 雲履一雙, 香棋一副, 香牌一副, 浙茗二勒, 香椿二勒, 四靑茶甌拾介, 生鷄四隻.”

47) 『再造藩邦志』 제5 무술년 9월: “二十二日, 舟師乘潮而上, 鼓噪而進, 賊悉兵出城, 觀游擊季金所騎船閣於淺渚, 岸上之賊, 放丸如雨, 天兵從船上亦放大鉛子. 行長揮兵督進, 賊二十餘, 直涉淺渚, 攔止其船, 季金鼓其軍抗戰, 斬十餘級. 賊少却, 遂刺船而去.”; 『난중일기』 무술년 9월 22일조: “朝進兵出入, 而遊擊中丸左臂, 不至重傷, 唐人十一名中丸而死. 知世萬戶, 玉浦萬戶中丸.”

48) 『선조실록』 32년 4월 22일(신미)조.

이 쓴 「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에 고금도 관왕묘가 세워진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1598년(만력 26) 6월에 진린은 天津橋에 있을 때 관우가 나타나 전장에서 필승할 비법을 알려주는 꿈을 꾸었고, 또 북경 正陽門廟에서 관우상을 알현했다. 동년 가을에 고금도에서 또다시 관우가 나타나서 묘우를 세워주기를 원하자 즉시 수백 금을 내어 묘도 湧金山(현 勇劔山) 아래, 즉 현 위치에 관왕묘 건립에 나섰다. 9월에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었다.

고금도 관왕묘를 건립할 때 조력자로 활동했던 계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 사실은 이천상의 「고금도관왕묘창건사실」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첫째,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자 진린과 계금은 함께 나가 치제했다. 둘째, 묘우 현판 ‘威揚萬里’ 말미에 새긴 ‘萬曆戊戌季秋吉朝與浙直水營官兵同立’ 지기에 묘우를 절직수병과 함께 세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셋째, 15척이나 되는 정전 목판에 ‘總督禦倭總兵官都督府都督嶺南陳璘, 統領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이라며 진린과 계금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고금도 관왕묘가 진린이 건립비용을 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금과 절직군사가 조력 역할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⁴⁹⁾

끝으로 조명연합수군 시절에 세워진 고금도 관왕묘의 의의에 대해 적어본다. 고금도 관왕묘가 조선 참전에 나선 명 수군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속에 외세 침략을 결연코 막아내고자 하는 무인 정신이 살아있는 애국 장소이다. 고금도 관왕묘 앞 월송대

49) 李天常 「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 “皇朝萬曆戊戌六月日, 欽差總領水兵禦倭總兵官前軍都督府都督僉事陳公璘, 受命征倭, 率廣兵五千, 自天津橋來。——至康津古今島, 又感求廟之夢。出白金數百兩。與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 共設建廟於本島湧金山下。——廟額揭威揚萬里四大字, 皆以粉書之也。額末題曰: 萬曆戊戌季秋吉朝與浙直水營官兵同立。又以十五尺木板, 以青書之, 曰總督禦倭總兵官都督府都督嶺南陳璘, 統領浙直水營游擊將軍天台季金。此即萬曆戊戌六月初吉皇差二公職帖之板也。”

는 노량해전 때 뜨거운 선혈을 바다에 뿌리고 순국한 조선의 이순신과 명 등자룡의 유해를 한동안 안치해놓은 장소이다. 1666년(현종 7)에 진린을 東廡, 1683년(숙종 9)에 이순신을 西廡에 각각 모셨고, 1792년(정조 16)에 등자룡을 추배했다. 194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고금도 관왕묘의 제단과 기물이 철거되었지만, 건물 자체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에 다시 이충무공유적으로 되살아나 많은 사람이 참배하는 장소가 되었다.

6. 결론

고금도 통제영 시기는 임진왜란 때 조선 해역을 다시 수복하고 쓰러져가는 국가의 운명을 계속 이어가게 했던 한국 수군사의 한 장면을 차지했다. 고금도 통제영을 이끌던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인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두는 위업을 달성했지만, 그 자신은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또 조명연합수군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적에 대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승전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등자룡, 陶明宰, 조선의 李英男, 方德龍, 高得蔣 등 10여 명 장수도 순국했다.⁵⁰⁾

전투 수행이 가능한 명 수군의 파병은 1596년(선조 29) 11월에 선조의 요청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조는 명나라에 주문을 보내면서 일본군이 두려워하는 것이 주사이니 명나라가 주사를 파견하여 조선 수군과 협동하여 적들을 소탕해주기를 요청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 군부는 자국의 영해를 사전에

50) 『선조실록』 31년 11월 27일 이덕형 치계.

방비하고 조선 수군의 병력 부족을 내세워 전투 수행이 가능한 수군 5천 명을 보냈다.

1597년(선조 30) 7월에 원군의 조선 수군이 칠전량해전에서 거의 전멸당하자, 명나라는 일본군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 조선 왕경(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의 영해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수군 파견이 이루어졌다. 조선 참전에 나설 수군의 병력 규모는 크게 두 차례 모집 방안을 거쳐 총 2만 1천 명으로 정해졌다.

1598년(선조 31) 4월에 유격 계급을 필두로 이순신의 통제영이 소재한 고금도에 처음 내려왔고, 7월에 도독 진린의 본진이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조명연합수군이 결성되었다. 사로병진전략이 전개되어 순천 왜교성을 공략할 때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1만 8천 9백 명이다. 곧이어 전개된 노량해전 때에도 이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노량해전까지 미도착한 장양상의 수병 1천 5백 명을 더하면 당초 명 군부가 세웠던 조달 방안 2만 1천 명과 일치한다.

도독 진린은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한때 수군부장의 후보로 올랐다가 양문이 천거되는 바람에 부총병으로 광동영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육로로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 도중에 수군부장 양문이 질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자, 진린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명 수군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진린은 이순신을 무척 신뢰하였다. 전투에 있어서 이순신의 말을 따라 군사 진퇴를 행하였고, 전란이 끝나 상경할 때 특별히 이순신의 영구가 모셔져 있는 아산을 찾아가 이순신의 자식들에게 문상하였다.

부총병 등자룡은 군문 형개의 천거로 다시 부총병에 기용되었다. 참전 도중에 절강수군 3,154명을 거느린 유격 심무가 육군으로 보직 변경되자, 등자룡이 원 심무의 수병을 이끌고 조선

해역에 나왔다. 등자룡 휘하 중군 방일신의 선단이 충청도 해역에서 치패되는 바람에 소속 수군의 진군 과정이 지체되고 적지 않는 전력 손실을 보았다. 등자룡은 조선 참전에 나섰을 때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데다가 손발이 마비되고 귀가 먹었다. 그런 데도 노량해전 때 최일선에 서서 돌격을 전개하다가 뜨거운 선혈을 바다에 뿌리고 전사했다. 진린이 등자룡의 전사에 대해 높고 쇠약하여 당초 출전하지 않았느냐 되는데 이제 죽게 되어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남겼듯이 명 수군의 수뇌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견제와 마찰이 있었다.

유격 계급은 정유재란 초기에 수군을 거느리고 여순에 머물고 있다가 선발대로 내려간 서성이 질병이 나는 바람에 교체되어 조선 해역에 나섰다. 한동안 강화도, 오천 충청수영 등지에 머물다가 1598년(선조 31) 4월에 고금도에 내려와 첫 번째 조명연합수군을 결성하였다. 순천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때 많은 적을 죽이는 전공을 세웠다. 1598년(선조 31) 9월에 진린이 주도한 고금도 관왕묘가 낙성되었다. 묘우 현판에 진린과 계급의 절직수병이 함께 묘유를 세웠고, 또 정전 목판에 진린과 계급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점을 보아 계급이 고금도 관왕묘를 창건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栗下寄室; 癸卯芒種]

〈참고문헌〉

- 邢玠, 『經略御倭奏議』, 明萬曆年間刊本.
- 編著未詳, 『壬辰筆錄』, 抄本.
- 李敏雄, 『임진왜란해전사』, 청어담미디어, 서울, 2004.
- 박제광, 「丁酉再亂期 朝·明水軍의 聯合作戰과 露梁海戰」, 『이순신연구논총』, 6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6.
-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 이종화·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3.
- 朴現圭, 『임진왜란 중국 사료 연구』, 보고사, 고양, 2018.
- , 「丁酉再亂부터 鳴梁大捷까지 明 水軍의 派兵과 運營 고찰」, 『전라남도 정도 1000년의 해 명량대첩 기념 전남 권역별 학술 세미나』,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18.09.08.
- , 「對壬辰倭亂中明軍相關史籍——《壬辰筆錄》의 考察」, 『中華文明與古代中外關係國際學術研討會』,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 2023. 10.14.

〈Abstract〉

The Participation of Ming Dynasty Naval Forces and Commanders during the Jeongyu War(丁酉再亂)

Park, Hyun-Kyu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of the Ming Dynasty naval forces during the Gogeu Island(古今島) Naval Headquarters period in the Jeongyu War.

The deployment of Ming naval forces was initiated by King Seonjo(宣祖)'s request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stating that the only force the Japanese feared was the Zhu military forces, and he hoped for the joint effort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to annihilate the enemy. After the outbreak of the Jeongyu War(丁酉再亂), the Ming military assembled 5,000 naval forces in response to the lack of manpower in the Joseon navy and to preemptively defend their territorial waters. Following the Battle of Chilcheollyang(漆川梁海戰), the Ming military decided, after two rounds of deliberations, to send a total of 21,000 naval troops. At the Battle of Suncheon Japanese Fortress, 19,800 Ming naval forces participated, and if the 1,500 troops led by Zhang Liangxiang(張良相), who had not yet arrived, were added, the number would match the originally planned figure for the Ming naval deployment.

Chen Lin(陳璘) initially led the Guangdong army overland, but after the illness of the naval commander Yang Wen(楊文), he took over the position and assumed overall command of the Ming naval forces.

Deng Zilong, who led the Zhejiang navy, replaced Shen Mao(沈茂), who had been reassigned to the land forces, and sailed to the waters of Joseon. Despite suffering from paralysis and deafness at the time of his participation, Deng Zilong fought at the forefront in the Battle of Noryang(露梁海戰) and ultimately died in action. As Chen Lin noted, the hidden friction between commanders was evident when he remarked that Deng Zilong(鄧子龍), though old and frail, died in battle after participating. Ji Jin(季金) was the first to arrive at Gogeu Island Naval Headquarters and formed the first Joseon–Ming combined naval forces((朝明聯合水軍). The Guan Yu Shrine(關王廟) at Gogeu Island was initiated by Chen Lin, with Ji Jin providing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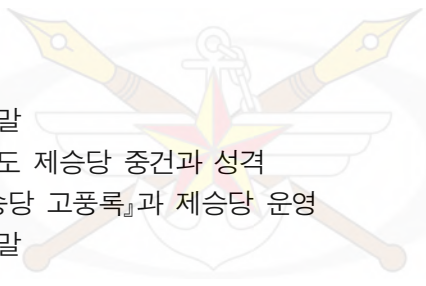
Keywords: Gogeu Island(古今島) Naval Headquarters(統制營), Gogeu Island Guan Yu Shrine(關王廟), Joseon–Ming combined naval forces(朝明聯合水軍), Lee Sunsin(李舜臣), Chen Lin(陳璘), Deng Zilong(鄧子龍), Ji Jin(季金)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203-241
<https://doi.org/10.29212/mh.2024..133.20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중건과 운영 고찰

- 『제승당 고풍록(制勝堂 古風錄)』을 중심으로 -

김용재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 
- 목 차
1. 머리말
 2. 한산도 제승당 중건과 성격
 3. 『제승당 고풍록』과 제승당 운영
 4.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18~19세기 한산도(閑山島) 제승당(制勝堂) 관련 자료를 추적한 글이다. 통제사 조경(趙敬)의 관력과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제승당을 중건한 사유를 추론했으며, 제승당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제승당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승당 고풍록』을 분석하여 방문자 및 헌성물품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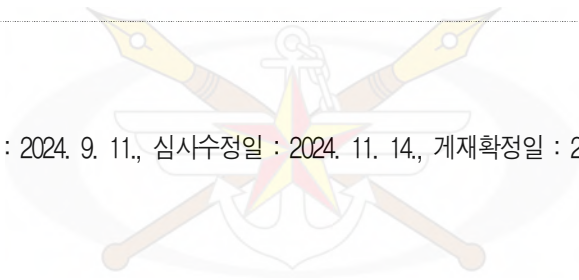
그 결과 첫째, 제승당의 중건은 무신란(戊申亂) 때 이순신(李舜臣) 후손인 이봉상(李鳳祥)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환으로 중건하였다. 조경은 통제사로 부임하여 한산도를 찾아 제승당을 중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趙顯命)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둘째, 통제영 방문자들은 수조 훈련에 편승하여 제승당을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하였다. 그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꼭 가봐야 할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승당에 가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충성심과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쏘기도 하였다.

셋째, 제승당을 창건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고풍록(古風錄)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제승당 고풍록』에서 살펴본 제승당 방문자는 통제사와 수군 진장 또는 인근 고을의 지방관들이었다. 이들은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승당을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주제어 : 한산도, 제승당, 고풍록, 무신란, 조경

(원고투고일 : 2024. 9. 11.,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통영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도시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시 주둔했던 곳에 세운 제승당(制勝堂)이 있으며,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사망 후 민간에서 세운 최초의 사당인 착량묘(鑿梁廟)가 있고 삼도수군통제영을 두룡포에 이영(移營)한 후 이순신을 단독 배향한 통제영 공식 사당인 통영 충렬사(統營忠烈祠)가 있다. 제승당과 착량묘, 통영 충렬사는 이순신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병선 700여 척을 이끌고 1592년 4월 13일 오후 4시경 부산포를 침략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 부산이 함락되자 일본군은 육로에서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거침없이 올라갔다. 그러나 수로에서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이 연합함대를 이용하여 연전연승하고 있었다. 특히 한산대첩의 승리는 일본군의 서진을 막는 중요한 승리였다. 이후 한산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순신은 1593년 7월 14일 진영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긴 후 1597년 2월 26일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한산도에서 3년 7개월을 보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시 이곳 한산도로 진영을 옮긴 이유는 전라도로 가는 왜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었다.¹⁾ 『난중일기』는 임진년(1592) 1월 1일부터 무술년

1) 『亂中日記』 기사년 7월 14일 진영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겼는데, 비가 땅의 먼지를 적실뿐이다. ; 『宣祖修正實錄』 27권, 선조 26년 7월 1일 계축,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이 군영을 한산도(閑山島)로 옮기기를 청하니 따랐다. 한산도는 거제(巨濟)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산세가 빙 둘러쳐져 배를 숨기기에 편리하였고 왜선(倭船)이 호남을 침범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해야만 하였다. 이순신은

(1598) 11월 17일까지 6년 11개월까지의 일기이다. 『난중일기』는 대부분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쓴 기록이며 한산도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난중일기』의 대부분을 한산도에서 썼다는 의미는 한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한산도는 폐허 되고 방치되었다. 후대의 한산도에 제승당이 증건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제승당은 방영(防營)을 견내량으로 옮기면서 방치되 다시피 했다가 증건되기도 했다.

한산도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된 결과는 많지 않다. 한산도와 연계한 연구는 임진왜란이나 한산대첩 또는 통제영의 일환으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삼도수군통제영의 일환으로 한산도 통제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도 있다.²⁾ 또한 한산대첩에 대한 분석 시 한산도가 언급되었다.³⁾ 한산만의 지리적 조건을 분석한 자료도 있다.⁴⁾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한산도 제승당의 증건 배경과 운영에 대하여서는 연구 실적이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통제영 시대에 한산도를 143년간 방치했다가 조경(趙敬, 1677~1743) 통제사가 1740년(영조 16)에 증건했다.

본진(本鎭)이 좌측에 치우쳐 있어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한 것이었다.

- 2)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현창,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37,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22 ; 노승석, 「임진왜란기 한산도(閑山島) 통제영(統制營)에 관한 연구-역사 사료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2, 태동고전연구소, 2024
- 3) 이만웅, 「한산대첩의 주요 경과와 역사적 의의」,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6 ; 제장명, 「이순신의 수군 전략과 한산대첩」, 『군사』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이순신의 수군 운용」, 『이순신연구논총』 31,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9 ; 임원빈, 「『난중일기』를 통해 본 한산도와 이순신의 건강」,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4
- 4) 제승당관리사무소, 『制勝堂誌』, 1994, : 김일룡, 「이순신의 한산도 제승당 고찰」,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2023

많은 통제사가 거쳐 갔지만 제승당을 방치하고 중건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이순신의 유적을 다시 중건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사유를 찾아야 제승당의 성격과 운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승당의 중건 배경과 성격,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제승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한산도 제승당을 중건한 배경을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석하겠다. 또한 제승당의 성격에 대하여 사료를 중심으로 확인하겠다.

3장에서는 『제승당 고평록』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고 방문자와 헌성물품을 분석하여 제승당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겠다.

한산도에 대한 연구는 임진왜란 시기의 한산도 연구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중건된 제승당에 대한 의미와 방문자들의 분석은 부족했다. 제승당을 방문한 사대부들의 시문과 방문기를 분석하고, 『제승당 고평록』을 중심으로 방문자들과 헌성품을 분석하여 18~19세기 제승당의 성격과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기는 제승당을 중건한 이후 통제영이 폐영되는 시기까지를 범위로 잡았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시기의 한산도는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제승당이 중건된 이후의 연구는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제승당에 관한 시문과 방문기 및 각종 사료를 검토할 것이며 『제승당 고평록』을 분석할 것이다. 『제승당 고평록』은 1740년(영조 16)부터 1860년(철종 11)까지 129년간의 방문자와 헌성물품이 기록된 당대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승당에 관한 방문자와 헌성물품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이므로 방문자를 통하여 제승당의 성격과 헌성물품을 통하여 운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방문자들의 인식을 밝히고 이순신의 한산도와 함께 현대의 제승당 현장 사업에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2. 한산도 제승당 증건과 성격

1) 조경 통제사의 제승당 증건 배경

정유재란 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조선 수군은 배설이 12척의 판옥선만 거두어 퇴각하면서 한산도를 청야작전으로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후 통제영은 두룽포로 옮겼으나 한산도는 방치되었다. 통제영 초기 첨방(添防) 제도에 의하여 풍화기에 전라도 수군은 통제영으로, 충청도 수군은 전라도로 이동하여 첨방했고, 풍고기에 파방(罷防) 했다.⁵⁾ 당시 조선의 전략은 수군 및 전선의 확보와 첨방 제도 시행, 수군진 정비가 주를 이루었다.⁶⁾

1739년(영조 15) 조경이 통제사로 부임하면서 폐허가 된 한산도를 보고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고 호령하던 곳인데 주춧돌이 옮겨지고 우물과 부엌마저 메워졌다고 하며 이듬해 1740년(영조 16) 당을 증건하고 ‘제승당’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임진왜란 시기 한산도의 집무실을 대청(大廳)이라 했다. 대청은 한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증건되었다.⁷⁾ 대청은 후대의 기록에 운주당(運籌堂)이라고도 했다.⁸⁾ 운주당은 그 집에서 작전계획을 세

5) 송기증,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5-44쪽

6)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수군」,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7) 『亂中日記』 乙未年 9월 25일

8) 『懲毖錄』 권2, 舜臣在閑山時 作堂名曰運籌 日夜處其中; 『謚狀』, 元均代爲統制 盡反公軍政 公在鎮作運籌堂; 『李忠武公全書』, 「行錄」, 公爲都督 設酒於運籌堂

우고 전략을 의논하던 곳이라 운주당이라 했다. 조정 통제사는 사라진 한산도 대청을 중건하면서 운주당이란 당호를 쓰지 않았다. 이미 통제영에는 통제사의 공식 집무실인 운주당이 있었다.⁹⁾ 운주당은 인조대인 1645년 통제사 이완(李浣, 1602~ 1674)이 세병관 동쪽에 건립하였고 운주당이라 이름 붙였다. ‘운주(運籌)는 『사기』 「고조본기」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짜서 천 리 밖의 승리를 결정한다(運籌於帷幄之中 決勝於千里之外)”에서 나온 말로 군막 속에서 작전계획을 짜고 구상해 내는 것이니 곧 대장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¹⁰⁾ 100여 년이 지난 이곳에 중건한 한산도 대청을 운주당이라 하지 않고 이순신 승리의 장소인 의미를 담아서 제승당이란 당호를 써 편액을 달았다.

그러면 조정 통제사는 143년간 방치되었던 한산도를 왜 중건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조정은 무과에 급제 후 선전관을 거쳐 금군장, 춘천부사, 충청수사, 여산부사, 전라병사, 회령부사, 곡산부사, 영주목사, 영변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정은 1727년(영조 3년) 9월 13일 전라병사로 부임하였으며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하는데 공적을 쌓았다.¹¹⁾ 이인좌(李麟佐, 1695~1728)는 무신란을 일으켜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도성으로 진격하던 중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진압군은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 1673~1728)과 종사관 박문수(朴文秀, 1691~1756)와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이었다. 한편, 충청병사였던 이봉상(李鳳祥, 1676~1728)은 무신란 때 청주에서 순절하였다. 이봉

9) 『統營志』, 규장각도서 10876, 運籌堂順治二年乙酉李公浣始建

10) 김현구, 「조선 후기 統制營의 公廨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105-161쪽

11) 『英祖實錄』 13卷, 英祖 3년 9월 13일 병인, 以尹惠教爲副提學, 趙德隣爲校理, 李匡德爲修撰, 趙儼爲全羅兵使; 17卷, 英祖 4년 4월 1일 신사, 全羅兵使趙儼狀啓言, 兵營武人趙萬挺往見羅州謫居人李眞儒, 自言隨往朴弼夢之行, 眞儒捉萬挺, 告營將田日祥囚禁, 命拿來

상은 반란군이 칼로 위협하자

너는 충무공 집안에 충의가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지 않느냐.¹²⁾

하며 저항하다가 장전(張鉉)과 이배(李培) 등에 의해 맞아 죽었다. 이때 남연년(南延年, 1653~1728)과 홍임(洪霖, 1685~1728)도 함께 순절하였고, 이봉상의 숙부인 이홍무(李弘茂, 1665~1728)도 사망하였다.

이홍무의 아들 이명상(李命祥, 1692~1745)은 부친의 시신을 거두고 상례를 치른 후 중앙 군직에 복귀했다가 전라좌수사와 충청수사를 역임하였다.¹³⁾ 이후 1731년(영조 7) 이봉상은 현충사에 추향되었고 적손인 이홍의(李弘毅, 1648~1735)의 둘째 아들 이연상과 그의 아들 이한응(李漢膺, 1711~1779)이 연이어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이순신 후손의 희생은 자손에 대한 탁용으로 이어졌다. 이순신과 그 후손은 죽음으로써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선조의 뜻을 이어 후손까지도 국왕에게 충의를 다하는 충신의 표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의 이순신 후손에 대한 포장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선조인 이순신의 죽음과 연동하여 현창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⁴⁾

조경은 무신란 진압에 참여하였고 이봉상의 순절과 이순신 후손의 포장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에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였다.¹⁵⁾ 영조가 내린 삼도수군통제사 조경의 부임 교서에 “충무공

12) 『英祖實錄』 16卷, 英祖 4년 3월 15일 을축

13) 『英祖實錄』 32卷, 英祖 8년 7월 8일 임진 ; 英祖 16년 5월 29일 무진

14) 윤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장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18쪽

15) 『英祖實錄』 49卷, 英祖 15년 6월 20일 을미

(忠武公)의 옛 공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힘써 적을 제압한 계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스스로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조경은 통제영에 부임하여 이순신의 전적지인 한산도를 순시하던 중 이곳이 황폐화해지고 세월이 흘러 역사가 잊힐까 두려워 제승당을 증건하게 된다. 이것은 무신란의 진압 과정에 참여한 조경이 이봉상을 비롯한 이순신 후손의 충절을 통제사로 부임한 후 한산도에서 이순신의 충절과 연결하여 현창하는 작업으로 확대 제승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조경이 제승당을 증건한 사유를 「제승당 유허비」와 「제승당 기문」에서 찾아보자.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의 옛터에 1739년(영조 15) 유허비를 세웠는데 글은 도사 정기안(鄭基安, 1695~1767)이 짓고 조경이 썼다. 비의 첫머리에 고통제사충무공이순신한산제승당유허비(故統制使忠武公李舜臣閑山制勝堂遺墟碑)라 적고 뒷면에 경위를 새겼다.

이제 군자 이르되 통제공 조경은 과연 능히 임금을 섬기는 분이라 하리니 그 어른을 사모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비를 세울 것이며 진실로 사모하는지라 반드시 본받을 것이며 진실로 본받는 자는 반드시 충성되고 의로울 것이며 충성되고 의로운지라 임금을 섬길 따름 다른 무엇이 있을까 보나. 여기 이 비를 세우고 쓴 이는 통제사 조경이요 글을 지은 사람은 도사 정기안이다.¹⁶⁾

이같이 유허비에는 이순신의 충절에 대하여 숭모하는 마음과 국왕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승당을 증건한다고 기록했다.

16)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69쪽, 於是 君子曰 統制公 於是乎能事君矣匪慕其人 曷能碑之 苟慕矣 必效之 苟效矣 必忠而義 能忠而義 於事君乎何有 碑而書之者 統制使趙敬也 文而記之者 都事 鄭基安也

한편, 제승당의 기문을 쓴 조현명은 무신란 때 반란군의 진압대장 도순무사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박문수와 함께 진압에 참여하여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조현명은 이후 전개된 훈포장에도 깊이 참여하여 이순신의 현창 사업을 이해하고 있었다. 조현명이 쓴 「제승당 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충성과 의리란 사람의 성품 속에 본시부터 있는 것이지 마는 반드시 권장하는 일이 있는 연후라야 일어나는 법이니 그러므로 이 제승당을 짓는 것도 실상 남방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때문인 것이다. 남방 백성들의 충무공에 대한 생각은 실로 부모같이 사랑하고 신명같이 두려워했지만, 세월이 오래되고 보고 듣던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집집이 제사를 지내던 옛 풍속마저 이제 와서 차차 게을러지고 있다. 이런 때를 당하여 한 번 일깨우는 길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장할 바가 있겠는가.¹⁷⁾

조경은 이순신의 현창 사업인 제승당을 증진하면서 그 뜻은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는 데 있다고 기문에서 밝혔다. “충성과 의리란 사람의 성품 속에 본시부터 있는 것이지 마는 반드시 권장하는 일이 있는 연후라야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여 충신의 대명사인 이순신의 흔적을 세우는 것은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전쟁이 끝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남방 백성들에게 충무공은 여전히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순신이 호령하던 옛터가 잊혀가는 것을 되살리고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위하여 충무공이 작전을 지휘하던 제승

17) 趙顯命, 『歸鹿集』 卷8 記;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3, 忠義之於人 性所固有 然必待動而後興焉 然則斯堂之作 乃所以動 忠義於南民也 南民之於忠武公蓋嘗有父母之愛 神明之畏 然歲月既久 耳目浸遠 昔之家侑 而戶祝之者 今至於漸怠 當斯時也 不有以興起之 則民惡能有所動也

당을 증건한 것이다.

통제영에서도 통제사의 행사 시, 혹은 훈련 시 이순신을 상징하는 명조팔사품을 거치하고 일체화하여 권위를 세웠다. 통제사의 인식이 그러한데 군관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이순신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았다. 제승당의 증건은 그런 인식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라 조현명은 기문에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제승당의 증건은 무신란의 이순신 후손인 이봉상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환으로 증건하였다. 이에 제승당을 증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2) 한산도 제승당의 성격

제승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승당 고평록』과 『서행록』, 『통영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⁸⁾

당에 기록이 유(有)하고 서적이 있으니 알겠지만, 제승당은 해도 중에 있어 비바람에 서로 깎여 충사의 흔적이 없히어 있으니, 예로써 그 보존 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 승도를 차출하여 여기에 기거케 하였다. -『제승당 고평록』-¹⁹⁾

18) 『制勝堂 古風錄』: 조정 통제사가 제승당을 증건하면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고평록을 작성하여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아 기록한 책. 『西行錄』: 전라도 고흥의 여산송씨 문중의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등 3대가 쓴 일기이다. 이들은 선조들의 충절에 대한 포장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한 내용이 『서행록』이다. 『統營志』: 통제영 폐영 1년을 앞둔 1894년 필사한 통영의 지리지이다. 통제사가 겸직한 통제영과 경상우수영의 군사, 행정, 재정, 수군 훈련 및 유사시 동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수록했으며, 책의 구성은 1권 46장이다.

19) 신수환 소장, 『制勝堂 古風錄』, 序文, 堂有記有書 而知之也 堂在海島中風雨相磨 虫蛇交迹典 守之 方不可 不用策 茲令差三緇徒

난간에 기대어 잠시 쉬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곳에 거처하는 스님이 밥을 차려주었다. 제승당 뒤의 두어 칸의 집은 바로 본토의 스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탁임(卓稔)이란 이름의 수직 승장(守直 僧將)이 조금은 사람을 알아보니 쇠 중에도 쟁쟁 올리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제승당에 묵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 고요해지고 오직 소나무 숲에서 슬피 울어대는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행록』-20)

1740년(영조 16년) 조정 제107대 통제사가 중건하고 거제 앵산사 승도 들이 수호케하였다. 두억포에 있는 군창둔 3섬지기를 떼어 붙여 주었다. -『통영지』 -21)

1740년(영조 16년) 『제승당 고품록』에는 세 승도들에게 당을 지키게 했으며, 1759년(영조 35년) 『서행록』의 「통행일기」에도 탁임이라는 수직 승장의 안내를 받아 제승당을 방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년)의 『통영지』에는 거제 앵산사의 승도 들이 당을 수호케 했다고 하였다.²²⁾ 이처럼 제승당은 조정 통제사가 중건 후 승도 들이 당을 지키게 하였다. 제승당은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한산은 거제에 있고 거제는 노비의 소굴이라 하여 숨어 사는 노비들이 많아 양반들이 한산도로 오면 곤란

20) 宋廷岳·宋志行, 『(국역)西行錄』 2, 재)한국호남진흥원, 2021, 32쪽, 憑軒小憩 日已夕矣 居僧進飯 堂後數間舍 即本土爲髡者居 而守直僧將名卓稔 稍知人事 可謂鐵中錚錚者也 宿制勝堂 夜深波靜 惟聞杜鵑啼於松樹間而已

21) 『統營志』 규장각서10876호, 英廟朝庚申 趙公倬重建以巨濟鰲山寺僧徒守護 頭億浦所在軍倉屯三石 落只劃付

22)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원, 『韓國의 寺址 현황보고서 경상남도』, 2019상, 거제 하청의 앵산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09호로 지정된 거제 하청 복사지가 있으며 한편 이곳에 조선시대 淨水寺가 건립되어 승려수가 무려 70여 명이라고 전해진다. 18세기 문헌에는 ‘鰲山에 있다’고 하였지만, 이후 간행된 『경상도읍지』 등에는 폐사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을 겪는다고 한다. 뱃길이 멀어 살림살이가 궁하여 당을 지키는 승도 들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짜 팔아서 사용했으나 이마저 부족하여 참배객들에게 물품을 희사받고 고품록을 작성하였다. 조현명이 지은 「제승당 기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한다.

이제 공의 옛터가 묻힌 지 또한 100년이 지났는데 요즘 조 공이 그곳에 올라가 보고 탄식하되 ‘이곳을 황폐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하고 마침내 이 집을 세우게 되었다. 그 규모와 제도는 한결같이 충무공 때의 옛 모습 그대로 하고 또 공청 수십 칸을 따로 지어 큰 조련을 할 때 군사들의 음식 먹는 곳으로 쓰며, 나에게 편지를 보내와 기문을 청하기에 나는 쾌히 승낙하였다.²³⁾

이 기문에 의하면 중건 당시 제승당의 규모와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 말엽 제승당은 대청이 팔작 3칸이고 방 2칸, 뒷면에 좌우협방 2칸, 청 1칸이었고, 따로 수직소청 1칸과 좌우방 2칸과 주방 1칸, 그리고 충무공의 유허비를 모신 비각이 1칸이었다.²⁴⁾

송정악(宋廷岳, 1697~1775)은 「통행일기」에 통영 충렬사를 방문 참배하고 『심원록』에 이름을 적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실제 통영 충렬사 소장 『심원록』에 기록이 남아있다.²⁵⁾ 「통행일기」에는 다음날 제승당을 방문하고 하룻밤을 묵은 내용이 있다.

대개 한산의 형승(形勝)은 뒤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남쪽 산

23) 趙顯命, 『歸鹿集』 卷8 記 ;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3, (전략)於是公舊址湮歿且百年矣 乃者 趙徹登覽而歎曰是不 可一任其荒廢也 遂重建斯堂 其規制 一皆按公之故 又別爲廡數十架 以爲大操 時饗土之所 專書告余請爲記 余曰諾(후략)

24) 통영시사편찬위원회, 『統營市誌』 1권, 2018, 377쪽, 『영지』 (국중본) 아사, 재인용

25) 통영 충렬사 『尋院錄』 2권 74면 ; 壺山後人 宋廷翼 宋廷岳 宋日甲 己卯五月初二日 居興陽

자락은 굽실굽실 북쪽으로 회전하여 제승당을 감싸고 앞바다를 가리고 지나간다. 제승당 앞은 수백 척의 배를 수용할 만하였는데, 동쪽에서 보면 바닷길이 남해(南海)와 바로 통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임진왜란 때, 왜선들이 항구에 많이 쳐들어오자, 충무공이 오는 길을 막아서 끊어 버리고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남쪽 나지막하고 좁은 곳은 왜노(倭奴)들이 온 힘을 다해 파서 지나가는 길을 뚫고자 했는데, 바윗돌로 이루어진 산줄기라서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를 ‘포항(浦項)’이라 일컫는다. 포항에서 제승당까지 거의 5리 정도 가면 충무공의 직당(直堂, 집무실)인데, 항상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하며, 그 뒤로는 거처를 지금의 통영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승당 아래에 이르러 정박하니 송죽(松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10여 걸음을 가니 충무공유허비(忠武公遺墟碑)가 있었다. 유허비 가에 조금 높고 평평한 곳에 3칸으로 지어진 웅장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들보와 문미가 크고 넓은 것이 대궐만큼 큰 집이라 할 만하였다. 그 들보에는 ‘제승당(制勝堂)’이라는 세 개의 대자(大字)로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북쪽 문미에는 충무공의 야음시(夜吟詩)가 걸려 있다.²⁶⁾

이같이 제승당은 유허비 가에 조금 높고 평평한 곳에 3칸의 대궐 같은 큰 집이라 했다. 수직 승장이 제승당을 관리하며 그가 거처하는 곳이 제승당 뒤의 두어 칸의 집이라 했다. 한편, 『통영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6)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29쪽, 蓋閑山形勝, 後峯卓立, 南麓逶迤, 向北回轉, 繞抱制勝堂, 掩過前洋. 堂前可容數百艘, 自東視之, 疑若海路之直通南海, 故壬之變, 蠻船多入港口, 忠武公遏絕來路, 鏖戰大捷. 南邊低細處, 倭奴盡力掘之欲通去路, 而石骨連脈, 未得售計, 其痕尚在, 稱云浦項. 自浦項 至制勝堂幾五里許, 忠武公直堂, 而常留于此矣. 其後移居今統營云. 到泊堂下, 松篁成林, 行十餘步, 有忠武公遺墟碑. 碑上稍高平易處, 作三間傑構, 樑楣宏闊, 可謂廣廈. 樑間懸制勝堂三大字, 北楣懸忠武公夜吟詩.

1746년(영조 22)에 이언상 제111대 통제사가 계문 하여 우후로 하여금 풍화 6개월간 유방하게 하였다. 1752년(영조 28) 구선행 제114대 통제사가 방을 견내량으로 옮길 뜻을 계문 하였고 1753년(영조 29)에 조동점 제115대 통제사가 다시 계문 하여 1754년(영조 30)에 방을 견내량으로 옮긴 후 승도 들이 수호하게 하였다. 1769년(영조 45) 이국현 제127대 통제사가 영노(營奴)로써 수직을 바꾸었다. 1771년(영조 47) 장지항 제128대 통제사가 비로소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니 지금까지 수호하고 있다.²⁷⁾

『통영지』에 의하면 이언상(李彦祥, 1681~1755) 통제사 때 제승당을 방영(防營)으로 삼아 풍화(風和) 시 6개월간 근무했다.²⁸⁾ 한산도는 끝없는 바다를 가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왜적을 방비하는 데 지리적 불리한 점이 있었다. 대신 견내량은 그의 인후(咽喉)를 이루었으며 임진왜란 시에도 거제는 일본군의 수중에 들었지만, 견내량만은 인후로서 방비했다. 인후로서의 견내량을 지키기 위하여 조동점(趙東漸, 1700~1755) 통제사가 방영을 이동하는 것을 계문 하여 제승당에서 견내량으로 이진하였다. 견내량으로 방영을 이진한 후 승도 들이 수호하던 제승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진을 맡아보던 주인도 없어지고 허물어져 가는 제승당을 이태상(李泰祥, 1701~1776) 통제사가 1760년(영조 16)에 중수하면서 「제승당 중수기」를 걸어 놓았다. 「제승당 중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27) 『統營志』 규장각서10876호

28) 계절풍 시대인 동아시아는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대륙에 해양으로 북풍이 분다. 남풍이 부는 것을 風和라 했으며 이는 음력 3월~8월이고 風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다.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풍화에는 나아가 방비하고 풍고에는 철수하였다.

이 집은 내 선조께서 임진년 주둔했을 때 세웠던 것인데 중간에 있었다 없어졌다 한 사적은 조 정승과 정 도사의 기문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일단 우후가 수비하는 곳을 견내량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진은 맡아보는 주인도 없어지고 또한 유허비각은 자리조차 비습하여 국란을 막아내던 중요한 곳에 기왓장은 기울어지고 제목은 썩고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 사람들이 지나다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구름과 물만이 흰히 보일 뿐임을 탄식하고 옛 어른이 끼친 자취가 나날이 묵어감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손으로 이렇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여겨 감히 장인들을 모으고 땅을 가려서 영원히 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제승당은 조 공이 지었던 옛집을 그대로 중수하고 비각은 제승당 뒤로 옮겨다가 썩은 곳은 갈아 내고 또 비석 글자가 희미해진 것은 새롭게 하였다. 대개 집이 있고 없는 것으로 내 선조에게 경중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옛사람들의 이른바 그 물과 그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인정상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려니와 또한 오늘을 두고 미리 일러둔 말이라고도 하겠다. 뒷날 군자들은 나의 집안 사실훈이라 말하지 말고 허물어지는 것을 수보하여 쓸쓸해진 것을 면하게 하면 이 집에 올라와 옛 자취를 어루만져 보는 이는 적이 마음이 감응되는 바 있을 것이니 그야말로 몸을 던져 순국하는 의리를 권장함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조 공이 이 집을 중건하던 본의의 것이며, 또 어질지 못한 내가 구구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²⁹⁾

29)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 3 ;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76~77쪽, 制勝堂重修記後孫 統制使 泰祥 堂即我先祖壬辰駐兵時所建也 中間興廢之跡 趙相國政承宣之記詳矣 一自虞候留防之移設於見乃梁 日月侵尋軒檻無主 又遺墟碑閣 卜地湫洿 風雲儲胥之區 瓦歌木朽龜蚰莓苔 人之過之者 未嘗不徘徊俯仰 愴雲水之俱白 惜軌躡之日陳孰余孱孫 用是爲懼 乃敢鳩工相地 久遠是圖 堂則仍趙公之舊而修之 閣則就堂後移之 易其腐缺 而新其漫漶 夫堂之興廢 固不足爲我先祖輕重 而若 所謂水不忍廢 地不忍荒者 亦人情之所不已 而爲今日準備語也 後之君子 其亦母以我一家之私 而隨壞繕治 俾免湮圯 則登斯堂 而撫遺迹者 庶其油然而感 喟然而興 競有勸於忘身殉國之義也歟 此固趙公當日重建之意 而亦不肖區區之所 竊望於人 人云爾

이처럼 방영을 옮겨간 제승당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여 통제사로 부임한 이순신의 5대손 이태상은 ‘옛사람들의 이른바 그 물과 그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새기며 증건하고 이 집에 올라 옛 자취를 어루만지며 몸은 던져 순국한 의리를 권장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였다.

1877년(고종 14) 이규석(李奎奭, 1835~1894) 통제사는 조정 통제사가 세운 제승당 유허비가 낡아 땅에 묻고 「구비매처(舊碑埋處)」라고 돌에 표석을 세웠다. 조경이 세운 비의 첫머리에 적힌 이름은 ‘고통제사충무공이순신한산제승당유허비(故統制使忠武公李舜臣閑山制勝堂遺墟碑)’였다. 구비를 묻고 새로 세우면서 정기안의 옛글을 그대로 새겼으며 비의 첫머리 이름은 ‘유명수군도독조선국증선무공신영의정덕풍부원군행삼도통제사시충무이공순신한산도제승당유허비(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宣武功臣領議政德豐府院君行三道統制使諡忠武李公舜臣閑山島制勝堂遺墟碑)’라 새겼다.

이같이 제승당은 조정 통제사가 증건한 후 승도 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언상 통제사가 방영을 설치하였다. 방영을 설치한 후 우후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제승당은 위치적으로 전함을 숨기기는 좋으나 적의 길목을 지키기는 적당하지 않아 견내량이 적도들의 인후로서 방영을 견내량으로 옮겼다. 방영을 옮긴 간 후 승도들의 관리는 부실하였다. 대개 한산은 거제에 있고 거제는 본디 다른 사람 노비의 소굴이라 불렸다. 전부터 추노(推奴)인 자가 ‘한산을 구경하다가 결국 숨어 사는 노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많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양반을 보기만 하면 몹시 머리가 아파 어떡하던 쫓아낼 궁리를 한다’고 했다.³⁰⁾

세월이 흐르며 제승당은 당을 지키던 승도 들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허물어져 1760년(영조 16) 이태상 통제사가 증건하였다.

30)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29쪽

1769년(영조 45)에는 영노(營奴)가 수직하였다. 1771년(영조 47) 장지항 제128대 통제사가 비로소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여 수직 하면서 통제영이 폐영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한편,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한산제승당도」는 『영남기행화첩』 속 그림과 유사하여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¹⁾ 이 작품에는 제승당에 서 있는 여러 명의 인물과 활을 든 사람들, 전선이 그려져 있다.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영영일기(嶺營日記)』에는 그가 활쏘기를 39번 했는데 제승당에 들러 활쏘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²⁾ 당시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의 활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관리들은 이순신처럼 활을 쏘며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한산도 제승당은 18세기 당시 영남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이들이 주로 찾던 유적지였다.³³⁾

이처럼 한산도 제승당은 여러 이유로 방문하는 조선 후기 유적 추모 공간으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수군 진장들과 지방관들은 통제영을 방문할 때 제승당을 함께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여겼다. 이것은 제승당이 이순신의 승첩지인 동시에 활터로서 역할을 했으며, 꼭 가보아야 할 유적 추모 공간 지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대부가 제승당을 방문하고 시문을 남겼다. 정익하(鄭益河, 1688~1758)는 『제승당 고품록』 7면에 현성 물품이 기록되어 있으며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순찰하며 지나갈 때 통제사 조경에게 시를 지어주었다.

31) 김윤겸, 「한산제승당도」, 18세기, 30.1×45.5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32) 하동률, 「『嶺營日記』에 나타난 조선후기 관찰사의 생활상」,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1쪽, ; 『嶺營日記』 영조 27년 9월 20일, 재인용

33) 김시우,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화첩』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07쪽

그대는 서쪽에서 왔고 나는 동쪽에서 와
 문무(文武)의 두 원용 한자리에 앉았네.
 땅은 적벽에서 접전했던 형세 남아 있는데
 사람은 금성에서 오랑캐 격파한 공 멀어졌네.
 천리의 묘한 계책 준조 속에 있고
 오래전 지은 사당 한 폭의 그림 같네.
 누선(樓船)이 돌아가는 길에 고래 물결 잠잠하고
 고각소리 아직도 대수의 바람에 전한다네.³⁴⁾

제승당을 방문한 송정악 일행은 제승당에 하룻밤 묵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 고요해지고 오직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새 뜬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장군과 나의 죽고 조의 충의를 회상하다가 장군의 야음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고, 판서(判書) 정자겸(鄭子謙)의 시에 차운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공업은 동해처럼 넓고
 성명은 북두처럼 높도다
 후생의 끝없는 한은
 시험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칼을 가는 것³⁵⁾

유유히 유랑하는 자취 동서로 맘껏 다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남쪽 바다 견용과 인접하였네
 용사의 국가 변란 차마 어찌 말하라
 애처롭도다 계구의 기이한 공로여³⁶⁾

34)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1쪽, 君自西來我自東, 一廷文武兩元戎, 地餘赤壁鏖兵勢, 人遠金城破虜功, 千里妙籌樽俎裡, 百年新構畫圖中, 樓船歸路鯨波靜, 鼓角猶傳大樹風

35)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2쪽, 勳業東溟闊, 聲名北斗高, 後生無盡恨, 難試久磨刀

36)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5쪽, 悠悠浪迹任西東, 遙望南洋接犬戎, 忍說龍蛇家國變, 堪憐鷄狗辦奇功

노랑진 귀신은 성난 파도 속에 흐느끼고
 산꼭대기 잔나비는 안개 속에서 울어대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변방이 잠잠하니
 아득한 바다 만 리 바람도 없이 고요하네³⁷⁾

정익하는 관찰사가 되어 제승당에 와서 물품을 헌납했으며, 조정 통제사에게 시를 지어주었는데 문무의 두 원용이 한자리에 모여 왜적을 격파한 이곳 제승당을 바라보다 배를 타고 돌아가며 감흥을 적었다. 조선시대 후손들이라면 선조의 절의가 뛰어났거나 학식이 높았거나 간에 누군가가 선조에 대한 선양사업을 필연의 사명감으로 생각한다. 송정악 일행도 제승당을 방문하여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순절한 죽고조 송대립, 송희립을 회상하며 3편의 시를 남겼다.

신좌모(申佐模, 1799~1877)는 1869년(고종 6) 3월, 영남을 방문하여 해인사, 영남루, 한산도 등을 유람하면서 『담인집(澹人集)』 권8 「교남기행(嶠南紀行)」에 박한산도 등제승당(泊閑山島登制勝堂)이란 시를 남겼다.³⁸⁾

한산도에 묵다가 제승당에 올라
 한산도 항구 적의 소굴에 연기 자욱하니
 그 당시 싸움에 이긴 공적이 생각나네.
 적벽의 물가엔 주유의 성체가 늘어서고
 악비의 군대는 누런 하늘을 뒤흔들었지.

37)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5쪽, 露湖鬼泣驚波裡. 尖岬猿啼宿霧中, 何幸今來邊警息, 滄溟萬里靜無風

38) 申佐模(1799-1877)는 본관은 고령(高靈), 성씨 신씨(申氏), 자는 좌인(左人), 좌보(左輔), 호는 담인(澹人), 화수헌(花樹軒)이며 1867년(고종 4) 병조 참관, 동지춘추 관사가 되다. 1869년(고종6) 3월, 嶺南을 방문하여 海印寺, 嶺南樓, 閑山島 등을 유람하다.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물고기와 용은 하늘의 해를 건 맹세를 듣고
 거북과 새는 줄지어 바다 구름을 끌어갔네.
 제승당 앞 천 길 물속에선
 지금도 밤늦도록 곡소리가 들리네.³⁹⁾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전했던 곳으로 물고기와 용은 하늘의 해에 맹세하고 거북과 새는 줄지어 해운(海雲)을 끌어갔고 제승당의 물길 속에는 지금도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즉 임진왜란을 극복한 승리의 장소임을 상기시키는 시이다. 이순신의 충절이 과거의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당시까지도 면면히 이어지는 살아 있는 역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순신의 충의를 생각하며 각자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대부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쓰기도 하였다. 이순신과 인연이 있는 후손들의 방문도 이어져 선조들의 선양 작업의 일환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제승당은 조경이 중건한 이후 한 때 방영을 운영하다가 방영이 견내량으로 이동한 후 통제영 수조를 행할 때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쉬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국왕뿐 아니라 국왕의 복심인 통제사와 수군 진장 및 지방관들까지 임진왜란의 승전을 기억하는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다만 제향

39) 申佐模, 『澹人集』 卷之八, 詩 嶠南紀行, 閒山港口賊巢燼. 尙想當年克捷勳. 赤壁磯橫公瑾寨. 黃天蕩撼岳家軍. 魚龍聽誓懸天日. 龜鳥排行掣海雲. 制勝堂前千丈水. 至今啾哭夜深聞

의 공간은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 1932년 충무영당(忠武影堂)을 건립하고 이듬해 준공하면서 제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⁴⁰⁾

3. 『제승당 고풍록』과 제승당 운영

1) 『제승당 고풍록』의 구성

제승당을 증진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고풍록(古風錄)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고풍(古風)이란 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하례(下隸)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로서 이때 주는 돈을 고풍채(古風債)라고 한다. 남계서원의 『부보록(褒寶錄)』과 같은 의미다.⁴¹⁾

『제승당 고풍록』은 1740년(영조 16)부터 1860년(철종 11)까지 129년간의 방문 기록이며, 구성은 1권 30면이고 1면은 제목으로 제승당(制勝堂) 고풍록(古風錄) 무신개장(戊申改粧)이라 쓰여 있고 2면부터 5면까지 서문이 초서체로 쓰여있다. 6면부터 30면까지 방문자의 직위와 이름이 있으며, 방문 일자, 헌성품목이 적혀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堂)에 기록이 유(有)하고 서적(書籍)이 있으니 알겠지만, 제승당은 해도 중에 있어 비바람에 서로 깎여 충사의 흔적이 얹히어

40)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55쪽 ; 통영 충렬사 소장 『歲出內譯簿-忠烈祠永久保存會-』. 大正拾壹年度~昭和六年度까지의 성책에 의하면 제승당에서 春享과 秋享, 寒食, 端午, 秋夕, 正월에 제례를 행하고 비용을 계산했다.

41)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褒寶錄』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화』 75, 대동한문화회, 2023, 5~41쪽

있으니, 예로써 그 보존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 승도를 차출하여 여기에 거처케 하였다. 그러나 뱃길이 궁하고 거민이 적어 자리를 짜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찌 살아갈 것이며 사는 길이 끊기면 어찌 이를 지키려고 할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겠는가. 이 고품록을 비치하고 관서 승지의 예를 본받아 후세에 전하려 하니 오는 사람은 당에 올라 이 책을 보고 약간의 물품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권하며 승도의 거처에 이바지하게 되어 당이 헐리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이다. 승정재경신기⁴²⁾

서문에 의하면 제승당을 중건한 후 승도 3인을 차출하여 당을 지키게 했지만, 바닷길이 멀고 막히어 당을 지키기가 어려워 이에 『제승당 고품록』을 비치하여 당에 오르는 이에게 약간의 물품을 아끼지 않도록 권유하여 당을 지키게 한다는 내용이다. 『제승당 고품록』 6면부터 직위와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 혹은 직위 이름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 혹은 이름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제승당 고품록』의 기록 명단과 물품목록이다.

42) 신수환 소장 『制勝堂 古風錄』, 序文, 堂有記有書 而知之也 堂在海島中風雨相磨 虫蛇交迹典守之方不可 不用策 茲令差緝三徒 居於斯直於斯以爲永久看護之地而舟楫路窮 居民鮮少織席販履之業 亦隨而新焉 惠澤不加則 何以賴生 生理既絕則 亦豈能守此而不去乎 斯置古風錄 形關西勝地之例而倖傳于後 以爲來者勤登斯堂 覽此卷者 不惜苦干物以資其居僧則 磨此堂之不枯也 崇禎再庚申記

〈표-1〉『制勝堂 古風錄』수록 명단과 물품 목록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1	庚申 1740	7	16	蛇梁萬戶	※閔楠	正木3疋
2	庚申 1740	7	16	唐浦萬戶	※吳漢徵	正木3疋
3	庚申 1740	7	16	三千權管	※朴壽元	正木3疋
4	庚申 1740	7	16	昌原府使	※洪夏相	租4石, 柚子2同
5	庚申 1740	7	16	巨濟府使	※尹鳳廷	米2石, 牟2石, 租1石
6	庚申 1740	10	1	巡使	※鄭益河	租100石 買蚩11斗落只 屬本堂
7	申酉 1741	5	21	統制使	※宋徵來	租3石, 牟5石
8	申酉 1741	5	25	統虞候	沈始禧	正木1疋, 麻布1疋, 租2石
9	申酉 1741	7	7	三千權管	金就鍊	正木1疋
10	壬戌 1742	1	21	青松府使	宋徵泰	租3石
11	壬戌 1742	3	5	河東府使	沈鳳陽	錢文3兩
12	壬戌 1742	4	11	巨濟府使	李昌重	租2石
13	壬戌 1742	4	26	三嘉縣監	※徐敏修	錢2兩
14	癸亥 1743	3	13	統虞候	※鄭嶺	租2石
15	癸亥 1743	3	13	固城縣令	※李晉吉	租2石
16	癸亥 1743	3	13	玄風縣監	※朴致文	租2石
17	癸亥 1743	3	13	巨濟府使	具鼎煥	租1石
18	甲子 1744	3	13	南村別將	※廉德謙	租1石
19	甲子 1744	3	15	統制使	李玟	正租5石, 錢5兩
20	己巳 1749	8	1	助羅浦萬戶	朴瑞晉	木1疋
21	丁卯 1747	9	5	善山府使	宋堯和	租2石
22	丁卯 1747	9	20	統制使	李彦祥	麻布同, 租10石 牟10石 太10石 米3石
23	己巳 1749	4	3	永登萬戶	※李翼道	正木1疋
24	己巳 1749	4	8	天城萬戶	李允沄	正木1疋
25	丁卯 1747	10		統制使	※李彦祥	租10石, 錢2兩
26	己巳 1749	4	14	知世浦萬戶	嚴得寬	木1疋
27	己巳 1749	4	16	齊浦萬戶	高漢崙	木1疋
28	己巳 1749	4	16	加背梁萬戶	任世郁	木1疋
29	己巳 1749	4	19	玉浦萬戶	金振聲	木1疋
30	甲戌 1754	閏4	20	標信宣傳官	李光國	木3疋
31	丁丑 1757	11	21	統制使	吳煥	租4石, 鹽1石, 燠造1石
32	己卯 1759	1	20	統虞候	※李濟命	錢文1兩, 壯紙1束
33	庚辰 1760	8	16	統制使	李潤成	正租3石, 木麥3石, 皮牟3石, 太1石
34	庚辰 1760	8	16	統制使	李泰祥	白米5石, 正租10石, 錢10兩
35	壬午 1762	8	14	巨濟府使	李邦五	租1石
36	壬午 1762	9	9	統制使	李殷春	租3石, 木麥3石, 皮牟2石
37	癸未 1763	4	13	南村別將	申埴	正木1疋
38	癸未 1763	8	3	統虞候	※李鼎賢	租1石, 錢1兩
39	癸未 1763	8	3	三千權管	※金宅坤	麻布1疋
40	乙酉 1765	閏2	18	統制使	※尹泰淵	租2石, 木1疋, 牟1石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41	丙戌 1766	8	18	統制使	※金聖遇	白米1石, 正租2石, 牟2石
42	丙戌 1766	8	18	巨濟府使	※沈履之	正租2石
43	丙戌 1766	8	22	昌原府使	※李漢五	錢1兩
44	丁亥 1767	閏7	21	統虞候	※申睨	租1石, 木1疋
45	丁亥 1767	10	5	巨濟府使	李潤國	租1石
46	戊子 1768	3	9	巡使道	※李湫	正租3石, 錢20兩
47	戊子 1768	3	9	固城縣令	※柳成模	牟1石, 錢1兩
48	戊子 1768	3	9	武陵		牟1石
49	戊子 1768	3	11	天城萬戶	※金翰魯	錢1兩
50	戊子 1768	6			李真祥	租1石
51	己丑 1769	4	1	統制使	李國賢	米1石, 太1石 租2石, 牟2石
52	己丑 1769	4	1	統虞候	※沈潭	租1石
53	己丑 1769	4	1		張錫海	租3石
54	己丑 1769	4	1		李德禧	
55	己丑 1769	4	1		俞慎中	租3石
56	庚寅 1770	3	16		李亨道	
57	庚寅 1770	3	16		安是宅	
58	庚寅 1770	3	16		千一元	
59	庚寅 1770	3	16		李明良	
60	庚寅 1770	3	16		金履喆	
61	庚寅 1770	8		昌善牧官	李道徽	租5斗
62	辛卯 1771	1	10	加德僉使	※李宇平	租1石
63	辛卯 1771	5	19	統制使	元重會	牟2石, 甘藷2丹, 醬5斗, 雜魚2束
64	壬辰 1772	9		統制使	※元重會	正木1疋, 租3石
65	癸巳 1773	8		本島倉監	趙嶠	錢1兩
66	甲午 1774	8		巨濟府使	尹衡烈	錢1兩
67	甲午 1774	8		昌原府使	金致峻	錢1兩
68	乙未 1775	5		統制使	※趙崐	木1疋, 租2石, 牟3石
69	丙申 1776	10	2	統制使	李邦綬	木3疋, 租2石, 甘藷2丹
70	丁酉 1777	2	19	統虞候	※金樂淳	錢1兩
71	丁酉 1777	2	19	鎭海縣監	※李廷嫻	錢1兩
72	丁酉 1777	2	19	三千權管	※吳益贊	錢1兩
73	丁酉 1777	4		巨濟府使	※尹衡烈	錢1兩
74	丁酉 1777	5		統制使	李昌運	租1石, 牟1石, 藷3丹
75	戊戌 1778			龜山僉使	千世弼	錢1兩
76	己亥 1779	1	18	行固城縣令	任希兩	租1石
77	己亥 1779	4		統制使	徐有大	租2石, 牟3石, 錢20兩
78	己亥 1779			河東府使	李羲星	錢1兩
79	庚子 1780	3	16	巡使	※趙時俊	正租3石, 錢10兩
80	辛丑 1781	5		統制使	※具明謙	租2石, 牟3石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81	乙巳 1785	4			金口喜	牟2石
82	乙巳 1785	4	5	統虞候	※柳心源	靑銅2貫
83	丙午 1786	8	20	巡察使	李啓朝	正相5石
84	丁未 1787	3	3	統虞候	※李東憲	錢文2兩
85	丁未 1787	3	3	永登萬戶	※朴宗瑀	錢5兩
86	丁未 1847	3	13	統制使	徐相五	相2石, 牟1石
87	戊申 1848	3	11	統制使	※金鍵	正相2石, 皮牟2石
88	戊申 1848	3	11	統虞候	洪鐵七	錢1兩
89	戊申 1848	3	11	固城縣令	趙閑奎	錢2兩
90	戊申 1848	3	11	巨濟府使	孫基祚	錢1兩
91	庚戌 1850	3	7	統制使	柳基常	正相5石
92				統制使	金某	□□10斤
93	庚戌 1850	3	7	巨濟府使	李觀洙	錢2兩
94	庚戌 1850	3	7	統虞候	李祉秀	錢2兩
95	庚戌 1850	4	11	泗川縣監	李基祖	
96	庚申 1860	3	20	統制使	※沈樂臣	錢文2兩, 正相5石
97	庚戌 1850	4	29	三千權管	朴東一	相1石
98	庚戌 1850	10	4	統虞候	洪載謨	錢1兩
99	辛亥 1851	4	13	巨濟府使	李晩謙	錢2兩
100	辛亥 1851	10	27	閑山□□	閔致祖	錢1兩
101	壬子 1852	4	21	統制使	李膺緒	正相2石, 皮牟3石
102	壬子 1852	4	21	統虞候	李東洙	錢2兩
103	癸丑 1853	9	13	統制使	李圭徹	正相3石, 皮牟2石
104	癸丑 1853	9	25	巨濟府使	李必熙	錢2兩
105	丙辰 1856	4	1	巡察使	申錫遇	相5石
106	丁巳 1857	3		統制使	李熙綱	相3石, 牟3石, 木麥3石, 太1石
107	丁巳 1857	4	8	統制使	洪賢泰	正相2石, 牟3石
108	戊午 1858	8	20	統制使	任泰瑛	皮牟3石, 相3石
109	戊午 1858	8	20	統虞候	尹善交	皮牟1石, 相1石
110				本官	金芋根	錢1兩
111	己未 1859	9	8		趙性敏	錢2兩
112	庚申 1860	3	7	巡察使	※洪祐吉	相5石
113	庚申 1860	3	7	統制使	沈樂臣	皮牟5石
114	庚申 1860	3	7	統虞候	閔在根	正相1石
115	庚申 1860	3	7	河東府使	李文永	相5石
116	庚申 1860	3	7	星州牧使	梁荷柱	錢3兩
117	庚申 1860	3	7	丹城	文鳳賢	錢3兩
118	庚申 1860	3	7	永川	黃德明	錢3兩
119	庚申 1860	3	7	三嘉	魚採祚	錢3兩

※ 표시는 『제승당 고풍록』 원문에는 관직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서 찾음.

〈표-1〉에서 방문자 119명 중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78명이며, 관직은 있으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40명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찾았다. 이름은 있으나 관직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11명이다. 『제승당 고품록』 명단 중 1번부터 80번까지는 한 사람이 같은 필체로 작성했으며 81번부터 119번까지는 여러 명의 필체로 작성했다. 표지에는 제승당 고품록 무신개장이라 기록했으며 74번 이창운(李昌運, 1713~1791) 통제사의 말미에 구록답인(舊錄踏印)이라 쓰여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품록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20번과 96번은 방문 순서 별로 되어있지 않고 섞여 있다. 25번은 22번의 이연상 통제사의 재방문이다.

2) 제승당 방문자와 운영

『제승당 고품록』에 기록된 방문자 119명을 직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제승당 방문자 현황

관직	통제사	통우후	거제부사	순찰사	삼천권관	고성현령
방문횟수	29	15	12	6	5	5
관직	하동부사	창원부사	남촌별장	영등만호	천성만호	옥포만호
방문횟수	3	3	2	2	2	2
관직	가덕첨사	구산첨사	조라포만호	당포만호	사량만호	제포만호
방문횟수	1		1	1	1	1
관직	가배랑만호	지세포만호	청송부사	성주목사	선산부사	삼가현감
방문횟수	1	1	1	1	1	1
관직	영천현감	사천현감	달성현감	진해현감	현풍현감	본도창감
방문횟수	1	1	1	1	1	1
관직	창선목관	한산별장	표신선전관	무릉	미기록	합계
방문횟수	1	1	1	1	11	119

〈표-2〉에서 방문자는 통제사와 통우후, 거제부사, 순찰사 순으로 많으며 나머지는 수군 진장과 지방관들이다. 방문자들은 한산도 제송당이 바닷길로 육지와는 떨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통제영까지 왔더라도 뱃길을 이용해야 하므로 수군의 군선이나 사후선을 이용해야 했다. 일반인의 방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이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했다.

물품은 지위가 높은 통제사나 관찰사가 많은 물품을 헌납했으며, 특히 〈표-1〉의 6번 순사(巡使) 정익하(鄭益河)는 제송당을 증건한 1740년 10월 1일 조 100석과 매답 11두락을 헌납하여 제송당을 지키는 재원으로 삼도록 했다. 특히 답 11두락은 매년 수확량이 나오는 곳으로 제송당 수호의 큰 재원이 되었다.

제송당을 방문한 이들은 통제사를 비롯한 대부분 통제영 관련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이다. 이들은 이순신의 승전지인 제송당을 방문하면서 통영총렬사도 방문했을 것이다. 『제송당 고평록』에 기록된 명단과 통영총렬사 『심원록』에 기록된 명단을 비교하면 119명 중 21명(17.64%)이 중복으로 방문했다. 중복 방문자 21명 중 통제사가 11명, 통우후 3명, 고성현령, 선산부사, 하동부사, 사천현감, 삼천권관, 표신선전관, 미기록 자 각 1명씩이다.

국왕은 통제사 부임 교서에 남쪽의 변방을 방어하면서 임진년의 전쟁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고 충무공을 생각하며 해방에 힘쓰라고 유시하였다. 또한, 삼도수군통제사는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유시도 했다.⁴³⁾ 대부분 통제사는 부임 시 통영총

43) 『承政院日記』, 英祖 15년 기미(1739) 7월 8일(임자) : 통제사(統制使) 조경(趙敬)에게 내린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서쪽 고을에서 부절(符節)을 차고 한 방면을 방어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는데, 남쪽 지방의 군수(閫帥)에 제수하는 부절(斧鉞)을 주어 삼도(三道)를 통제하는 권한을 맡기노라. 이에 윤음을 내려 군사를 지휘하는 중임을 부탁한다. (중략) 이 남쪽 바다의 거진(巨鎭)을 돌아보건대, 실로 우리나라의 웅번(雄藩)으로 통제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하였기에 통제의 권한이 더

렬사에 참배했으며 아울러 제승당에도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제승당을 증건한 조정 통제사 이후 통제사는 101명이며 그중 제승당을 방문한 통제사는 29명으로 28.71%이다. 한적한 섬인 한산도 제승당에 통제영의 최고 수장인 통제사 중 약 30%가 방문한 장소였다는 사실은 이곳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표-3〉 월별 제승당 방문자 현황

시기	풍고기						풍화기						미기	계
월별	9	10	11	12	1	2	3	4	5	6	7	8		
횟수	8	6	1	0	4	4	30	26	6	1	6	15	12	119

〈표-3〉에서 제승당 방문자를 월별로 구분하면 3월이 25.21%이고 4월이 21.84%, 5월과 7월이 각 5.04%, 8월이 12.60%이다. 이들은 대부분 풍화기(음력 3월~8월)로 방문 비율이 77.72%를 차지한다. 제승당이 섬에 존재한 특성상 이동이 용이한 수조(水操)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 사례로 순찰사 신석우의 『해장집』과 송정악의 『서행록』을 들 수 있다. 수조 때가 아니더라도 제승당은 이순신의 전승지로서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 사대부들의 참배 장소로 자리매김했었다. 사대부들의 방문 시 많은 시편을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

옥 높아 수천 리의 땅을 관할하고, 여러 도(道)에 비해 관방(關防)이 가장 강하여 창설한 지 거의 200년이 되었다. 바다 관문을 목구멍처럼 움켜쥐고 있어 형세가 마치 빗장을 걸어 놓은 것처럼 굳건하고 파도가 일본 지역과 접해 있어 위급 상황 때 순풍을 타고 기습할 우려가 있다. (중략) 오후라, 임진왜란의 남은 치욕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군사를 다스리는 계책을 소홀히 하겠는가. 충무공(忠武公)의 옛 공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힘써 적을 제압한 계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스스로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겠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부수찬 김광세(金光世)가 지어 올렸다.

44) 김용재, 「조선 후기 통영총령사의 방문자와 향사 주체-총령사 소장 『심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3

45) 『承政院日記』 1489책 (탈초본 81책) 正祖 5년 7월 14일 갑인

〈표-1〉의 방문자 명단 중 105번 순찰사(巡察使) 신석우(申錫愚, 1805~1865)는 그의 시문집인 『해장집(海藏集)』에 한산도를 방문한 기록을 남겼다.

한산도는 통제영 남쪽 바다 20리에 위치한 거제도의 속도이다. 이충무(李忠武)가 왜적을 크게 대파한 곳으로 제승당(制勝堂)이 있다. 순찰사(巡察使)가 오면 꼭 그를 세병관(洗兵館)에 모시고 다음 날 함께 한산도를 유람하였는데 유람과 더불어 조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4월 1일 정해일 아침 기상하여 만하루(挽河樓)에서 바라보니, 항구가 거울같이 평온하고,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물가의 집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산과 누각은 붉은색으로 빛났다. 화려한 배들이 물가에 정박하여 마치 강남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이는 배가 바다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배에 올라타 보니 배는 삼층으로 되어 있었다. 위에는 붉은 난간이 청색 천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통제사와 함께 앉았다. 육지 병사들의 훈련이 끝난 후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좌우로 줄지어 우리의 배를 끌고 갔다. 왜적의 배가 나타나자, 배들이 서로 경보를 울리며 이리저리 이동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큰 배 한 척이 섬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이를 거북선이라 불렀다. 이 배는 다른 전함과 비슷했는데 뱃머리는 거북의 머리처럼 되어있어 신축 및 개폐가 가능했으며 때로는 입으로 연기를 뿜었다. 배의 상부는 판자로 덮여 있었고 그 위는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 거북등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이는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거북선으로 왜적을 격파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배는 천천히 움직여 만나질 만에 한산도에 도착했다. 제승당에 올라가 공연을 즐기고 무예를 구경하다가 해 질 무렵에야 돌아왔다.⁴⁶⁾

46) 申錫愚, 『海藏集』卷之十二, 記, 遊閑山島記 丙辰, 閑山島在統制營南二十里海中. 巨濟屬島. 李忠武大破倭賊于此. 有制勝堂. 巡察使入府. 府帥必館之於洗兵館. 翌日同遊閑山島. 蓋因宴遊而習操鍊也. 四月初一日丁亥. 朝起出挽河樓望見. 浦平如鏡. 山縹如畫. 水岸人家. 蔭映楊柳. 山郭樓臺. 流耀丹粉. 粧船畫舶. 列幟汀洲. 杳然有

이처럼 신석우는 통제사 김한철(金翰喆)과 함께 한산도 근해에서 수조에 참여하고 제승당에 하선하여 무예와 공연을 즐겼다. 이때 신석우는 조 5석을 헌납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제승당을 방문하는 경우는 수조에 참여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서행록』에 기록된 경우도 마찬가지다.⁴⁷⁾ 아래는 『제승당 고품록』에 기록된 헌성물품의 목록이다.

〈표-4〉 제승당 헌성 물품 목록

번호	종류	단위	수량	비고
1	조(租)	석(石)	265	벼, 겉곡
2	전(錢)	량(兩)	126	1량(兩)=10전(錢)=100문(文)(상평통보 100개)
3	답(雀)	두락(斗落)	11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
4	모(牟)	석(石)	66	보리
5	목(木)	필(匹)	29	무명
6	태(太)	석(石)	13	콩
7	미(米)	석(石)	12	쌀
8	목맥(木麥)	석(石)	9	메밀
9	감곽(甘藷)	단(丹)	7	미역
10	장(醬)	두(斗)	5	간장
11	마포(麻布)	필(匹)	3	삼베
12	유자(柚子)	동(同)	2	유자
13	잡어(雜魚)	속(束)	2	생선
14	청동(靑銅)	관(貫)	2	구리와 주석의 합금
15	훈조(薰造)	석(石)	1	메주
16	장지(壯紙)	속(束)	1	재질이 두껍고 단단한 종이
17	염(鹽)	석(石)	1	소금

江南風物. 又非樓船下海想. 少焉登船. 船高三層. 上設紅欄. 幕以青幔. 與統制 使同坐. 行陸操罷. 小船數十. 左右擺列. 牽纜以行. 倭船現形. 諸船報警. 若近若遠. 有似戰鬪之狀. 有一大船從島嶼間出. 曰此龜船也. 其制大略如他戰艦而船頭作龜首. 縮伸闔張. 時吐烟霧. 上覆以板. 又罩以布而畫龜背紋. 蓋忠武閑島之捷. 以龜船破倭. 故象其成功也. 舟行遲重. 半日而到閑山下登制勝堂. 觀樂演武. 日暮始還.

- 47)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4쪽, 初三日. 晴. 最晚統使乘大艦, 多張旗幟, 滿載軍卒, 使小船數十隻, 擺列左右, 繫纜上船, 搖櫓挽引, 上船宛在中央, 順流徐行, 有若山岳移運. 鼓吹交奏, 萬舞方張, 翠黛紅裙, 隱映烟波, 大旆高牙, 動搖雲霞.

현성 물품 중 조(租)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전(錢)으로 제승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이다. 그중 순찰사 정익하는 답 11두락을 헌납하여 당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게 하였다.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물품을 헌납했으며 특히 통제사와 순찰사가 많은 물품을 헌납했다. 제승당은 이순신이 기거하던 조선 수군의 지휘소로 중건했으므로 특별한 당파나 학문의 계열에 따라 방문한 것이 아니다.

〈표-5〉 고위 관직별 주요 물품 헌성 현황

번호	종류	단위	총수량	통제사	순찰사	우후	소계	%
1	조(租)	석(石)	265	93	121	9	223	84.15
2	전(錢)	량(兩)	126	39	30	11	80	63.49
3	답(畓)	두락(斗落)	11	0	11	0	11	100.00

〈표-5〉는 고위 관직인 통제사와 순찰사, 우후가 헌납한 물품 목록이다. 주요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은 조(租)는 84.15%이며 전(錢)은 63.49%, 답(畓)은 100%이다. 다른 수군 진장이나 지방관보다 훨씬 많이 헌납한 것은 관력이 높을수록 임란의 전적지이자 충무공의 구국 혼이 서린 제승당에 깊은 관심이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제승당을 지탱하는 재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통제영에서 두역포의 군창둔 3섬지기를 떼어 주어 제승당을 관리하도록 했다. 『통영지(統營誌)』에 의하면 제승당을 지키는 수방장 1원(員)에 조(租) 1섬이고 색리 1인(人)에 조 1섬과 전 4냥 5전이다.⁴⁸⁾ 결국 수방장을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여 통제영에서 급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재정이 해결된 듯하다.

48) 『統營誌』 규장각도서12184호, 守防將一員 租一石 色吏一人 錢四兩五錢 租一石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관련 기록을 추적하였다. 본고는 제승당을 중건한 이후의 방문자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당시에 작성되고 전승되어 온 『제승당 고품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제승당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승당의 중건은 무신란의 이순신 후손인 이봉상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환으로 중건하였다. 조경은 무신란의 진압에 참여하였고 이후 이순신 후손의 현창 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통제사로 부임하여 한산도를 찾았을 때 “수백 년이 지나 주춧돌이 옮겨지고 우물과 부엌마저 메워졌건만 아득한 파도 너머 우거진 송백(松柏)속에 어부와 초등들은 아직도 손가락으로 제승당 옛터를 가르쳐 준다”고 했다. 이에 제승당을 중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둘째, 통제영을 방문한 사대부들은 수조 훈련에 편승하여 제승당을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하였다. 그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꼭 가봐야 할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승당에 가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쓰기도 하였다. 이순신과 인연이 있는 후손들의 방문도 이어져 선조들의 선양 작업의 일환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셋째, 제승당을 창건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제승당 고품록』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반도록 조치하였다. 『제승당 고품록』의 구성은 119명의 방문자 직위와 이름이 있으며, 방문 일자, 헌성품목이 적혀있다. 『제승당 고품록』에서 살펴본 제승당 방문자는 통제사와 수군 진장 또는 인근 고을의 지방관들이었다. 특히 방문자 중 통제사는 국왕의 복심이며 막강한 권한의 해방 총수로 통제사의 방문 자체는 그 지위와 격을 높여주는 행위였다. 헌성물품은 관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량과 질이 좋았으며 특히 통제사가 가장 많이 방문하여 헌성품을 헌납했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제승당은 조경이 중건한 이후 한 때 방영을 운영하다가 방영이 견내랑으로 이동한 이후 통제영 수조를 행한 뒤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쉬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국왕뿐 아니라 국왕의 복심인 통제사와 수군 진장 및 지방관들까지 임진왜란의 승전을 기억하는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다만 제향의 공간은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 1932년 충무 영당을 건립 이듬해 준공하면서 제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조선 후기 한산도 제승당을 중건한 사유를 확인했으며 『제승당 고품록』을 분석하여 제승당의 운영과 관리를 확인하였다. 제승당을 방문한 사대부들의 시문을 통하여 성격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산도 제승당의 임진왜란 이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제승당 고품록』을 연구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제승당 고품록』의 방문객만으로 성격을 규명하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제승당 방문자들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임진왜란 이후의 제승당 성격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승당의 대외 방어사적인 면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승당이 수군 진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숙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사료

『承政院日記』

『李忠武公全書』

『朝鮮王朝實錄』

『懲毖錄』

『統營志』

(申錫愚), 『海藏集』

신수환 소장, 『制勝堂古風錄』

(申佐模), 『澹人集』

(趙顯命), 『歸鹿集』

통영충렬사소장, 『歲出內譯簿—忠烈祠永久保存會』, 1922~1931

2. 단행본

기타지마만지 지음,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김동철, 『엽서가 된 임진왜란』, 선인, 2022

덕수이씨정정공파종회, 2001, 『德水李氏貞靖公派譜(全)』

宋廷岳·宋志行, 『(국역)西行錄』, 재)한국호남진흥원, 2021

이민웅, 『이순신평전』, 책문, 2023,

—— 『임진왜란 해전사』, 주)청어람미디어, 2014

조성도 역 『壬辰狀草』, 연경문화사, 2010

재)불교문화재연구원, 『韓國의 寺址 현황보고서』, 2019상

제승당관리사무소, 『制勝堂誌』, 1994

통영문화원, 『柳洋八仙詩集』, 1995

통영시사편찬위원회, 『統營市誌』, 2018

3. 논문

김시우,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화첩』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3

김용재, 「조선후기 통영충렬사의 방문자와 향사 주체-충렬사 소장 『심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3

김일룡, 「이순신의 한산도 제승당 고찰」,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2023

김현구, 「조선후기 統制營의 公廨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裒寶錄』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2023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 「朝鮮後期 水軍制度의 運營과 變化」, 忠南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6

신윤희, 「壬辰倭亂 시기 三道水軍 연구」, 경상국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윤 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장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 「숙종대 顯忠祠 건립의 배경과 정치적 함의-명 멸망 공인과再造之恩의 재정립-」, 『진단학보』 139, 진단학회, 2022

이민웅, 「한산대첩의 주요 경과와 역사적 의의」,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이순신 연구소, 2016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수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원빈, 「난중일기」를 통해 본 한산도와 이순신의 건강,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4
- 정현창,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37,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22
- 제장명, 「이순신의 수군 전략과 한산대첩」, 『군사』 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이순신의 수군 운용」, 『이순신연구논총』 31,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9
- 최대윤, 「임진왜란 전후 거제 수군진의 재편과 방어체제의 정비」, 경상국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하동륜, 「『嶺營日記』에 나타난 조선후기 관찰사의 생활상」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Jeseungdang in Hansando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 Centered on 『Jeseungdang Gopungrok (制勝堂 古風錄)』 —

Kim, Yong-Jae

This research investigates documents associated with Jeseungdang on Hansando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study examines the official records of the Tongjesa Jo Gyeong (趙敬),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Jeseungdang. In addition, this research characterizes the facil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lated records, and the 『Jeseungdang Gopungrok』 is analyzed to assess the visitors and the offerings they mad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nstruction of Jeseungdang was part of an initiative to honor Admiral Yi Sun-sin (李舜臣)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ubsequent to the martyrdom of his descendant, Yi Bong-sang (李鳳祥), in the Musinran(戊申亂). Cho Kyung of the Tongjesa and visited Hansando and rebuilt the Jeseungdang, asking Cho Hyun-myung (趙顯命), who was associated with Musinran, to write a memo, and said that the purpose was to encourage loyalty to the people in the south.

Second, visitors to the Tongjeyeong would frequently visit Jeseungdang and donate items while participating in naval training. They recognized Jeseungdang as an essential memorial space

dedicated to Admiral Yi Sun-sin, where they would reflect on his legacy, reaffirm their loyalty and dedication to national defense, and sometimes practice archery.

Lastly, the foundation of Jeseungdang of the Tongjesa Jo Gyeong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Gopungrok』, a document designed for the site's upkeep and management, as well as regulating the acceptance of tributes from visitors. According to the 『Jeseungdang Gopungrok,』 these visitors included the Tongjesa, naval commanders, or local officials from nearby districts. These individuals honored Admiral Yi Sun-sin and used Jeseungdang as a space for commemoration and tribute.

Keywords: Hansando(閑山島), Jeseungdang(制勝堂), Gopungrok(古風錄), Musinran(戊申亂), Cho kyung(趙儼)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243-277
<https://doi.org/10.29212/mh.2024..133.2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 연설 연구

- 국가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김민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김명섭**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까지(1948.7.24~1948.12.12)
 3.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주한 미군 철수까지(1948.12.12~1949.6.30)
 4. 주한 미군 철수 이후 6·25전쟁 발발까지(1949.6.30~1950.6.25)
 5.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48년 초대 대통령 취임 이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들을 전수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

* 제1저자

**교신저자

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설들보다 훨씬 많은 209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1948년 7월 24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12월 12일까지 41회의 이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의 연설들은 대한민국 독립정부의 국내적 안착과 국제적 승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둘째, 1948년 12월 12일 이후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1949년 6월 30일까지의 시기에는 76회의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은 중국공산당의 내전 승리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에 즈음해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셋째, 1949년 6월 30일부터 1950년 6·25전쟁 전까지의 시기에는 92회의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에서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했던 미군의 철수 이후 한반도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북진통일에 관한 언급도 있었지만, 공격보다 방어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대통령 연설들은 국가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국제사회를 향한 영어 연설을 통해 안보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헌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영토의 회복을 위한 북진통일론도 제기되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안보위협에 관한 연설들이 더 많았다.

주제어: 대통령 연설, 이승만, 국가안보

1. 머리말

이 연구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던 대한
민국 대통령이 1948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실시
한 연설들을 전수 조사하고, 당시의 국가안보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대통령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력뿐만 아니라 “말의 권
력(power of words)”을 지닌다.¹⁾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안보 위
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이다.²⁾ 특히, 청년 시절부터 정
치·외교 활동에서 연설을 비중 있게 활용해 온³⁾ 이승만(李承
晩, 1875~1965)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연설문
들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1) Jeffrey S. Ashley and Marla J. Jarmer, *The Bully Pulpit, Presidential Speeches, and the Shaping of Public Policy*(Lanham: Lexington Books, 2016).

2) Murray Edelman,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113; Gary R. Hess, *Presidential Decisions for War: Korea, Vietnam, the Persian Gulf, and Iraq*(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2.

3) 全英雨, “李承晩의 演說活動에 대하여: 1895年~1942年”, 『畿甸語文學』 第3輯, 1988, 51-76쪽; 이은선,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정읍 발언의 의미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2호, 2018, 39-74쪽; 한서영·김명섭, “미국 유학 시기 이승만 강연활동의 양상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2호, 2019, 363-95쪽;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3호, 2021, 83-119쪽.

4) “From Mrs. Syngman Rhee to Dr. Oliver”(1949.2.5),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資料集 29: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1949~1950)』,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b, 26쪽.

6·25전쟁 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미(對美) 외교는 연구되었지만,⁵⁾ 신생국의 존립을 위협했던 대내외 안보 상황에 맞서 전개된 그의 연설들은 전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1948년 대통령 취임 이후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이승만 대통령 연설들은 통사(通史)적 연구들⁶⁾과 연설학 연구들⁷⁾에서 일부만 분석되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해당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문들도 20건에 불과하다.⁸⁾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이 시기 방송 및 영어 연설을 포함하여 총 209건의 이승만 대통령 연설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가운데 국가안보적 성격이 분명한 158건의 연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의 대통령 연설들은 다시 국제연합(UN)이 대한민국 독립정부를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 그리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진주했던 미군이 철수한 194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의 소시기로 구분될 수 있었다.

연구자료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연설문들에 대해서

5)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217-49쪽.

6) 李昊宰,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解放8年 民族葛藤期의 反省』, 서울: 法文社, 1986, 337-47쪽;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2, 285-302쪽;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7권, 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Ⅱ)』,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5, 406-758쪽.

7) Hee-wan Yang, “A Critical Edition of Major Speeches by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on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1945-1979”,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5; David A. Frank and WooSoo Park, “Syngman Rhee, Robert T. Oliver, and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Global Cold War”,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2, (2018), pp.207-26.

8) 대통령기록관은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 성명, 답하 등을 168건 제공하며, 이 중 연설은 20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검색일: 2024.10.2).

『李大統領訓話錄』(김광섭⁹⁾ 편 1950),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공보처 1953), 국회회의록, 당시 신문들, 그리고 *Korea's Fight for Freedom* vol. I (Oliver 1951), *Vital Speeches of the Day*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했다.

2.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까지(1948.7.24~1948.12.12)

이 시기의 141일 동안 총 41회의 연설들이 확인된다. 첫 연설은 1948년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였다.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임 선서에 이어서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다. 그는 일제 압제를 상기시키며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고 역설했으며, 공산당의 “매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¹⁰⁾ 공산화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를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경계했던¹¹⁾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9) 시인(詩人)이었던 김광섭(金光燮, 1905~1977)은 해방 전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민족사상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구속, 4년여간 복역했다. 해방 후 민족주의, 민주주의에 뜻을 둔 문학인들과 ‘중앙문화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좌익 문화단체의 선전에 대항했다. 미군정청 공보국장직을 수행했으며, 3년간 이 대통령 공보비서로 일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교수, 국제 펜클럽(International PEN) 한국본부 중앙위원을 지냈다. 김광섭, 『김광섭 自敘傳』나의 이력서: 시와 인생에 대하여, 서울: 한국기록연구소, 2014, 312~16쪽.

10) 『第1回 國會速記錄 第34號』, 1948년 7월 24일.

11)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Seoul: Panmun Book, 1978), p.180.

1948년 9월 파리 국제연합(UN) 총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을 미군 철수에 대한 안보적 대비로 간주했고,¹²⁾ 한국 승인을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격렬한 전투(hot battle)”¹³⁾가 될 승인 외교를 염두에 두었다. 1948년 8월 15일 국제연합(UN)과의 공조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영문 기념사가 당일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열렬한 환영(warmly welcomed)”을 받았다.¹⁴⁾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미국 언론의 호평을 소개하며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¹⁵⁾

그런데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문 기념사는 국제여론에 치중한 영문 기념사와 차이가 있었다. 그는 영문 기념사와 달리 국문 기념사 四항에서는 정부 권위와 안정에 관한 단호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통일문제를 다루었던 五항은 농민과 노동자를 겨냥해 전면 수정했으며 계급전쟁에 대한 경고도 담았다.

四, [중략]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 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중략]

12) 1948년 3월 1일 ‘중앙정부 수립 결정안 축하 국민대회’에서의 연설. 『조선일보』, 1948년 3월 2일.

13) “From Dr. Rhee to Ben and Oliver”(1948.7),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1(1944~1948)』,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a, 457쪽.

14) Oliver Elliott, *The American Press and the Cold War: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1945-1954*(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8), p.98.

15) 『동아일보』, 1948년 8월 18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8일.

五,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략] 공산당의 주의를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고¹⁶⁾ [후략] [밑줄 추가]

이 기념사는 민족통합을 저해하고 독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¹⁷⁾ 공산주의자들의 폭력혁명노선¹⁸⁾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남로당 제주도당은 5·10총선을 저지하고 평양 주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하 선거를 강행하고 있었다.¹⁹⁾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어 주었다.²⁰⁾

당시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은 38선 이남의 군·경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²¹⁾ 반민족행위자라는 이유로 해직된 뒤 남로당의 사주로 군에 입대하는 경찰이 적지 않았으며, 군은 남로당의 침투 표적이 되고 있었다.²²⁾ 이 대통령은 군·경이 공산당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16) 公報處,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 서울: 公報處, 1950, 23-25쪽.

17) Frank and Park, op. cit., 2018, pp.216-17.

18)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1: The Moveme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298-311.

19) 제주4·3사건은 아직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초적 반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비판』, 파주: 태학사, 2016, 134쪽.

20) 『동아일보』, 1948년 8월 16일.

21) 쉬픽코프, 쩌렌찌이 포미치, 전현수(역주·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0: 쉬픽코프일기 1946~194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171-73쪽.

22) 손세일, 앞의 책, 2015, 585쪽.

경계했으며,²³⁾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과 안보를 위해 미군정부로부터 행정권을 신속히 이양받아 정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체결되자 공무원들에게 부패와 공산주의를 경고했다.²⁴⁾ 국제연합(UN) 총회 개막을 3일 앞둔 9월 18일에는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²⁵⁾

1948년 9월 30일 국회에서 이범석(李範奭, 1900~1972)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공적인 언급들을 종합, 정리한 시정방침을 대독했다. “동족상잔의 참화를 방지”하며 “민족통일, 강토 완정(完整)”을 위한 당면 정책들로 국제적 승인 추진, 국군 건설, 치안 확보가 제시되었다.²⁶⁾ 10월 12일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7기 특별반)에 임석해 “국권을 회복하고 국토를 방비”하는 데 힘을 것을 당부했다.²⁷⁾ 통일정책을 외면했다는 비판²⁸⁾과 달리, ‘한반도’를 영토로 설정한 헌법 제4조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6조에 입각한 통일 의지가 표명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의 축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0월 19일 도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하네다(羽田) 공항 도착 직후 기자단에게 국가안보가 방일(訪日)

23) “From Dr. Rhee to Ben and Oliver”(1948.9.1),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a, 463쪽.

24) 『서울신문』, 1948년 9월 15일.

25) 『第1回 國會速記錄 第69號』, 1948년 9월 18일.

26) 『第1回 國會速記錄 第78號』, 1948년 9월 30일.

27) 『국민신문』, 1948년 10월 13일.

28) 선행연구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이 아닌 “단정운동”을 해왔던 이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통일문제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서술했다. 서중석, 앞의 책, 2002, 286~88쪽.

목적들 중 하나임을 밝혔다.²⁹⁾ 공교롭게도 이날 밤 여수 주둔 육군 제14연대에서 제주도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남로당계 군인들의 주도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³⁰⁾ 이어서 11월 2일 대구의 제6연대에서도 반란 사건이 발생하며³¹⁾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독립정부의 존속을 위협했다.

귀국 후 이 대통령은 국내외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반란 사건에 신속히 대응했다.³²⁾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정을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들과 경찰청장들을 소집해 “공산 분자의 극악한 행동의 소탕”을 강조했다.³³⁾ 국회의원들에게는 소련이 한국 승인을 반대하고 조선인민군을 증강하는 시국에 미군 철수나 개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⁴⁾ 대국민 연설에서는 조선인민군의 남침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적 불안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군이 다 철퇴하고 이북 공산군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국회의원들이 민족의 생명과 치안을 보호할 방책은 무엇인가 [중략] 이 위기에 처하여 이런 문제를 알고 창조했다면 이는 과연 남이 알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략] 정부는 밖에서 공산당이 치고 안

29) 『조선일보』, 1948년 10월 21일.

3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2025년 발간 예정인 진상조사보고서에 “여수사건의 성격과 명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보고서 발간에 앞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명에 따른 명명 보다 일단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한 서술에 국한하였다.

31) Scalapino and Lee, op. cit., 1972, p.306.

32) 『조선일보』, 1948년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9일; Elliott, op. cit., 2018, p.100.

33) 『서울신문』, 1948년 11월 5일.

34) 「第1回 國會速記錄 第97號」, 1948년 11월 6일. 1948년 10월 12일 국회 소장과 의원들은 외군 철퇴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1월 5일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본 사건에 책임을 지고 거국적 강력 내각을 조직하여 민심을 일신할 것”을 포함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第1回 國會速記錄 第87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96號」, 1948년 10월 13일; 11월 5일.

에서 국회가 처서 내외 상응으로 민족 생명과 국가 운명만 위태
케 한다면³⁵⁾ [후략] [밑줄 추가, 현대문으로 수정]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³⁶⁾ 국회는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 「미군 주둔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연설에 공명했다.³⁷⁾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국방, 치안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연설들을 이어갔다.³⁸⁾ 국민의 국토방위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0조에 따라 호국군(護國軍) 창설을 촉구하고, 예비 전력의 보완책으로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과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 결성을 독려하는 연설들이었다.³⁹⁾ 또한, 토지개혁에 관한 방송 연설을 통해 농민들의 국토수호 의지도 북돋웠다.⁴⁰⁾ 국방부는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해 추가 모병을 실시하며 한국군의 부대 증편에 착수했다.⁴¹⁾

1948년 12월 6일 한국 독립에 관한 결의안이 국제연합(UN) 총회 정치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8일 통과되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내외 기자들에게 “Justice at any cost! [중략] 평화를 희생하더라도 법과 공정을 지켜서 누구든지 이것을 범하는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⁴²⁾ 일본의 하와이 공습 직전에도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던⁴³⁾ 이 대통령은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이 국제

35) 『서울신문』, 1948년 11월 12일.

36)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1號」, 1948년 11월 11일.

37)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5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8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9號」, 1948년 11월 15일; 19일; 20일.

38) 『국제신문』, 1948년 11월 28일; 『남조선민보』, 1948년 12월 3일.

39) 『경향신문』, 1948년 12월 1일; 5일; 8일.

40) 『자유신문』, 1948년 12월 7일.

41) 『동아일보』, 1948년 11월 16일.

42) 金瑛燮, 『李大統領訓話錄』, 서울: 中央文化協會, 1950, 137-40쪽.

43)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pp.196-97.

사회가 유화책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12월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북에 총선거를 진행해서 [중략] 우리 국회에 참가”해야 하며, “이북동포들은 더욱 단단히 결심하기를 [중략] 남북통일을 이의없이 반대없이 성취하기를 도모”해야 한다며 국제적 정당성에 기초한 통일 의지도 피력했다.⁴⁴⁾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연합(UN)에 상정된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⁴⁵⁾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문들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대북 방어력 약화와 이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국가전복 위험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신생국의 안보를 낙관할 수 없었던 그는 국제연합(UN) 승인의 안보적 의미를 중시하며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승인 외교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취약한 안보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1948년 10월 19일 육군 제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의 연설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수습 대책 마련과 국민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통령 연설만으로 공산 진영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른바 “북풍(the north wind)”⁴⁶⁾을 차단하고 국내의 안보 불안을 일소하는 데는

44) 『서울신문』, 1948년 12월 14일.

45)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269-71쪽. 헌법 영토조항이 가결되기 전, 국회에서는 “만주의 북간도” 등도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第1回 國會速記録 第22號」, 1948년 7월 1일. 대한제국의 강역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한다는 영토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38선 이북 지역에도 행사되어야 한다는 통일 의지를 표명했다. 「第1回 國會速記録 第38號」, 1948년 8월 3일. 언론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는 우리의 강토”라는 인식에 기초해 통일에 대한 염원이 표출되는 등 통일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동아일보』, 1948년 12월 26일.

4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417.

한계가 있었지만, “취약국가”⁴⁷⁾에서 국방과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안보 의지를 결집하고자 했다는 의미가 있다.

3.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주한 미군 철수까지(1948.12.12~1949.6.30)

이 시기 200일간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은 76회 이상 연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한국 승인 결의안 제195호(Ⅲ)가 채택되었다.⁴⁸⁾ 1949년 1월 15일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톈진(天津)을 점령했고, 31일에는 베이징(北京)에 입성했다.⁴⁹⁾ 이 대통령은 동북아 대륙에서의 국공내전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군·경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헌법상 영토 방위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⁰⁾ 한국 해군의 장교 후보생들과 인천항을 방문한 미 해군 장병들에게 대일 위협인식과 해양주권 수호 의지도 표명했는데,⁵¹⁾ 이 같은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발언은 지상군 육성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해군력 건설을 뒷받침했다.⁵²⁾

이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한국의 “자유”를 강조하며 “3천리

47) 과대성장국가 개념에 대비되는 취약국가 개념에 관해서는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서울: 미지북스, 2020, 35~38쪽.

48) UN General Assembly,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1948).

49) 『조선일보』, 1949년 1월 18일; 2월 2일.

50) 『경향신문』, 1949년 1월 4일; 11일; 『서울신문』, 1948년 12월 21일; 23일.

51) 『동아일보』, 1948년 12월 17일; 『서울신문』, 1949년 1월 26일.

52)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283~324쪽.

강토를” 합하기 위해 이북 군민들도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⁵³⁾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에 따라 이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월남자들의 증언이 연일 보도되고 월남자들의 수도 격증하던 시점이 었다.⁵⁴⁾ 국무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비롯해 이북 내 정당·사회 단체의 분열, 민족진영의 강화, 해주에서의 의거 사건 등을 다루 었다.⁵⁵⁾ 이북에서는 1949년 상반기에 1948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⁵⁶⁾ 국방부는 대통령의 방송 연설을 기점으로 심리전 차원의 대북 방송을 전면 확대했다.⁵⁷⁾

수 개월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수호에 관해 연설했지만, 1949년 2월 7일 외국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모스크바 방송에서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선전하며 미군도 신속히 철수할 것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다.⁵⁸⁾ 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이것은 중국 모양으로 또 소련을 환영해 드리며 미국을, 민주 진영을 내보내는 것이다. [중략] 미국 군인이 얼마 아니라도 여기 있기만 하고 보면 소련 군사가 여기 내려올 수 없을 것 [중략]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 가지고 국

53) 金玼燮, 앞의 책, 1950, 91-93쪽. 냉전 시기 “자유세계(free world)”라는 용어는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도덕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수사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9.

54) 『동아일보』, 1949년 1월 1일; 9일; 15일.

55) 「제12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41-42쪽.

57) 『동아일보』, 1949년 1월 11일; 『조선일보』, 1949년 3월 13일; 5월 3일; 6월 2일.

58) 『조선일보』, 1949년 1월 4일.

제대전이 일어나지 말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계대전이 나 머는[나면은] ……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과로 손해를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⁵⁹⁾ [밑줄 추가]

이 대통령은 국회의 미군 철수 종용이 미국과 민주주의 진영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들은 공산당에 호응해 가는 중국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국제대전”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찍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독립을 잃게 되었다고 통탄했던⁶⁰⁾ 그는 미군 철수로 인한 전쟁 발발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 연설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긴급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늦추고,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한국군 증강과 연계하고자 했다. 그는 1949년 2월 8일 로얄(Kenneth C. Royall Sr., 1894~1971) 미 육군장관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며 북진 가능성을 타진했다.⁶¹⁾ 국제연합(UN)의 승인 이후에 파악된 이북 내 동향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 이어서 올리버에게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이 조만간 또 하나의 중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짓밟히더라도 싸우는 것이 한국의

59) 「第2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第24號」, 1949년 2월 7일.

60) 이승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독립정신 영인본: 우남 이승만 전집 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16-23쪽; 이승만, 김명섭·김효선(교감·주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청일전기: 우남 이승만 전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9-11쪽.

6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the Army(Royall)” (1949.2.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I, Part 2*(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a), pp.956-58. 로얄 장관은 한국군 규모, 미군 철수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지배적 정서”라고 밝혔다.⁶²⁾ 미군 철수라는 국가안보적 전환기를 앞두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양하고 국토방위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다.⁶³⁾ 1949년 2월 22일 이 대통령은 육·해군 고급장교들에게 “국민개병(國民皆兵)”을 강조했다며, 3·1절 기념식에서는 “남북이 호응하여 38선을 철폐”해야 한다며 국권 수호를 위한 민족적 단결을 촉구했다.⁶⁴⁾

이어서 이 대통령은 1946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절기상 청명(淸明)이 지나자 지방 순회 연설에 나섰다.⁶⁵⁾ 1949년 4월 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4·3사건 주동자들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귀순, 선무 작전을 시찰하고 국회의원 재선거 참여를 독려했다.⁶⁶⁾ 귀순자들에게 과거는 잊고 충성된 국민이 되어 달라고 훈시했고, 일반 도민들에게는 귀순자들이 “국민도(國民道)”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⁶⁷⁾ 모스크바와 평양에서 제주도 빨치산 투쟁 1주년을 축하하는 방송이 송출되던 때에⁶⁸⁾ 후방지역 불안을 해소하는 대항적 연설이었다.

1949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삼남 지방에서 순회 연설했다.⁶⁹⁾ 8일간 천안, 대전,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덕하, 부산,

62) “Presen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1949.2.12),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32-36쪽.

63) 미국은 한국의 공산화와 일본 안보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철수일을 재검토했고, 최종적으로 1949년 6월 30일까지 철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he President”(1949.3.22),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969-78.

64) 『동아일보』, 1949년 2월 24일; 3월 3일.

65) 1946년 이 대통령의 지방 순회 연설들에 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 I』,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84-92쪽.

66) 이 대통령의 제주도 연설 활동에 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위의 책, 2021, 162-67쪽.

67) 『동아일보』, 1949년 4월 12일.

68)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4.9),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983-84.

69) 당시 사진 자료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위의 책, 2021, 172-225쪽.

마산, 진해, 통영, 여수, 순천, 구례, 남원, 전주, 이리, 정읍, 광주, 수원 등지를 차례로 방문했고, 적어도 18회 이상 연설했다. 적게는 70만, 많게는 4백만 명이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으로 추산된다.⁷⁰⁾ 공산주의자들의 전복 행위를 견제하고자 전국의 국민회, 청년단체가 군·관·경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지방 연설의 주요 목적이었다.⁷¹⁾ 이 대통령은 충청·경상도 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각지의 치안을 격려했다.⁷²⁾ 군사작전이 계속되던 전라도 각지에서 강토를 회복해 공산군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로 실시한 연설들도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⁷³⁾

지방 순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국민개병’에 대한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⁷⁴⁾ 언론은 대통령의 순회 연설이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무하고 사기를 북돋웠다고 호평했다.⁷⁵⁾ 수 개월간 국민 개개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방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⁷⁶⁾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국토방위 강화 국민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민대회에서 주창된 내용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요지와 합치했다.⁷⁷⁾

미군 철수에 대비한 한국군의 병력 증강과 예비전력의 확보도

70) 『동아일보』, 1949년 5월 6일;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p.280.

7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1949,5,2), U.S. Department of State, Ibid., 1976a, pp.1000-3.

72) 『서울신문』, 1949년 4월 26일; 『수산경제신문』, 1949년 4월 26일.

73) 『동아일보』, 1949년 4월 20일; 5월 7일; 『연합신문』, 1949년 4월 29일.

74) 『조선일보』, 1949년 4월 30일.

75) 『연합신문』, 1949년 4월 29일; 『동아일보』, 1949년 5월 9일.

76) 『동아일보』, 1949년 6월 11일.

77) 『동아일보』, 1949년 6월 12일; 24일; 7월 2일; 17일; 18일; 『경향신문』, 1949년 6월 20일.

촉진되었다.⁷⁸⁾ 한국군은 규모 면에서 확장하면서 대대적인 숙군(肅軍)을 통해 내부 공산 세력을 척결했다.⁷⁹⁾ 호국군과 대한청년단은 전후방 각지에서 군·경의 국방, 치안 활동을 보조했다.⁸⁰⁾ 이들을 근간으로 1949년 말에 편성된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6·25전쟁에서 한국군 병력 보충, 공비토벌, 후방 치안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⁸¹⁾ 학도호국단은 전시 학도의용군의 조직적·정신적 모체가 되었다.⁸²⁾

1949년 봄의 지방 순회 연설 이후 육군 2개 대대의 월북, 개성 송악산 전투 등에 이어서⁸³⁾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 김구 암살 사건 등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국내 정세를 진보적 소장파와 김구 세력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6월 공세”로 보는 선행연구도 있다.⁸⁴⁾ 그러나 1년 뒤에 발발한 전쟁은 국회프락치사건 당시의 안보적 우려를 병리적이거나 공작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했다.⁸⁵⁾ 주한 미군 철수가 개시되면서 이 대통령은 각급 조직의 안보적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⁸⁶⁾ 특히,

78) 윤시원, 앞의 논문, 2010, 234-35쪽; 남정옥,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지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43; 45; 47쪽.

79) 6·25전쟁 초기 불리한 전황(戰況)에서도 한국군 장병들이 조선인민군에 집단적으로 투항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숙군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정옥, 위의 책, 2015, 51쪽.

80) 『동아일보』, 1949년 5월 14일; 18일; 7월 11일; 『조선일보』, 1949년 9월 11일;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護國軍史』, 서울: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2001, 51-54쪽.

81) 남정옥, 앞의 책, 2015, 42-46쪽.

82) 나중남 외,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32쪽.

83) 『조선일보』, 1949년 5월 9일.

84) 서중석, 앞의 책, 2002, 201-57쪽; 김정기,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II.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 2: 중간지대의 정치합작』, 파주: 한울, 2008, 13-167쪽.

85) 안도경,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5/6호, 2021, 86쪽.

86) 『동아일보』, 1949년 6월 7일; 『수산경제신문』, 1949년 6월 19일.

국회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연설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⁸⁷⁾ 국가 수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지지를 의식한 국회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⁸⁸⁾

이 시기 이 대통령은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와 주한 미군 철수의 결과가 장차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상 영토를 방위하고 해양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이북의 군과 민을 포용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미군 철수가 기정사실화되자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연설 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의 안보 우려를 상쇄하고 각계각층의 국토방위 인식을 제고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연설들은 미군 철수 전 ‘국민개병’을 위한 국방정책 추진에 기여했다.

4. 주한 미군 철수 이후 6·25전쟁 발발까지 (1949.6.30~1950.6.25)

이 시기 360일 동안 이 대통령은 92회 이상 연설했다. 1949년 6월 30일 미 육군부는 주한 미군 전투부대의 철수 완료 성명을 발표했다.⁸⁹⁾ 미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이 한국에 잔류한 상황에서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은 38선 침범을 확대했다.⁹⁰⁾ 미군 철수

87) 「第3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開會式」; 「第3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15號」, 1949년 5월 21일; 6월 13일.

88) 「조선일보」, 1949년 7월 16일.

89) 「조선일보」, 1949년 7월 2일.

90)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188-98쪽.

에 앞서 전국적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이 대통령은 국제적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연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49년 7월 15일 주한 교황 사절 번(Patrick J. Byrne, 1888~1950)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대통령은 교황 피우스 12세(Pius XII, 1876~1958)의 반공 선언을 언급하며 가톨릭교회를 “강력한 동맹국”으로 칭했다.⁹¹⁾ 일찍이 반종교주의를 표방, 실행하는 러시아식 공산주의를 반박했던 이 대통령은 전투적 반종교주의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극렬한 폭력노선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가톨릭과 연대했다. 교황청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의 종교탄압을 비판하면서 번 주교를 통한 반공적 연대를 강화했다.⁹²⁾

1949년 7월 28일 초대 주한 중화민국 대사로 부임한 사오위린(邵毓麟, 1909~1984)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대통령은 “형제지국”인 양국의 “순망치한”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답사한 뒤, 8월 6일부터 사흘간 진해에서 한중 영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⁹³⁾ 8월 7일 진해 회담 두 번째 날 만찬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장제스 총재를 중국의 “유일한 영도자”로서 환영했고, 이 회담이 반공 동맹체 결성을 향한 진보를 이룩할 것임을 밝혔다.⁹⁴⁾ 태평양동맹 구상은 비록 미국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지만,⁹⁵⁾ 국제적 조건에서 오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91) 『경향신문』, 1949년 7월 16일. 교황은 공산주의 위협을 받는 아시아 민족들이 책임을 자각해야 하며, 공산주의자들 속에 있는 교도들은 파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향신문』, 1949년 7월 9일; 15일.

92) 『경향신문』, 1949년 8월 21일.

93) 『조선일보』, 1949년 7월 29일; 사오위린(邵毓麟)(지음)·이용빈 외(옮김),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중화민국과 한국의 근대 관계사』, 파주: 한울, 2017, 226~28쪽.

94) 『자유신문』, 1949년 8월 10일.

95) Kim, Myongsob,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위한 장제스 총재와의 반공 협력관계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⁹⁶⁾

태평양동맹 구상이 유관 국가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했던데 반해 당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우호 관계는 견고해지고 있다고 선전되었다.⁹⁷⁾ 이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제1주년 기념식’에서 1년간 국가안보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강한 외국”의 침공에는 단독 대응이 어렵다고 고백하며 동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산주의 연대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⁹⁸⁾ 얼마 뒤에 중국공산당 군대 내 한인 부대들이 이북으로 환송(還送)되었다는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⁹⁹⁾ 이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를 압록강-두만강 선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북진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였다. 그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진이 정당하지만 국제연합(UN)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인내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⁰⁰⁾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In Dong-Sung Kim, Ki-Jung Kim, and Hahnkyu Park,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0, pp.139-50.

96)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2호, 1999, 170-80쪽.

97) 『조선일보』, 1949년 8월 11일.

98) 金玼燮, 앞의 책, 1950, 30-40쪽.

99) 『동아일보』, 1949년 9월 10일; 10월 3일. 1949년 5월 김일성(金日成, 1912~1994)은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에게 특사를 보내 중국공산당 군대에 편성된 한인 부대들의 이양을 요청했고 수락을 받았다. 병력은 총 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 주력이 주한 미군 철수 직후인 1949년 7, 8월에 입북해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142-59쪽. 마오쩌둥의 이 수락은 김일성에 대한 “장차지원(future backing)”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쑤이 데이빗,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中國의 6·25戰爭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39-55쪽.

100) 『조선일보』, 1949년 10월 2일; 8일; 16일; 22일.

특히, 1949년 10월 31일 미 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 호에서의 연설은 미국 정계와 언론의 주의를 끌었다. 이 대통령은 미 해군 장병들에게 남북 분열의 장기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는 한국인들이 전투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어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¹⁰¹⁾ 장기적 분단과 피침(被侵)의 위협성을 피력하고자 했던 의도는 일각에서 즉각적 무력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대통령은 곧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진의를 설명했으며, 미국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¹⁰²⁾

이 시기 이 대통령의 북진 발언들은 미 군사원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 “공갈”이나 “허세”로 평가되었다.¹⁰³⁾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군 북진 시 한반도 이북의 군과 민이 봉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¹⁰⁴⁾ 이북 정권에 대한 각계의 저항과 그 여파로 귀순한 자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유사시 “민중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는 가운데¹⁰⁵⁾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대통령의 주장에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다.¹⁰⁶⁾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1) 公報處, 앞의 책, 1953, 24쪽.

102) 『경향신문』, 1949년 11월 5일;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11.4),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1093-94.

103) 李昊宰, 앞의 책, 1986, 346쪽; 서중석, 앞의 책, 2002, 297쪽.

104) 이 대통령 영부인 푸랜시스카(Francesca Rhee, 1900~1992)는 공세적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올리버에게 보낸 답신에서 “늘 그렇듯 대통령의 계획은 너무 앞서나가서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재앙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From Mrs. Syngman Rhee to Dr. Oliver”(1949.10.24),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174쪽. 한국 호적을 확인한 결과 “프란체스카” 등으로 표기되는 이 대통령 영부인 이름의 한국식 표기는 “푸랜시스카”이다.

105) 『경향신문』, 1949년 10월 5일; 1950년 1월 5일.

106) 『경향신문』, 1949년 11월 21일; 28일; 『동아일보』, 1949년 11월 25일; 『조선일보』, 1949년 11월 27일; 28일.

보고 받은 대북 정보, 이북 내 반공적 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 자신과 국방부의 대북 방송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진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김일성의 국토완정론과 대응해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⁷⁾ 그러나 결국 전쟁을 후원했던 소련과 전쟁을 억지했던 미국의 차이는 컸다.¹⁰⁸⁾ 방어를 위한 무장조차 미국에 요청해야 했던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과 1949년 국공내전 승리에 이은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준비를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진 강역(疆域)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기도 및 전복 기도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지닌 것이었다.¹⁰⁹⁾ 당시 이 대통령은 북진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그렇다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폴란드가 독일에 저항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¹¹⁰⁾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1893~1971) 미국무장관의 연설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었고, 2월 중순에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체결 소식이 보도되었다.¹¹¹⁾ 이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위선의 “중요한 연결고리(vital

10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7, 612-13쪽.

108)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파주: 이담, 2010, 79쪽.

109)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9-80쪽.

110) “From the President Syngman Rhee to Mr. Harold Lady”(1949.11.12),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189쪽.

111) 『동아일보』, 1950년 1월 15일; 『조선일보』, 1950년 2월 16일. 스탈린(I. V. Stalin, 1878~1953)은 1950년 1월 초 마오쩌둥과 회담하며 그의 ‘향소 일변도 정책’이 분명한 것을 보고 중소동맹을 체결했으며, 1월 30일 김일성의 개전 제안을 승인했다. 김광수, 위의 논문, 2008, 101-111쪽.

link)”로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했다.¹¹²⁾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초청에 따라 1950년 2월 16일 다시 일본을 방문했고, 애치슨라인 선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방위 문제와 태평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직 대외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합군에 점령되어 있던 일본의 요시다(吉田茂, 1878~1967)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국교 정상화와 방공체제 형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¹¹³⁾ 이 대통령의 방일은 중소동맹에 대한 반공진영 내 최초의 반향으로 평가되었다.¹¹⁴⁾

3·1절 제31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완전무결한 강토를 회복”하고 “이북동포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맹약한 뒤, 중소 간의 연대가 한국 안보에 미칠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제일 큰 한 가지 직책은 국방군을 하루바삐 충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중략] 지금 이 시대의 세계전쟁 방식을 아느니만큼 담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또 사소한 군기만으로도 부족할 것이니 우리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은 비행기와 군함과 또 탱크와 기타 병기를 상당히 준비할 것입니다. [중략] 구라파 모든 나라들이 합동해서 공산 파동을 막은 것 같이 태평양 연안 모든 나라들도 속히 단결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¹¹⁵⁾ [밑줄 추가, 현대문으로 수정]

112) Oliver, op. cit., 1978, p.268.

113) 외교안보연구원, 『임정에서 인도까지: 임병직 장관 회고록』,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998, 190-94쪽. 이 대통령의 1950년 2월 방일 당시의 사진과 상황 설명에 관해서는 김명섭, 앞의 책, 2021, 245-47쪽.

114) 『동아일보』, 1950년 2월 21일.

115) 『서울신문』, 1950년 3월 3일. 밑줄 친 인용문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hat confronted us has been to develop the means of self-defense. … We cannot, however, blind ourselves to the

이 연설의 한글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복진을 위해 중무기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보았지만,¹¹⁶⁾ 영어본과 대조하면 그러한 의도로 확정하기 어렵다. “국방군”이라고 해석된 영어의 원문은 “자기방어 수단(means of self-defense)”이다. 대한민국 독립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방위가 최대 현안이었고 중소동맹이 체결된 현재 그것은 더욱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설을 복진 의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유럽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태평양의 유관 국가들이 방공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국방을 태평양 안보와 연결해서 보았던 이 대통령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제7함대를 한국 해역으로 초청했다. 무쵸(John J. Muccio, 1900~1989) 대사는 미 항공모함 박서(Boxer) 호의 인천항 입항을 예고했고, “현시 효과(showing the flag)”를 기대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¹¹⁷⁾ 1950년 4월 8일 이 대통령은 박서 항공모함에 승선해 두 차례 연설하며 한미관계 형성에서 미 해군의 역할을 치하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전상”을 입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냉전상황”임을 주지시키고자 했다.¹¹⁸⁾ 4월 9일 출항 전, 박서 항공모함의 탑재기들은 서울 상공을 편대 비행하며 방어력을 과시했다.¹¹⁹⁾

1950년 5월 이 대통령은 이북의 군사 상황에 대한 정보판단에

plain facts of modern war. Courage alone is not enough. Small arms alone are not enough. We need and we shall continue to try to get the planes and ships, the tanks and heavy artillery that our situation demands.” Syngman Rhee, “Where Do We Stand Today: United resistance of free countries of Asia”, *Vital Speeches of the Day* 16-11, (1950), p.347.

116) 李昊宰, 앞의 책, 1986, 342쪽.

117) *The Evening Star*, 18; 29 March 1950.

118) 『동아일보』, 1950년 4월 9일; 『서울신문』, 1950년 4월 9일.

119) 『경향신문』, 1950년 4월 11일.

기초해 전쟁 위험을 경고했다.¹²⁰⁾ 5·30총선 시기에도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손상하지 않되 공산당원이 피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다시 지방 순회 연설에 나섰다.¹²¹⁾ 또한, 미국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안보 현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1950년 6월 17일 대일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장관 수석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John F. Dulles, 1888~1959)가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뒤의 제2대 국회 개회식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존중히 여기려면 국가의 자유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치사를 전한 뒤, 일본 방문에 앞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먼저” 온 덜레스를 소개했다. 덜레스는 한국을 “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간주”하며 “절대로 고립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¹²²⁾ 언론은 이 대통령과 덜레스의 연설 전문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반공연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¹²³⁾

1950년 6월 21일 이 대통령은 제3회 전몰군인 위령제에서 연설했다. 서울운동장을 가득 메운 각계 인사, 시민, 유가족들 앞에서 이북 동포들을 호명하며 “대한민국과 대한민족의 적과 싸워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¹²⁴⁾ 당시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은 38선 이남으로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평양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 국민의 반공적 태도(the anti-Communist

120) 『조선일보』, 1950년 5월 13일. 1950년 5월 중순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과 박헌영(朴憲永, 1900~1956)은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 제안을 보장받았다. 쑤이, 앞의 책, 2011, 73-81쪽.

121) 이 대통령은 1950년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조치원, 청주, 대전, 김천, 구미, 대구, 삼랑진, 부산, 목포, 학교, 송정, 광주, 이리, 전주, 수원, 춘천 등지에서 최소 16회 이상 연설했다. 이에 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앞의 책, 2021, 248-84.

122) 「제7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호」, 1950년 6월 19일.

123) 『경향신문』, 1950년 6월 20일; 『동아일보』, 1950년 6월 20일.

124) 『연합신문』, 1950년 6월 22일.

attitude of the southern Koreans)”와 “대한민국 국군의 지속적인 저항 의지(a continuing will to resist on the part of southern troops)”에 주목했다.¹²⁵⁾ “대한”¹²⁶⁾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추도사는 지난 2년간 한국인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메시지를 함축한 것이었다.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들은 공산화 위협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미군 철수 이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교회와 연대하고, 장제스와의 진해 회담 기간에는 태평양동맹을 추진하는 연설들을 통해 국제적 안보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해 북진 주장을 공표했으며, 중소동맹에 대응하고자 태평양 유관 국가들의 단결을 역설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 속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들은 국제사회의 전폭적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반공적 국제연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반공 의지를 고양하는 효과가 있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1948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209회

125) “Memorandum b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1950,6,1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Korea, Vol. VII*(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b), pp.109-11.

126) ‘한국’과 ‘조선’ 관념의 연속, 분화와 6·25전쟁 근저의 관념충돌에 관해서는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43-49쪽.

이상의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들이 있었음을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두 개의 국가안보적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에서 대통령 연설들이 국가안보와 어떤 상관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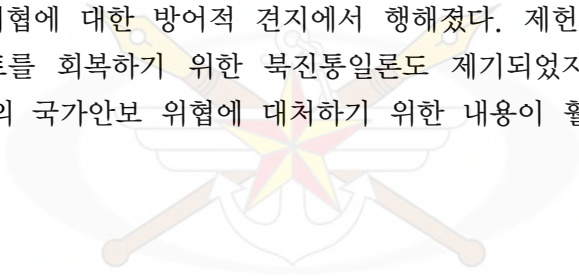
첫째,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 때부터 국제연합(UN)이 한국 독립정부를 승인한 12월 12일까지 41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신속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적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대국민 연설에 집중해 안보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여수 주둔 한국군 제14연대에서 시작된 10·19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각계의 안보 의지를 결집하고자 했다. 이 같은 연설들로 국제연합(UN)에서의 승인 외교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확보했고, 10·19사건 이후 국가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과 국민의 협력을 촉진했다.

둘째, 1948년 12월 12일부터 주한 미군이 철수한 1949년 6월 30일까지의 시기에서 확인된 76회 이상의 대통령 연설들은 중국 공산화의 추이를 반영하면서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대한민국의 수호를 강조했다. 특히, 1949년 미군 철수에 즈음해서는 전국적 연설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토방위를 위한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고자 했다. 이 시기 대통령의 연설들은 중국 공산화와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의 안보 우려를 상쇄하고 ‘국민개병’을 위한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49년 6월 30일부터 1950년 6월 25일 개전까지의 시기에는 92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외국 사절에 대한 연설과 장제스와의 진해 회담 연설 등을 통해 국제적 안보협력을 추진했으며, 공산군의 남침 위협을 경고하는 연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북진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연설들의 주안점은 대한민국

의 국가안보에 있었다. 대통령 연설들을 통해 반공 국제협력을 이뤄낼 수는 없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을 일으키기 전 반공 국제연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반공 의지를 고양한 의미가 있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들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지만,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순회 연설들도 실시되었다. 대북 방송을 통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귀순을 유도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일반주민들의 “인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적 의미가 있는 연설들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해외 언론에 영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은 공산화 위협에 대한 방어적 견지에서 행해졌다. 제헌헌법에 명시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통일론도 제기되었지만, 38선 이남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국회회의록 회의록검색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
 국무회의기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cabinet/viewMain.do>,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연설기록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n.org/?ln=en>,
 『경향신문』, 『국민신문』, 『국제신문』, 『남조선민보』, 『동아일보』, 『부인신문』,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公報處,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 서울: 公報處, 檀紀四二八六[1953].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1(1944~1948)』,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a.
 —————, 『大韓民國史資料集 29: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1949~1950)』,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b.
 國사편찬위원회, 『國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國사편찬위원회, 2006.
 김광섭, 『김광섭 自敘傳_나의 이력서: 시와 인생에 대하여』, 서울: 한국 기록연구소, 2014.
 金珖燮(編), 『李大統領訓話錄』, 서울: 中央文化協會, 檀紀四二八三[1950].
 사오위린(邵毓麟)(지음)·이용빈 외(옮김),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중화민국과 한국의 근대 관계사』, 파주: 한울, 2017.
 쉬띠꼬프, 쟈렌찌이 포미치, 전현수(역주·해제), 『國사편찬위원회 해외 사료총서 10: 쉬띠꼬프일기 1946~1948』, 과천: 國사편찬위원회, 2004.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임정에서 인도까지: 임병직 장관 회고록』,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998.

이승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독립정신 영인본: 우남 이승만 전집 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1910].

이승만, 김명섭 · 김효선(교감 · 주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청일전기: 우남 이승만 전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1917].

The Evening Star.

Oliver, Robert T., *Korea's Fight for Freedom Volume I: Selected Addresses by Korean Statesman*, Washington, D.C.: Korean Pacific Press, 1951.

_____,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_____,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Panmun Book, 1978.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_____, "Where Do We Stand Today: United resistance of free countries of Asia", *Vital Speeches of the Day* 16-11 (1950): 346-34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I, Part 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a.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Korea, Vol. V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b.

2. 저서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푸랜시스가 사진의 한국사 I』,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 김정기,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II.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 2: 중간지대의 정치합작』, 파주: 한울, 2008.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나종남·김광수·박일송·이내주·김현주,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파주: 이담, 2010.
- _____,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지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7[1996].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2[1996].
-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7권, 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 (II)』,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5.
- 쑤이, 데이빗,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中國의 6·25戰爭 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서울: 미지북스, 2020.
- 李昊宰,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解放8年 民族葛藤期の 反省』, 서울: 法文社, 1986[1969].
-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비판』, 파주: 태학사, 2016.
-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護國軍史』, 서울: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2001.

- Ashley, Jeffrey S. and Jarmer, Marla J., *The Bully Pulpit, Presidential Speeches, and the Shaping of Public Policy*, Lanham: Lexington Books, 2016[2015].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1981].
- Edelman, Murray,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Elliott, Oliver, *The American Press and the Cold War: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1945–1954*,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8.
- Hess, Gary R., *Presidential Decisions for War: Korea, Vietnam, the Persian Gulf, and Iraq*,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2001].
- Kim, Myongsob,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In Dong–Sung Kim, Ki–Jung Kim, and Hahnkyu Park,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0.
- Osgood, Kenneth,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Part 1: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Yang, Hee–wan, “A Critical Edition of Major Speeches by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on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1945–1979”, Ph. 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5.

3. 학술논문

- 김명섭 · 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 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283-324, <http://doi.org/10.14731/kjir.2022.12.62.4.283>
- 안도경,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5/6호 (2021): 69-92, <http://doi.org/10.18854/kpsr.2021.55.5.003>
-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217-249, <http://doi.org/10.29212/mh.2010..77.217>
- 이은선,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정읍 발언의 의미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2호 (2018): 39-74, <http://doi.org/10.18206/kapdh.39.2.201802.39>
- 全英雨, “李承晩의 演說活動에 대하여: 1895年~1942年”, 『畿甸語文學』 第3輯 (1988): 51-76.
-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241-277, <http://doi.org/10.18703/silj.2022.06.29.1.241>.
-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2호 (1999): 165-182.
-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3호 (2021): 83-119.
- 한서영 · 김명섭, “미국 유학 시기 이승만 강연활동의 양상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2호 (2019): 363-395.
- Frank, David A. and WooSoo Park, “Syngman Rhee, Robert T. Oliver, and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Global Cold War”,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2 (2018): 207-226, <http://doi.org/10.1080/02773945.2017.1302095>

〈Abstract〉

A Study on Presidential Speeches of Syngman Rhee

—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before
the Outbreak of the 6·25 War in Korea —

Kim, Min-Sik
Kim, Myong-Sob

In this study, President Syngman Rhee's two-year speeches before the total Communist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adopting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1948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with a focus on national security issues. During this time, he delivered more than 209 speeches, including recorded and English speeches.

From July 24, 1948, to December 12, 1948,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41 speeches to rapidly recover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of the ROK. Furthermore, he pu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ty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Nations (UN).

From December 12, 1948 to June 30, 1949,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76 speeches to alert Korean peopl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hinese communist victory in mainland China. Before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ROK in 1949, he called for the Korean people's responsibility on national security.

From June 30, 1949, to June 25, 1950,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92 speeches warning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t invasion and urg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oreover, based on the territorial clause of the ROK's Constitution, Rhee mentioned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recovering the nor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hee's speeches, from his inauguration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ROK in 1948 to the outbreak of the 6·25 War in 1950, were both defensive and counteroffensive against communist threat and provocation. His speeches,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cused on encouraging the will of the ROK Army and Korean people for national security and achieving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Keywords: Presidential Speech, Syngman Rhee, National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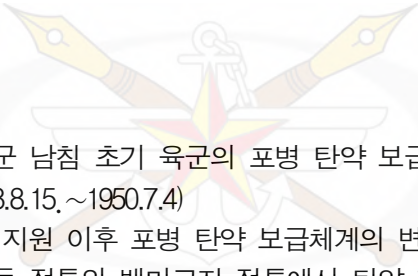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279-319
<https://doi.org/10.29212/mh.2024..133.2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시기 포병 탄약 보급체계 연구

- 철도, 도로 수송을 중심으로 -

강태윤 |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 
- 목 차
1. 서론
 2. 북한군 남침 초기 육군의 포병 탄약 보급체계
(1948.8.15.~1950.7.4)
 3. 미군 지원 이후 포병 탄약 보급체계의 변화(1950.7.4.이후)
 4. 다부동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에서 탄약 재보급 과정
 5. 결론

초 목 본 연구는 6·25전쟁 시기 한미연합군의 포병부대 탄약 보급체계를 미군의 지원 이전과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한국군은 전쟁 발발 직전과 유엔군의 지원 이전에는 미 군사고문단의 승인에 따라 탄약을 보급받았고 탄약의 양은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탄약 보급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군 지휘관들의 탄약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에 따라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결정되었다.

본격적인 탄약 보급체계는 미군이 참전하고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확립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일본군수사령부를 창설하여 일본 본토를 군수지원 기지로서 활용했고 해상과 공중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부산에 위치한 창에 탄약을 보급했다. 이후 부산에 하역된 탄약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도체계를 통해 전장으로 수송되었고 철도 수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도로 체계를 통해 보급했다. 미군의 탄약 보급체계는 전황이 진행되면서 부산기지사령부에서 부산군수사령부를 거쳐 제2군수사령부로 개편하면서 완성되었다. 전쟁 초기 탄약 저장 수준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공중 수송을 통한 긴급 공수, 1일 CSR 조정 등 작전 수행을 위한 긴급 조치가 존재했다면, 전쟁 후반기에는 탄약의 저장수준과 수송 체계가 확립되면서 안정적인 탄약 보급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6·25전쟁에서 탄약 보급체계의 확립은 전쟁 수행 간 중요한 지속지원 요소였다.

주제어 : 6·25전쟁, 포병, 탄약 보급체계, 철도, 도로 수송

(원고투고일 : 2024. 10. 1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서론

우리는 탄약을 하루에 6,000~7,000발 정도를 사격했는데 대대는 탄약차가 6~7대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 수송부대가 대기하고 지평리 탄약고에서 수송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 이러한 탄약 보급으로 포병 사격 시 탄약이 지원 가능하였다. ... 현재 한국군의 이러한 사격은 미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

6·25전쟁 기간, 포병 사격은 전황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²⁾ 한국군과 미군이 다량의 포탄을 소모하기 위해 탄약의 지속적인 보급은 필수적이었다. 1951년 4월 중공군 5차 공세 기간 중,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던 포병대대는 7일간 309,958발(밴플리트 탄약량³⁾)의 포탄을 소모했고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총 25,348,054발의 포병 탄약을 사용했으며, 이는 월평균 1,115,184발을 발사한 셈이었다.⁴⁾ 이만한 사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미군은 체계적인 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했다.

보급은 보급품의 조달, 분배, 유지 보수 및 폐기를 의미하며

1)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육군본부, 2012), 39쪽.

2) 8th U.S.Army, "Employ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Artillery" (January, 1954), p.2.

3)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는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1951년 4월 중공군의 5차 공세 때 전선 사수 명령과 함께 화력 제압의 방식을 택하였고 포병의 탄약통제보급률(CSR)을 5배로 늘려 이른바 무제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4) 앞의 글(1954), p.20.

육군과 공군에서는 보급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한다.⁵⁾ 포병부대 탄약 재보급은 부대의 기본휴대량(Basic Load)⁶⁾ 부족분을 통제보급률(CSR)⁷⁾ 범위 내에서 작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량을 확보하는 보급 활동이다.⁸⁾ 탄약 재보급은 획득 및 조달 체계와 탄약을 사용 부대로 이동시킬 수송 체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탄약 보급의 성과는 상하 제대 간 협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단은 사단의 전황을 고려하여 탄약 할당 방법을 조정한다.⁹⁾ 다음으로 사단 예하 포병부대 지휘관은 작전 상황을 고려하여 예하 포대가 필요한 탄약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탄약보급소에 적정 인원과 차량을 적정 시기에 투입하는 것을 판단한다.¹⁰⁾ 이때 사단과 포병부대는 전황에 따라 탄약 재보급의 방법을 협조한다. 탄약 재보급 방법은 부대분배¹¹⁾와 보급소 분배¹²⁾로 구분되며 부대분배의 경우 사단 탄약 중대가 탄약을 수송하면 되지만, 보급소 분배의 경우 포병부대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³⁾

5) Joint Chiefs of Staff, *Dictionary Of United States Military Terms For Joint Usage*, (Washington D.C: 1950), p.84.

6) 부대 내에서 항상 보유하도록 인가된 탄약의 양으로서 정상적인 재보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여된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상 소요량을 말한다.

7)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허용된 보급 한계량으로써 통상 1일 단위로 책정된다.

8) 육군본부, 『포병운용』 4장 (계룡: 육군본부, 2012), 11쪽.

9) 미8군 예하 군단들은 육군 기준 수량의 탄약을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것보다 전황에 맞춰 대량 보급함으로써 사단이 탄력적으로 탄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더 선호했다. 앞의 글(1954), p.27.

10) 위의 글, p.27.

11) 지원부대에서 피 지원부대로 추진 지원하는 보급 방법으로 피 지원부대가 기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원부대에는 인원, 장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12) 피지원부대의 인원, 차량으로 보급소에서 보급품을 수령하는 보급 방법이다.

13) 위의 글, p.27.

탄약 보급은 보급선(Line of Communic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철도, 도로 등의 수송 체계를 이용한다.¹⁴⁾ 수송 체계의 확립은 보급품을 사용 부대로 수송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수송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 초기 보급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었고 수송 체계를 빠르게 갖춰야 했다. 미군은 항만과 철도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 등을 급히 활용하여 탄약 등의 중요 군수품을 전방으로 수송하면서 점차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전황 초기 미군은 부산항과 인근 철도를 통해 전방으로 물자를 추진했다면, 인천상륙작전 이후부터는 인천, 원산 등의 동·서해안에 위치한 항만, 철도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철도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은 도로 수송을 위해 도로를 설치했다.¹⁵⁾

미군은 탄약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6·25전쟁 초기에는 단시간 내 보급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전투와 병행해야 했다. 제한적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보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벤 플리트 탄약량과 같은 무제한 포병 사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6·25전쟁 기간 포병 탄약 보급체계의 확립 과정 고찰은 포병 작전의 이해, 더 나아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6·25전쟁 기간 포병 관련 연구는 전투수행기능¹⁶⁾ 중 “화력”

14) War Department, *FM 100-10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4.

15) U.S.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3 Chapter 6* (December, 1955), p.9-11.

16) 전투수행기능은 지휘통제, 기동, 정보, 화력, 지속지원, 방호이다.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 OPERATIONS Chapter 2*, (Arlington County,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22), p.1.

부분에 집중했고 “지속지원”부분은 관심갖지 않았다.¹⁷⁾ 포병 탄약 보급의 사례를 언급한 연구는 있으나 당시 보급체계와 연계하지 않고 사례 제시로 끝나버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¹⁸⁾ 『군수변천사』(1996) 『한국전쟁지원사 - 인사·군수·민사지원』(1997)은 한국군의 군수지원체계의 변화만을,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계』(2022)는 미군의 군수지원체계의 변화만을 각각 연구했을 뿐 두 국가의 군수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2010년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군수지원분석』은 6·25전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군수지원 현황과 사례를 제시했지만, 존 웨스트 오버(John G. Westover)의 『한국에서의 전투지원, Combat support in Korea』(1955)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당시 군수지원체계와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데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군수지원체계와 전투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조봉휘의 “6·25전쟁시기 다부동지역에서의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2015)”는 다부동 전투지역에서 국군 제1사단의 군수지원 실태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지만, 포병 탄약의 보급을 다루지는 않았다. 김윤미의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 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2022)”는 미군 군수사령부가 통제하는 항만 보급체계를 분석했으나, 철도·도로 수송 체계는 다루지 않았다.

철도·도로 수송 체계에 대한 이해는 포병 탄약 보급체계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6·25전쟁 시기 한국군은 탄약 등 전투물자의 비축 상태가 부실했기에, 신속한 수송이 필수적

17)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 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軍史』 제117호(2020), 47-92쪽.

18) 류의연,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軍史』 제121호(2022), 1-3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5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남: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이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물자 수송은 철도·도로 수송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한반도 동·서부지역 지형적 특성이 수송 체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주요 활용자료로는 1955년 미 제8군에서 발간한 『한국 작전에서의 군수,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에서 항만에서 철도-도로-탄약보급소로 이어지는 수송 체계를 분석하고 『미8군 전쟁 일기, EUSAK War Diary』(1950), 『미8군 지휘 보고서, EUSAK Command Report』(1951, 1952)와 참전용사 증언이 담긴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2012)으로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에 관련된 사례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6·25전쟁 시기 탄약 보급체계의 변화를 철도와 도로 체계 중심으로 확인하고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미군의 지원이 군수지원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점을 고려하여 미군 지원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한다. 먼저 2장은 국군 창설 이후 육군의 군수지원체계 확립 과정에서 탄약 보급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전쟁 발발 직후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을 위한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 3장은 미군으로 작전 지휘권이 이양된 이후 미군¹⁹⁾의 군수지원체계의 확립 과정과 탄약 보급체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 4장은 미군이 보급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철도와 도로 체계를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두 가지 탄약 보급의 형태(보급소·부대 분배)로 구분하여 주요 전투사례를 통해 분석하려 한다.

19) 공식적으로는 “유엔군”의 군수지원체계이지만, 사실상 미 극동군 사령부에 의해 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미군”으로 표기한다.

본 연구는 군수지원체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작전 기간의 다부동 전투와 군수지원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952년 10월 휴전회담 진행 기간의 백마고지 전투를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포병 탄약 보급 과정을 고찰했다. 본 연구는 보병부대의 전투보다 전황 변화에 따른 포병 부대의 사격진지 위치와 탄약 수송 과정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탄약 보급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당시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미군 군수사령부의 탄약 보급을 위한 지시 내용, 철도 및 도로 체계, 전방 탄약보급소 및 포병부대 사격진지 위치다. 이를 통해 부산항에 하역된 포병 탄약이 어떻게 전방 사격진지까지 추진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군 남침 초기 육군의 포병 탄약 보급체계 (1948.8.15.~1950.7.4.)

가. 육군의 군수지원체계

전쟁 초기 육군의 포병 탄약 보급체계는 탄약 보급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기준으로 육군 군수지원체계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미군 통제 아래 이루어진 탄약 보급체계와 육군본부의 조직 개편 과정, 자체적으로 장비와 탄약을 확보하려 했던 육군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탄약 보급체계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6·25 전쟁 발발 전, 한국군은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1949년 6월 30일 예정되었던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국군은 급하게 군수 관련 부서와 기구들을 설치했지

만, 이를 운영할 능력은 미처 갖추지 못했다. 특히 탄약 등 주요 품목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설치된 기구들이 주도적으로 탄약 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전쟁 계획이 부재하고 체계 운영 능력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임시방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만 가능했지만, 짧은 기간의 준비로 미군 지원 이전까지 버틸 수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가장 큰 과제는 미군 철수에 대한 군사적 대비였다. 1949년 6월 30일 미군 철수 이후 독자적으로 북한군을 상대해야 했던 한국군은 미군정 시대의 경비대 수준으로는 소련군의 지도를 받아 군사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었다. 이에 육군은 국군 창설 직후 경비대 시절 50,000²⁰⁾여명 규모에서 100,000명 규모로 부대 규모를 확장했고, 그만큼 필요한 장비와 탄약량도 증가했다. 당시 국군은 자체적으로 장비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정부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국내에 있는 미 군사고문단²¹⁾을 통해서 원조를 요청, 미국에 특사를 보내면서까지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65,000명분의 장비와 탄약 지원 약속이라는 제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²²⁾ 105mm 곡사포 91문과 포탄 4만 발²³⁾을 지원받았으나, 성능 좋은 M-2 105mm 곡사포는 철수 시 미군에게 회수되고 구식 M-3 105mm 곡사포만 제공되었고 탄약은 미 군사고문단의 통제를 받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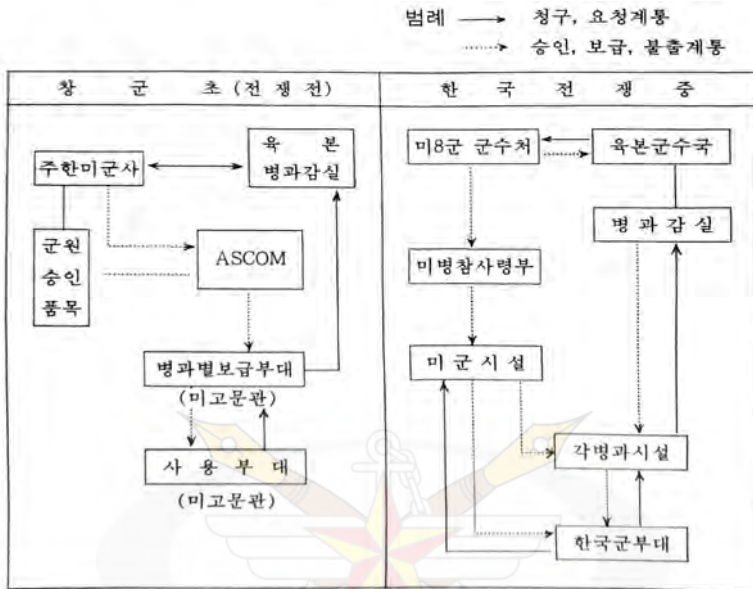
20)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계룡: 육군본부, 1996), 41쪽.

21)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군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수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자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 MAG: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서울: 한양대학교, 2016), 338쪽.

2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106쪽.

23) 위의 책, 135쪽.

문에 자체적인 보급체계를 갖출 수 없었다.²⁴⁾



〈그림 1〉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1996),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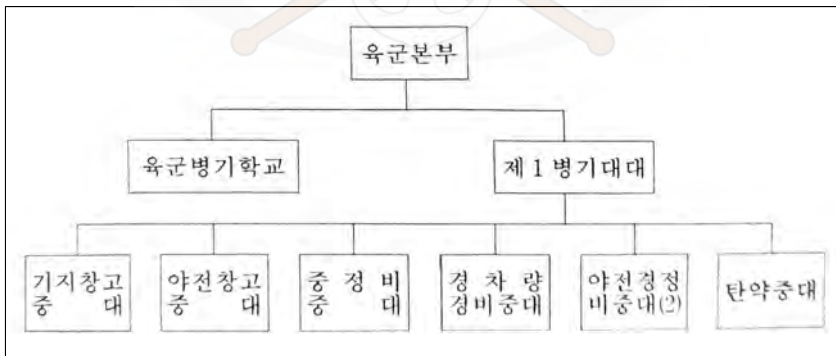
6·25전쟁 직전 육군의 보급체계는 〈그림 1〉(창군초)와 같이 미군 철수 이후에도 미 군사고문단의 군수 관계 요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각 부대는 부대의 미 고문관의 통제를 받아 탄약을 육군본부로 청구했고 육군본부는 미 군사고문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당시 탄약은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군사고문단 승인 이후 부평(富平)에 위치한 육군지원사령부 (Army Service Command: ASCOM)로부터 보급 받았고²⁵⁾ 사용 부대에 소속된 미 고문관의 관심 유무에 따라 부대 탄약 보유량의 차이가 발생했다.²⁶⁾

24) 위의 책, 106쪽.

25) 위의 책, 117쪽.

26) 앞의 책(2012), 422쪽.

육군은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군수 기능 개편을 진행했다. 육군본부는 예하 군수국의 중앙조달과 병기계를 국군조직법에 따라 병기처로 개편(48.12.15)²⁷⁾, 이후 육군본부의 특별참모부인 병기감실로 승격시켜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된 병과부대를 통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육군본부 병기감실은 병기부대를 개편했다. 당시 육군의 규모 확대로 보병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고 전투부대가 추가 편성되면서 기술병과부대 편성이 필요했다. 이에 육군본부 병기감실은 각 사단을 직접 지원하는 각 기술병과 지원기능이 혼합된 혼성 중대를 편성했다. 이후 이를 모체로 각 기술병과의 편제 부대들이 편성되었고 각 사단 예하에 병기 중대가 창설되었다.²⁸⁾ 추가적인 개편과 창설 과정을 거쳐 6·25전쟁 발발 당시 병기부대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육군본부 병기감실 예하의 육군병기학교와 제1병기대대로 편성되어 전군의 병기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²⁹⁾



<그림 2>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1997), p.91

27) 앞의 책(1996), 60쪽.

28) 위의 책, 70쪽.

29) 위의 책, 72쪽.

수송부대는 기술병과 부대 확대와는 별개로 6·25전쟁 발발 전까지 독립된 수송병과 대신 육군 군수국 내 수송과를 통해 과업을 수행했다. 이들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병참단 예하에 자동차대대와 철도대대로 편성되어 병참감실 통제 아래 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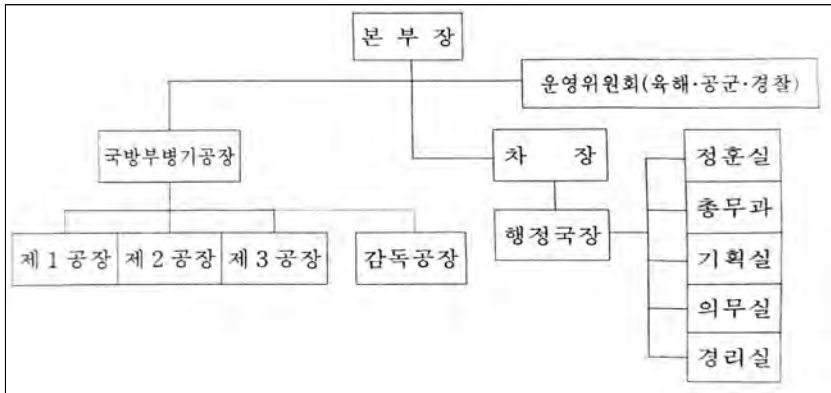
육 군 본 부												
병참학교	피복창	병 참 단				보 급 창						
		단	정비대대	철도대대	자동차대대	창고중대(2)	급유중대(2)	인천보급창	서울보급창	대전보급창	부산보급창	광주보급창
		본부										

<그림 3>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1997), p.90

정부는 미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미 군사고문단의 제안에 따라 소화기와 탄약 생산을 시도했다. 정부는 소화기 자체 생산을 시작으로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축적하려 했다. 먼저 국방부는 정부 귀속업체인 유환상공주식회사 용산공장을 제1·제2공장으로 지정하여 소화기 부품 생산을 시작했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화정공주식회사를 제3공장으로, 인천의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와 기호전업을 생산감독공장으로 지정하여 병기 생산 능력을 확충했다. 또한 국방부 내에 병기행정본부를 설치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병기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도록 했고 연구 업무도 같이했다. 6·25전쟁 발발 시점 국군은 비록 포병 탄약 생산까지는 불가능했지만, 99식 탄약 567,000발, 마찰식 수류탄 100,870발, 대전차 지뢰 290발, 대인 지뢰 2,367발, 15kg 폭탄 277발, 뇌관 211,300발을 생산하는 등 제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³⁰⁾

30) 앞의 책(1970), 101쪽.



〈그림 4〉 병기행정본부 기구표(1949.12.5.)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1997), p.177.

6·25전쟁이 발발하는 시점까지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 정부가 가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다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지녔다. 미 군사고문단은 당시 38선에서 발생했던 군사적 분쟁보다는 한국군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집중했고 무기 지원도 비정규전 대비에 초점을 두었다.³¹⁾ 1949년 5월 초 개성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로버츠 미 군사고문단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건 원인의 조사 시작 통보 사실을 전하며 남한의 침략 목적 식별 시 남한에 대한 원조는 없다고 경고하며 북한과의 전면적 충돌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³²⁾ 심지어 195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차들이 38선 부근에 배치되고 있다는 정보들을 정보망으로 접수했으면서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³³⁾

31)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軍史』 제79호 (2011), 117쪽.

32) Muccio,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in Korea” (1949. 5. 10), *FRUS 1949*, vol. VII, p.1016~1018.

33) 앞의 글(2011), 120쪽.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는 미 군사고문단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전면전을 치를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물자의 수준마저 형편없었다. 지원받은 물자에는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와 2차세계대전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와 보급품이 섞여 있었다.³⁴⁾ 심지어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인수하자마자 정비할 여유도 없이 공비 토벌 작전과 38도선 일대 충돌 작전에 인수 장비를 투입했고 장비는 더욱 노후화되었다. 지원받았던 탄약은 1950년 6월 전쟁 직전 거의 소진되었고 미군의 추가 보급은 없었다. 탄약은 65% 이상 소모되어, 미국으로부터 받은 5,100만 발 중 1,900만 발만 남아 있었고³⁵⁾ 미군에 추가로 요청한 탄약은 6·25전쟁 발발 시점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장비 부분에서도 육군본부 군수국과 병기감실은 미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육군본부는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투 예비량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등록제”를 실시하여 차량 사용을 제한시켰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비에 집중했다. 또한 고장 차량을 회수하여 재생시키는 과정을 지속했다. 당시 예하 사단은 평균 19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사단 기본편제인 377대의 52%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 직할부대는 1,2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약 60%는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다.³⁶⁾ 육군의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시점에서 차량 예비량은 부족했으며 가동률도 낮았다. 차량 4,217대 중 1,570대는 정비를 위해 회수되어 있었고, 이 중 956대는 폐차 상태였다.³⁷⁾

34) 앞의 책(1996), 47쪽.

35) 앞의 책(1997), 136쪽.

36) 위의 책, 115쪽.

37) 위의 책, 214쪽.

나. 한국군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

1950년 6월 25일, 한국 육군은 6개의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5개 대대는 전방³⁸⁾에, 1개 대대는 포병학교에 배치되어 있었다. 각 사단과 포병부대들의 탄약 확보의 중요성 인식 여부가 서부와 중동부 전선에서의 화력지원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쟁 초기 한국군의 탄약 소요 판단, 획득, 저장, 분배, 처리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탄약 보급의 중요성을 육군본부 군수국, 사단, 포병대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고찰했다.

1950년 6월 28일, 육군본부는 미군으로부터 105mm 포탄을 포함한 119톤의 탄약을 보급받았다.³⁹⁾ 탄약은 미군 시설 즉 미군 군단 지역 보급소에서 수령했고 정산은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약보급소에서 분배되었으나, 전황이 급박할 때는 육군본부의 계획에 따라 전투부대 현장까지 직접 수송하는 부대분배 방식을 채택해야 했다.⁴⁰⁾ 특히 6·25전쟁 초기는 매우 급박하였기 때문에, 포병부대가 멀리 떨어진 탄약보급소로 탄약 수령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어려웠다.

전쟁 발발 초기 포병대대는 사단·연대로부터 포병 탄약의 부대 분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탄약 보급은 육군 군수국의 중앙통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군본부 예하 제1 병기대대가 통제하는 탄약보급소와 포병부대까지의 보급로 거리가 멀어 신속한 재보급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제1사단 예하 제6포병대대의 사격진지와 탄약보급소 간 거리는 40km 이상

38) 전방 서부 전선에는 제5·제6·제7포병대대가, 동부 전선에는 제1·제3포병대대가 주둔했다.

39) 위의 책, 214쪽.

40) 앞의 책(1996), 55쪽; 육군본부의 결정에는 미군 군사고문단의 조언이 바탕이 되었다. 앞의 글(2011), 117쪽.

이었고 전쟁 초기 피난민과 부상병 호송 등으로 상태도 정제되어 탄약 보급에 제한사항이 많았다.⁴¹⁾ 탄약 재보급이 가능했던 부대들은 자체 역량으로 탄약을 사격진지 근방에 보관함으로써 보급로 제약 없이 신속히 탄약을 보급할 수 있었던 일부 부대들 뿐이었다.

6·25전쟁 초기 포병부대의 탄약 보급 성과는 탄약 보급체계가 아닌 전방부대 각각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었다. 포병부대가 탄약을 사격진지 근방에 보관했는지, 지연전을 대비해 사전에 탄약을 후송할 장소와 인원, 차량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전방 경계부대의 철수 여건 보장이 결정되었다. 지휘관 판단에 따른 부대의 자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탄약 보급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초기 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포병부대의 대응에 차이점이 존재했다. 서부 전선의 제5·제6·제7포병대대⁴²⁾는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⁴³⁾ 탄약 보급에 실패하면서 화력지원을 하지 못했다. 서부 전선의 제7사단 예하 제5포병대대의 탄약고 위치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창동 전투(1950. 6.26~27) 당시 탄약후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흥 탄약고에서 재보급을 받았던 사실로⁴⁴⁾ 보아 별도의 탄약보급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초기 동두천 지역전투(1950.6.26)에서 제5포병대대는 제1연대를 지원하던 제2포대만 화력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휴대한 포탄 300발 소모 이후 재보급을 받지 못했다. 육본 군수국의 지시로 부대 분배가 진행될 때 제1탄약창고중대가 잘못된 탄종을 추진하여 보급이 지연되었던 사

41) 당시 제6포병대대는 문산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탄약보급소는 수색에 위치했다.

42) 포병부대 재편성 후 각각 제17포병대대, 제11포병대대, 제10포병대대로 개칭했다.

43) 제7포병대대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장비를 두고 철수했다.

44) 앞의 책(2012), 218쪽.

실은 병기부대에서 사전에 탄약 보급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⁴⁵⁾

제6포병대대는 서부 전선의 제1사단 예하 제6포병대대는 시흥역 일대 탄약고에 비축된 포탄을 서울 수색(水色)에 있는 탄약고에 보관하고, 차량으로 각 부대로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⁴⁶⁾ 당시 포병부대의 사격진지가 문산 일대임을 고려할 때, 보급로가 신장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탄약 재보급을 위해 차량을 보냈을 때는 보급로에 매복 중인 북한군 유격대의 공격으로 보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반면, 중동부 전선의 제1·제3포병대대⁴⁷⁾는 신속히 탄약을 보급하고 후방으로 후송하여 성공적으로 사단의 지연전에 기여했다. 동부 전선의 제8사단 예하 제1포병대대는 사단 사령부 근처인 강릉에 탄약집적소(Ammunition Dump)⁴⁸⁾를 운영하고 있었고, 차량으로 재보급이 가능했다. 또한 사단과 포병대대는 전황을 예측하고 협조하여 탄약을 후방으로 사전에 후송했다. 1950년 6월 27일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철수할 때, 포탄을 최우선으로 적재하여 전량 대관령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단양 전투(1950년 7월 6일~12일)에서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통해 사단은 계획된 진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부 전선의 제6사단 예하 제3포병대대는 춘천에서 소양강 이북 대대 근처에 탄약고를 설치하여 차량으로 재보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쳤다. 제3포병대대는 전쟁 발발 이전에 춘천에서 탄약을 수령하여 사격진지 근처 소양강 이북에 보관했고 전쟁 발발 직후 대대는 충분한 탄약을

45) 육군본부, 『군수지원분석』 제2장 (계룡:육군본부, 2010), 22쪽.

46) 앞의 책(2012), 149쪽.

47) 1950년 7월 8일, 포병부대 재편성 후 각각 제18포병대대, 제16포병대대로 개칭했다.

48) 통상적으로 옥외에 있는 폭탄, 탄약, 장비품 또는 보급품을 위한 임시 저장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격으로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아군이 지연전을 수행하며 철수할 때, 제3포병대대는 탄약후송을 위해 차량 징발과 인원 동원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5,300발의 포탄을 소양강 이남으로 성공적으로 이동시켰다.

초기 육군의 보급지원 체계는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많았고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 동부 축선의 포병부대들은 보유하고 있던 탄약을 모두 소모했고 서부 축선의 부대들은 철도로 급하게 포병 탄약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아군의 오폭으로 탄약을 전량 소실했다.⁴⁹⁾ 국군은 미군이 1950년 6월 28일 급하게 보급했던 탄약을 소모하며 낙동강 전선까지 철수했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부족했던 차량은 특히 한강교 폭파 이후 차량 726대, 트레일러 589대를 한강 이북에 유기하고 철수하면서 작전에 필요한 물자 수송에 문제가 발생했다. 징발했던 민수용 차량도 응급조치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탄약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수적이었지만, 당시 철도와 같은 대규모 수송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6·25전쟁 발발 후 육군은 보유하고 있던 탄약을 모두 소모했고 장기전을 위해 지속적인 탄약 보급이 필요했다. 서부 전선의 포병부대들은 북한군의 빠른 남진을 막아내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차량과 화포 등 주요 장비를 유기하였으며, 포탄 3만여발을 철수 도중 평택에서 호주 공군의 오폭으로 상실했다.⁵⁰⁾ 동부 전선의 포병부대들은 성공적으로 지연전을 수행하여 장비의 손실은 없었지만, 차후 작전을 위한 포탄의 보급이 필요했다. 미 제8군의 탄약과(Ammunition Division)는 1950년 6월 28일 극동

49) 위의 책, 120쪽.

50) 앞의 책(2012), 71쪽.

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탄약을 긴급하게 해상과 공중 편으로 육군에 전달했지만, 장기적으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했다.

3. 미군 지원 이후 포병 탄약 보급체계의 변화 (1950.7.4.이후)⁵¹⁾

미군은 신속하게 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켰고 탄약보급체계 즉, 탄약의 조달, 획득, 수송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때, 미8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을 지원했고 감독했다.⁵²⁾ 비록 군수 지원체계의 수준이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에서는 남진하는 북한군을 가까스로 저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중공군 공세와 38선 일대에서의 공방전에서는 통제보급률을 초과해서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미군의 군수지원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8군은 극동군사령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 포병부대에 탄약을 보급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주둔 미8군은 한국으로 45일분의 탄약과 미군 지상 조직을 선박과 항공기로 긴급하게 수송했다. 투입된 미군 지상 조직에는 항구와 철도 운영 임무가 가능한 병력이 편성되어 있었다.⁵³⁾ 7월 1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한 탄약은

51) 국군은 6·25전쟁 발발 이후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탄약 보급 체계 확립에 관여할 수 없었다. 포병 탄약의 청구 및 관리는 국군 내 미 군사고문단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국군 군수국은 낙동강 방어선 작전(1950년 9월) 이후 식량, 피복, 차량, 전투 장비 정비, 소총 개발, 수류탄 생산 등 초보적인 수준의 군수 업무를 담당했다. 앞의 책(1997), 275-276, 365-368.

52) 앞의 책(2016), 335쪽.

53)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1 Chapter 2* (December, 1955), p.5.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사령부(Advanced Command: ADCOM) 수송장교의 통제에 따라 7월 7일까지 하역되었고 철도를 통해 7월 8일 전투지역으로 수송되었다. 7월 8일 최초로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은 탄약을 재보급받을 수 있었다.⁵⁴⁾

6·25전쟁 초기부터 미군은 철도를 운영할 병력을 파견하는 등 철도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극동군사령부는 일본에 주둔 중인 제8016군철도수송대의 인원으로 제8059군철도수송대를 급하게 편성하여 1950년 7월 9일 부산으로 파견했다. 제8059부대는 철도를 운용할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 철도청 직원들을 감독해서 운영했다. 전쟁 기간 부산 항구와 전투 현장까지 거리는 일반적으로 약 640km이었고⁵⁵⁾ 철도는 전방 작전 부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탄약은 항구에서 철도에 적재되어 군단과 사단 보급소까지 직접 수송되었다. 도로 수송은 발달 되지 않은 도로 체계와 산악지역으로 인해 짧은 거리에서만 운용되었다.⁵⁶⁾

철도는 전황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유동적으로 바뀌었고 전쟁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복구와 개선이 필요했다.⁵⁷⁾ 전쟁 발발 직전 한국 내에서 운용할 수 있던 선로 길이는 총 5,632km였고 한국 철도청과 미군이 분할 하여 관리했다. 북한군의 남하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선로는 402km까지 감소하였다. 낙동강 전투 당시 낙동강 다리가 파괴되어 철도는 왜관 전방으로 추진될 수 없었고, 왜관에서 대전과 오산까지는 트럭을 이용해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주요 노선인 부산-서울 구간은

54)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2 Chapter 4* (December, 1955), p.116.

55) 위의 책(1955) *Volume 3 Chapter 6*, p.10.

56) 위의 책, p.9.

57) 위의 책, figure 7.

전쟁 초기 하루 12,000톤의 운송 능력을 갖췄으나,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의 공격과 아군의 선제적 파괴로 인해 다수의 철도 시설이 손상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다리 재건, 선로 복구, 철도 중점의 하역 및 적재 능력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⁵⁸⁾ 그 결과 1953년까지 부산-서울 구간의 운송 능력은 32,000톤으로 증가했고 동해선과 북부선은 산사태, 터널 붕괴, 다리 파괴 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며 안정적인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한강·북한강 다리 재건은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동해선과 주요 노선의 용량을 대폭 확대했다.⁵⁹⁾

도로 수송 체계는 철도체계의 보조역할로서 한국 지형의 특성상 철도 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운용되었다. 한반도 내 도로망은 1905년 일본에 의해 개발되어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나,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군사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했다. 약 11,000마일의 도로망은 대부분 자갈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폭이 좁고 유지 관리가 열악해 대형 트럭 한 대만 통행이 가능했다. 주요 다리들은 하중 용량이 10~60톤이었지만, 전쟁 중 주요 보급로의 다리들은 50톤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⁶⁰⁾ 도로 수송은 좁은 폭, 급경사와 커브, 장마철의 진흙, 겨울철 폭설 등으로 제한을 받았으며, 1950년 당시 하루 1,000톤 이상 운송이 가능한 도로는 신의주 부산과 목포~온성 구간 등 소수에 불과했다. 1951년 6월 전

58) 1951년 9월, 전술적 상황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었던 서부 축선 철도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보급선은 기존의 부산-원주 철도 선에서 부산-서울-춘천 철도 선으로 변경되었다. 도로 수송 출발 지점이 원주에서 춘천으로 변경되면서 도촌리(강원도 양구군 소재)에 위치한 ASP No. 61까지의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U.S Army, Pacific, "EUSAK Command Reports Section I: Narrative, September 1951",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November, 1951), p.72.

59) 앞의 책(1955) *Volume 3 Chapter 6*, p.11.

60) 위의 책, p.49.

선 안정 이후 도로 확장과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2차선 도로와 우회로가 확충되며 수송 용량이 증가했다.⁶¹⁾

극동군사령부는 1950년 7월 4일, 한국 내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에 군수지원을 제공할 부산기지사령부(Pusan Base Command)를 주한 미 육군의 예하 부대로 창설했다.⁶²⁾ 부산기지사령부는 항구운영과 군수지원 능력의 핵심인 철도 운영을 담당하여 개전 초기 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부산항에 도착한 초기 선적물 하역 작업과 전방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으로의 군수물자 수송이 임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부산기지사령부의 편성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제24사단 예하에서 차출된 인원, 병원에서 막 퇴원한 환자들로 임시 편성하여 급하게 투입하였다. 이처럼 군수 훈련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로 편성되다 보니 보급품과 장비는 부산항에서 쉬였고 특정 특기 보유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력·물자 보급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⁶³⁾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군사령부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재편성했다. 극동군사령부는 주한 미 육군을 해체하고 미 제8군이 한반도 내 전 미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극동군사령부 지시에 따라 미 제8군은 자체 군수지원, 보급품 조달, 수송, 항구 운영 및 일본 점령 통치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되었다. 이때, 극동군사령부는 기존 부산기지사령부를 부산군수사령부로 재편성했고 당시 교리에 따라 부산군수사령부는 야전 부대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부대에 대하여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⁶⁴⁾ 부산군수사령부는 낙동강 방

61) 위의 책, p.50.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계』(서울: 국방부, 2022), 82쪽.

63) 위의 책, 84쪽.

64) 위의 책, 86쪽.

어선 내의 소규모 지역에서 1950년 7~9월 기간에 부산과 인근 보급창에서 낙동강 방어선 부대까지 전투지원을 하는 육군지원사령부의 기능을 담당했다.

전쟁 초기, 미군은 탄약 보급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극동군사령부가 수송 담당 지휘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탄약을 보급하면서 탄약 청구 권한을 갖고 있던 미8군의 군수참모부(G-4 Supply Division)와 병기과(the Ordnance Section)는 보급된 탄약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미8군으로부터 전투지역으로 탄약을 수송할 때, 현황을 정리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전쟁 초기 탄약을 급하게 수송하면서 수송 현황을 기록하지 못했다. 둘째, 일부 탄약은 최초 계획과 다르게 수송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투 부대의 일부 인원들이 부산에 상주하면서 “긴급 요청(emergency requests)⁶⁵⁾”과 “선적 전환”(shipment diversions)⁶⁶⁾을 통해 탄약을 임의로 자신들의 부대로 공급하려 했기 때문이었다.⁶⁷⁾

이처럼 기존 부산군수사령부 능력으로는 체계적으로 탄약을 보급할 수 없었다. 부산군수사령부의 작전지역에 비해 지원을 요구하는 미군 부대의 수가 많았고 1950년 9월 중순에는 서해안에 있는 제3군수사령부에 대한 감독과 원산에 있는 미 제10군단 보급 임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다. 극동군사령부는 기존 편성이 부적절했음을 판단하고 부산군수사령부를 1950년 9월 19일 해체하고 제2군수사령부를 창설했다.⁶⁸⁾

65) 작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히 지원이나 자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며, 이러한 긴급 요청은 임무의 성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66) 특정 물자나 장비를 다른 목적지나 수송 경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작전 중 긴급 상황이나 전략적 이유로 인해 계획된 선적 경로를 변경할 때 사용된다.

67) 위의 책, 118쪽.

68) 위의 책, 90쪽.

제2군수사령부는 6·25전쟁 기간 군수사령부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첫째, 규모가 크게 변했다. 제2군수사령부는 B형 군수사령부 즉, 10만명 규모의 전투부대에게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군수사령부에서 C형 군수사령부 즉, 40만명 규모의 전투부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군수사령부로 발전했다. 제2군수사령부의 본부 및 본부중대에는 B형 군수사령부 인가 수준보다 183개의 직책이 더 늘어났다.⁶⁹⁾ 특히 이전 사령부와 달리 부사령관 3명이 임명되어 각각 행정, 작전 및 수송을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동급 및 상급 부대와의 업무 협조 능력이 강화되었다. 편성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인 민간인들을 고용하여 노무반을 편성함으로써 군수지원의 효과성이 높아졌다.

둘째, 미 제8군의 탄약 보급체계가 정립되었다. 6·25전쟁 초기 6개월 동안, 미 제8군은 탄약의 요청, 통제, 분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다. 최초 미군은 교리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따라 보급하다가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전술 상황이 바뀌면서 보급체계를 정립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 내 부산의 창(depot)⁷⁰⁾에는 45일분의 보급품을 저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1950년 9월 중반까지 탄약은 재고 수준에 따라 인가된 수준에 맞게 자동으로 청구되어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9월 중후반 전술적 상황이 공격작전으로 변화하면서 탄약 소비량이 증가했고, 탄약은 전술 계획에 기초한 미 제8군의 요청에 따라 전방 지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⁷¹⁾

미군은 1950년 11월 탄약 청구 방식을 10일 단위 정기 청구

69)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1 Chapter 2* (December, 1955), p.21-22,

70) 대규모 군수물자와 장비를 장기간 저장하고 관리하는 후방 시설이며 전방 시설인 보급소(Supply Point)와 구분된다.

71) 앞의 책(1955) *Volume 2 Chapter 4*, p.118-119.

방식으로 개선하여 탄약 보급체계를 확립했다. 한국 주둔 미군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일본군수사령부는 미 제8군으로의 탄약 보급을 면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탄약을 이전처럼 자동으로 수송할지 아니면 미 제8군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인지 극동군사령부에 결정을 요청했다. 당시 미 본토에서 극동군사령부로 탄약 재보급은 10일마다 작성되는 정기 전구 탄약 재고 현황 보고서(Theater Ammunition Stock Status), 재고 통제 보고서(Stock Control Reports), 10일 청구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극동군사령부는 이와 유사하게 미 제8군이 매 10일 일본군수사령부에게 예측된 요구량을 반영한 청구서를 제공하도록 결정했고 이러한 정책 변화의 효과는 이전에 청구한 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120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⁷²⁾

셋째, 미 제8군은 탄약 수송 체계를 확립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도는 6·25 전쟁 전반에 걸쳐 가장 운용이 많이 되었고 차량을 이용한 도로 수송은 철도체계의 보조역할을 수행했다. 먼저 철도 운영은 제3군철도수송국(Transportation Military Railway Service: TMRS)이 전담했고 탄약 수송의 핵심 조직이었다. 제3군철도수송국은 2개의 운영 대대, 1개의 철도 공장 대대, 1개의 헌병 대대, 그리고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3만여 명의 철도국 직원으로 편성되었다.⁷³⁾ 예하 부대 제712철도운영대대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약 1,046km의 주요 선로를 관리했고 제724철도운영대대는 부산에서 대전까지 약 952km의 선로를 담당했다. 그 외 부대들은 작업장 및 선로 유지 보수 감독, 선로 통신 유지, 철도 경비, 기차 배차 등의 업무를 맡았다.⁷⁴⁾

미 제8군은 책임 지역 내의 부대들이 트럭 중대를 직접 운용

72) 위의 책, p.119-121.

73) 앞의 책(1955) *Volume 3 Chapter 6*, p.6.

74) 위의 책, p.8.

하도록 체계를 변경했다. 항구 통관 수송 및 창 운영에 필요한 트럭 중대의 통제와 운영은 제2군수사령부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전방 창·전술부대·철도 수송 중점 지원에 필요한 트럭 중대는 제351육로수송단에서 통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탄약은 보급소에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트럭 중대를 통해 전술부대로 직접 수송하기도 했다. 1951년 8월 당시 트럭 중대 개수는 15개로, 미 야전교범에서 제시했던 48개 중대보다 한참 부족했다. 그러나 미군은 이 문제를 민간 트럭회사 사용으로 보완함으로써 탄약 소모량이 많은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탄약을 보급했다.⁷⁵⁾

당시 탄약 수송의 모습은 한반도 지형 특성으로 인해 동서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 했다. 상대적으로 평지 지형이 많이 분포했던 서부지역은 철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미군은 탄약을 군단·사단 보급소까지 철도로 직접 수송했다. 보급소로 탄약이 도착한 이후 각 부대 차량은 탄약을 적재하여 전투지역으로 운반했다. 일반적으로 탄약보급소와 포병부대의 거리가 16km 이내였고, 포병부대 차량으로 보급소에서 탄약을 수령했다.⁷⁶⁾ 반면, 산악지형이 많았던 중부와 동부 전선에는 철도 시설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었고, 원주역이나 춘천역과 같은 철도 수송 중점에서 미 트럭 중대가 북동쪽 전방 보급소로 탄약을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미8군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2군수사령부를 미8군으로부터 분리했다. 제2군수사령부는 1952년 7월 창설된 한국병참지대(Korean Communication Zone, KComZ)의 예하로 1952년 8월 1일 전환되었고 제2군수사령부의

75) 위의 책, p.57.

76) 앞의 글(1954), p.27.

작전 통제를 받던 모든 부대는 한국 병참지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⁷⁷⁾

4. 다부동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에서 탄약 재보급 과정

가. 다부동 전투

북한군 기습남침 이후 한미연합군은 축차적으로 지연작전을 전개했다. 한미연합군은 최초 ‘평택-안성-삼척을 잇는 선(200km)’을 저지선을 설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 했지만, 7월 6일 북한군에게 돌파되었다. 한미연합군은 다시 ‘금강(錦江)과 소백산맥(小白山脈)을 잇는 선(270km)’을 다음 저지선으로 설정했으나 7월 16일 다시 북한군에 의해 돌파되었다. 이후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大田)까지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면서 한미연합군의 전선은 계속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고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지연작전으로 인한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고 동시에 낙동강의 지형상 특징을 고려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상하게 되었다.⁷⁸⁾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중·서부지역 작전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 낙동강 중·서부지역 작전은 한미연합군(국군 제1사단·미

77) 앞의 책(2022), p.110.; 1952년 8월 제2군수사령부는 미8군 운용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한국병참지대(Korea Communication Zone, KComZ)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나, 작전 통제만 미8군에서 한국병참지대로 변환되었을 뿐, 군수지원 임무는 동일했다. 한국병참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55년 6월 해체되었다. 앞의 책(2022), 111쪽;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1 Chapter 2* (December, 1955), p.28.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5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26-28쪽.

제1기병사단)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45일간 낙동강 중 서부지역(대구(大邱) 북방의 다부동-왜관-팔공산 지역)에서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보병사단(제1·제3·제10·제13·제15사단)과 치른 작전이며 다부동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 지역에서 벌인 전투를 지칭한다.⁷⁹⁾

낙동강 중·서부지역 작전 기간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군수사령부는 부산군수사령부였다. 당시 물자 수송은 철도·공중 수송 체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고 도로 수송 체계는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짧은 거리에 한정하여 보조적으로 운용되었다.⁸⁰⁾ 철도 수송 범위는 1950년 8월 3일 왜관교를 폭파⁸¹⁾하면서 부산항에서 왜관역까지로 축소되었고⁸²⁾ 공중 수송 범위는 긴급하게 탄약이 요청되거나 철도 사용이 제한될 경우, 일본에서 대구 비행장(K-2)까지 직항으로 운용되었다. 1950년 8월 26일 극동군사령부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선박 수송이 늦어지자 급하게 일본에서 대구 비행장으로 탄약을 공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⁸³⁾ 이후, 철도역·비행장에서 사단 탄약보급소까지는 사단 차량으로 수송했고, 예하 연대의 차량으로 사단 탄약보급소에서 연대 탄약보급소까지 수송했다. 포병부대는 피 배속부대인 연대의 탄약보급소에서 탄약을 보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 철수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대부분 상실했던 제1사단은 차량이 부족했고 당시는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차량을 보급받기 시작한 초기였기

79) 앞의 책, 109, 128쪽

80) 당시는 극동군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를 통해 차량을 한국으로 한창 수송하고 있던 과정이었다. U.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4 Aug 1950",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August, 1950), p.3.

8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Military History) (1961), p.252.

82) 앞의 책(1955) *Volume 3 Chapter 6* (December, 1955), p.11,

83) U.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26 Aug 1950",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August, 1950), p.14.

때문에⁸⁴⁾ 한미연합군 전체적으로 차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최대한 포병부대들은 차량 사용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도록 사단·연대 탄약보급소와 인접해서 사격진지를 편성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⁸⁵⁾

포병 작전 교범(FM 3-0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격진지는 표적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당시 M-2 105mm 곡사포의 사거리가 6km임을 고려할 때 포대 사격진지는 전방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포병대대 탄약 집적소는 사단·연대 탄약보급소와 인접한 보급로 옆에 설치하여 적 포병 사거리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설치해야 하므로 포대보다 후방에 배치했을 것이다.⁸⁶⁾ 이에 따라 사격진지와 대대 탄약 집적소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대대는 탄약 재보급을 위해 대대 차량으로 대대 탄약 집적소와 사격진지 사이를 왕복 이동할 수밖에 없다.⁸⁷⁾ 포병대대 탄약차 보유량은 사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제1사단 전체가 차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 제17포병대대도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부동 전투에서는 국군 제1사단에 배속된 제17포병대대와 제1사단을 증원한 미 제1사단 예하 제8·제37포병대대가 화력을 지원했다. 다음 〈그림 5〉와 같이 최초로 제17포병대대 제1·2포대는 표적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전방 지역에 사격진지를 편성했다. 이후 제1사단이 후방으로 저항선을 조정하면서 사단·연대 탄약보급소에 인접한 지역으로 포대 사격진지를 이동했다. 최초

84) U.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5 Aug 1950",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August, 1950), p.4.

85) 낙동강 방어선 중·동부 작전 기간, 기계-안강 전투에서 국군 제10포병대대는 열차 옆에 사격진지를 편성하고 포대에서 직접 탄약을 재보급받았다. 앞의 책(2012), 94쪽.

86)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6-20-1 Field Cannon Battalion, Chapter 1*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9), p.28.

87) 위의 책 *Chapter 5*, p.14.

탄약보급소에서 탄약을 수령하여 다부동에서 칠곡으로 이어지는 사단 보급로를 이용하여 수송했고 각 연대는 사단 탄약보급소에서 탄약을 수령하여 연대 탄약보급소로 직접 수송했다.⁸⁸⁾ 사단 탄약보급소는 사단 후방지휘소 인근인 칠곡에 위치했으며, 대구역과 대구비행장(K-2)에서 탄약을 하역한 후 차량으로 사단 탄약보급소까지 수송했다.⁸⁹⁾

다부동 전투 기간 제17포병대대는 화력지원과 탄약 재보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포대 사격진지에서 포병대대 탄약 집적소까지 탄약을 수송할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17포병대대는 연대 탄약보급소와 인접한 지역에 사격진지를 편성함으로써 탄약의 보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전방 보병부대와 거리 멀어지면서 표적까지의 사거리가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17포병대대 3포대는 북한군의 남진으로 인해 연대 탄약보급소가 위치한 ‘학명동’ 일대로 진지를 변환했는데, 피 지원부대였던 제15연대는 포병 화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제3포대의 사격 가능 거리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고 미 공군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 백마고지 전투

다부동 전투를 통해 미 군수지원체계 초기의 포병 탄약 보급 과정을 확인했다면 군수지원체계가 확립된 전쟁 중기 이후의 포병 탄약 보급체계를 살펴보면 그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 군수지원체계 초기는 전술 상황에 따른 청구가 아니라 제2차

88) United State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4 Aug 1950",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August, 1950), p.20.

89) United State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26 Aug 1950",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August, 1950), p.14.

세계대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15일 단위로 자동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 작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 발생에 대한 준비가 제한되었다. 당시 극동군사령부는 부산 창(depot)의 저장 수준을 45일로 설정했으나 낙동강 방어선 작전 기간에 탄약 보급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 창에 45일분을 비축하기도 전에 전방부대에서 탄약을 모두 소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극동군 사령부가 미군 포병부대의 1일 CSR을 50% 감소시켰던 사실은 당시 미군의 탄약 보급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⁹⁰⁾

미8군은 낙동강 방어선 작전 이후 군수지원 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 1950년 9월 창설된 제2군사령부에 항구 통제 임무를 전환함으로써 부담을 줄였고 탄약 청구와 수송 능력(철도, 도로)을 확충했다. 체계 개선 과정에서 1951년 6월까지 5차에 걸친 중공군 공세가 있었고 미8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으로 탄약을 추진했다.⁹¹⁾

중공군 공세 이후 미군은 군수지원 체계가 적정 수준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긴급 공수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탄약 수요는 대부분 충족되었다.⁹²⁾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는 중 1952년 10월 갑작스럽게 곡사포의 탄약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탄약을 신속하게 전방 탄약보급소로 수송하기 위해 철도와 차량 사용량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 철도 사용량은 25%, 도로 사용량은 21% 상승했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5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08쪽.

91) 탄약 소모량이 극에 달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순간에 중공군의 공격기세가 저하된 상황 등 운이 작용했던 순간도 있었다. United States Army, Pacific, "EUSAK Command Reports Section: Narrative, October 1952",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October, 1952), p.109.

92) 위의 글, p.109.

고 초기에 수송 체계에 밀집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⁹³⁾ 1952년 10월은 한 달 기준 6·25전쟁 기간 가장 많은 탄약을 소모했던 시기였다.⁹⁴⁾

백마고지 전투는 이 시기 가장 격렬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도 포병 탄약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전투였다. 백마고지 전투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사투를 벌인 끝에 고지 방어에 성공한 전투였다.⁹⁵⁾

탄약보급소에는 여러 부대가 탄약을 보급받기 위해 위치하기 때문에, 포병대대 지휘관은 시간 판단을 실질적으로 해야 했다.⁹⁶⁾ 백마고지 전투처럼 8개 이상의 포병부대가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밀집 현상까지 이동 시간에 추가해서 판단해야 했을 것이다. 1952년 미군의 군수지원 체계는 이전에 비해 도로 수송 체계가 발전했다. 미군은 민간 차량 회사를 적절히 운용하였고 전방 군단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트럭 부대를 지원함으로써 전방 전투부대의 도로 수송 능력을 높였다.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미군은 트럭 부대를 충분히 전방에 증원함으로써 사단은 부대 분배를 통해 포병 탄약을 보급할 수 있었다.⁹⁷⁾

백마고지 전투에는 국군 제30포병대대 등 8개 이상의 한미연합군 포병대대가 투입되었다. 포병대대들은 제2군수사령부 예하 제351육로수송단으로부터 미군 수송부대를 지원받았고 미 수송부대는 철원 문혜리에 위치한 전방 탄약고에서 탄약을 적재하여

93) 위의 글, p.137.

94) 위의 글, p.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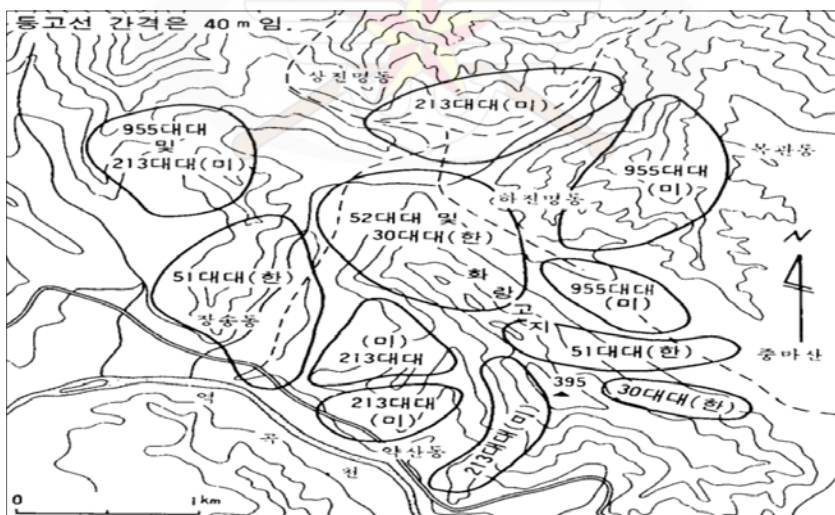
95) 앞의 글(2020), 81쪽.

96) 앞의 글(1954), p.27.

97) 앞의 글(1952), p.134.

포병부대 사격진지까지 수송했다.⁹⁸⁾ 포병대대들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진지를 인접하여 편성함으로써 한 곳에서 탄약을 재 보급받을 수 있었다. 수송부대는 한 곳에 탄약을 통합해서 하역하면 되었기 때문에 포병부대가 밀집해서 위치했던 것이 보급에 유리했을 것이다.

당시 탄약 보급은 철도-도로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1952년 9월 이후 북부지역 철도 노선에 청량리-철원노선이 추가 되었지만, 탄약 수송은 의정부역까지만 수송되었다.⁹⁹⁾ 미 제9군단이 당시 운용했던 탄약고는 총 4개소로 전방 탄약보급소는 ASP 55B(화천군 구운리), ASP 56A(철원을 문혜리)였고 후방 탄약보급소는 ASP 56(의정부), ASP 55A(춘천)이었다. 미 제9군단은 ASP 56에서 백마고지와 가장 근방에 있던 ASP 56A로 탄약을



〈그림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 p. 49.

98) 앞의 책(2012), p.299.

99)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3 Chapter 6* (December, 1955), figure 9.

수송하여 5일 사용량(Days of Supply: DOFS)수준을 비축했고 ASP 56에는 ASP 56A로 추가 보급할 5DOFS 저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¹⁰⁰⁾ 당시 문혜리 탄약고에는 약 30만 발의 포병 탄약이 비축되어 있었다.¹⁰¹⁾

백마고지 전투는 다부동 전투 시기보다 탄약 소요량이 많았음에도 포병 탄약 부족 없이 화력을 지원할 수 있었다. 다부동 전투 시기와는 달리 공중 긴급 공수도 없었고 오로지 철도와 차량으로 40만 발에 가까운 포병 사격량을 감당할 수 있었다.¹⁰²⁾ 이는 급박했던 전쟁 초기와 달리 전·후방 탄약보급소에 탄약을 비축할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부동 전투 시기는 45일분의 탄약을 저장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 백마고지 전투 기간 미 제8군 105mm 곡사포의 1문당 일일 발사탄수가 58발¹⁰³⁾이었고 다부동 전투 기간도 최초에는 50발이었다는 사실은 탄약의 예상 소모율은 두 전투 모두 동일했지만, 다부동 전투 시기에는 탄약을 요구 저장 수준까지 미리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탄약이 부족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⁴⁾

또한 제2군수사령부를 통한 수송부대의 전방부대 지원이 포병 부대가 사격진지를 전방에 위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탄약보급소와의 거리 이격으로 인한 부담을 제거해 주었다. 다부동 전투와는 달리 백마고지 전투 시기에는 전방 탄약보급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수송부대는 탄약을 원활하게 공급했다. 부대분배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지원을 해주는 부대의 차량·인원 부족 현상이지만 당시 미군은 민간 트럭회사를 적절히 운용

100) 앞의 글(1952), p.171.

101) 앞의 책(2012), p.299.

102) 앞의 책(2020), p.81.

103) U.S 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2 Chapter 4 (December, 1955), p.129.

104) 앞의 책(2008), p.208.

함으로써 군 자체의 능력 한계를 보완했다. 이는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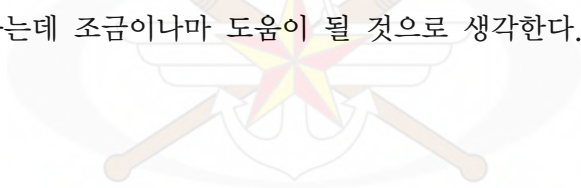
5. 결론

6·25전쟁 전반에 걸쳐 군수지원체계가 발전하면서 포병 탄약 보급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전쟁 초기 육군은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 이전까지 탄약 보급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미군은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탄약 보급을 통제했고 국군의 전면전 대비에 소극적이었다. 비록 국군의 자체적인 탄약 생산 노력이 있었지만 소화기 탄약과 수류탄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쟁 발발 이후 탄약은 시스템이 아닌 각 사단급 예하 부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탄약을 보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국군 지휘관의 탄약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투 성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미군은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 신속하게 군수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부산기지사령부 창설을 시작으로 미군은 본토에서 생산한 탄약을 일본에 보관하면서 공중·해상 수송 체계를 활용하여 부산 창(depot)으로 보급했다. 이후 미군은 기존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던 철도체계를 이용하여 창에서 전선까지 탄약을 보급했고 지형 등의 문제로 철도 수송이 제한되는 구간은 도로 수송 체계를 활용하여 보급했다. 탄약 저장 수준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초기에는 항공기를 활용하여 탄약을 긴급 공수했고, 1일 CSR을 절반으로 감소시켜 제한적으로나마 화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제했다.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 작전 이후부터 군수지원체계를 완성함으로써 휴전회담과 고지 쟁탈전이 이루어졌던 1952년대에는 탄약이 부족하여 전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탄약 보급소에는 요구 수준에 맞게 탄약이 확보되어 있었고 미군 수송부대의 전방부대 지원으로 포병부대는 탄약 재보급의 부담 없이 지속적인 화력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군 내 포병 탄약 보급체계의 확립은 미 군사고문단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군은 피복류, 식량, 일부 소총탄, 수류탄 생산, 부대 창설 관련 등에 집중했다. 결국 포병 탄약 보급체계는 미군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한국군은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군이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했던 고민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EUSAK War Diary (4, 5, 26 August 1950).

_____, EUSAK Command Reports Section: Narrative (September 1951, October 195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VII, Washington D.C: GPO, 1949.

2. 2차 사료

U.S.Army, Pacific, *Logistics in Korean Operations Volume 1-4* (December, 1955).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Employ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Artillery” (January, 1954).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 육군본부, 2012).

3. 저서 및 단행본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계룡: 육군본부, 1996).

_____, 『포병운용』 (계룡: 육군본부, 2012).

_____, 『군수지원분석』 (계룡: 육군본부, 201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5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_____,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계』 (서울: 국방부, 2022).

육군 포병학교 · 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전남: 육군 포병학교 · 화력센터, 2014).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Military History, 1961).

Joint Chiefs of Staff, *Dictionary Of United States Military Terms For Joint Usage*, (Washington D.C: 1950).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6-20-1 Field Cannon Battalion, Chapter 1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9).

_____, *FM 3-0 OPERATIONS* (Arlington County,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22).

4. 논문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軍史』 제79호 (2011)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 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軍史』 제117호 (2020)

류의연,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軍史』 제121호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Artillery Ammunition Supply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Rail and Road Transpor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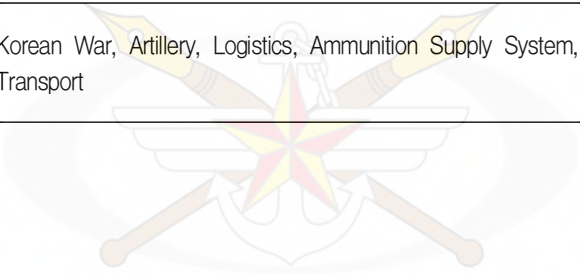
Kang, Tae-Yoon

The study examines the ammunition supply system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artillery units during the Korean War, divided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US military support.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and the arrival of UN forces, the South Korean military received ammunition upon the approval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with quantities insufficient for full-scale warfare. Ammunition supply was not systematized, and the speed of the North Korean advance depended largely on the efforts of the South Korean Army commanders to secure ammunition.

A systematic ammunition supply began to take shape with the US interven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Base Command. The US established the Japan Logistic Command, utilizing the Japanese mainland as a logistical support base and supplying ammunition to the warehouses in Busan via sea and air transportation. Subsequently, the ammunition offloaded in Busan was transported to the battlefield using the existing railway system, and in areas where rail transport was limited, the supply was managed via road transport using vehicles. As the war progressed, the ammunition supply system was fully developed, evolving from the Busan Base Command to the Busan

Logistic Command and eventually to the 2nd Logistic Command.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when ammunition storage levels did not meet the required standards, emergency measures such as aerial transport and daily CSR adjustments were implemented for operational support. By the latter stages of the war, the establishment of stable ammunition storage and transport systems enabled consistent supply. Thus, the establishment of an ammunition supply system was a crucial element of sustained support during the Korean War.

Keywords: Korean War, Artillery, Logistics, Ammunition Supply System, Rail, Road Transpor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321-357
<https://doi.org/10.29212/mh.2024..133.3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김선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모병정책
나. 북한의 모병연령과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3. 국가수립 전후 모병사업의 실태와 모병 기준
가. 1948년 7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병사업과 신체적·사상적 기준
나. 1949년 2월 민족보위성의 모병사업과 합격기준의 강화
 4. 맺음말

초 록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주제어 : 북한군, 북조선노동당, 민족보위성, 징병제, 한국전쟁

(원고투고일 : 2024. 9. 1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는 근대국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근대국가는 전근대국가와 달리 군대를 특정한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로 취급했다. 국가는 국민에게 헌법·복지·자유를 약속했고, 국민은 이에 대해 스스로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다. 보편적인 병역은 참정권의 부여와 함께 생겨났다. 근대국가의 국민은 병역이라는 의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다.¹⁾ 국민개병제도의 본질은 국민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동원하는 징병제(徵兵制)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형성은 국민의 탄생, 국민개병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은 2003년까지 형식상 모병제(募兵制)에 해당하는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2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全民軍事服務制(全民軍事服務制)를 시행하고 있다.²⁾ 이 같은 북한의 병역제도 역시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북한의 근대국가는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고 군대는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가 수립되면서 공식화되었지만 서구의 병역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서구의 근대적 병역제도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계급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병역

1) 토마스 퀴네 외 저, 조정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1, 119~121쪽.

2)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116쪽.

제도는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적 근대의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북한의 병역제도는 한반도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다는 시대적 상황과 직결되어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국가수립과정³⁾은 1945년 8월에 연합국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수립을 위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현했고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주제는 이처럼 분단국가의 수립과 6·25전쟁의 기원이라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6·25전쟁 이전 북한의 병역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제의 의미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북한의 병역제도를 단독 주제로 다룬 연구는 서홍석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1949년 5월에 북한 내각이 채택한 군사 관련 결정을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이 원칙적으로 지원제를 유지했고, 병력충원과 군사원호사업이라는 이중적 동원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모집의 결과, 군 내부에 충성도가 낮은 인물이나 반체제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보위부와 문화부중대장제도를 설치했다고 평가했다.⁴⁾ 서홍석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선행연구는 북한군의 역사와 6·25전쟁의 전사(前史)를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의 병역제도를 다루고 있다.⁵⁾

3) 이 글에서 국가수립은 영토·국민주권으로 이루어진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4)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현실』10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373~410쪽.

5) 장준의,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192쪽;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59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서울: 나남, 1997, 755~756쪽.

북한의 병역제도는 아직도 해명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선행연구는 병역제도를 정규군의 창설과정이나 확군(擴軍)과정과 연관해 분석하지 못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정규군을 창설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정규군 창설 이후에는 확군을 목표로 실시되었다.⁶⁾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병역제도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황해도 서흥군의 사례가 분석되었지만 그 연구내용은 구체적인 지역적 실태를 드러내기보다 일반적인 모병과정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⁷⁾

이 글의 목적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를 재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모병실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북한의 모병정책이 전쟁준비과정·확군과정과 어떤 연관 아래 시행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문제가 군사적 문제와 결합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모병정책을 국가수립을 기점으로 1948년 7월과 1949년 2월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이 글은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례를 통해 북한의 모병정책이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미군 노획 문서(鹵獲文書) 중에서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생산한 「인민군대 모집에 관한 서류」를 발굴해서 활용했다. 이 서류와 서류철은 선행연구에서 일부분 활용되었지만 대부분의 문서는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황해도인민위원회와 황해도 서흥군인민

6) 북한은 1949년 7월에 중국에서 2개 조선인사단을 넘겨받아 확군했다. 개전 당시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보병사단의 28.6%에 해당한다. 1949년 이후 북한군의 확군과정은 병역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연구되어야할 과제이다.

7) 서흥석, 앞의 논문, 2017, 379~380쪽.

위원회에서 1948~1949년에 생산한 자료이며 내부적으로 “군비(軍秘), 극비(極秘)”로 관리된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 병역제도와 모병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모병정책

북한의 병역제도는 1948년 9월에 국가가 수립되면서 구축되었지만 병역제도는 국가수립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1946년 8월부터 북한지역에 경찰과 구별되는 군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8월에 향후 보병사단의 모체가 되는 보안간부훈련소(保安幹部訓練所) 제1·2·3소를 창설하고, 얼마 후 보안간부훈련소를 내부적으로 제1정보병사단·제2정보병사단·제3독립혼성여단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모든 보안무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했다.⁸⁾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보안간부훈련소에 청년들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약 9개월 동안 군사지휘능력을 제고하고 신병들을 교육·훈련시켜 군인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 같은 날 보안간부훈련소의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80~682쪽.

공식적인 명칭도 “인민집단군 제1정보병사단·제2정보병사단·제3독립혼성여단”으로 변경되었다.⁹⁾ 공식적으로 총사령부가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부대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증편되지 않았다. 북한정치세력이 총사령부를 조직하면서 군대를 증편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군사지휘기관과 보병부대를 편성해 운영하면서 창군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들은 1948년 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을 창설했다. 창설 당시 북한군은 육군만 보유하고 있었고 공군과 해군은 보유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창설과 동시에 보병부대도 기존의 정보병사단 편제를 넘어서 각각 제1보병사단·제2보병사단·제3혼성여단으로 증편되었다.¹⁰⁾ 북한의 군대는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면서 처음으로 증편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이 군대의 증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점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진행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에 최종 결렬되었고 이로써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무산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이때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북한군 창설을 준비했다. 북한군 창설은 모스크바의 허가를 받아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북한정치세력과 소련군사령부는 창설식의 절차문제와 참석자·발언자의 선정문제까지 긴밀히 협의했다.¹¹⁾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682쪽;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中卷, 서울: 兵學社, 1977, 30~31쪽.

10) 장준익, 앞의 책, 1991, 87쪽.

11)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47~48쪽.

북한의 병역제도는 해방 이후에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지역에서 모병사업은 국가수립을 전후해 크게 세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째, 북한정치세력은 북한군을 정식으로 창설하기 위해 군대를 증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부터 북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모병사업이 실시되었다. 즉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월 20일에 「지시 제9호」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모집 임시조치에 관하여」를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하달했다. 둘째, 북한정치세력이 전국적 규모로 모병사업을 추진한 두 번째 시기는 1948년 7월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7월 3일 「비밀지시 제50호」를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하달해 “인민군대 대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전국적 규모로 모병사업을 추진한 세 번째 시기는 1949년 1월이다. 북한 정부는 1949년 1월 30일경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다시 한번 “인민군대 대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립 전후에 실시된 모병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48~1949년 북한군 모병사업 현황¹²⁾

지시일	문서번호	문서제목	문서내용	모병대상자	모병기간
1948. 1.20	북조선인민위원회 지시 제9호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모집 임시조치에 관하여	확인 안됨	확인 안됨	확인 안됨
1948. 7.3	북조선인민위원회 비밀지시 제 50호	인민군 신대원 모집에 관하여	인민군총사령부 관하 각 부대의 결원된 병사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대원을 모집	· 만18~24세 · 1924년 7월~1930년 7월생 · 가급적 노동자 성분 50%	1948. 7.10~8.10

12) 내각수상 김일성, 「조선인민군대 전사용모사업에 관하여」(1949.6.20),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제, 『〈軍秘〉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6, Item 21(이하 출처 생략); 서흥군인민위원장, 「〈極秘〉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0)·『〈극비〉 人民軍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이하 출처 생략).

지시일	문서번호	문서제목	문서내용	모병대상자	모병기간
1949. 2.1	황해도인민위원회 비밀지시 제 11호	인민군대 대원 모집 사업에 관하여	민족보위성에서 인민군 대 대원을 모집	· 만18~25세 · 1924년 2월~ 1931년 1월생 · 노동자·빈농민	1949. 2.1~2.28

국가수립 이전에 추진된 모병사업은 공통적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권기관이 추진했다. 정권기관이 모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보하고 있어야 할 통계가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름·연령·성별·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다. 북한정치체력은 이미 1946년 8월 9일부터 18세 이상의 전체 주민에게 공민증(公民證)을 발급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공민증에는 개인의 성명·연령·성별·성분·출생지·현주소·직장·직업·가족명부(18세 미만)·민족 등이 기재되었다. 각 시·군인민위원회에는 공민증계가 신설되었고, 공민증계에서는 「공민증등록부」라는 서류를 제작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¹³⁾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개인별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에서 모병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1948년 1월 20일이다. 1월에 군인을 모병한 것은 그해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을 정식으로 창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였다. 북한 당국은 당시에 군인 모병을 위장하기 위해 이미 없어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모병사업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이라는 명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948년 1월 시점의 정확한 명칭인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는 창설 당시 보병부대 등 육군만

13)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1946.8.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825~829쪽.

관할했고, 공군과 해군은 관할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8년 1월의 모병사업은 북한군 창설에 발맞추어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월의 모병사업과 달리 7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병사업은 ‘조선인민군총사령부’가 관할하는 모든 부대의 편제상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였고 모병 지역은 북한 전체지역이었다. 이 모병사업은 만 18~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추진되었다. 특히 모병연령은 심사과정에서 엄격히 지켜졌다. 황해도 서흥군에 거주하는 우제순은 빈농 성분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했으나 나이가 부족해 불합격되었다. 당시 모병연령은 1930년 7월생까지였는데 그의 생일은 1930년 9월 25일이었다. 면 심사원은 그에 대한 심사결과서에 “년령이 2개월 부족함”이라는 심사의견을 남겼다.¹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가급적” 노동자 성분을 50%로 모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병사들의 계급구성에서 노동자성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9월로 예정된 정부수립에 맞추어 전체 북한군 부대를 완편하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 부대를 증편하거나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족보위성은 1948년 7월부터 추진된 모병사업을 기반으로 9~10월에 1개 여단을 증편하고 1개 여단을 새로 창설했다. 제3독립혼성여단은 1948년 9월 9일 강원도 원산에서 제3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3사단은 10월에 들어서 1개 연대가 새로 편입되고 장비가 보충되면서 완편사단이 되었다.

14)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우제순)」(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예하에는 제7·8·9보병연대와 포병연대가 배속되었다.¹⁵⁾ 또한 민족보위성은 1948년 10월 15일에 평남 대동군에서 제4독립혼성여단을 창설했다. 제4여단은 3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5개 직할대대를 보유했다.¹⁶⁾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1949년 2월 1일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모병사업을 추진했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민족보위성이었고 모병 지역은 북한 전체지역이었다. 이 모병사업은 1948년 7월의 모병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추진되었다. 그러나 모병연령은 기존의 24세에서 25세로 확대되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신대원”을 모집해 완편과 확군을 동시에 추진했음에 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대원”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확군을 추진했다. 또한 이 모병사업은 1948년 7월과 달리 출신성분이 “노동자·빈농민”인 청년들만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노동자·빈농을 증편할 부대나 신설할 부대의 중심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나아가 민족보위성은 “이남가족 및 친척관계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되 로동성분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¹⁷⁾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1948년 11월부터 실시된 소련군의 철수와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16일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1949년 1월 12일에 슈티코프가 “조선주차 쏘련특명전권대사”로 북한에 부임했다.¹⁸⁾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1949년 1월부터 무력통일 구상을 직접 피력하기 시작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1월 17일에 북한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688~689쪽.

16) 장준익, 앞의 책, 1991, 103쪽.

17)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18) 勞動省, 『로동』제1호, 평양: 勞動省, 1949.3.15, 44~49쪽.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를 직접 만나 소련과 「상호우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¹⁹⁾ 그리고 북한 당국은 2월부터 슈티코프와 무력통일 구상과 원조조약 체결문제를 협의했고, 이 문제를 스탈린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3월 5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²⁰⁾ 즉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북한군을 확편함으로써 소련군의 공식 철수로 발생하는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나. 북한의 모병연령과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국가수립 이전인 1948년 7월의 병역제도와 국가수립 이후인 1949년 2월의 병역제도는 둘 다 모병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과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은 공통적으로 모병주체가 정권기관이며 모병기간이 1개월이다. 즉 모병사업은 주민들을 통치하는 정권기관이 주도했고, 전체 지역에서 한 달 안에 신속히 추진되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의 신체검사 기준도 동일하다. 신체검사 통과기준은 키 150cm 이상, 가슴둘레 80cm 이상, 시력 0.8 이상, 청력 1m 거리였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사항도 있어서 색맹이 아니면서 전염병·질병·성병이 없는 자만 입대할 수 있었다. 다만 1949년 2월의 모병사업 때는 신체검사 통과기준에 몸무게(48kg 이상)가 추가되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의 차이점도 있다. 먼저 모병대상자에 대해 1948년 7월에는 “가급적” 노동자 성분을 50%로 모집하라고 지

19) 「쉬띠코프→소련 외무부」(1949.1.17),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10쪽.

20) 「북한정부대표단과 스탈린의 대화록」(1949.3.5),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 위의 책, 1996, 13~14쪽.

시켰으나, 1949년 2월에는 “노동자·빈농성분으로서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 창설 이후에 먼저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충원했고 국가수립 이후에는 노동자·빈농계급만 충원했다. 이들이 노동자를 먼저 충원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정권의 핵심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계급구성상 노동자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자·빈농계급만 충원한 것은 이들을 군대의 핵심계급으로 부상시키려는 의도였다.

다음으로 두 시기 모병사업은 모병연령이 다르다. 1948년 7월에는 만 18~24세까지 모집했지만 1949년 2월에는 만 18~25세까지 모집했다. 북한 당국이 모병하려 한 청년들의 나이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이 만 18세부터 군사적령자에 포함시킨 것은 만 18세가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권기관에서 인정하는 공민(公民)이자 성인(成人)의 기준 연령이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9일부터 전체 주민에게 공민증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공민의 기준 연령이 만 18세였다.²¹⁾ 따라서 북한에서는 1946년 8월부터 만 18세 이상에게만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다.

둘째, 북한이 설정한 모병연령은 일제시기 징병제와 관련되어 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만 18~24세(1924~1930년생)을 대상으로,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만 18~25세(1924~1931년생)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일제가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44~1945년이다. 이때 징병 대상자는 20세였다.²²⁾ 출생

21)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1946.8.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7, 824~825쪽.

22) 일제는 별도로 조선인에 대한 병역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본 본토의 병역법을 조선인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第3章 第23條, 『法律 第47號 兵役法』(昭和2年 3月 31日), 7쪽,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자료번호: A03021636299).

년도로 보면 1924년생과 1925년생이다. 일제는 1943년 10월 1일부터 징병 적령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적령자(1924년생) 266,643명 중에서 254,753명(96%)이 신고했다. 징병 신고자들은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최초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적령자 중에서 94.5%가 검사받았다. 징병검사를 통해 합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1944년 9월부터 입대했다. 입영 인원은 9월에 15,936명, 10월에 5,922명, 11월에 1,886명, 12월에 6,583명으로 총 30,327명이었다. 1945년도에 입대한 1925년생의 인원은 알 수 없다.²³⁾ 또한 일제는 1943년 8월 1일부터 해군특별지원병 제도를 신설해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해군으로 동원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교련·무도·행군·해상훈련 등을 교육받고 해군에 배치되었다.²⁴⁾

1924년생(甲子年生)과 1925년생(乙丑年生)은 조선인들 중에서 최초로 의무적 징병제에 따라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 연령층 중에서 군대 경험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었다. 또한 이들은 1944년 이전에 입대한 지원병과 달리 군대 근무기간이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영향을 거의 체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이수했기 때문에 북한군 신병으로도 적합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1924~1925년생을 중심으로 모병대상을 설정한 것은 이들의 일본군 입대 경력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1949년 2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모병 연령이다. 이 시기 모병연령을 보면 최저 연령은 만 18세로 기존과 동일한 반면에 최고 연령은 기존의 만 24세에서 만 25세

23) 최유리,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1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406쪽.

24) 표영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사훈련 현황」, 『승실사학』30호, 승실사학회, 2013, 236쪽.

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1948년도의 만 24세와 1949년도의 만 25세는 모두 1924년생(갑자년생)이다. 즉 북한 당국은 군대 전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1924~1931년생을 모병대상으로 설정한 것도 일제시기 군사훈련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1928~1931년생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일제가 1929년에 처음 창설한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에 대규모로 입소했던 사람들이다. 청년훈련소는 일제가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실업교육·국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학교에 설치한 훈련소이다. 입소 대상자는 13~22세의 청년 중에서 국민학교를 수료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의무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1944년부터 청년훈련소를 “건병(建兵)육성의 기초”로 설정하고 입소를 거의 의무화했다. 훈련소의 운영방향도 사격·총검술·전투교련 등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44년 당시에 2,534개의 청년훈련소에서 약 21만 명의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특히 1927~1931년생은 1944년부터 의무적으로 청년훈련소에 입소했던 연령층으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이수한 청년들이었다.²⁵⁾

실제로 1948년 7월에 북한군에 지원한 청년 중에서 일제시기에 청년훈련소를 수료한 인물이 있다. 황해도 서흥군 내덕면에 거주하는 조근창은 1924년생으로 1939년 3월에 내덕소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43년 3월 5일부터 “황해도 서흥 내덕면 청년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약 2년 동안 이곳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다가 1945년 8월 14일에 훈련에서 해제되었다.²⁶⁾ 서흥군 울

25)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166~168쪽.

26) 조근창, 「履歷書(조근창)」(1948.7.29),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書類』.

리면에 거주하는 황용득은 1927년생으로 1943년 2월에 송월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이력서」에 1943년 3월부터 “송월인민학교(국민학교)에서 2년간 청년훈련(청년훈련) 당겨슴”이라고 기재했다.²⁷⁾

둘째, 1924~1928년생 중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제가 1942년 12월부터 설치한 조선청년특별연성소(朝鮮靑年特別鍊成所)에 의무적으로 입소했던 사람들이다. 조선청년특별연성소는 일제가 향후 군인과 군무자로 동원할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훈련소이다. 17세부터 21세 미만의 조선인 남성 중에서 국민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연성소에 입소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1년 동안 400시간의 훈육·학과 교육, 200시간의 교련·근로 교육을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연성소에서 주로 입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944년도 징병적령자에 해당되는 조선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설을 확대했다. 조선청년특별연성소는 1944년까지 조선에 2,712개소가 설치되었고 1943년까지 103,000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연성소에서 훈련받았다. 1945년도에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2,923개소에서 60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²⁸⁾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보면 1924~1928년생 중 국민학교 미졸업자는 조선청년특별연성소에서 1년 동안 600시간 이상의 입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다. 1927~1931년생 중 국민학교 졸업자는 1~2년 동안 청년훈련소에서 사격·총검술·전투교련 등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청년들이었다. 북한 당국은 주로 일제시기에 이미 1~2년 동안 기본적인 군사훈련이나 입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모집함으로써 신병들의 교육·훈련기간을 단축하려고

27) 황용득, 「履歷書(황용득)」(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28) 대상자를 정확히 서술하면 1942년 12월에 실시된 제1차년도 훈련은 1923년 12월 1일생부터 해당된다. 신주백, 앞의 논문, 2005, 169~171쪽.

계획했다. 그리고 일본군 경력이 있는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이들을 신병을 선도하는 집단으로 육성하려고 구상했다. 이 같은 모병연령의 설정은 북한군을 급속히 확편하기 위한 장치였다.

3. 국가수립 전후 모병사업의 실태와 모병 기준

가. 1948년 7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병사업과 신체적·사상적 기준

그렇다면 국가수립 전후에 모병사업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1948년 1월에 실시된 모병사업은 지시문서의 제목만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948년 7월과 1949년 2월에 실시된 모병사업은 지시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군·면단위에서 모병사업을 집행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서흥군의 사례를 통해 북한 당국이 국가수립 전후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자.

먼저 북한 당국이 1948년 7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은 각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할당제(割當制)로 진행되었다. 1948년 7월 8일 당시 황해도 서흥군의 남성 인구는 6,680명이었는데 모집할당인원은 112명(남성 대비 할당인원 1.68%)이었다.²⁹⁾ 1948년 1월 당시 북한의 전체 인구는 9,331,540명이었고 남성은 4,642,363명이었다.³⁰⁾ 서흥군의 남성 대비 할당인원을

29) 황해도인민위원장,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0) 「주 북조선 소련민정청 3개년사업 총결보고서」,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1권, 서울: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2018, 457쪽.

북한의 전체 남성인구에 적용해 보면 1948년 7월에 전체 지역에 할당된 모병 인원은 약 77,000~78,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군 보병사단의 모델이 된 소련군 근위보병사단의 편제병력은 10,670명이다.³¹⁾ 따라서 이 할당인원은 7개 보병사단을 창설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나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할당받은 인원만큼 모집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았다. 황해도인민위원장은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에서 면심사위원회와 시·군심사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할당수자 이상을 초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³²⁾ 도인민위원회가 할당인원을 초과 확보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전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경험상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병사업은 도인민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에 모집인원이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7월 19일 당시 서흥군에는 111명이 할당되었으나, 모집인원은 93명에 불과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8년 7월 13일 경에 새로운 「모병 규정」을 하달했다. 이전까지 모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규정에 따라 상부에서 지불했다. 그러나 새로운 모병 규정에는 군(郡)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자가 15%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면인민위원회가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었다.³³⁾ 하지만 소요경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심사과정을 통과한 합격자는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1948년 7월 25일 당시 서흥군의 할당인원은 121명으로 증가했

31)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309; 331쪽.

32)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3) 서흥군인민위원장, 「〈祕〉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다. 각 면에서 실제로 모집한 인원은 149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군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는 98명에 불과했고 불합격자가 51명에 달했다.³⁴⁾ 군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자가 34%나 발생했으므로 모병사업에 지출된 경비는 모두 면인민위원회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할당인원이 121명인데 비해 합격자는 98명이었으므로, 실제 모병비율은 81%에 불과했다.

각 지역에서 실시된 모병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방인민위원회의 모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48년 7월에 황해도에서 실시된 모병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48년 7월 황해도의 모병사업³⁵⁾

기간	모병절차	작성서류	담당자
7.10-11	모집지시 전달, 모집사업 조직	확인 안됨	면당위원장, 면인민위원장, 분주소장, 면민청위원장
7.11-12	면심사위원회 조직, 세포위원장 소집	확인 안됨	면당위원장
7.12-13	세포회의 소집, 모집계획 수립	확인 안됨	세포위원장
7.19	면당에서 지원자명단· 통계 작성, 심사계획 수립	지원자명단·통계표	면당위원장, 민청위원장, 여맹위원장
7.20	면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면심사위원회 : 면인민위원장, 분주소장, 면당위원장, 면민청위원장
7.21-22	시군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시군심사위원회 : 시군인민위원회 서기장·내무서장, 시군당 조직부장, 시군 민청위원장
7.23-8.4	도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도심사위원회 : 도인민위원회 서기 장·간부부·내무부, 도당 간부부, 도민청 조직부

34) 서흥군인민위원장,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5) 황해도당 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황해도 의 모병 사례를 보면, 각 지역의 모병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정권기관(인민위원회), 당(노동당), 사회단체(민청·여맹)라는 세 주체가 참여했다. 모병 사업을 주도한 주체는 노동당이였다. 노동당은 면(面)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집계획·심사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자명단·통계표를 작성했다. 지원자들은 「이력서」와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추천서」는 지원자가 소속된 민청과 면당으로부터 받았다. 심사과정은 면심사위원회, 시군(市郡)심사위원회, 도(道)심사위원회라는 3단계를 거쳤다.

먼저 면단위의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병 사업은 징집제(徵集制)가 아니라 지원제(志願制)로 추진되었다. 모병 지원자는 반드시 「이력서」와 「추천서」를 각각 1부씩 제출했다. 「추천서」는 주로 지원자가 소속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과 북조선로동당의 지방조직 위원장이 작성했다. 「추천서」에는 신상정보와 함께 「사상, 책임감, 가정형편」이 기록되었다. 가령 황해도 서흥군 도면에 거주하는 리기봉의 「추천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서흥군 도면위원장이 작성했고, 「사상」란에는 “민주청년으로써 자기가 속한 초급단체에서 열성적으로 학습회 참가하며 민주과업을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했다. 「이력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했고 출신·사회성분, 정당, 학력, 경력을 기재했다.³⁶⁾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평소에 지원자를 잘 아는 정당·사회단체의 책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사상·언행·계급을 검증했다.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이 군인으로 적합한지 확인했다.

둘째, 1차적 모병 기준은 신체적 조건이었다. 면심사위원회는 모병 지원자가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체의 조건은 나이였다.

36)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서흥군 도면위원장, 「추천서(리기봉)」(1948.9.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1924~1930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해도 군대에 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김운상은 빈농 출신으로 정치적 각성 면에서 “기본적 요해”를 하고 있었으나 1931년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격되지 않았다. 1948년 7월의 모병 사업 당시 17세였던 고덕빈도 모병사업에 지원했으나 “나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³⁷⁾

신체조건이 첫번째 모병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병지원자는 모두 면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군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신체검사를 위해 반드시 “책임감있는 의사를 선정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신체검사는 각 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했다. 서흥군 서흥면에 거주하는 리영택은 서흥진료소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고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장은근은 신막교통병원 의사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검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³⁸⁾

모병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항목은 9개로 생활기호(술·담배·운동), 체중, 신장, 흉위(胸圍), 시력, 청력, 색신(色神), 사지(四肢), 흉부(胸部) 등이다.³⁹⁾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 이후에 “적당, 부적당”으로 판정했다. 신체검사의 합격자 기준은 키 150cm 이상, 가슴둘레 80cm 이상, 시력 0.8 이상, 청력 1m 거리이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검사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었다. 모병지원자는 색맹이 아니면서 전염병·질병·성병이 없는 자만 합격할 수 있었다.⁴⁰⁾

37)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김운상·고덕빈)」(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8) 면인민위원회, 「身體檢査書(리영택)」(1948.7.19)·「身體檢査證(장은근)」(1948.9.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9) 면인민위원회, 「定期身體檢査表(이선호)」(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0) 황해도당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신체검사 결과는 가장 중요한 합격기준이었다. 모병지원자는 계급·사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체검사에서 1개 항목만 부적합해도 합격되지 못했다. 안세영은 빈농 출신으로 노동당원이자 민청 덕성리 초급단체 책임자였다. 그는 모병 심사원으로부터 “초급단체 책임자, 빈농, 사상 견고”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체조건이 부족해 불합격 처리되었다.⁴¹⁾ 리만재는 정치사상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몸이 약하고 적록색맹(赤綠色盲)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⁴²⁾ 또한 질병이 있는 지원자도 불합격되었다. 오명식은 1930년생의 빈농 출신이었는데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자격 부족, 피부병(웁)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⁴³⁾

셋째, 2차적 모병 기준은 사상적 조건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모병지원자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계급·경력·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신체검사 결과 질병이 없고 건강하더라도 사상의식이 “불량”하거나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는 청년은 불합격되었다. 조근창은 노동당원으로 민청보위대 소대장이었지만 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사상방면에서 불량”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이석만은 빈농 성분으로 여관 종업원이었는데 “정치적 수준 없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⁴⁴⁾ 또한 지역의 모병과정에서는 모병대상자의 평소 행태도 심사대상이었다. 북조선로동당 황해도당은 1948년 7월에 모병사업을 하달하면서 각 지역

41)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안세영)」(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2)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리만재)」(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3) 면인민위원회, 「履歷書(오명식)」·「검열요강(오명식)」(1948.7.19),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4)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조근창·이석만)」(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에서 대상자의 평소 행태를 조사해 “건달배의 혼입을 방지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본 면(面)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는 군(郡)심사위원회에서 제2차 심사를 받았다. 군심사위원회는 주로 지원자의 계급·경력·사상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그런데 면심사에서 합격했더라도 군심사에서 불합격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았다. 그 불합격 이유는 주로 정치의식 때문이었다. 심사 당시 19세였던 민영구는 여관 고용노동자로 빈농 출신의 국문해독자였다. 그는 면심사 당시 신체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평정서」에서 “사상이 견실하고 인민군대 생활을 희망하며 국가 견지에 투쟁심이 강함”이라는 평정을 받고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군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헌법에 대한 문제, 남북조선지도자협의회 결정 중심내용, 선거사업”에 관한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⁶⁾

일부 지원자는 면심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군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최경성은 면심사 이후에 신막교통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모병 당국이 확인한 질병은 6개였다. 병원장 방칠현은 「건강진단서」에 “우자는 화류병(花柳病), 폐결핵(肺結核), 나병(癩病), 도라호무(トラホーム, Trachoma, 전염성 만성결막염), 정신병, 기타 전염성 피부질환이 무(無)함을 진단함”이라고 기재했다.⁴⁷⁾ 당시 지원자 중에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은 면심사 결과 환자일

45) 황해도당 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6) 면인민위원회, 「定期身體檢査表(리영택)·「履歷書(리영택)」·「검열요강(리영택)」(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7) 新幕交通病院, 「健康診斷書(崔璟成)」(1948.9.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948년 7월의 모병지원자 중에는 일본군에서 복무한 인물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1924년에 서흥군 세평면에서 태어난 최용성은 1945년 3월 10월에 일본군에 징집되었다. 그는 일본 시즈오카현(静岡県)에 있는 일본군 제47부대에서 8개월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다. 최용성은 1945년 9월 5일에 징병에서 해제되어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이후에 북조선로동당 서흥군 농촌 제1세포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48년 7월 20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 1924년에 소사면에서 태어난 김은덕도 1945년 3월 10일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시즈오카현에서 근무했다. 그는 1945년 9월 12일에 귀국해 농사를 짓다가 1948년 7월 19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 1924년에 내덕면에서 태어난 안세영은 1944년 7월 16일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일본 큐슈(九州)지방 나가사키현(長崎縣)에 배치되었다. 그는 해방 이후 귀국해 북조선민청 덕성리 초급단체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1948년 7월 30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⁴⁸⁾

나. 1949년 2월 민족보위성의 모병사업과 합격기준의 강화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이후인 1949년 2월에 다시 한번 모병사업을 추진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데 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민족보위성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연령은 만 18세 이상 25세까지(1924년 2월생~1931년 12월생)였다. 모집대상자는 노동자·빈농민 출신

48)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최용성)」·「간부리력서(최용성)」·「자서전(김은덕)」·「리력서(김은덕)」·「履歷書(안세영)」(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으로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신체가 건강한 자였다. 모집기간은 1949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이었다. 1949년 2월의 모병사업도 1948년 7월의 모병사업과 동일하게 할당제로 추진되었다. 북한 당국은 1948년 7월에 실시했던 모병사업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을 진행했다. 즉 군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합격자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에서는 “인원에만 국한하여 충당하려는 경향을 일소하고 면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책임인원을 초과할 것”을 지시했다.⁴⁹⁾ 황해도 서흥군의 경우 노동자성분 23명과 빈농성분 47명 등 총 70명이 할당되었다.⁵⁰⁾

그런데 지역별 할당제도는 실제 모병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을 초래했다. 첫째, 하부 행정단위로 내려갈수록 실제로 모집해야 할 인원이 늘어났다. 1949년 2월에 황해도인민위원회에서 서흥군에 할당한 모집인원은 70명이었는데,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 각 면에 할당한 모집인원은 110명으로 늘어났다. 둘째, 하부 행정단위로 내려갈수록 모집대상자의 출신성분이 강화되었다. 황해도인민위원회에서는 노동자·빈농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는데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는 출신성분을 더욱 강화해 각 면마다 노동자를 30% 이상 확보하라고 지시했다.⁵¹⁾

그러나 1949년도 모병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모병지원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월 14일 당시 서흥군에서 북한군에 지원한 사람은 총 43명에 불과했고 이

49)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한 긴급지시」(1949.2.15),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0)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隊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1) 황해도인민위원장, 「人民軍隊 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중에서 합격자는 15명뿐이었다. 게다가 15명의 합격자는 모두 농민이었고 노동자는 전혀 없었다.⁵²⁾ 북한 당국은 이처럼 모병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자, 2월 중순에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이 사업을 강력히 집행하라는 긴급 지시와 최후 경고를 하달했다. 긴급 지시의 내용은 모병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각 인민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후원할 것, 군인민위원회에서 각 면에 공작원을 다시 파견하여 책임인원(할당인원)을 무조건 확보할 것, 각 면에서는 면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책임인원을 초과할 것 등이었다.⁵³⁾ 그러나 할당인원은 4월에도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4월 당시 서흥군의 할당인원은 40명이었고 북한군 지원자는 16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4월 4일 현재 군심사 합격자는 145명(88%)이었고 도심사 합격자는 25명(15%)에 불과했다.⁵⁴⁾ 서흥군에 할당된 모병인원 70명에 비하면, 합격자는 겨우 35.7%에 불과했다.

1948년에 비해 1949년에 달라진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1948년의 모병규정에 없던 모병대상자의 자격이 새로 추가되었다. 민족보위성은 1949년에 모병사업을 요청하면서 “이남가족 및 친척관계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며, 노동성분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⁵⁵⁾ 둘째, 심사절차가 변경되었다. 1948년에는 신체검사를 면심사과정에서만 실시했으나 1949년에는 신체검사를 면심사과정에서 1회, 군심사과정에서

52)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 통계표」(1949.2.1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3)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한 긴급지시」(1949.2.15),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4) 서흥군인민위원장, 「〈비〉 人民軍隊 合格者 統計表」(1949.4.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5)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대원 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합격자에 한해 1회를 각각 실시했다. 군심사와 군심사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들만 도심사에 회부되었다. 즉 1948년에 비해 1949년의 모병규정은 모병대상자의 계급성분·가족관계·신체자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1949년 2월의 모병사례를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군심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군심사는 면에서 합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면의 합격자는 지정된 날짜에 군소재지로 집결해 심사받았다. 군심사위원회는 면의 심사서류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사상을 다시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불합격 이유는 주로 출신성분·신병(身病)·생활곤란이었다. 김종식은 지주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고, 리응상은 천도교청우당 당원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또한 김영송은 신병(3세때 나무에서 떨어져 아프다) 때문에 불합격되었고 배인복은 가정형편이 곤란해 군대에 못가겠다고 진술해 불합격되었다.⁵⁶⁾

특히 1949년 2월에 실시된 군심사의 결과는 북한의 병역제도가 국가수립 이후에도 모병제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심사과정에서 불합격한 모병지원자의 명단에는 불합격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불합격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입대를 거부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입대를 거부한 이유는 “생활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으로 못가겠음, 다음에 가겠습니다” 등이었다. 나아가 면심사와 군심사를 거쳐 도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리명식은 도심사에서 최종

56)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합격했으나 바로 북한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심사에서 일개월 후 가겠습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⁵⁷⁾ 즉 북한당국은 1949년 2월 모병사업 당시 개인사정으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연기한 사람들을 징집하지 않았다.

1949년 2월 모병사업에서는 군심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가 불합격되었다. 서흥군의 경우, 군심사 합격자 145명 중에서 군심사 이후에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사람은 35명(24%)에 불과했다. 군심사 이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면심사 과정에서 신체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면심사에서는 키·체중·가슴둘레·시력·청력·전염병을 검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인력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신체검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서흥군 내덕면인민위원회의 경우 2명의 합격자를 군에 보고했지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⁵⁸⁾

그 결과 군심사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체기준이 미달되어 불합격되는 사람이 많았다. 군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지원자가 “체중 부족, 시력 부족, 청력 부족, 도리호무(Trachoma, 전염성 만성결막염), 피부병” 등이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또한 군의 신체검사 당시 “신병”을 이유로 불합격되는 사람도 많았다. 신병은 주로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으로 확인되지 않는 신체상 통증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화 불량, 10일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 음식 먹으면 피가 나온다, 3년 전

57)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8) 내덕면인민위원장, 「人民軍隊 募集名單」(1949.2.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 募集에 關한 書類』.

부터 봄이 되면 복통이 있다, 나는 힘든 일하면 숨차다” 등이었다.⁵⁹⁾ 이 같은 증상은 모병지원자의 주장일 뿐이었지만, 인민위원회는 신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모병하지 않았다. 이것은 1949년 2월 당시 북한 당국이 모병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황해도 서흥군에서 1949년 2월부터 실시된 모병사업은 4월 4일에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황해도 서흥군에서 도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합격자는 총 4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출신성분·정당·학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949년 4월 4일 현재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업 최종 합격자 통계⁶⁰⁾

연령								출신성분			정당				학력		합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빈농	로동	중농	노동당	민주당	청우당	무소속	국해	소졸	
4명	10명	2명	9명	5명	3명	3명	5명	37명	3명	1명	11명	0	0	30명	26명	15명	41명
10%	24%	6%	22%	12%	7%	7%	12%	90%	7%	3%	27%	0	0	73%	63%	37%	100%

민족보위성에서 1949년 2월에 요청한 모병사업은 만 18~25세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서흥군의 최종합격자들의 나이를 보면, 최종합격자는 19~26세, 즉 만 18~25세로 모병규정에 맞게 모집되었다. 1949년 2월 당시 서흥군에는 노동자성분 23명(33%)과 빈농성분 47명(67%) 등 총 70명이 모병인원으로 할당되었다.⁶¹⁾ 서흥군에 할당된 출신성분은 노동자가 33%, 빈농이

59)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60)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61)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隊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67%였으나, 최종 합격자의 출신성분은 노동자 7%, 빈농 90%, 중농 3%였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 군인으로 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고 노동자와 빈농만 모집하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거의 모집되지 않았고 모집대상에 없는 중농계급도 모집되었다. 또한 서흥군에 할당된 모집인원은 70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41명으로 할당인원의 58%에 불과했다.

앞서 1948년 7월에 북한 전체지역에 할당된 모병인원은 약 77,000~78,000명으로 추정되었다. 현재까지 1949년 2월에 민족보위성이 추진한 모병사업의 결과를 북한의 전체지역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현재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에 관한 통계는 할당인원의 58%가 모집된 서흥군의 모병결과가 유일하다. 이를 북한 전역으로 가정해 보면 1949년 2~4월의 모병인원은 약 45,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모병인원은 약 4개 보병사단을 새로 편성할 수 있는 병력이다. 그러나 1949년 4월 당시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업 결과를 보면 북한 당국이 1949년 2월에 추진한 모병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모병의 목표인원이 모집되지 않았고 신병들의 계급적 성분도 모병규정과 일치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1949년 4월까지 애초에 목표한 모병인원을 모집하지 못한 것은 모병규정이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 인민위원회에 모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와 빈농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군대의 계급성분을 개조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노동자가 적고 빈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지역에는 모병대상이 아닌 중농이나 지주도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급구성을 고

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규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모병사업의 목표는 애초에 달성될 수 없었다.

또한 모병사업이 실패한 데에는 지역인민위원회에 모병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지 않았고 지역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각 지역인민위원회는 이미 1948년 1월과 1948년 7월에 모병사업을 집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역인민위원회에는 1949년 2월까지 모병사업의 전담부서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모병경험을 축적할 수 없었다. 또한 시·군·면의 심사과정에는 인민위원회·내무서·노동당·사회단체의 간부들만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병사업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진행된 모병사업의 경험이 지역인민위원회에 종합되거나 축적되지 못했다. 게다가 각 면단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합격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군심사와 도심사의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이 1949년 2월에 추진한 모병사업은 목표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4. 맺음말

북한의 병역제도는 해방 이후에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북한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구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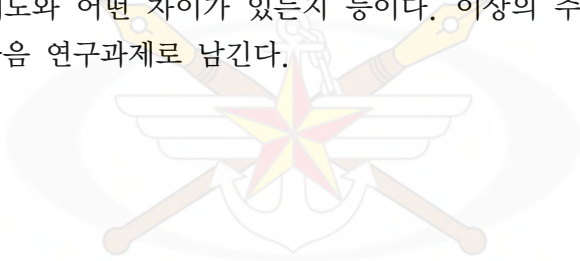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로 입대시킴으로써 북한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각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그러나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병된 인원은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그 이유는 군심사와 도심사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많았고 비슷한 연령을 연이어 모병함으로써 모병대상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1948년 1월부터 1949년 4월까지 총 3차에 걸친 모병

사업을 통해 만 18~25세 중 군대 복무에 적합한 신체·계급·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대부분 모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모병된 병력은 1949년 4월 이후에 북한군이 확편될 수 있는 인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 글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북한이 처음 실시한 병역제도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하지 못한 주제가 있다. 이는 1949년부터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은 시기 남한의 병역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다. 이상의 주제는 지면 관계상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사료

『法律 第47號 兵役法』(昭和2年 3月 31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자료번호: A0302163629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1권, 서울: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2018.

勞動省, 『로동』 제1호, 평양: 勞動省, 1949.3.15.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軍秘〉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6, Item 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2. 단행본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1997.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예프게니 바자노프 · 나팔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토마스 퀴네 외 저, 조정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1.

3.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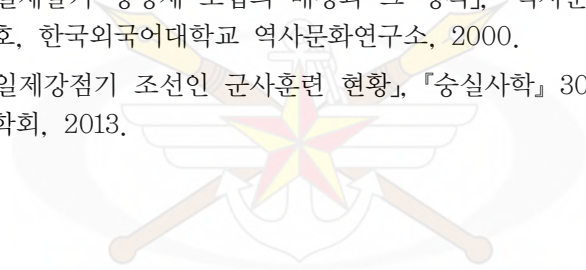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현실』 10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 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최유리,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표영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사훈련 현황」, 『송실사학』 30호, 송실사학회, 2013.



〈Abstract〉

The Actual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Recruitment of Soldiers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Kim, Seon-Ho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basically operated as a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Korean political forces recruited youths on January 20, 1948 to fully organize the army, and recruited young people from July 1948 to fully organize the Korean People's Army(KP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mobilized young people aged between 18 and 25 from February 1949 to prepare for a full-scale attack.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rapidly expand its army by intensively recruiting young people born in 1924-1925, who worked in the Japanese army before liberatio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not a complete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but a volunteer military system combined wit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troops actually recruited was less than the number assigned troop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re were many dropouts in the screening process and fewer people were recruited by continuing to recruit similar age groups.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cruited most of the eligible young 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through military service from January

1948 to April 1949. The troops recruited during this period were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KPA could be expanded after April 1949.

Keywords: North Korean Army, Korean Workers' Party,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Conscription System, Korean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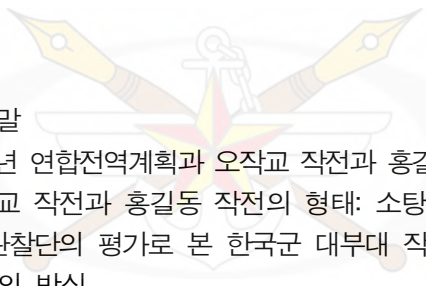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359-397
<https://doi.org/10.29212/mh.2024..133.3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주월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

- 1967년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중심으로* -

심호섭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부교수

- 
- 목 차
1. 머리말
 2. 1967년 연합전역계획과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배경
 3.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형태: 소탕작전
 4. 미 관찰단의 평가로 본 한국군 대부대 작전: 소부대 작전 중심의 방식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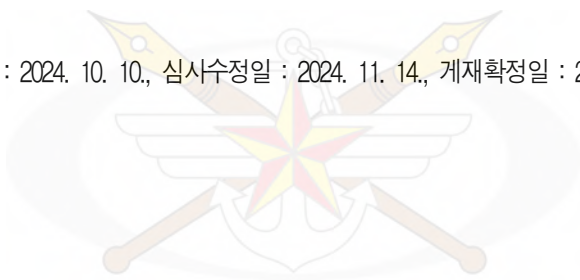
초 록 이 논문은 베트남 전쟁에서 주월한국군이 수행한 대부모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를 도출한다. 특히 1967년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이 미군의 탐색격멸 작전과 달리 잔적 소탕과 지역 확보에 중점을 둔 소탕 작전이었음을 밝힌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 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6894)

이와 동시에 한국군은 미 관찰단의 평가와 같이 소규모 제대의 수색, 정찰, 매복 등 소부대 작전을 통해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식 소탕작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한국군의 독특한 대부대 군사작전은 베트남 전쟁의 전략 목표인 평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한국군 내부 목표를 충족시키며 한국군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베트남 전쟁, 주월한국군, 대규모 군사작전, 오작교 작전, 홍길동 작전, 탐색격멸, 소탕, 확보, 평정

(원고투고일 : 2024. 10. 1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 편에 참전한 동맹군¹⁾의 전략 목표는 남베트남 정부 기관이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평정(pacification)의 달성에 있었다.²⁾

중국의 개입과 같은 전쟁의 확전을 우려했던 미국은 북위 17도선을 넘어 북베트남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남베트남 안에서 정부의 전복을 막기 위한 방어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폭격에 더해 남베트남에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북베트남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전쟁을 종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베트남은 굴복하지 않고 반란전을 지속했으며, 이에 따라 전쟁은 장기화되고 소모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면적 정규전이 아닌, 남베트남 내에서 남베트남군과 미국을 위시

1)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과 미국 편에 참전한 국가는 지상군 파병 병력 순으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타이완 순이다. 그러나 6·25전쟁과 달리 베트남 전쟁에서는 연합사령부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군대를 연합군(Combined Forces)으로 부르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베트남을 지원한 자유 진영의 군대를 당시 사용된 호칭인 자유세계군(Free World Military Forces) 또는 동맹군(Allied Forces) 중에서 동맹군으로 지칭한다.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Stanley Robert Lasen and James Lawton Collin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이 자세하다.

2)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Folder 14, Box 5, Larry Berman Collection,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VNCA.

한 동맹군이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과의 대반란전(COIN, Counter-insurgency)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다양한 지형적 특성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효과적으로 반란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베트남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독특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³⁾, 지역별로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베트남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동부는 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험준한 서부 고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동남부의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정글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과 통제가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와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베트콩은 서쪽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우회하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구축된 호치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대반란전을 전개했다. 그들은 대규모 병력 대신 소규모 부대로 분산 활동하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민간인으로 위장해 마을에 은거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베트남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을 군사적으로 독특한 양상의 전쟁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경험했던 6·25전쟁은 군대 간의 협조된 기동과 작전을 통해 전선이 형성되고 이동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각 부대가 전술책임구역(TAOR, 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이나 작전 지역(AO, Area of Operation)과 같은 특정 구역을 할당받아, 전선 없이 분산된 형태로 작전을 수행했다. 남베트남 전체는 북쪽에서부터 I, II, III, IV 군단 전술책임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남베트남 II 군단과 미 I 지역군과 함

3) 국토의 남북 직선 길이가 1,650km, 해안선 길이는 3,260km에 달하는 한편, 국토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48km에 불과하다.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4쪽.

계 중부의 II 군단 전술책임구역을 담당하게 된 한국군은 구역 내에서도 주로 동부 해안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남베트남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지만, 연합사령부는 구성되지 않았다. 대신 각 군이 독립적인 병렬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조하는 형태로 연합작전을 수행했다.⁴⁾

결국, 베트남 전쟁은 각 부대가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을 평정하며 평정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전 방식은 베트남 전쟁이 상대국의 영토 점령이나 군대의 격멸을 추구하는 기존의 정규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평정 달성을 목표로 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전쟁의 전략적 목표인 남베트남 평정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을 병행하여 수행했다. 당시 군사작전은 크게 탐색격멸(Search and Destroy), 소탕(Clearing), 확보(Securing)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작전 형태는 북베트남 정규군의 정규적 위협과 베트콩의 비정규적 위협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격멸’을 통해 북베트남군 또는 베트콩 주력을 찾아 섬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적을 ‘소탕’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을 ‘확보’하여 지역을 평정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사작전은 그 규모에 따라 대대급 이상의 제대가 수행하는 ‘대부대 작전’과 중대급 이하의 ‘소부대 작전’으로 구분되었다. 대부대 작전은 주로 미군이 수행한 탐색

4) 한국을 제외한 동맹군 5개국의 전투부대는 미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동맹군의 지휘구조와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Hosub Shim, “Journey to Equ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in the Vietnam War,” The Journal of Amercian-East Asian Relations, Vol. 29 (2022): 391-422.

격멸 작전의 형태를 띠었으며, 헬리콥터를 활용한 보병, 포병, 공중전력의 지원을 통해 화력과 기동력에 중점을 둔 정규전적 성격을 가졌다. 소부대 작전은 주로 분대 및 소대 단위의 수색 및 매복 작전으로 이루어졌고, 미군은 이를 탐색격멸 작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수행했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성격으로 구분한다면, 탐색격멸은 정규전에 가까운 작전이었으며, 소탕과 확보는 비정규전적 성격의 평정작전으로 볼 수 있다.

주월한국군의 군사작전은 주로 한국군 자체의 정치·군사적 이유와 각국 군대별 역할 분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규모에 있어서 한국군의 군사작전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주로 소부대 작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국군은 사상자를 최소화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았다.⁵⁾

이를 위해 한국군은 전술책임지역(TAOR)의 평정과 평정 지역 확대를 전쟁 수행의 기본 전략으로 설정했다. 한국군의 군사작전은 “분리-섬멸-지역 확대”라는 자체적인 평정 전략에 기반을 두었으며, 특히 베트콩과 주민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대 규모의 기지를 해당 책임 지역에 배치하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전투를 전개했다.

<표 1> 주월한국군 군사작전 현황

군사작전 규모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합계
소부대 작전 (중대급 이하)	2,206	38,722	73,448	96,907	89,002	102,248	130,294	40,831	573,658
대부대 작전 (대대급 이상)	15	63	97	170	216	302	258	58	1,179
합계	2,221	38,785	73,545	97,077	89,218	102,550	130,552	40,889	574,837

* 출처: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391쪽.

5) Ibid., pp. 402-403.

다만 압도적인 소부대 작전의 횟수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총 1,000여 회가 넘는 무시할 수 없는 횟수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한국군은 탐색격멸과 같은 정규전 성격의 대부대 작전을 통해 남베트남 평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전쟁 기간 동안 강조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군의 대부대 작전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지 밝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군은 왜 1967년에 본격적인 대부대 군사작전을 실시했던 것인가?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과연 베트콩 격멸을 목표로 한 탐색격멸 작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동맹군의 기준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1967년의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이라는 주월한국군의 대표적인 대부대 군사작전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한다.

2. 1967년 연합전역계획과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배경

남베트남군과 동맹군 내 군사작전 임무 분담은 1967년 연합전역 계획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해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MACV(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 또는 주월 미군 사령부)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1966년 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1967년에는 전과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⁶⁾

6) Ulysses S. Grant Sharp and William C. Westmoreland,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 131.

1966년 말, 동맹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미군 병력은 48만 6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한국군 역시 기존 수도사단(-)과 해병 여단 외에 수도사단 1개 연대(26연대)와 9사단이 증파되어 총병력은 5만여 명에 이르렀다. 1966년 말 미군은 그동안 증강된 동맹군의 활발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⁷⁾

미군은 남베트남 평정을 위한 소모전을 수행하면서도, 1967년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기대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세 작전은 주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을 격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평정을 위해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민사작전과 같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방법도 병행되었다.⁸⁾ 이에 따라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공세적인 대규모 작전과 평정작전 위주의 소규모 작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 군대별로 주 임무를 설정했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은 각국 군대별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규정했다.

베트남 공화국군(RVNAF), 미군 및 자유세계군사원조군(FWMA)은 본 작전의 목표와 할당된 임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베트남 공화국군은 혁명적 개발[평정]을 지원하는 주요 임무를 맡으며, 국가 우선 지역과 기타 중요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정부 중심지를 방어하며, 특히 쌀과 소금을 포함한 국가 자원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미군 및 자유세계군사원조군은 베트콩 및 북베트남군(NVA) 주력 부대, 기지 지역, 자원을 파괴하거나 적을 인구가 적고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이들 기지 지역을 확보

7) “Summary of USMACV News Events, 1966,” 14 January 1967, Folder 1, Box 0, Bud Harton Collection, VNCA.

8) Sharp and Westmoreland, *Ibid.*, pp. 132-133.

하고 그 주변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지시된 바에 따라 국가 자원의 보호와 통제에 협력할 것이다.⁹⁾

이처럼 연합전역계획은 남베트남군은 지역 확보와 안정화를 목표로 한 평정작전에 집중하는 한편,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은 탐색격멸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각국 군대별 군사작전 임무의 구분은 1965년 초 미 지상군이 남베트남에 도착한 이후 지속되었으나, 1966년 말 전황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략 단계로 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7년 초 공식적으로 재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도 한국군의 임무는 연합전역계획에 따라 “베트콩 및 월맹군을 격멸하고 월남 전역에 걸쳐 월남 정부 통제 지역 확장과 월남 국가 혁명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¹⁰⁾ 그동안 한국군은 대규모 군사작전보다는 지역 확보와 안정을 목표로 한 평정작전에 주력해왔으나, 이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했던 미군은 한국군이 자신들의 전술책임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베트콩을 적극적으로 격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미군과 같은 수준의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전술기지 운용과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중심의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해명했다.¹¹⁾

1966년 11월 이후부터 1967년 1월 10일 연합전역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배부되기 전까지,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남베트남군

9)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VNCA.

10) 주월사령부,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보고서」, HB02338. HB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관리 번호임.

11) Shim, Ibid., pp. 412-415; George L. MacGarrigle,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p. 192.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실무진 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해당 내용을 반대하지 않고 수용했다.¹²⁾ 왜 이 시기에 한국군은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한국군이 미군의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 요구를 수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67년에 이르러 한국군에게는 미군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해졌다. 한국군은 이전부터 미군으로부터 군사작전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탐색격멸과 같은 대규모의 공세적 작전 수행에 대한 압박이 강했다.¹³⁾ 그러다가 1966년 수도사단 1개 연대(26연대)와 9사단 병력이 증강되었으며, 1966년 말에는 9사단이 현지 적응을 마치면서 한국군은 더 이상 병력이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대부대 작전 수행을 한국군 파병의 명분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군은 미군의 대부대 군사작전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1966년 독고 전투 당시처럼 미군이 한국군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북베트남 정규군과 직접 대치하는 작전으로 내모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가지고 있었다.¹⁴⁾ 더 근본적으로, 한국군이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원, 군수, 해외군무수당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미군과 원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한국군은 그동안 소부대 작전을 통해 지역 평정에서 효과적임을 강조해왔으나, 이제는 군단급 부대로 성장하여 동맹군 내에서

12)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1 January 1967," 11 March 1967, AD390962,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13) Shim, Ibid., pp. 412-414.

14)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군사』 120호, 2021, 94-95쪽.

미군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특히, 한국군 2개 사단이 배치된 II 군단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중장은 1967년도의 대부대 군사작전 실행에 대한 여러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국군은 연합전역계획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10개월 동안 평정에 실패했던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한국군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¹⁵⁾ 당시 한국군이 작전을 전개할 푸옌성과 광범위한 고보이 평야 지역은 베트남 중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여전히 베트콩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군 2개 사단으로는 성공이 어려울 거라는 미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이 지역에서의 대부대 군사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한국군이 전술책임지역 밖에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이 전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셋째, 한국군은 대부대 군사작전 수행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통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 즉 충분한 이익을 달성하고자 했다. 미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군은 전쟁 기여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군에게는 수도사단과 9사단 간의 연결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두 사단의 전술책임구역은 분리되어 있었고, 특히 9사단은 좁고 긴 전술책임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측

15)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1일,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7, 91쪽.

면이 적에게 노출된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대 작전을 통해 뚜이 호아 지역을 확보하면 두 사단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9사단이 처한 군사적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었다.¹⁶⁾ 이에 더해,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해당 작전 지역은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였다. 이 지역은 식량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교통의 주요 시설을 갖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채명신은 국가 이익 실현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대부대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철도, 항만 등 기간 시설이 잘 갖춰진 중부 베트남의 중요 지역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¹⁷⁾

채명신 중장은 1966년 중후반 9사단이 베트남에 도착한 초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으로 한국군의 임무를 규정한 연합전역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연합전역계획이 한국군의 전쟁 수행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각국 군대 간의 ‘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식 문서로 여겼다. 대부대 작전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미군식 탐색격멸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의 희생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주요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 연합전역계획 문서에 자신의 공식 서명만 요구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7년의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 개시는 처음부터 한국군의 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깊숙이 반영된 결과였다.

16) 한민석(주월 한국군 사령부 작전참모) 증언, 1969년 8월, 위의 책, 125쪽.

17)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위의 책, 91쪽.

3.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형태: 소탕작전

1967년 3월 8일, 주월한국군은 오작교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수도사단과 9사단을 연결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1번 도로를 개통시키며, 궁극적으로 두 사단 사이에 위치한 푸옌성의 중심인 푸이호아 지역을 평정하는 데 있었다. 작전명 ‘오작교(烏鵲橋)’는 두 사단을 연결하려는 의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월사령부에서는 작전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오작교 I은 각 사단의 전술책임지역을 확장하고, 수도사단과 9사단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¹⁸⁾ 이와 동시에 한국군은 베트남 격멸을 목표로 내세우며, 수도사단에서 3개 대대, 9사단에서 2개 대대를 동원하여 총 5개의 대대를 투입한 군단급 규모의 탐색격멸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¹⁹⁾ 베트남을 격멸하고 두 사단의 연결을 달성한 이후에는 확장된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오작교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인 오작교 II가 실시된다.²⁰⁾ 여기서 한국군은 “전술기지 공사와 더불어 지역 내의 잔적 소탕을 위한 매복전, 그리고 민사심리전 활동과 주월 정부의 평정계획을 지원하는 수복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었다.²¹⁾ 결국 작전의 두 단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오작교 작전은 처음부터 탐색격멸, 소탕, 확

18)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9사단, 『전투상보 제 35호: 오작교 작전』, 1967, HB00010.

19) 군단급 작전이라고 해서 군단 전체가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군단급 작전의 의미는 주월사령관 또는 야전사령관이 주관하는 작전을 통칭한다. 마찬가지로 사단급 작전은 사단장이 주관한 작전이었다.

20)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년), 2권, 397쪽.

21) 위의 책, 514쪽.

보의 군사작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술책임지역을 확장하고 평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둔 작전이었다.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수도사단장 유병현 소장과 9사단장 이소동 소장이 나눈 ‘극적인’ 악수는 한국군이 오작교 I의 목표였던 두 사단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상징한다.²²⁾ 하지만 오작교 작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의 주된 목표인 베트남 주력 부대의 격멸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도사단이 수행한 이전의 탐색격멸 작전들과 마찬가지로 적 주력을 발견하여 고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한국군의 공세를 조직적으로 회피했다. 여기에 한국군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탐색격멸이라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두 사단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머지 각 제대가 연결 작전을 위한 속도전에 집중하며 부대의 진격에만 주력했다. 작전에 참여했던 9사단 28연대 1대대장 이영우 중령은 “작전 시에도 부대끼리의 전과에 대한 경쟁으로 편키[표현하기] 곤란한 완력”이 많았고, “오작교 작전은 정책적인 이상한 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오작교 작전의 두 번째 단계, 오작교 II에서 한국군은 새롭게 확보한 지역 확보와 안정화를 목표로 평정작전을 진행했다. 1단계 작전을 통해 530km² 추가되어 전술책임지역이 총 3,230km²가 된 수도사단은 이 중 안전지역을 2,900km², 안전 확보 중인 지역을 100km², 소탕 중인 지역을 230km²로 평가 내리면서, 두 개 대대에 안전 확보 및 소탕 중인 지역 330km²를 담당하게 했다.²⁴⁾ 한편, 9사단의

22) 위의 책, 502-505쪽; 유병현, 『유병현 자서전』 (서울: 조갑제닷컴, 2013), 127쪽.

23) 이영우 증언, 1980년 8월 1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48쪽.

24) 국방부, 앞의 책, 515쪽.

경우 새롭게 확보한 지역 320km² 중 절반은 남베트남군이 담당했고, 나머지 절반은 9사단의 한 개 대대가 맡았다.²⁵⁾ 두 사단의 각 소총 중대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중대전술기지를 구축하고, 수색, 정찰, 매복을 포함한 소부대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 한국군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중대는 약 40km²의 넓은 지역의 평정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정작전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그간 작전에서의 승리에 방심하여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한 한국군 일부 중대들은 베트콩의 공격에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먼저 오작교 작전 1단계 중인 4월 10일, 9사단 28연대 11중대는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적 기습 공격으로 12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34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달여 뒤인 오작교 작전 2단계 중인 5월 16일, 수도사단 26연대 2중대는 적의 공격에 18명의 전사자 포함 5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중대전술기지가 유린됐다.²⁶⁾ 작전 간 주민 통제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민간인 소개 간에 아사 및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 분리 및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²⁷⁾

베트콩 주력 격멸의 실패와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유린, 그리고 민간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작교 작전은 동맹군의 전략 목표인 평정 차원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7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오작교 작전의 결과, 수도사단과 9사단이 연결되었으며,

25) 위의 책, 514쪽.

26) 심호섭, 앞의 책, 113쪽.

27) 김치호 증언, 1980년 8월 1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권, 141쪽; 박정원(수도 1연대 2대대장) 증언, 1980년 7월 19일, 위의 책, 534-535쪽; 권영철(제10포병대대 작전장교) 증언, 1980년 8월 12일-13일, 위의 책, 548쪽.

한국군은 전술책임지역을 기존 4,470km²에서 6,800km²로 확장했다. 즉, 새로운 지역을 확보하고 이 지역의 평정을 진행하는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또한 ‘사살율’(교환비)²⁸⁾로 대변되는 전투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군은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작교 작전에서 한국군은 적군 940명을 사살하고 432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그중 288명을 귀순시켰고, 681정의 소화기와 30정의 공용화기를 노획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의 사상자는 115명에 불과했다.²⁹⁾ 더욱이 한국군은 지역 확보에 대한 목표를 최초 계획보다 15일 앞당겨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 역시 최초 예상보다 1/3로 줄었다.³⁰⁾

오작교 작전은 지역 확보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평정의 성공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각종 사건조사와 야전회보 발간을 담당한 주월사령부 전투발전부장 대리 김치호 대령은 오작교 작전이 정치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서로가 공명심에 불타서 자기부대의 실패는 쉬쉬하고, 잘된 점만을 내놓는” 경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³¹⁾ 실제로 오작교 작전 종료 후에도 한국군은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잔적 소탕과 지역 확보를 위한 평정작전을 지속했다. 따라서 오작교 작전으로 새롭게 확보된 지역이 완벽히 평정되었다기보다는, 이 작전이 해당 지역 평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와 같은 평정의 한계는 한국군뿐 아니라 남베트남군

28) 당시 주월한국군은 전투에서 양측 전사자 수의 비교 비율을 ‘사살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를 ‘사살율’ 대신 전사자를 포함한 사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 ‘교환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29)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542쪽.

30)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2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514쪽;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전투제원』 (사이공: 주월사, 1969), 1쪽.

31) 김치호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3쪽.

과 동맹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평정의 성공 여부가 애매모호하고, 그 성공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베트남 평정을 목표로 한 베트남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진 구조적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작교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군사작전이 홍길동 작전이었다. 홍길동 작전은 한국군의 또 다른 대부대 군사작전으로, 오작교 작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오작교 작전이 두 사단을 연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베트콩을 격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더불어 미군 정보에 따르면 오작교 작전으로 확보한 지역에 북베트남 정규군 5사단이 증강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군은 선제적으로 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채명신 중장은 홍길동 작전을 “오작교 작전에서 확보된 지역을 공고히 하고, 침투를 노리는 적을 중간 집결지에서 분쇄한 작전”으로 평가했다.³²⁾

오작교 작전이 군사작전의 분류상 반드시 탐색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반면, 홍길동 작전은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 개념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즉, 화력과 기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을 격멸하고 소탕하는 것이 작전의 주된 목표였다. 이에 대해 채명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까지 우리의 작전은 촌락작전을 위주로 했는데 홍길동 작전은 산악지역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대 헬리콥터 기동작전을 했습니다. 갑자기 홍길동이 나타나서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작전의 명칭을 홍길동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³³⁾

32)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위의 책, 92쪽.

33) 위의 책.

이처럼 홍길동 작전은 이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기동하며 적을 격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작전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사단에서 5개 대대, 9사단에서 6개 대대의 대부대를 투입했다.³⁴⁾ 여기에 홍길동 작전은 그 작전 개념 자체가 “선제공격을 통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한다”였을 정도로, 기존의 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에 비해 훨씬 더 공세적이고 대담한 대부대 작전이었다.³⁵⁾ 채명신의 “적이 완전한 공격 준비를 갖추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인 중간 집결지에서 때리자”라는 작전 방침에 따라,³⁶⁾ 한국군은 속도와 기습을 통해 적을 격멸하기 위해 미군의 기동 능력에 크게 의존했다. 작전 개시 당일에만 “30여 대의 UH1D와 9대의 CH47을 동원”했으며,³⁷⁾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작전에서 미군 헬기를 통해 중북 포함 총 2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기동했다.³⁸⁾

7월 9일, 한국군은 오작교 작전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지역에서 홍길동 작전을 개시했다. 한국군은 적 주력으로 판단된 북베트남군 5사단 95연대를 고착시키고 섬멸하기 위해 첫날 50km 반경의 포위망을 완벽히 형성한 후, 하루에 1~2km씩 포위망을 좁혀가며 적을 압박했다.³⁹⁾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했던 작전인 만큼, 한국군은 이 작전에서 어려운 전투를 예상했다. 그러나 작전 기간 48일 동안 적 주력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

34)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3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1), 120쪽.

35)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1967, HB00106.

36)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1일, 67쪽.

37)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National Archives II(NARA II), College Park, MD.

38) 10th Combat Aviation Battalion, “After Action Report - Operation HONG KIL DONG,” 12 September 1967, Folder 17, Box 4, Richard Detra Collection, VNCA.

39) 위의 책;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다.⁴⁰⁾ 한국군은 북베트남 5사단 사령부가 주둔한 것으로 추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기동을 통해 여러 개의 포위망을 형성했으나, 탐색격멸의 성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포병 관측장교 최광희 중위는 그의 수기에 “많은 적의 활동을 예상했고 또 그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싸워 보았으면 했는데 홍길동 작전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그날까지 이렇다 할 큰 접전은 없었다”라고 기록했다.⁴¹⁾ 수도 기갑연대 6중대 3소대장 정태준 중위 또한 “홍길동 작전 개시 이래 15일이 지나도록 시원하게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은 다음 단계 작전을 위하여 대대 집결지로 1700[시]까지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했다.⁴²⁾

전형적인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으로 시작했지만, 한국군의 작전은 적 주력과의 직접적인 교전 없이 결국 분산된 소부대 부대의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MACV 회의에서 한국군 대표는 “적은 우리 한국군 기동부대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조직적인 방어를 시도하기보다는 흩어져 퇴각했습니다. 미처 퇴각하지 못한 일부는 동굴에 숨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⁴³⁾ 북베트남 정규군 장교로부터 적군이 이미 퇴각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한국군은 이를 바탕으로 47일간 이어진 홍길동 작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⁴⁴⁾

비록 적의 회피로 인해 탐색격멸을 통한 적 주력을 격멸은 실패했지만, 홍길동 작전은 분산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군은 홍길동 작전에 대해 “푸엔 지역의 한국군 9사단과 수도사단은 북베트남군 95연대에 큰 인명 및 장

40)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41) 「최광희 수기」, 위의 책, HB00106.

42) 「정태준 수기」, 위의 책, HB00106.

43)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44)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비 피해를 입히며, 푸옌 지역을 확보하려는 적의 목표를 좌절시켰다”라고 평가했다.⁴⁵⁾ 수도사단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한국군은 작전 기간 동안 적군 394명을 사살하고 34명의 포로를 획득했으며, 이는 북베트남군 95연대 두 개 대대의 15~20%의 병력 손실에 해당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전체 보유 무기의 19%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⁴⁶⁾ 더 나아가, 미군의 평가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언급되었다. MACV의 1967년 9월 월간 평가에 따르면,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27명이 전사하고 68명이 부상했으나, 637명의 적군을 사살하고 88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작전은 [해당 지역에] 적 주력이 가하던 주요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⁴⁷⁾

또한 오작교 작전에서 1:30의 교환비를 기록했던 것처럼, 홍길동 작전에서도 1:23의 교환비를 기록하며 전투 효율 면에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⁴⁸⁾ 이러한 결과는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한국군 자체적인 목표를 충족시킨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은 획득 무기와 사살한 적군의 비율이 1:1.3에 달했음을 근거로, 적군의 살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한 점을 강조하며,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주장했다.⁴⁹⁾ 이는 대외적으로 한국군이 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5)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6 September 1967, Folder 2, Box 2, Veteran Members of the 109th Quartermaster Company Collection, VNCA.

46)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47)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VNCA.

48)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9사단, 앞의 책, HB00010.

49)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의 형태와 특징은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계획, 경과, 결과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오작교 작전은 첫 단계에서 전술책임지역 연결과 함께 탐색격멸을 통한 적 격멸을 목표로 삼았으나, 전형적인 미국식 탐색격멸, 즉 화력과 기동으로 적을 찾아 고착시키고 섬멸하는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후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롭게 확보한 지역의 잔적 소탕과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홍길동 작전은 계획과 실행 면에서 전형적인 탐색격멸 작전의 특징을 따랐으나, 적의 회피와 퇴각으로 인해 주력 격멸에는 실패했다. 대신 분산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전과를 올리며 지역 확보와 평정에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두 작전 모두 표면적으로는 적 격멸과 지역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세적 성격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적 주력 격멸보다는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작전의 형태에서 탐색격멸은 기동과 화력을 중심으로 한 정규전적 성격의 작전이었고, 소탕과 확보 작전은 비정규전적 성격의 평정작전에 가까웠다. 동맹군은 탐색격멸을 통해 적 주력을 격멸한 뒤, 잔적을 소탕하고, 지역을 확보하여 남베트남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순서로 평정을 달성할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 작전 수행에서는 탐색격멸과 소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작전의 성격이 중첩되거나 변화하기도 했다. 미군은 소탕을 “공세적인 전투 작전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베트콩을 영구적으로 추방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⁵⁰⁾ 더욱이 탐색격멸 작전과 마찬가지로 소탕 작전의 목표 역시 “조직적인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제거하고 지역에서 적군의 위협

50) Headquarters US MACV, “Tactics and Techniques for Employ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Vietnam,” 17 September 1965, Folder 3, Box 3, Larry Berman Collection, VNCA.

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평정 달성의 기준에서 소탕 작전은 “비슷한 전술들이 채용되었음에도 탐색격멸 작전과는 완전히 달랐다.”⁵²⁾ 탐색격멸이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적을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소탕은 평정이 진행될 지역 내의 잔적을 격멸하고 무력화하여, 이후의 확보 작전과 함께 남베트남 정부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⁵³⁾ 이에 따라 소탕 작전은 그 다음 단계인 지역 확보와 개발 및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평정으로 직결되었다.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이러한 군사작전 형태 분류에 비추어볼 때 소탕 작전에 가까웠다. 오작교 작전은 외형적으로는 연합전역계획을 따르는 탐색격멸 작전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역에 주둔하며 평정을 도모하는 소탕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⁵⁴⁾ 홍길동 작전 역시 탐색격멸을 목표로 했지만, 적의 회피로 인해 탐색격멸은 실패했고 소부대 작전을 통해 잔적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두 작전 모두 적의 격멸보다는 지역의 확보와 평정에 주안점을 둔 소탕 작전이었던 것이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을, 남베트남 정규군은 소탕 작전을, 남베트남 민병대(Popular Forces, PF)와 지방군(Regional Forces, RF)은 확보 작전을

51)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VNCA.

52) Ibid.

53) Major Robert A.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p. 32.

54)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NARA II.

수행하며 전략적 목표인 평정을 달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어떻게 남베트남 정규군이 수행해야 할 소탕 작전을 담당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의 다음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군의 수도사단과 9사단은 중부 해안 지대에서 성공적인 소탕 작전을 완수했다. 특히, 한국군의 가장 대부대 군사작전 중 하나인 3~4월의 오작교 I 작전에서 한국군 두 개 사단은 전술책임지역을 연결시키고,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1번 도로의 많은 부분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군이 점차 [남베트남군] II군단 책임지역인 해안 지역을 맡게 되어, 미군 부대들은 다른 [탐색격멸] 임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⁵⁵⁾

이처럼 한국군은 소탕 작전을 수행했고, 이는 평정 달성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노력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평가처럼 “남베트남 정규군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소탕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⁵⁶⁾ 주로 소탕 작전을 담당했던 남베트남 정규군의 전투력이 한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기에, 한국군의 성공적인 소탕 작전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⁵⁷⁾ 더욱이 탐색격멸과 소탕 모두 적군을 격멸하는 공세적 성격의 군사작전이었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에서도 “임무에 대해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처럼,⁵⁸⁾

55) Sharp and Westmoreland, Ibid., p. 142.

56) Memorandum from W. Robert Warne to Mr. Puritano, “Paper Describing RD/Pacification,” 6 June 1967, Reel 2, Johnson National Security Files (microfilm), VNCA.

57)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NARA II.

58)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VNCA.

미군은 한국군의 소탕 작전에 대해, 탐색격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없었다. 한국군이 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의 작전적 공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메운 셈이다.

동시에 이는 한국군이 탐색격멸과 소탕의 미묘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작전 모두 공세적 성격을 띠었지만, 한국군은 탐색격멸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담당 지역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적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소탕 작전은 화력과 기동에서 미군에 비해 열세였던 한국군에게 현실적인 대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려는 한국군의 자체적인 목표와도 부합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전 양상의 게릴라전이 지배적이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소탕 작전은 적의 회피와 피아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 격멸이 어렵고 난민과 민간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탐색격멸의 근본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4. 미 관찰단의 평가로 본 한국군 대부대 작전: 소부대 작전 중심의 방식

연합전역계획에 따른 주월한국군의 일련의 대부대 군사작전에 대한 미군의 관심은 대규모 관찰단(또는 참관단, Observer)을 파견할 정도로 높았다. 한국군 2개 사단과 함께 남베트남 2군단 지역에 주둔했던 미 I 야전군은 오작교 작전을 수행하는 수도사단과 9사단에 관찰단을 파견했다. 이들의 임무는 한국군의 작전 및 전투 수행을 관찰하는 것이었다.⁵⁹⁾ 관찰단은 각각 한 명의

59)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16개 팀으로 이루어졌으며, 1967년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각 팀이 한국군 1개 소총 중대와 함께 짝을 이루어 활동했다. 그러나 타국의 군대를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임무였다. 관찰단은 관찰 결과로서 사전에 지시받은 19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군의 전술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관찰관들은 “한국군 중대와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며, 필요한 경우 [한국군] 중대의 방어를 위해 함께 싸워야 했다.”⁶⁰⁾

6·25전쟁 이후부터 스스로를 한국군의 스승이라 여겼던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울 점을 찾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월 미군사령부에서 “[그동안]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한국군이 사용한 전술과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관찰단을 파견했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은 파월 초기부터 1966년까지 한국군이 기록한 군사적 성과의 이유를 알고자 했다.⁶¹⁾ 그동안 높은 교환비와 성공적인 작전 결과를 보인 한국군에 대해, 미군은 그 성과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비결을 찾아내려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군이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같은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함께 있었다. 특히 과거 미군이 평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한국군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오작교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군 내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미군은 한국군이 이 작전에서 실패할 경우,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미군은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분석해 군사적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60) Ibid.

61) Ibid.

놀랍게도 미 관찰단은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성공은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전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전술을 철저히 적용하고 실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관찰단은 한국군이 미군 교리에 부합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그 전술의 우수한 적용과 실천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전술 적용과 행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우수한 소부대 작전 수행이 대부대 작전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임에 동의했다. 한국군의 전술이 미군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소대, 중대, 대대 작전은 화력과 기동의 숙련된 사용과 엄격한 화력 통제를 통해 특징지어졌다”라고 평가했다.⁶²⁾ 더 나아가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자체적인 특성도 발견했다. “모든 유형의 작전과 사용된 형태에 관계없이, 한국군의 행동은 인내, 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 화력과 기동의 효과적인 사용,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수색 및 재수색으로 특징지어졌다”라는 것이다.⁶³⁾ 관찰단은 “그들[한국군]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하고, 부대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한국군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이제는] 주의 깊음과 철저함으로 대체됐다”라고 평가했다.⁶⁴⁾

오작교 작전에서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 본래의 목표인 적 주력을 찾고 섬멸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지역 확보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의 작전을 계획했으나, 실제

62)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VNCA.

63) Ibid.

64) Ibid.

로는 두 사단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수도사단과 9사단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며, 작전 지역에 네 단계의 차단선을 설정해 ‘탐색격멸’ (실제로는 소탕) 작전을 진행했다.⁶⁵⁾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은 넓은 지역을 포위하는 대부대 작전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수색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오작교 I 작전 동안 한국군 중대는 헬리콥터로 특정 지역에 침투해 기습 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할당된 구역에서 화력을 사용하는 대신 반복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중대들은 종종 작전 구역을 교체하며 ‘반전작전’과 ‘갈아뭇개기 작전’을 실시했다.

반전작전은 “한국군의 월남전 사상 최초로 시도된 작전으로서 일단 정밀수색을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은밀히 포위하여 적의 긴장감이 풀린 시기를 포착하여 기습적인 수색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⁶⁶⁾ 갈아뭇개기 작전은 각 중대가 한 번의 작전 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물며 반복적인 수색과 정찰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⁶⁷⁾ 이와 같은 전술은 이전의 푸캇산 지역에서의 맹호 6호 작전에서도 사용된 바 있으며, 오작교 작전에서는 더 많은 중대가 넓은 지역에서 이를 적용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이 미군의 장기간 작전에 이미 적응한 상황에서, 미군과는 다른 전술을 적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⁶⁸⁾ 이는 상당한 인내를 요구했으나, 초기 한국군의 공세를 회피한 베트남이 한국군의 첫 번째 수색 후 경계를 늦추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대부대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미 관찰단이 지적한 것처럼

65) 국방부, 앞의 책, 390쪽.

66)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5.

67) 박정원(수도사단 1연대 2대대장) 증언, 1980년 7월 1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534-535쪽; 박완식(수도사단 26연대장) 증언, 1980년 7월 8일, 위의 책, 522쪽.

68)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5.

화력에 의존하지 않은 점은 오작교 작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채명신 사령관은 촌락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촌락에 대한 포병 사용을 금지했다.⁶⁹⁾ 이는 한국군 전술이 주민 보호를 우선시하며, 화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군의 소부대 전술은 화력과 헬리콥터 기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으며, 작전 초기에는 헬리콥터를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도보 이동과 중대 기지 설치를 통해 장기간 지역 내에 주둔하며 작전을 수행했다.

이처럼 한국군 중대는 미 관찰단이 평가한 미군식 전술의 우수한 적용에 더해, 미군과는 다른 전술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대부대 작전에서도 한국군 소부대의 수색 및 정찰 전술과 기술이 적 병력과 무기를 찾아내고 격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모든 미 관찰관들이 동의했다.⁷⁰⁾ 한국군 중대의 할당된 작전 지역은 미군에 비해 훨씬 작았다. 그 이유를 관찰단은 “한국군 고급 지휘관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략적으로 훑어가는 것보다 소부대가 좁은 지역을 엄밀히 수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로 추측했다.⁷¹⁾ 실제로 한국군 대대는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 약 3~4km²의 지역을 수색한 뒤, 며칠 후 동일한 지역을 다시 수색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했다.⁷²⁾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군은 단순히 작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기보다는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중대 단위로 서로 다른 소대들이 동일한 지역을 여러 차례 수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촌락

69)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93쪽; 김치호 증언, 1980년 7월 18일, 위의 책, 142쪽.

70)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전투상보』 1967. 3~5, HB00016.

71) 위의 책.

72) 위의 책.

에 대한 포위 및 수색 작전에서도 한국군은 며칠 후 같은 촌락을 다시 찾아가 추가 작전을 수행하는 접근법을 사용했으며, 이 점에서 미 관찰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높은 교환비와 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군은 비교적 협소한 지역을 베트콩이 완전히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색을 반복하며, 지역 수색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고 또한 한국군 병사는 사냥꾼이 그의 목표물을 찾아 추적하는 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⁷³⁾

이에 더해 미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매복 전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들은 한국군의 매복 전술을 분석한 결과, 미군의 매복 부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국군의 매복 전술의 효율성을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지휘소를 야간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관찰단에게 한국군의 대범함을 인상 깊게 남겼다. 오작교 작전 이전에 수도사단의 맹호 11호 작전을 참관한 미 관찰단은 한국군이 야간 작전에 능숙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⁷⁴⁾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뛰어난 소부대 전투 수행 능력과 더불어, 한국군 자체의 우수성을 한국군의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첫째, 관찰단은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병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전에 대해서는 중대원 전부가 숙지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⁷⁵⁾ 둘째, 한국군을 엄정한 규율을 지닌 군대로 평가했다. 관찰단은 “규율은 한국군에게

73) 위의 책.

74) 위의 책.

75)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DTIC.

제2의 본성이며, 병사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쾌활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았다. 비록 이러한 맹목적인 복종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찰단은 한국군이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평소 훈련된 대로 대응할 수 있기에 이러한 규율이 작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⁷⁶⁾ 셋째, 관찰단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군은 베트남 전선에서 보기 드물게 매우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부대였다. 보고서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항상 열정적이었으며, 명령에 대한 쾌활한 복종,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개별 병사 수준에서의 공격적인 태도가 한국군 부대의 예외적으로 높은 사기를 이끌어냈다”라고 강조했다.⁷⁷⁾ 이처럼 관찰단은 한국군을 “미군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보병 고유의 기본적 전술에 여전히 능숙한 훌륭한 전사”로 여기며, 한국군의 전술적 능력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⁷⁸⁾

한편, 한국군의 군사작전 성공 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약점도 지적했다. 관찰단은 화력 활용 부족을 한국군 작전의 주요 약점으로 꼽으며, 한국군이 대규모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관찰단은 “[한국군의] 작전 중 공중 및 포병 지원 화력은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했으며,⁷⁹⁾ 한국군 상급 부대에 배치된 미 연락장교들 역시 “[작전 기간 동안] 한국군 지휘부가 근접항공지원이나 AC-47 건설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전혀 관찰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했다.⁸⁰⁾ 이러한 현상은 한국군이 적 주력과 직접 교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화력 지원을

76) Ibid.

77) Ibid.

78) Ibid.

79) Ibid.

80) Ibid.

요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부대 지휘관들이 실제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관찰되었다.⁸¹⁾ 관찰단은 이를 두고 “미군의 관점에서 이것은 한국군의 명백한 전술적 약점이며, 그들이 적의 대부대 부대를 만났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⁸²⁾ 또한 관찰단은 신호 장비의 부족과 화력 사용의 결점도 한국군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문제로 지적했다.⁸³⁾ 결과적으로, 대부대 정규전 양상의 군사작전에서 필요한 화력 활용 능력의 부재와 결점이 한국군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관찰단의 지적은, 한국군이 작전 수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되었다.

다만, 미 관찰단의 평가는 한국군의 화력 의존도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활용의 미숙함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미군의 평가는 주월한국군이 7월 9일 홍길동 작전을 개시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한국군 작전 지역의 외곽에서 한국군이 시도한 첫 번째 주요 탐색격멸 작전”⁸⁴⁾으로 평가받은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대부대 작전에서 강력한 화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전투상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오작교 작전까지 특정 지역에서 적의 주력을 수색한 후 기지 건설, 민간인 보호, 영토 확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홍길동 작전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여섯 개의 작전 구역을 설정한 후, 첫 번째 작전 구역에서 작전을 시작하여 [첫 번째 구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 기동 및 지상 이동을 통해 두 번째 및 세 번째 구

81) Ibid.

82)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HB00016.

83) 위의 책.

84)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역으로 이동했다.⁸⁵⁾

작전명처럼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헬리콥터를 활용해 적을 신속하게 찾아 격멸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동시에 채명신 중장이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도로, 포위망을 형성해 그 안의 적을 화력으로 타격하려는 작전 개념 아래 탐색격멸을 실시했다. 특히, 채명신은 기존과 달리 촌락에 대한 포병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력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작전 기간인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적 주력과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의도했던 적 주력 격멸에는 실패했다.⁸⁶⁾ 이는 적이 미리 회피함으로써 탐색격멸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길동 작전은 적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의 안정화와 평정에 기여한 군사작전이었다. 전투상보의 내용과 유사하게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의 회의에서 한국군 대표가 “[홍길동] 작전의 성공은 개별 병사의 공격성과 우리가 사용한 야간의 매복 기술 덕분이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⁸⁷⁾ 한국군은 대부대 작전에 있어서 소부대 작전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했다. 결국, 홍길동 작전 역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소부대들의 전투 성공으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한국군 대부대 작전의 핵심은 소부대 작전에 있었다. 한국군 소부대는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성과 대부분을 이끌어냈다. 이들 작전이 군단급 대부대 작전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85)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작전』, HB00106.

86) 위의 책.

87) 위의 책;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수행 과정에서는 중대급 이하 소부대가 수색, 정찰, 매복 등 소부대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진행되었다. 두 군사작전을 지휘했던 수도사단장 유병현 소장 역시 소부대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에서의 전투 단위부대는 대대가 아니라 중대가 되어야 하며 중대의 전투 능력이 작전 승패에 중대한 요소라는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밝혔다.⁸⁸⁾

5. 맺음말

주월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본질적으로 소탕 작전이었다. 대부대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적의 격멸보다는 지역 내 잔적 소탕과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부대가 수행한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작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바로 한국식 소탕 작전의 핵심이었다. 미 관찰단이 높이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군은 병사 개개인의 우수성과 탁월한 소부대 전투 수행을 바탕으로 대부대 작전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성과는 원래 지역 내 소탕 작전을 담당하는 남베트남 정규군의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투 능력과 맞물려, 한국식 소탕 작전이 동맹군의 군사작전 임무 분장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한국군의 독특한 대부대 군사작전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한국군은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려는 내부 목표를 실현

88) 유병현, 앞의 책, 103쪽.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소탕 작전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맹군의 전쟁 목표인 평정에도 기여함으로써 한국군 주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소부대 전투 중심의 대부대 군사작전이었기에 전투 강도를 높이지 않고도 군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전쟁 후반기 ‘베트남화’ 과정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이 대부대 군사작전의 빈도를 오히려 증가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⁸⁹⁾ 이 시기 한국군은 대부대 군사작전의 빈도를 증가시키며 전쟁 기여를 지속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사기와 군기를 재정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정치적·전략적 수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였다.

한국식 소탕 작전은 남베트남군과 동맹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이 적 주력 격멸에 한계를 드러냈고,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한국식 소탕 작전은 군사적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소모전 양상의 베트남 전쟁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의 전략 목표인 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군의 탐색격멸 작전이 적군에 누적된 피해를 축적함으로써 이후 이 지역에서의 한국군 소탕 작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

89)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심호섭,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주월한국군의 인식과 대응」, 『백산학보』, 제120호, 2021, 329-357쪽.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연합전역계획에 따라 각국 군대가 체계적으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면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남베트남 정부의 유지와 평정을 목표로 한 대반란전이자 방어적 소모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효율적인 군사작전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 9사단. 『전투상보 제 35호: 오작교 작전』. 1967. HB00010.
-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전투상보』 1967. 3~5. HB00016.
-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1967. HB00106.
- 주월사령부. 「199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보고서」. HB02338.

나.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 (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 10th Combat Aviation Battalion. “After Action Report – Operation HONG KIL DONG.” 12 September 1967. Folder 17, Box 4, Richard Detra Collection.
-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Folder 14, Box 5, Larry Berman Collection.
-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6 September 1967. Folder 2, Box 2, Veteran Members of the 109th Quartermaster Company Collection.

- Memorandum from W. Robert Warne to Mr. Puritano. "Paper Describing RD/Pacification." 6 June 1967. Reel 2, Johnson National Security Files (microfilm).
- "Summary of USMACV News Events, 1966." 14 January 1967. Folder 1, Box 0, Bud Harton Collection.

다. National Archives II (NARA II), College Park, MD

-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라.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1 January 1967." 11 March 1967. AD390962.

마. 기타

-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2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3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2. 연구서

- Dougher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 Lasen, Stanley Robert, and Collins, James Lawton.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MacGarrigle, George L.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 Sharp, Ulysses S. Grant, and Westmoreland, William C.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Shim, Hosub. “Journey to Equ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in the Vietnam War.”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9 (2022): 391–422.
-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군사』 120호 (2021): 79–130.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ROK Forces'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in Vietnam

— Focusing on the 1967 Operations of Oh Jac Kyo and Hong Kil-dong —

Shim, Ho-Sub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condu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By focusing on the 1967 Oh Jac Kyo and Hong Gil-dong operations,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large-scale operations of the ROK forces were clearing operations, not U.S.-style search and destroy missions. As U.S. observers highly praised, the ROK forces achieved notable success in these operations, largely due to small-unit tactics such as reconnaissance and ambushes. This unique approach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the ROK's conduct of the war, as it not only contributed to the strategic goal of pacification in the Vietnam War but also fulfilled the ROK forces' internal goal of achieving maximum results with minimal casualties.

Keywords: Vietnam War,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Operation Oh Jac Kyo, Operation Hong Gil-dong, Search and Destroy, Clearing, Securing, Pacific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399-436
<https://doi.org/10.29212/mh.2024..133.3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전략과 '정부정치'의 동학* -

류인석 |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부분철수 결정(1969-1970): 전략적 합의
 4. 추가철수 논의(1970-1972): 국방부의 군사적 논리 우세
 5. 추가철수 중단(1972-1974): NSC의 정치적 논리 우세
 6. 결론

초 록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다른 시기의 철수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 관련 연구도 닉슨독트린이라는 전략적 변화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에 집중했으며, 철수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고찰은 미흡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지상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이 매우 컸으나, 왜 부분감축으로 종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되었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정부정치 모델'을 적용하여 추가감축이 중단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NSC)과 레어드 국방장관(국방부) 간의 정부정치적 동학이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닉슨 대통령은 두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군사적 논리에 따라 전면철수의 가능성이 컸으나, 미중 데탕트가 시작되고, NSC의 추가철수반대 논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추가철수는 중단되었다. 이 논문은 주한미군 재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정부정치 모델, 한미동맹

(원고투고일 : 2024. 9. 3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서론

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점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전력 고도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도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위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에 방점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칙기반 세계질서 구상과 동맹네트워크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면서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견고함 이면에는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적인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연루와 방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러한 동맹 딜레마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상당한 감축을 단행했다. 철수 시도 때마다 한국은 완전철수 가능성을 우려했고, 사전 협의나 소통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의 일방적 태도도 문제였지만, 한국이 미국의 입장과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확대되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주한미군 철수 사례

중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닉슨 행정부의 철수정책 결정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철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철수정책 과정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미흡했다.¹⁾ 특히 많은 연구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의 구현을 위해 계획된 대로 1개 사단이 철수되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 말기에 검토했던 핵무기 및 지상군의 완전철수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려 했다.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감축과 달리 주한미군은 완전철수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며, 당시 동북아와 한반도 상황은 데탕트, 남북대화, 주월 한국군 복귀 등 철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왜 철수정책이 부분감축으로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²⁾

지금까지 추가감축 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과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중 닉슨-키신저(Henry A. Kissinger)의 외교정책은 “다른 수단에 의한” 봉쇄전략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는 처음부터 의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³⁾ 대표적으로 남주홍은 레어드

1)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신옥희,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2호(2005); 차상철, “박정희와 1970년대의 한미동맹,” 『軍史』, 75집(2010).

2) 이 논문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의미하며, 전면적인 철수란 2개 완편 사단의 철수에 해당한다. 철수와 감축은 완전철수와 부분철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 완전철수는 지상군의 전면철수를 의미한다.

3)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직접 다루지 않으나, 닉슨독트린을 봉쇄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한 연구로는 Raymond L.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Doug Bandow,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Melvin R. Laird) 국방장관이 제안한 주한미군 추가감축안에 닉슨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닉슨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시아 전역에서의 완전철수 계획을 부인한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⁴⁾ 그러나 닉슨의 회고록은 아시아 전반에 대한 완전철수 계획을 부인한 것일 뿐,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완전철수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아닌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

또 다른 가설은 남북관계가 대화에서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결정한 후 발표한 공식성명과 관료들의 의회 청문회 발언 등에서 북한의 위협이 주요하게 언급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⁵⁾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검토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단일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이 주한미군 추가감축 중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⁶⁾

in a Changed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4) Nam Joo Hong,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5) 1973년 3월 16일,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3월 26일에는 리처드슨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이 대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구영록·배영수, 『한미관계 1982-1992』(서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82).

6) 미국의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논문의 3장, 4장, 5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추가감축 중단의 원인을 키신저와 레어드 간의 영향력 경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버도퍼는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 감축 이후, 레어드가 주한미군 2사단을 1개 여단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키신저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이를 막았다고 간략히 언급했다.⁷⁾ 이채진과 사토 역시 당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며, 키신저가 레어드의 추가감축 계획을 저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 근거보다는 추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닉슨독트린의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와 전략 중심의 관점에서 철수정책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추가감축 종료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차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접근이 부족하며, 전략의 적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 미흡했다.

이 논문은 “왜 계획된 완전철수 대신 부분감축으로 중단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전략중심의 접근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정치 모델’(governmental politics model)을 적용해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총괄했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이 문제를 레어드 국방장관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관료적 이익”(the most important bureaucratic benefit)이 걸린 사안으로 간주했다.⁹⁾ 따라서 이 논문은 대통령과 안보 관련 각 부서의 수장들이 주한미군의 정

7) Don Oberdorfer, *The Two Korea: A Contemporary History, New Edition*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p. 86.

8) Chae Jin, Lee and Hideo, Sato, *U. 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New York: Praeger, 1982).

9)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K. Wayne Smith, Five-Year Korea Program, July 30, 1971, H-227, NPM.

치적,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추가감축 종결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일차자료를 활용하여 관료들 간의 논쟁이 닉슨 대통령의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추적적 방법을 적용하였다.¹⁰⁾

정책결정 과정은 주한 미 7사단 철수결정, 추가감축 논의, 추가감축 중단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3장에서는 닉슨독트린의 구현 차원에서 부분적 철수에 대한 전략적 합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4장과 5장에서는 추가감축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 중심의 군사적 논리가 우세했던 상황과, NSC의 정치적 논리가 우세했던 상황을 고찰하여 추가감축 중단 결정과정을 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었다.

2. 이론적 논의

가. 정부정치 모델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는 엘리슨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저서 *Essence of Decision*에서 제시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조직과정 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 정부(관료)정치 모델(Governmental or Bureaucratic

10) 과정추적적 방법이란 독립변수와 관찰된 결과간의 사건의 시간적, 그리고 가능케 하는 인과적 순차(sequence)를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Andrew Bennett and Alexander L. George, "Case Studies and Process Tracing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Similar Strokes for Different Foci", in Colin Elman &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Mass.: MIT Press, 2001).

Politics Model)을 차용해왔다.¹¹⁾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를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며, 국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반면, 조직과정 모델과 정부정치 모델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직의 표준화된 행동 절차나 규칙,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추구하는 이익의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부정치 모델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이 모델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한을 가진 참여자들이 정치적 흥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물로 본다. 즉, 외교정책과정을 정책결정참여자(player) 간의 “정치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²⁾

국가 중심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주로 대통령과 같은 최고 지도자의 정책결정 권한을 가장 중요시하며, 정책결정 과정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¹³⁾ 실제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관료정치의 역학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정부정치 모델은 대통령의 정책결정 권한도 관료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대통령 자신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대통령과 관료들 간의 관계에 관한

11)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1ed (Boston: Little Brown, 1971).

12) Graham T. Allison(1971), pp. 144-147.

13) 뉴스테드는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 사무원(clerk)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흥정 과정에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ichard E. Neustadt, *Presidential Power, The Politics of Leadership*, New York: Wiley, 1960.

14)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델은 뉴스테드의 *Presidential Power*에서 대통령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정책결정과정의 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모델을 발전시켰다. 앞의 책(1971), pp. 147-155.

정교한 이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관료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정책 결정자 중 하나로 간주하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¹⁵⁾

앨리슨과 젤리코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발행된 *Essence of Decision*의 2차 개정판에서 ‘정부정치’ 모델을 보완하였다.¹⁶⁾ 개정판에서 관료정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을 관료의 범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관료정치 모델은 조직과정 모델의 논리적 연장에 불과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¹⁷⁾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개정판은 부서의 수장들은 단순히 관료조직의 “대표선수”라기 보다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앨리슨은 수정된 ‘정부정치’ 모델에서 ‘경기자’(playe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 가지 전략적 사안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일관된 전략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국가, 조직, 개인의 목표에 따른 다양한 신념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셋째, 단일한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밀고 당

15) 크래스너는 관료정치 모델이 관료들의 입면권자이자, 최종 정책결심자인 대통령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앨리슨 모델의 한계를 강조한 바 있다. Stephen D. Krasner, “Are Bureaucracies Important? (Or Allison Wonderland),” *Foreign Policy*, No. 7 (Summer, 1972). 로자티는 대통령과 관료 간의 정책결정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 우세, 관료 우세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Jerel A. Rosati, “Developing A Systematic Decision-Making in Bureaucratic Politics in Perspective,” *World Politics*, Vol. 33, No. 2, 1981.

16) Graham T.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d ed)*, New York: Longman, 1999. (김태현 역). 『결정의 본질』, 파주: 모던아카이브, 2018.

17) 앞의 책(2018), pp. 472-473.

기기 과정을 통해 결정을 도출한다.¹⁸⁾

앨리슨의 정부정치 모델은 대외정책,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가, 정부, 개인의 이익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틀로 적합하다.¹⁹⁾ 다만, 수정된 정부정치 모델도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⁰⁾ 또한, 관료집단은 국가 전략과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상황과 사안에 따라 특정 관료집단이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핵심 부서(NSC와 국방부)의 선호와 이익이 어떻게 대립하고 경쟁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하여 결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 닉슨 행정부의 안보정책 결정구조

1960년대 말, 미국은 냉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유럽 및 일본의 경제적 부상이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은 국내정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닉슨 대통령은 기존의 대소 봉쇄전략을 수정하여 새로운 세계전략을 모색하고

18) 앞의 책(2018), pp. 293-294.

19) 앨리슨은 개정판에서 '국가안보 이익'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이 있으나, 특정 사안에 안보이익이 얼마나 걸려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조직, 국내정치적 이익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책(2018), p. 349.

20) 로자티는 앨리슨의 개정판에 대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행태 모델이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고 풍부한 문헌 검토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정치 모델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Jerel Rosati Reviewed Work(s):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y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30, No. 2 (2000).

자 했다. 이를 위해 닉슨은 세력균형에 정통한 학자 출신인 키신저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고, 노련한 정치감각을 지닌 레어드 하원의원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하여 안보라인을 구축했다. NSC는 세계전략 및 해외 군사력 재배치 등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NSC 산하의 조정위원회(NSC Steering Committee), 검토위원회(NSC Review Group), 그리고 차관위원회(Under Secretary's Committee)는 국무부, 국방부, CIA, 합참 등 각 부처의 입장과 이견을 조율하는 실무적 기능을 담당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분야를 주도했다고 평가한다.²¹⁾ 그러나 닉슨 독트린의 실행에 있어 레어드 국방장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국방 분야에서 레어드는 전문성과 정치적 노련함에서 키신저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NSC에서 국방 관련 업무를 맡았던 오딘(Philip A. Odeen)은 키신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 레어드와 맞서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NSC 국장으로 키신저의 신임을 받았던 로드(Winston Lord) 역시 레어드를 키신저보다 훨씬 노련한 관료로 묘사하며, 키신저가 레어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²²⁾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레어드가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

21) 대표적으로 리트윅은 레어드의 영향력이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는 단지 각 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Robert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2)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oject, Oral History Roundtab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at University of Maryland & The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8, 1998.

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언급했다.²³⁾ 또한, 그는 레어드와 대결하려 했지만, 승리한 만큼 잃은 것도 많았다고 회고하며, 국방 문제를 다룬 장에서 전략핵, 전술핵 교리, 닉슨독트린 등 다양한 사안에서 레어드와 협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 문제를 둘러싼 키신저와 레어드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했다.²⁴⁾

닉슨 대통령 역시 닉슨독트린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태세 조정을 추진하는 데 레어드를 선봉장으로 활용하려 했다. 분명한 것은, 일반 목적군과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키신저와 레어드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과 집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닉슨 대통령이 정책을 논의할 때 공개적인 회의보다는 은밀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선호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²⁵⁾

부처 간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서는 주로 정치적, 군사적 논리가 논쟁과 검토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닉슨 행정부 이전 시기의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는, 대체로 국방부와 군부는 군사력 강화와 해외배치를 선호했고, 국무부는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중시했으며, NSC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

23) Henry A. Kissinger,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Brown, 1979, pp. 17-33.

24) 레어드는 1999년 1월 24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수행한 인터뷰에서 키신저와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때로는 자신이, 때로는 키신저가 이긴 경우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gwu.edu/~nsarchive/coldwar/interviews/episode-16/laird4.html>.

25)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참모와 각료들과 나눈 대화 및 전화 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도록 지시하여, 약 2만 개에 이르는 녹음 테이프가 제작되었다. 그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종종 술에 취한 상태로 주요 현안을 참모들과 전화로 논의하곤 했다. 류인석,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 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국방연구』, 64권 3호(2021), p. 3.

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상황에 따라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교부서는 안보정책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고려하여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방부와 군부도 군사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효율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해외 군사개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관련해서는 키신저 안보보좌관과 레어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NSC와 국방부 간의 정부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우선 양 부서의 리더 간의 안보정책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닉슨독트린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부처별 이익과 연관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NSC는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반면,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삭감 상황에서 군사적 효율성을 기하고, 베트남전과 같은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키신저와 레어드 간의 개인적 영향력 경쟁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투철한 현실주의 세계관과 정치력을 지닌 닉슨 대통령으로서도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던 국무부는 대체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관료 정치적 이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26) Kim Chul Baum, 1984, "US Withdrawal Decision from South Korea 1945-1949,"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이철순. 2000.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마상윤. 2003. "미완의 계획 :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2호.

취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군 부내에서는 합참과 육군이 상이한 입장을 취했다. 합참은 성급한 철군에 회의적이었으나, 육군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국방부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3. 부분철수 결정(1969-1970): 전략적 합의

1960년대 후반,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포함한 대한(對韓)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다. 1968년 2월에 작성된 국무부의 ‘대한정책’(US Policy toward Korea)에서는 1975년까지 핵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FY72: 2사단 철수, FY73: 7사단 철수, FY75: 핵무기 철수).²⁷⁾ 이러한 판단은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청와대 습격과 푸에블로 호 납치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제2의 베트남 전쟁”에 개입될 우려와, 과도한 지상군이 한국에 고착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보고서는 닉슨 행정부에 그대로 인계되었고, 닉슨의 의도와 부합하였기 때문에 당시 완전철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²⁸⁾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검토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기 전부터 중요한 정책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

27) “US Policy toward Korea,” Department of State Policy Planning Council, June 15, 1968,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p. 435.

28) Memorandum from Under Secretary of State (Katzenbach) to President Johnson, December 23, 1968,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pp. 455-458.

철수 문제는 1개 사단 감축, 2개 사단 감축, 2개 사단 잔류의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NSC 조정위원회는 존슨 행정부의 ‘대한정책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철수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군 16개 사단을 현대화하고 공군을 강화함으로써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은 당시 한국군은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²⁹⁾

해외배치 군사력 재조정과 한반도 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은 핵 공격을 제외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는 기조의 전략구상을 발표했다. ‘닉슨독트린’으로 불리게 된 이 원칙은 미국의 전면적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약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따라서 이는 ‘봉쇄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전략으로 평가됐다.³⁰⁾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내 반전 여론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 압력은 군사력 감축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군사전략의 변화를 필요로 했다.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 초기부터 국방력의 급격한 감축이 소련의 위협 감수 행위를 증가시키고,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긴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닉슨은 이러한 키신저의 견

29) Memorandum, NSSM 27 Related, Korean Force Structure and Program Package Options(Includes List of Revisions Entitled ‘Revised Posture 4’) May 9, 1969, NSA, PR00391.

30) 스페니어는 닉슨독트린을 “다른 수단에 의한 봉쇄”라고 명명했다. John,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12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2.

해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비 판세력이 군사계획 전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닉슨은 국방비 삭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이러한 압력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 했다.³¹⁾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FY68의 780억 달러에서 FY74 기준 74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구매력 기준으로 약 37.2% 감소한 수준이었다.³²⁾

이러한 전략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기존의 소련(유럽)과 중국(아시아)으로부터의 동시 공격과 소규모 분쟁을 가정한 ‘2-1/2 전쟁’ 전략을 중국을 위협으로 전제하지 않는 ‘1-1/2 전쟁’ 전략으로 전환했다.³³⁾ 주한미군 철수는 해외배치 군사력 재조정의 일환으로 검토되면서,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다음으로 닉슨독트린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간주되었다.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기초가 정해지면서 대통령이 참석한 첫 번째 한국 관련 NSC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³⁴⁾ 이 회의에서 레어드 국방장관은 한국군은 미국의 해·공군과 군수 지원하에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미군이 증원되기 전까지 북·중 연합공격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슨(Elliot Richardson) 국무차관은 2개 사단이 한국 방위에 고착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군을 미군의 표준대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

31) Kissinger, 1979, pp. 212-213.

32) Lawrence J. Korb, *The Fall and Rise of the Pentagon: American Defense Policies in the 1970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9, pp. 26-50.

33)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U.S. Military Posture, October 2, 1969, NSC Institutional Files, NPM.

34) NSC Meeting(San Clemente) 8/14/69 Briefings :Korea, China(1 of 3), August 14, 1969, H-23, NPM.

조했다. 합참만이 성급한 철수로 인해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대다수 부처는 지상군의 완전철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주한미군 철수 검토과정에서 닉슨은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다수의 발언과 메모 그리고 참모들과의 통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닉슨은 NSC참모들에게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내앞에 가져오라” 식의 지시를 자주 내렸다.³⁵⁾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닉슨독트린의 ‘시금석’(test case)으로써의 상징적 가치가 컸을뿐만 아니라, 닉슨은 과도한 규모의 지상군이 한국에 고착되어 있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⁶⁾

1970년 3월 4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는 FY73까지 1/3개 사단 규모로 추가 감축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결국 1970년 3월 20일, 닉슨 대통령은 ‘국가안보결정 비망록’(NSDM 48)을 승인하면서 우선적으로 1개 사단(7사단)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³⁷⁾ 철수 결정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국이 이에 대해 순응할 것이라고 전제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지상군 주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닉슨독트린의 첫 단계로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에 대해서는 큰 논쟁 없이 전략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감축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었다. 닉슨독트린의 기초가 아시아에서의 완전철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한미군

35) Memorandum for Henry Kissinger from the President, November 24, 1969, Box 341, NPM;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enry A Kissinger, Subject: General Wheeler on His Conversation with President Park of Korea, November 25, 1969, H-041, NPM.

36) 자세한 내용은 류인석(2023), pp. 22-26 참조.

37) U.S. Program in Korea, NSDM, March 20, 1970, H-139, NPM.

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사실상 배치와 운용이 매우 유동적인 일부 해·공군을 제외한 2개 사단의 철수는 완전철수와 동일한 의미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관료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³⁸⁾ 키신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닉슨은 북한에 대한 억제는 해·공군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고, 추가적인 지상군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레어드는 닉슨독트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관철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 했다.³⁹⁾

4. 추가철수 논의(1970-1972): 국방부의 군사적 논리 우세

주한미군 7사단을 중심으로 2만 명 감축 결정 직후부터 추가 감축 논의는 지속되었다. 다만 추가감축의 규모와 시기는 닉슨독트린의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닉슨독트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무엇보다도, 닉슨독트린은 정치적

38)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NSC Meeting on Korea, March 3, 1970, Senior Review Group Meetings, H-027, NPM.

39) 당시 전략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핵전력과 재래전력에 관한 것으로 키신저와 NSC 참모들의 감독 하에 진행된 각료간의 연구였지만, 연구의 구상과 행동은 주로 국방부내의 체계분석실(Office of System Analysis)의 책임 하에 있었다. Laurence E. Lynn Jr. "Arm Waving at the Arms Race: A Review: The Price of Defense, by the Boston Study Group," *International Security*, Vol. 4 No. 1, (1979).

공약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공약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은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에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상충적 의미를 담고 있다.⁴⁰⁾ ‘특히 1/2 전쟁전략’은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상황을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포함되면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함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닉슨독트린은 개별 사안에 적용될 때 그 해석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컸으며,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는 여전히 NSC와 국방부 간 전반적인 국방정책에 관한 영향력 경쟁의 사안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키신저는 닉슨독트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반면, 레어드는 닉슨독트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닉슨 자신도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군사력 태세의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키신저는 재래전력의 약화는 억제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⁴¹⁾ 이에 따라 키신저는 레어드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닉슨에게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제기했다.⁴²⁾

40) 키신저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로드는 키신저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닉슨독트린은 모호한 대전략으로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 방어선과 같은 쓸모없는 구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Memorandum for Dr. Kissinger, January 23, 1970, Director's Files (Winston Lord), NPM.

41) Kissinger(1994), pp. 708-709.

42)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Secretary Laird's Proposal, November 25, 1970, H-101, NPM.

이러한 키신저의 추가감축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의 완전철수 논의가 구체화되어갔다. 1970년 11월, 레어드는 닉슨 독트린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전략을 종합하여 ‘현실적 억제전략’(Strategy of Peac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Realistic Deterrence)이라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⁴³⁾ 현실적 억제전략이 국방정책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GNP의 7% 수준으로 국방비를 제한하고 병력을 250만 명 규모로 축소하는 방침이 승인되면서, 군사력 감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현실적 억제전략은 주한 미지상군 철수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레어드는 동맹에 대한 “핵보호(nuclear shield)”를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누어, 억제 목적으로 전술핵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술핵 사용 상황은 북한의 단독공격에 해당하는 ‘소전역 전쟁 억제’(deterrence of sub-theater warfare)에 해당하며, 레어드의 전략개념은 닉슨독트린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 지침에 근거하고 있었다.⁴⁴⁾

레어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군사개입을 해야 하고 추가전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를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했으며, 이를 군사전략의 문제로 판단했다. 그는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육군 중심의 접근보다는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도서방위 역량(offshore capability)’에 중점을 두어야 한

43)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Strategy for Peac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Realistic Deterrence, November 6, 1970, DDRS

44) NSC는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레어드의 계획이 닉슨독트린의 기조와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Memorandum for Dr. Kissinger from K. Wayne Smith, DPRC Meeting Scheduled for March 22, 1971, H-102, NPM.

다고 강조했다.⁴⁵⁾

이에 따라 레이드는 미국의 국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체 전력’(Total Force)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징병제 폐지로 인한 병력부족을 예비군과 주 방위군을 통합하여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맹의 방위책임을 증대시키고 미 지상군 투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⁴⁶⁾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동맹 및 우방국들에게 군사판매와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상군 투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이 레이드의 새로운 전략과 정책개념은 닉슨독트린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로 행정부 내에서는 닉슨독트린의 기조와 닉슨의 의중을 고려해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국방부와 육군은 조속한 추가감축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NSC와 합참은 국방부안에 반대했으며, 국무부는 추가감축의 원칙에는 국방부와 동의하지만 성급한 감축에 반대하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추가감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육군이었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군사력 감축뿐 아니라 한국을 닉슨독트린의 가장 적합한 시험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감축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당시 국방부는 아시아에서의 감축계획으로 ‘현재 계획(Current Program)’, ‘축소 계획(Reduced Program)’, ‘저수준 계획(Low Program)’, ‘군사지원 계획(Military Assistance Program)’ 4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안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은 ‘현재 계획’과 ‘저수준 계획’ 안이다. ‘현재

45) Melvin Laird, “A Strong Start in a Difficult Decade: Defense Policy in the Nixon-Ford Years,” 1985, p. 6.

46) Defense Report for Fiscal Year 1972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March 9, 1971, p. 77.

계획’은 FY71년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군하고 FY73년에 2/3개 사단 철군(1개 여단만 잔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저수준 계획’은 더 급격한 감축안이다. 한국에서의 2/3개 사단의 추가감축을 FY73년이 아니라 FY72년으로 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감축은 사실상 ‘NSDM- 27’의 ‘전략 1’ (“중국에 대한 지상군 전력 지원 없음”)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키신저는 추가감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키신저는 추가감축이 억제력을 훼손하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정치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의 철군과 더불어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철군하는 것은 동맹국에 미국의 “이탈”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향후 수년 안에 추가철군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⁸⁾

NSC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둔을 주장했던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나 의도가 증대되었다거나 한국군이 심각하게 군사적 열세에 있다는 군사적 고려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NSC는 향후 5년간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북한의 도발 및 테러행위, 북한 단독의 전면공격, 북중연합 공격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첫 번째가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SC는 한국군 지상전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미 지상군의 철수 자체가 군사력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한 전쟁 재발 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강조하였다.⁴⁹⁾

47) DOD Summary: Defense Planning 1971-76, July 16, 1970, H-100, NPM.

48)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US Programs in Korea, March 14, 1970, H-215, NPM.

49) HAK Talking Points, DPRK Review of Defense Posture, July 17, 1970, H-101, NPM.

이와 같이 한국은 베트남에서의 감축 외에 유일하게 대규모의 일반목적군 감축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방부와 NSC 간의 전략과 예산문제에 관한 첨예한 논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⁵⁰⁾ 특히 아시아로부터 지상군의 철수라는 닉슨독트린 기조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문제는 아시아 전략 논의의 핵심의제로 거론되고 있었다.

특히 레어드는 NSC가 국방예산 분야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이 컸고, 키신저는 레어드가 주한미군 문제를 통해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려 했다. 당시 국방계획절차는 NSC에 의해 수립되고 닉슨에 의해 승인된 전략지침 및 예산지침에 따라 국방부에서 각 군으로 예산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초기의 과도한 예산요구를 제한하고 국방부 예산절차의 일정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군부의 관료적 이해에 따라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⁵¹⁾ 특히 전반적인 국방비 감축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상군의 해외배치 주둔 비용을 절감해야 할 요구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분감축 이후 키신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레어드의 군사력 감축계획은 지속되었고 여기에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닉슨은 레어드의 군사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키신저의 반론을 배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닉슨은 부분철군의 군사적 논리의 대세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급한 추가감

50) Memorandum for Bob Holdeman from Al Haig, Subject: Priority Programs, June 9, 1970, Haig File, Box 967, NPM.

51) Martin Binkin, "Support Costs in the Defense Budget: The Submerged One-Third", Brookings Institutions Staff Paper, 1973, pp. 28-29

축이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닉슨독트린 적용의 핵심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닉슨은 일단 중간지침을 통해 철수의 시기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궁극적으로 추가감축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신저와 레어드 간의 추가감축에 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5. 추가철수 중단(1972-1974): NSC의 정치적 논리 우세

닉슨독트린의 확대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고려가 부각되었다. 닉슨독트린이 소련 봉쇄의 책임을 지역별로 분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미중 데탕트는 그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1971년 7월, 키신저의 비밀 방중과 닉슨의 방중 계획 발표로 인해 미중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동북아 차원에서 미중 데탕트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새로운 관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지역 내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각자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대외관계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일본은 미중관계 개선보다 더 빠르게 1972년 후반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소련 또한 미중관계 개선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

했다. 한반도에서도 데탕트가 확산되었다. 남북한은 강대국 간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남북 대화를 활용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동북아 각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동북아 질서는 경직된 양극 체제에서 보다 유연해진 강대국 간 관계로 재편되어 갔다. 특히 미중관계 개선은 기존의 중국 봉쇄전략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 주변부에서의 군사력 철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의 근본 방향은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력을 줄이면서도 핵 억제력과 동맹국의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통해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중관계 개선은 닉슨독트린 적용에 있어 딜레마를 야기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서막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키신저와 레이드의 닉슨독트린과 억제전략에 관한 의견대립은 지속되었다. 레이드는 1974년까지 주한 2사단을 1개 여단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⁵²⁾ 이에 따라 기존의 FY73년까지 감축 계획이 1년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주한 미 2사단은 전반적인 군사력 감축의 주요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레이드는 한국군 지상군과 미 해·공군의 분업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추가감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⁵³⁾ 국무부는 철수의 시한과 규모를 정하지 않았지만, 추가감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방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⁵⁴⁾

52)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Melvin Laird, Subject: Troop Levels in Europe and Korea, October 14, 1970, H-139, NPM.

53)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earings on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Washington, D.C. GPO, 1978) p. 89.

54) DOS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Nixon Doctrine in Korea, August 4, 1971, RG 59, DEF 6 US, Box-1824.

국방부가 계속해서 추가철수를 주장하고 국무부가 이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철수에 강하게 반대한 것은 NSC였다. NSC는 레어드의 국방지침(“아시아에서의 지상군 지원 없음”)이 ‘NSDM 48’의 전략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NSC는 군사력 규모와 관련하여 “남북한 분쟁 발생 시 미군 개입의 긴급성과 범위를 줄이기 위해 균형잡힌 방위능력을 구축한다”는 지침은 “북한의 공격 시 일정한 수준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판단했다.⁵⁵⁾

키신저가 레어드의 논리에 반대한 이유는 한국군이 충분히 현대화된 후에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결국 미국의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일정 규모의 지상군을 주둔시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레어드의 ‘총체전력’의 맥락에서 비교우위 논리는 미국의 해·공군력과 동맹국의 지상군을 결합하는 방안인데, 이는 여전히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공군만 주둔해도 분쟁 초기에 자동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닉슨은 FY73까지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FY73까지의 주둔 결정은 NSC가 계속해서 추가감축을 강하게 반대해왔고, 특히 중국과의 외교 접촉과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⁵⁶⁾ 키신저는 중국 지도부와의 초기 접촉을 통해, 동북아 질서 내에서 기존의 적대적 관계와는 다른, 주한미군이 ‘안

5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enry A. Kissinger, Five-Year Korea Program, August 30, 1971, H-227, NPM

56)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Talking Points for Your Meeting with Senators Mansfield and Scott on the Draft Bill - 3:30 p. m. Tuesday, September 14, 1971, DDRS.

정자' 역할을 용인하고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에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 레어드의 국방계획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1971년 11월, 레어드는 대통령에게 제출할 'FY74-78 국방정책 계획 지침'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력 강화와 일본의 아시아 내 군사적 역할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재래식 전력계획의 우선순위를 해상로를 포함한 NATO에 대한 전쟁,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전쟁, 동남아에서의 중국과의 전쟁 순으로 설정했다.⁵⁷⁾

NSC는 여전히 레어드가 언급한 “핵보호” 개념이 모호하며, 억제 실패 시 동맹국들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실적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⁵⁸⁾

한편, 키신저는 수차례의 비밀 방중을 통해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마오쩌둥(毛澤東)과 회담하면서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⁵⁹⁾ 키신저는 중국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내심 일본의 재무장과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북한도 주한미군이 일본의 군사화와 남한의 대북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해서 기존의 대공산권에 대한 억제와 균형의 역할을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안정을 담보하는 안정자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는 주한미군 추가감

57) Defense Support Costs-Japan, November 3, 1971, NSA, JU01459; AmEmbassy Tokyo to DOS, Subject: The US-Japan Security Relationship: Changing Japanese Attitudes, November 10, 1972, NPM.

58) *Ibid.*

59) 류인석,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한국과 국제정치』, 39권 4호(2023).

축을 원치 않았던 키신저에게는 닉슨을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키신저는 미중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반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닉슨에게 건의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1972년 4월 닉슨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 목표,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잠재적 문제, 그리고 향후 3-5년간의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대안을 발전시키도록 지시하였다.⁶¹⁾ 특히 이 문건은 남북 간의 전략적 균형뿐 아니라 중국, 소련, 일본의 이익과 목표 간의 관계 하에서 연구를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히 남북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4강 체제와 한반도와의 역학관계의 차원에서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의 FY74-78 국방계획은 해외 배치와 관련하여 아시아와 유럽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추가감축을 지속적으로 포함하는 단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었다.⁶²⁾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1972년 7월, 레어드와 세니그니어스(Senignious) 장군이 하원 해외원조 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공개되었다. 이들은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의 결과, 미군의 감축은 점진적으로 완료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FY76까지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⁶³⁾

6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Proposed NSSM on the Korean Peninsula, March 31, 1972, H-191, NPM.

61) NSSM 154: U.S.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April 6, 1972, RG 273, NPM.

62) Memorandum for HAK from Phil Odeen, Subject: DPRK Meeting on FY 74-78 Defense Program Scheduled for July 24, 1972, H-106, NPM.

63) AmEmbassy Seoul to DOS, Subject: U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September 8, 1972, RG 59, DEF 6 US, Box-1825.

그러나 미중관계 개선과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면서 추가감축 문제는 일단 FY74까지 연기되었다. 이것은 기존에 논의됐던 전반적인 국방계획에 관한 키신저와 레어드의 의견대립에 추가로 동북아 국가관계에 관한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논리는 단순히 감축의 지연이 아니라 감축 논의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단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키신저와 레어드 간의 주한미군 감축 논쟁은 “군사적 개입의 감축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라는 닉슨독트린의 기초를 구현하는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데탕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다.⁶⁴⁾ 레어드는 미중 데탕트의 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키신저에게는 미중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가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반대하는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반대 논리는 데탕트로 조성된 새로운 전략환경에서의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도 부합했기 때문에, 레어드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닉슨은 여전히 추가감축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으나, 키신저의 정치적 논리에 기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추가감축은 연기되었고, 1973년 1월 레어드의 사임 이후에는 논의가 거의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는 당시 소련이 군사력을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군사력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던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의 추가감축 문제에 있어 북한 위협 평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1973년 5월 30일 NSC의 차관위원회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은 “당장

64) 류인석,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개입 축소와 영향력 유지의 딜레마에서의 철수결정,” 『국방정책연구』, 39권 2호(2023). 리트윅은 닉슨독트린을 “military retrenchment without political disengagement”로 표현하였다. Litwak, 1984, p. 54.

(now)” 철수될 수 있지만, 아시아 전략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써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⁶⁵⁾

주한미군의 안정자 역할에 대한 미 행정부 내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정책검토에 반영된 것은 1973년 4월 작성된 ‘NSSM 154: 대한반도 정책서’이다. 이 정책서에는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체를 안정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play a stabilizing political role for the whole of Northeast Asia)고 명시되어 있다.⁶⁶⁾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세계전략의 맥락에서 검토되면서도 닉슨독트린의 독특한 군사력 감축 대상으로 상정되어왔으며 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1974년 2월 슐레진저(Schlesinger) 국방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일본에 고통을 주게 될 것이며 중국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한미군의 억제 역할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주요한 목적은 정치적이라고 증언했다.⁶⁷⁾ 이후 국방부는 FY75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했다.⁶⁸⁾

6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NSC USC, Subject: Reexamination of the Korea Force Modernization Plan, May 30, 1973, RG 59.

66) Memorandum for HAK, NSSM 154 -United States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r, April 3, 1973, RG 273, The Role of U.S. Forces, Annex A, pp. 6-7.

67) DOD Appropriations for 1975,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House of Committee on Appropriations 93:2 Part 1 (Washington D.C.: GPO, 1974), pp. 581-583.

68) 한국 정부는 미국의 FY75 국방백서를 분석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사유를 “1950-60년대 북괴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의 균형뿐 아니라 1970년대 들어와서는 강대국 세력 진출을 저지하며, 강대국 간의 대결 가능성을 감소시켜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과 긴장완화를 기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FY 75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분류번호 729.14 US, 1974, FY 75 미국 국방예산, G0035 - 03. 외무부 사료과.

6. 결론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정책이 전면철수 대신 1개 사단의 부분 철수로 종결된 것은 당시 미중 대탕트라는 중요한 전략적 환경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은 NSC와 국방부 간의 치열한 논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요구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정치적 요인이 철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1〉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정부정치적 동학

구분	NSC/국방부	대통령
부분철수 집행	전략적 합의	완전철수 의도
추가감축 검토	국방부 군사논리 우세	국방부에 경도
추가감축 중단	NSC 정치논리 우세	NSC에 경도, 추가감축 중단

〈표 1〉에서와 같이 닉슨 행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결정과정은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의 영향력 우세의 차이보다는 관료집단 간의 경쟁과 흥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닉슨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NSC의 정치적 논리를 국방부의 군사적 논리보다 우선함에 따라 추가철수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행정부 내 정책 결정의 내부 동학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언제든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대

북역제라는 한정된 역할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군 주둔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성향이 주한미군 재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패권전략은 비교적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치적 역학이 안보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외형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과 대외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 즉, 거시적인 전략적 환경과 내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학을 동시에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의 지속성은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지만,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국내정치와 관료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대한민국 외무부 사료과, “FY 75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분류번호 729.14 US, 1974, FY 75 미국 국방예산, G0035 - 03.

Library of Congress,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 (DDRS),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ixon Presidential Material(NPM), College Park, MD.

National Security Archive, Washington D.C.: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oject, Oral History Roundtab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at University of Maryland & The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8, 199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Washington D.C.: U.S. GPO, 2000.

U.S. Department of Defense, Defense Report for Fiscal Year 1972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March 9, 1971.

—, Appropriations for 1975,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House of Committee on Appropriations 93:2 Part 1, Washington D.C.: GPO, 1974.

2. 저서 및 논문

구영록·배영수, 『한미관계 1982-1992』, 서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82.

- 류인석,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_____,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 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국방연구』 64권 3호(2021): 1-25.
- _____,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개입 축소와 영향력 유지의 딜레마에서의 철수 결정”, 『국방정책연구』 39권 2호(2023): 7-41.
- _____,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한국과 국제정치』 39권 4호(2023): 37-67.
- 마상윤,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2호(2003): 1-35.
- 신옥희,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2호(2005): 253-286.
- 이철순,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8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차상철, “박정희와 1970년대의 한미동맹”, 『軍史』 75집(2010): 331-356.
-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1ed.* Boston: Little Brown, 1971.
-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 Binkin, Martin, “Support Costs in the Defense Budget: The Submerged One-Third”, *Brookings Institutions Staff Paper* 1973.
- Charlton, Michael, *From Deterrence to Defense: The Inside Story of Strategic Poli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Elman, Colin & Elman, Miriam Fendius. eds., *Bridges and Boundaries*, Massachusetts: MIT Press, 2001.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Kim, Chul Baum, “US Withdrawal Decision from South Korea 1945–1949”,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4.
- Kissinger, Henry A.,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Brown, 1979.
- _____,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 Korb, Lawrence J., *The Fall and Rise of the Pentagon: American Defense Policies in the 1970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9.
- Laird R. Melvin, “A Strong Start in a Difficult Decade: Defense Policy in the Nixon–Ford Yea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2(1985): 5–26.
- Litwak, S. Robert,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Lynn Jr., Laurence E., “Arm Waving at the Arms Race: A Review: The Price of Defense, by the Boston Study Group”, *International Security*, Vol. 4, No. 1, (1979): 117–126.
- Nam, Joo Hong,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Neustadt, Richard E., *Presidential Power, The Politics of Leadership*, New York, Wiley, 1960.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 A Contemporary History, New Edition*,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Rosati, Jerel A., “Developing A Systematic Decision–Making in Bureaucratic Politics in Perspective”, *World Politics*, Vol. 33, No. 2(1981): 234–252.

Spanier, John,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12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2.



<Abstract>

Nixon Administration's Troop Withdrawal Policy from South Korea

— Dynamics of Strategy and Governmental Politics —

Yoo, In-Seok

The Nixon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However, it has been relatively understudied compared to withdrawal policies from other periods. Particularly, given that the Nixon administration planned a complete withdrawal of ground forces and the likelihood of its implementation was high, the question of why it ultimately resulted in only a partial reduction remains unexplored. To address this question, this paper applies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partial withdrawal. The study reveals that bureaucratic factor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played a key role in shaping the policy. The contrasting political and military perspectives of Kissinger and Laird creat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President Nixon, placing him in a complex decision-making dilemma. In this context, while the possibility of a full withdrawal was high under Laird's military rationale, the advent of détente between the US and China allowed the NSC's opposition to further reductions to gain the upper hand, leading to the suspension of additional troop reductions.

Keywords: Nixon Doctrine,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Governmental Politics Model, ROK-US Allianc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37-449
<https://doi.org/10.29212/mh.2024..133.4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그들’의 전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길어올린다

-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

김상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4년 7월 25일, 일본군은 풍도에 있던 청국의 해군을 기습공격했다. 이른바 ‘풍도해전’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1년 남짓 진행되었다.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종결되기까지, 청국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아산과 성환, 평양을 비롯해서 요동까지 이어졌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지역은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중국동북부로 이어졌던 것이었다.

청일전쟁 초반의 주요 전투가 한반도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한참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자는 “그간 청일전쟁 관련 연구에서 한국은 타자의 입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라고 지적하

고 있다. 대중 영역에서도, 학술 영역에서도, 청일전쟁은 오랫동안 주요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주된 전쟁의 주체였던 일본과 중국의 연구는 어떠했는가.¹⁾ 나카츠카 아키라로 대표되는 전후 역사학의 흐름이 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고,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 대해 청일전쟁이 대륙팽창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비판적인 입론이 등장하여 논쟁이 진행된 상황이다. 중국 측 연구의 경우 중국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로 몰락하는 계기였으며, 중국의 근대민족이 각성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을까. 물론 1970년대 박종근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50여 년 가까이 연구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학술적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인 서술이나 교과서적인 서술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면 교과서 단계의 서술이나, TV 등 방송매체에서도 청일전쟁이 단일 주제로 주목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배경으로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서술인 경복궁 점령과 그에 따른 일본의 내정간섭 정도가 주목될 뿐, 전장터였던 한반도의 상황과 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나온 청일전쟁 관련 연구서이다. 이 저서는 기존에 그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청일전쟁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서라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크다.

1) 일본과 중국의 연구사 검토에 관해서는 유바다, 「柔遠之義와 來者不拒의 휴머니즘을 실천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푸른역사, 2024)을 읽고-」, 『역사연구』 50, 2024 참조.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으로 들어가보자. 잘 알려진대로 '청일전쟁'이라는 명칭은 일본, 청나라라는 교전국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청'과 '일'이라는 교전국의 이름이 강하게 인지되어서일까, 이 명칭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장이었다는 것, 전쟁의 목적이 한반도의 지배권이라는 사실은 쉽게 사장되었다. 저자는 여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본서의 제목인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이런 저자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다. '조선인들에게 청일전쟁은 과연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저자는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이라는 연구방법을 제기한다. 한국사적인 입장에서 청일전쟁을 다르게 서술하는 방식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 저자의 방법론대로 조선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시각에서 청일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서술할 수 있을까. 청일전쟁의 주요 전투는 잘 알려져 있듯 풍도해전 - 아산/성환 전투 - 평양전투/황해해전 - 요동반도 전투 - 위해위 전투로 이어진다. 이 중에서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전투만 해도, 풍도해전, 아산전투,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전투는 조선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선인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자의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2.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의 구성과 특징

저자는 1990년대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한 이래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저자가 기존에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을 재구성하여 저서로 출간한 결과물이다.²⁾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의 구성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부터 아산·성환전투, 평양전투를 시계열 순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세부 장으로 시기에 맞는 주된 내용을 배치하였다. 각 부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은폐와 진실 : 일본군의 왕궁 점령과 ‘보호국’ 구상은 총 4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 일본군의 조선 왕궁(경복궁) 점령에 관한 재검토, 2장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향, 3장 청국군의 동향과 일본군의 출동, 4장 일본의 조선 정책 : ‘보호국’ 구상과 실현 과정이다.

1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2장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2) 조재곤, 2008, 「한 일본인 종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니시무라 도키스케의 『甲午朝鮮陣』 분석」, 『軍史』 66 ; 조재곤, 2010, 「청일전쟁 시기 일본 주요 언론에 보이는 ‘조선 이미지」,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조재곤, 2015,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한국 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 조재곤, 2016, 「1894년 일본군의 조선왕궁(경복궁) 점령에 대한 재검토」, 『서울과 역사』 94 ; 조재곤, 2020, 「청국군의 아산출병과 내포 지역의 동원」, 『충남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역사적 의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재곤, 2021,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향」, 『한국근현대사연구』 96

대한 반향이다. 왕궁이 점령당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조선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자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의 계획, 점령의 실제상황에서 조선군의 대응, 조선인들의 반향을 서술한다. 우선 경복궁 점령의 실상에서, 저자는 ‘조선군이 먼저 발포하여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일본군의 주장을 반증한다. 일본군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궁궐 담을 넘어서 시작된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설령 조선군이 먼저 발포를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도, 그리고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외국군에게 습격당했을 때 발포는 정당방위라는 것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경복궁 점령 이후 조선인들의 반향이다. 생각해 보면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입은 가장 상징적인 피해는 경복궁이 점령당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저자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여러 주체들의 반향을 서술했다. 우선 서울은 ‘엑소더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도 자세히 전해졌다. 이 소식에는 실제 상황과 유언비어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후 저자는 조선 왕실의 입장과 ‘이중외교’, 정부 관료들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응, 재야 유생과 의병, 동학농민군의 인식과 대응을 각 주체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동원내용에 관한 분석이다. 저자는 조선에서 청국에 대해 영접관을 편성하고 인력, 우마, 양식, 선박을 제공한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동원인원 및 지출비용, 우마와 콩 등 양식의 지출내역, 사격의 지출내역을 세세한 수준까지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일전쟁 당시 단순히 “청국군에게 조선정부가 군량을 지원했다” 정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인원과 비용, 양곡의 수량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2부 “야만의 전쟁과 휴머니즘 : 풍도 해전 · 성환 전투” 역시 총 4개의 장 구성이다. 1장 풍도해전과 성환전투, 2장 동원 시스템과 군표 발행계획, 3장 야만의 전쟁과 선전, 4장 전쟁과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이다. 2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풍도해전과 지역민의 관계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대로 풍도해전은 일본해군이 청국 군함을 기습하여 승리한 전투이다. 그러면 남은 청국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안의 주민들은 해전 이후 목숨을 구해 흘러들어온 청국군을 “일시에 구제”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는 치료하고, 옷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산 · 해미 · 홍주 · 덕산 · 예산 지역은 태안에서 온 청국군병사, 성환전투에서 패배하여 흩어진 병사들이 마을을 약탈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더해서 이 와중에 영국군 선원만 구조하고, 전리품 획득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본 해군의 모습도 서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또한 일본의 서울개선식과 전리품 전시, 만들어진 ‘전쟁영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부 4장 “전쟁과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이 주목된다. 저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취재했던 일본 종군기자들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청일전쟁시기 일본 신문사의 월별 종군기자 현황을 비롯하여 신문기자의 명단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를 우선 정리했다. 나아가 일본 전쟁기사의 기술을 분석하여 당시 유포되었던 조선사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 나갔다. 저자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비롯하여, 관군과 청국군, 일본군에 대한 논조, 정치사회상의 왜곡 전달 등 내용이 주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역으로 일본의 언론을 통해 청일전쟁

전후 조선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부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 : 평양전투와 평안도의 현실”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평양전투를 다루었다. 제3부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평양전투 직전 청·일군의 동향, 2장 평양전투의 내용과 평가, 3장 평양과 평안도의 현실, 4장 북진 물자와 노동인력이다.

3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평양전투 이후의 모습, 그리고 평안도의 현실과 노동인력의 동원이다. 저자는 평양전투 뿐만 아니라 평양전투 이후의 풍경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각 사료에 표기된 일본군과 청국군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자세히 묘사한 후, 청국군 패주 후의 상황을 든다. 저자는 평양전투 후 평양의 모습을 ‘평양 제노사이드’라고 명명한다. 평양전투 이후에는 청국군과 일본군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희생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평양과 평안도에서 행해졌던 ‘전시대징발’이라는 현실에 눈을 돌린다. 청일전쟁 기간, 이미 성환과 풍도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평양의 물가는 폭등했고, 평양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전 기간 동안 인부의 임금체불문제는 지속되었다. 또한 일본군의 평양승전 이후 ‘조일 공수동맹’을 통한 일본군의 내정간섭, 특히 징발은 점차 늘어갔다. 저자는 일본군의 종군일기 등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에서의 강제징발상황, 동학농민군 소살사례, 군용 수표문제를 제시한다. 평안도의 ‘현실’은 이뿐이 아니었다. 패잔 청국군의 음행과 노략도 있었고, 일본군을 비롯한 일본군 인부들의 일탈 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청국군 포로와 ‘치안방해’ 등과 관련한 참살은 일상화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이 동학농민군의 대량 학살, 뤼순대학살로 이어졌고, 결국 난징대학살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지적한다.

3. 장점과 아쉬운점

“백성들은 곤궁해지고 재산은 고갈되었으며 소는 지치고 곡식은 거뭇이 나서 고을마다 모두 텅 비었다”

저자가 발췌한 청일전쟁 당시 평양지역 관리 김영식의 『사정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조선인들의 사정이다. “청일전쟁 당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으며, 조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들이 얼마나 곤궁해졌는지, 재산이 어떻게 고갈되었는지, 고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텅 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료를 통해 이를 추적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료를 근거로 서술하는 역사학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가지는 장점은 전투 전후 과정에서 일본군과 청국군의 상황, 그리고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전쟁을 서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투이다. 청일전쟁에 대한 기존 서술 역시 각 전투에서 일본군과 청국군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어떤 식으로 승패를 좌우했는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전투는 짧고 그 후유증은 길다. 전쟁은 전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짧은 전투 이후에는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저자는 경복궁 점령 이후의 경성의 상황과 조선인들의 반응, 성환전투와 평양 전투 이후 모습을 분석하며 조선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들의 전쟁’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이다.

700쪽이 넘는 두꺼운 두께만큼이나 치밀한 사료분석은 분명히 『조선인의 청일전쟁』의 장점이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전반적인 구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총 3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1부와 2부, 3부의 제목은 각각 시계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각 장의 내용이 부의 구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1부의 4장과 2부의 3, 4장은 모두 해당 시기가 아닌 청일전쟁 이후의 시기까지 다루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청일전쟁 이후의 이야기까지 따라가다 다시 성환전투로, 다시 평양전투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각 시기별 전투의 개요가 너무 소략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전투의 영향에 서술에 대한 풍부한 서술과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각 전투의 개요와 위치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다. 2부 아산, 성환전투의 경우 전투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있지만,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 3부 평양전투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전투의 내용에 한정해서 평양전투의 경과와 청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 전반적인 전투의 흐름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전투의 세세한 진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과와 서술이 포함되거나, 지도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어땠을까.

사실관계의 실증에 집중한 나머지 일부 의의의 도출이 누락된 부분이 존재한다. 저자는 1부에서 3장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청국군과 일본군의 동원내역을 분석했다.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력동원과 비용의 지출의 세부 내역을 도출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마와 콩의 지출내역, 사격(뱃사공과 결꾼)의 동원내역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이는 단순히 “청국군이 많은 조선인과 물자를 동원하였다”라는 추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석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분석 이후에 이 동원의 의의가 어떤 것이었다는 점이 소략하다.

조선정부의 입장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저자는 일본군과 청국군이 남긴 기록 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리들과 동학농민군들이 남긴 기록까지 이용하여 각 전투의 전후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입장은 전투의 상황마다 일괄적이지 않다. 청국군을 지원하는 모습과 일본군을 지원하는 모습 양쪽이 혼재되어 있다. 물론 경복궁 점령 이후에 일본군의 강압, 청국군에 대한 요청과 이들의 약탈, 그리고 전투의 승패라는 전황의 모습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시기마다 조선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일본군의 평가와 역사서술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저자가 구상한 근대 3부작 중 하나이다. 저자는 2017년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를 펴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종과 대한제국 -황

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을 펴냈으며 2024년에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을 펴냈다. 시기상으로 가장 앞 시기인 청일전쟁이 오히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이후에 출간된 것이다.

이 근대 3부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선인의 시각’과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에서 “러일 간 전쟁의 실제 무대였던 한국과 중국 동북부 지역은 단지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부여되어 있을 뿐 정작 지역사정과 지역민의 삶은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쟁수행과정에서 자행된 러시아와 일본의 무차별적인 광범위한 폭력과 인적·물적동원, 여기서 파생된 생존을 위한 동시대 한국인들의 지난한 몸부림 등에 대한 조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³⁾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후 러일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며 러일전쟁 시기 평안도와 함경도에 주목, 인적, 물적 피해 상황과 전시동원, 포로문제까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고종과 대한제국』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시기부터 러일전쟁 전후 기간까지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내치의 기반, 국가상징장치에 주목했다. 또한 제한제국국제와 핵심 통치기구, 경제문제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 3부작을 통해서 한국 근대사회의 구조적 틀과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서술했다 밝히고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이 근대3부작 중 가장 앞시기이지만 가장 늦게 나왔다. 저자는 방대한 사료의 양으로 인해 가장 분석이 늦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책을 읽고 크게 두 가지 지점을 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메이지시기 일본군에 대한 평가이다. 시바 료타

3) 조재곤, 2017,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7p

료로 대표되는, 메이지 시기를 다룬 일본의 대중문화에서는 ‘어두운 쇼와시기와 대비되는 화려한 메이지시기’를 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 ‘화려한 메이지시기’라는 언설은 작은 나라가 큰 청국과 러시아를 이기면서 세계에 도약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연결된다. 전후 일본 근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일본 군사사의 문제의식도 이러한 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소화 시기의 일본군’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메이지 시기’와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소위 ‘충검돌격’, ‘카미카제’로 대표되는 일본군의 비합리성, 광신적인 성격은 이미 전후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면 일본군이 이러한 광신적인 성격을 띤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문제제기에서 많은 일본군사사의 저작들은 일본군의 성격이 ‘초기에는 엄정한 것’이었지만, 이후 변화를 거치면서 비합리적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었다. ‘엄정한’ 일본군의 모습은 과연 조선인들에게도 엄정한 것이었을까. 저자가 밝힌 일본군의 만행은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징발, 동원, 참살의 모습까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보였던 일본군의 모습은 사실 청일전쟁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서술의 방향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의 부제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흔히 쓰이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다. 말 그대로 이제까지 청일전쟁의 역사는 당시 조선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특히 승자인 일본의 시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시각에서 이런 서술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의 문제의식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부제와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서술의 무대로 끌어오느냐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당시 조선군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단초를 여러 사료를 통해서 보여준다. 또한 청국군과 일본군에서 조선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수동적인 반응과 피해를 넘어서 ‘유원지의’와 ‘내자불거’라는 사실을 도출해 낸다.

저자는 승자만의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발굴한 것이다.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찾아 낸 것은 전쟁이라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이었다.

영문제목 : Finding Humanity in the War of “Theirs” Through
the Eyes of “Ordinary People”

영문저자명 : Kim, Sang-Gyu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51-465
<https://doi.org/10.29212/mh.2024..133.4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 군사사료 기증

-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사료 소개 -

김경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 군사사료

군사역사의 연구는 전적으로 군사사료에 기반한다.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료 수집은 다방면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사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의 참여와 호응은 군사역사 연구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 특히, 군사사료의 기증은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이며,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수집 계획 및 연구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

미술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강재원 선생의 군사사료 기증은 뜻깊은 행운이다. 강재원 선생은 충북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며, 충북지역 고교 등지에서 미술교사로 정년하신 미술작가이자 교육자이다. 미술작업과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고문헌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사료를 수

집한 수집가이기도 하다. 그 동안 수집한 사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박물관에 기증하여 자신이 수집한 사료의 소장, 보관, 전시, 연구에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에 연락을 주어 군사사료의 기증 의사를 밝혀주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사료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설명드리고 진행했다.

11월 6일, 장재원 선생은 군사편찬연구소 오성대 소장에게 군사사료 6점을 기증했다. 기증식에서 오성대 소장은 기증자의 뜻깊은 기증에 감사를 표하고, 국내 최고의 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기증사료를 소장, 보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군사역사 연구에 적극 활용할 것을 말했다.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된 군사사료는 『항의신편(抗義新編)』 1권, 『소화십삼년약력(昭和十三年略曆)』 1권, 『세기가하라군기대전(關ヶ原軍記大全)』 1권, 『어포고왕래(御布告往來)』 1권, 『비서삼종(祕書三種)』 1권,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 1권 총 6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재원 선생 기증 군사사료

사료명	저자	발간시기	책수, 규격
『항의신편(抗義新編)』	안방준 (安邦俊)	1863년 (철종14)	木板本(重刊), 乾편(전체 2책) 21.7×14.6cm, 10行20字
『소화십삼년약력 (昭和十三年略曆)』	조선총독부	1938년 (昭和13)	1책 부록수록
『세기가하라군기대전 (關ヶ原軍記大全)』	伊藤政雄	1813년 (文化10)	1책, 필사본 권28(전체 32권), 27cm×20cm
『어포고왕래 (御布告往來)』	冲志楼主人	1872년 (明治5)	1책, 인쇄본 전편(후편 결), 35p
『비서삼종 (祕書三種)』		1924년	1책, 67p 21 cm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		단기4288 1955년	1책, 韓國文化社발행 27cm

『항의신편(抗義新編)』은 4권 2책 가운데 1책만 소장하여 기증했다. 의병장 조현의 의병실기이며, 초간본은 1625년(인조 3) 발행, 반포되었지만, 철종대 중간되었다. 안방준의 『은봉전서』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화십삼년약력(昭和十三年略曆)』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식민통치를 위해 편찬한 역서이다.

『세기가하라군기대전(關ヶ原軍記大全)』은 세기가하라전투를 소재로 한 일본 근대개항기 실록체 역사소설이며 기증된 사료는 1책 결본이다. 『어포고왕래(御布告往來)』는 천황의 포고문을 모은 것으로 “동몽필독유신(童蒙必讀維新)”이란 속지처럼 모든 일본인에게 강조된 일본의 국가지향을 반영한 포고문이다.

『비서삼종(祕書三種)』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많이 소장하고 활용했던 병서이자 역학서이다. 수록된 비서(祕書)는 장상영(張商英)이 주석한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 제갈량이 지었다고 전하는 「제갈량심서(諸葛亮心書)」, 서대춘(徐大椿)과 장량(張良)이 공동으로 주석하였다고 알려진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이 합각(合刻)되어 있다.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은 6·25전쟁기 3·1정신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도로 「3·1독립선언서」와 「민족선언서」를 출판한 것이다.

2. 전쟁경험과 기억의 전승

조현의 도학정신과 의병활동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쟁이 인류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전쟁을 경험한 인류는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사를 세밀하게

다루었다. 조선시대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 여진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사건이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와 전쟁경험, 기억을 어떻게 전승하여 전쟁을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군사사료가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되었다.

본 자료소개는 장재원선생의 기증사료 가운데 가장 군사사료의 성격이 높은 『항의신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먼저 『항의신편』의 대상 인물이었던 조헌을 살펴본다. 조헌(趙憲)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학자이자 경제사상가, 의병장이었다. 조헌의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후율(後栗), 도원(陶原), 시호는 문렬(文烈)이다.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난 조헌은 어려 학문에 자질이 뛰어났다. 1565년(명종 20) 성균관에 입학하고, 1567년(명종 22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교서관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평안도 정주(定州)향교 교수, 경기도 파주향교 교수를 역임하며 성혼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자 했지만, 성혼의 사양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572년(선조 5년) 홍문관 정자(正字)로 왕실의 불교에 대한 정책을 비판했으며, 1574년(선조 7) 성절사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서장관(書狀官) 허봉(許篈) 등과 함께 명에 사행하였다. 사행 이후 명의 문물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동환봉사(東還封事)』를 국왕에게 제출했다. 조헌은 국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노비를 양민으로 삼아 징병하면 정예 군사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75년(선조 8)에 사직하며 정치 분야에 진덕수(眞德秀)의 『정경(政經)』과 『지지당고(止止堂稿)』, 군사 분야에 척계광의 문집, 교화 분야에 『동몽수지(童蒙須知)』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조헌은 절의를 강조하여 사육신의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할

것을 주장했다.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을 변호하였다가 정치적 곤란을 겪었다. 정여립의 폐단을 논쟁하였다가 탄핵받았다. 조현은 충실한 성리학자로 유학적 입장에서 조선의 시대문제에 대해 개혁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게이데쓰 겐소(景轍玄蘇) 등 일본사신이 와서 정명을 주장하자 겐소를 죽일 것을 주장하고, 향촌사회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방어책을 상소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정인홍 등과 함께 옥천에서 의병을 창의(倡義)하여 호서에서 첫 의병을 일으켰다. 승장(僧將) 영규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던 청주성 수복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금산에서 복진하는 일본군과 결전하여 700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했다. 조현은 1604년(선조 37) 선무원종공신1등(宣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1609년(광해군 1), 조현의 위패를 모신 옥천의 사당에 “표충(表忠)”이라는 편액이 하사되어 이후 표충사(表忠祠)로 불렸으며, 1754년(영조 30), 영의정으로 가증(加贈)되고, 1883년(고종 20), 성균관 문묘(文廟)에 종사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억과 전승이란 관점에서 이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고종대 문묘에 종사되어 해동 18현 중 한 명이다.

조현의 의병창의와 청주성 수복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전황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소 조현을 존경하던 안방준(安邦俊)은 전쟁 이후 비록 함께 전투하지 못했지만, 조현의 각종 사실을 모아 『항의신편(抗義新編)』을 편찬했다. 『항의신편』의 저자 안방준은 조선중기 의병장이자 성리학자로 이름이 높다. 안방준은 본관이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우산(牛山)·빙호자(氷壺子)·우산병복(牛山病覆)·은봉암(隱峰菴)·매환옹(買還翁)·대우암(大愚庵)·왈천거사(曰川居士)이며, 시호는 문강(文康)

이다. 학문적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안방준은 임진왜란 때 호남의병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는 호남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정에서 관직을 하사했지만 정치갈등을 이유로 사양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청군과 싸운 공로로 효종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양하다 출사하여 공조참의의 벼슬을 하였다. 안방준은 1657년(효종 8) 가선대부 이조참판, 1813년(순조 13)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821년(순조 21)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특히, 안방준은 임진왜란의 의병활동을 정리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항의신편(抗義新編)』, 『이대원전(李大源傳)』, 『호남의병록(湖南義兵錄)』 등을 저술했다. 안방준의 방대한 저술활동 결과는 『우산수필(牛山隨筆)』, 『은봉수필(隱峰隨筆)』, 『매환필기(買還筆記)』 등 문집으로 간행되었다. 1773년에 5책의 『우산집(牛山集)』으로, 1864년 20책의 『은봉전서(隱峰全書)』로 중간되었다.

1573년(선조 6) 보성에서 태어난 안방준은 이황(李滉)의 제자 박광전(朴光前), 고경명(高敬命)의 제자 박종정(朴宗挺) 등에게 학문을 배우고,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했다. 임진왜란에 박광전·임계영(任啓英) 의병 막하에서 종사관 정사제(鄭思悌)와 참모로 활동하며 제2차 진주성 전투를 기록한 『진주서사(晉州敍事)』를 집필했다. 1613년(광해군 5)에 41세의 안방준은 조헌(趙憲)의 『항의신편(抗義新編)』을 편찬했다. 이후 광해군대 정치혼란을 피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며 1616년(광해군 8) 『호남의록(湖南義錄)』을 집필했다. 안방준의 조헌에 대한 존경은 1622년(광해군 14) 조헌(趙憲)의 「동환봉사(東還封事)」를 편찬하여 간행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방준은 지기(志氣)와 절의를 숭상하여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조헌을 가장 숭배하였다. 안

방준의 이런 생각은 포은의 ‘은’과 중봉의 ‘봉’, 각각 한자를 따서 자기의 호를 은봉이라 지은 점에서 거듭 확인된다.

안방준은 종군실기(從軍實記)로 유명한 『은봉야사별록(隱峯野史別錄)』의 저자이다. 물론 안방준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전황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은봉야사별록』의 「노량기사(노량기사)」와 「진주서사(진주서사)」는 노량해전, 진주성전투를 다루며 서사적 긴밀성이 돋보이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실기문학은 역사적 사실, 사건, 인물 등 소재를 작가 체험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여 소재가 일회적이며, 작품의 시작과 끝이 작가의 체험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끝을 맺는 진술의 한시성이 있다. 그러나 「노량기사」와 「진주서사」는 안방준이 생각한 일정한 구도 속에서 논리적 짜임새에 의해 서술되었다. 즉, 안방준은 실제 종군하지 않았더라도 종군실기를 적은 능력있는 작가라 할 것이다.

『항의신편』은 1614년(광해군 6)에 안방준에 의해 4권 2책으로 편찬되었다. 책머리에 권말에 서문을 통해 확인하면, 안방준은 『항의신편』을 편찬할 처음에 ‘진시무(陳時務)’, ‘구사우(救師友)’, ‘논조정(論朝政)’, ‘청절왜(請絕倭)’, ‘거의병(舉義兵)’, ‘잡저(雜著)’ 등 전집 6권을 목표로 했지만, 청절왜·거의병에 관련한 봉사(封事), 비문(碑文), 언행을 발췌하여 편찬했다. 이 책은 처음 광해군 6(1614)년에 완성하여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한다. 『항의신편』은 1625년(인조 3) 연평부원군 이귀(李貴)가 사기진작을 위해 출판을 건의하였지만 국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후 1863년(철종 4) 송내희의 중간후(重刊後)와 송근수의 발문이 실려 있는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은 전 6권으로 권1-3, 권4-6이 각각 1책이다. 권6이 끝난 뒤에 송시열이 지은 「김의사전(金義士傳)」, 김낙현(金洛鉉)이 지은 「노

수암신도비명(盧守菴神道碑銘)」과 「노체헌묘표(盧軒墓表)」, 「삼송당기(三松堂記)」, 「김의사희철사적(金義士希哲事蹟)」 등이 부록으로 엮어 놓았다. 중간본은 초간본에 없던 추가내용과 결판을 보충하여 목활자판으로 조판·간행되었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권	내용
권수	이정구(李廷龜)와 안방준의 서문(序文)이 있고, 조현의 행적을 나타낸 그림(圖)으로 화가 이징(李澄)이 그린 「궁경양친도(躬耕養親圖)」, 「빈례사노도(賓禮師奴圖)」, 「지부복굴도(持斧伏闕圖)」, 「도보과령도(徒步過嶺圖)」, 「청천왜사도(淸斬倭使圖)」, 「청주파적도(淸州破賊圖)」, 「금산사절도(錦山死節圖)」, 「칠백의총도(七百義塚圖)」가 실려 있다.
권1(請絶倭)	청절왜사봉사(淸絶倭使封事) 3건은 1587년 일본의 국사(國使) 다치바나 야스히로(橋本廣)와 1589년 일본 국사 겐소(玄蘇) 등이 외교 교섭을 위해 조선을 방문하자 조현은 교린과 일본의 정세를 이유로 거절할 것을 요구했다.
권2(請絶倭)	청참왜사 제1봉사(封事), 첩황(貼黃), 제2봉사, 별지(別紙), 의주변황조표(擬奏變皇朝表), 의여유구왕국서(擬與琉球國王書), 의유일본유민부노등서(擬諭日本國遺民父老等書), 의유대마도유민부노등서(擬諭對馬島遺民父老等書), 의참적사현소등죄목(擬斬賊使玄蘇等罪目), 영호남비왜지책(嶺湖南備倭之策), 여연안부사신공격서(與延安府使申公格書), 여금산군수김공현성서(與錦山郡守金公玄成書), 여형조판서이공증서(與刑曹判書李公增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擧義兵)	기병후봉사(起兵後封事), 청주파적후장계별지(淸州破賊後狀別紙), 근왕시지로문(勤王時指路文), 여수군절도사서(與水軍節度使書), 담고산현감서(答高山縣監書), 여관찰사서(與巡察使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4(附錄)	윤근수(尹根壽)가 찬한 조참판일군순의비(趙參判一軍殉義碑), 안방준이 찬한 중봉선생유사(重峯先生遺事), 중봉선생봉사후발(重峯先生封事後跋), 서중봉선생거의시사후(書重峯先生擧義時事後), 제문(祭文) 6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	권5는 김상헌의 신도비명, 묘표, 증영의정묘표, 사제문, 치제문, 반교문(頒敎文), 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6	편집에 참여한 막좌문생(幕佐門生)의 명단이 들어있다.

* 출처 : 『항의신편』(奎1536)

『항의신편』에 수록된 글은 대부분 『중봉집(重峯集)』에 실려 있으며 또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隱峯全書)』에 「항의신편」이란 본서와 같은 제명(題名)이 실려 있다.

『항의신편』의 내용은 권1의 「청참왜사제일봉사」, 「영호남비왜지책」 등은 1591년 통신사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이 함께 온 일본사신을 참하라고 요구하고,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국방정책을 강구한 내용이다. 권6의 막좌문생은 조완기(趙完基) 등 조현 막하의 문하생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 의병에 참여한 문하생들을 언급하여 조현의 창의정신을 공감하는 인물이 많았으며, 순국하는 순간까지 함께 한 절의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말 국제전쟁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전쟁 기억을 작가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편찬한 『항의신편』은 가장 주목되는 종군실기의 하나라 할 것이다. 『항의신편』은 조현의 도학(道學)정신이 잘 표현된 군사사료이다.

6·25전쟁기 3·1정신으로 전쟁을 극복하다.

한국은 6·25전쟁이 한참 고지전으로 이어지던 1952년 3월 1일, 3·1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족선언서」를 선포하였다. 이는 195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3·1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다시 진흥함으로써 남북통일을 맹서하고, 이를 실천완수하기 위하여 민족선언을 선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3·1정신으로 일본군국주의를 물리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삼팔선이란 국토양단과 6·25전쟁으로 민족이 시름하는 시점에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민족선언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민족선언서』를 살펴보면, 단기 4,285년(1952)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표된 민족선언서는 좌측 가장자리에 ‘우리의 맹서’¹⁾ 3가지가 인쇄되어 있다.

1) 우리의 맹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6·25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뒤 독립선언서를 출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는 전체 15장으로 구성된 독립선언서 인쇄본이다. 사료의 크기는 19×26cm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지에 동일한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²⁾ 1954년 한국문화사와 민족시보사 등 출판사가 28쪽 분량의 하드커버 독립선언서를 출판했는데, 민족선언서를 부록하고, 민족대표 33인의 사진자료를 수록했다. 1955년 맥구문화사(麥丘文化社)에서 17장 분량의 하드커버로 출판한 독립선언서이며, 민족선언서가 부록되어 있다.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된 사료는 1955년 한국문화사에서 재발행한 『독립선언서 부민족선언서』이다. 출판사항으로 단기 4288년 195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책이다.

해방 이후 6·25전쟁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절정이었던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출판하여 시대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때 출판에 「민족선언서」를 부록하여 전후 국난극복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 군사사 연구의 기반은 군사사료의 수집과 소장

현재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에 전사편찬실 시기에 수집한 사료 및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물론 이들 사료에 대한 정확한 소장현황 조사 및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 사료정리 작업을 통해 향후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의 군사사 관련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작업에 활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구2633).

군사사료는 사료소장 및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 군사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문헌(해방 이전), 귀중본(고문헌 중 귀중사료), 중요사료(해방 이후 사료 가운데 귀중사료) 등이다.

순번	서명	저자	시기	서지사항	비고
1	관안(官案)	미상	미상	1책, 손상된 부분 많은	조선후기 관직 및 관원편람
2	병장도설 (兵將圖說)	세조	광무 연간	1책, 인쇄본	세조대의 병장도설을 재간행
3	병장설 (兵將說)	세조	1950년대 이후	1책, 이형석의 필사본	세조의 군사교훈집
4	연기신편 (演機新篇)	안명로 (安命老)	미상	3책, 판본 비교 필요	조선 현종대 안명로가 역대 병서에 서 요점을 정리한 병서
5	삼략 (三略)	태공망 (太公望)	미상	1책	동양의 고전병서 『삼략』
6	동국전란사 (東國戰亂史)	강효석 (姜毅錫)	1928년	1책	1928년 강효석이 편찬한 한국 군 사문헌
7	병학지남 (兵學指南)	미상	미상	1책, 판본대조 필요	명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 으로 조선후기에 요약정리한 병서
8	병학지남 (兵學指南)	미상	미상	3책, 3책 중 2책은 연해본	명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 으로 조선후기에 요약정리한 병서
9	백전기법 (百戰奇法)	황필수 (黃必秀)	대한 제국기	1책(유일본), 원래 10권 2책 중 1책	章演이 편찬한 叢書 『圖書編』에 수록된 「백전기법」을 별도로 간행
10	동국병감 (東國兵鑑)	미상	미상	1책(卷下, 유일본), 원래 2권 2책 중 1책으로 訓讀이 副題로 기재됨	조선 문종대 편찬된 戰史로 조선 시대 여러 판본 간행, 1911년 조 선광문회에서 합본으로 간행
11	육도직해 (六韜直解)	미상	1900년대 초	1책, 판본대조 필요	동양 고전병서인 육도병서를 현토 출판. 1918년, 1920년 등 현토 출판
12	무비지 (武備志)	모원의 (茅元儀)	미상	1책(유일본), 원래 240권	명대 모원의의 『무비지』
13	민보집설 (民堡輯說)	신헌 (申櫟)	1867년	1책, 목판본	조선 고종대 신헌이 지은 향촌 방 어책
14	황석공유서 (黃石公遺書)	황석공 (黃石公)	미상	1책, 목판본	동양 고전병서인 황석공병서

순번	서명	저자	시기	서지사항	비고
15	태공육도 (太公六韜)	태공망 (太公望)	미상	1책, 목판본	동양 고전병서인 육도병서
16	사문유취 (事文類聚)	祝穆 (복송)	19~20 세기 초	약 70여 권, 미분류	北宋의 祝穆이 편찬한 類書. 前集(60권), 後集(50권), 續集(28권), 別集(32권).
17	눌재집 (訥齋集)	양성지 (梁誠之)	미상	1책(유일본), 판본대조 필요	양성지의 문집. 정조대 초간본, 1938년 증보 간행
18	조선사략 (朝鮮史略)	미상	1895~ 1923년	1책, 인쇄본, 내용검토 및 판본대조 필요	1923년 김종한이 편찬한 한국사 1895년 개화교육운동의 일환으로 편찬된 교과서
19	조선사기 (朝鮮史記)	윤대의 (尹大義)	1940년대	1책, 광무3년 (표제 뒷면)	한국역사서
20	경서유초 (經書類抄)	미상	미상	2책(권3, 8), 판본 비교 필요	동양경전에서 중요요구를 선정하여 항목별로 분류한 유서
21	읍사례 (邑事例)	미상	미상	1책	조선시대 읍의 주요 현황을 항목별 로 정리한 사례집
22	주려선집 (洙耒選集)	高宗 御撰	1919년	1책, 판본 비교 필요	고종의 시문집
23	이야류초 (叚野類抄)	미상	미상	1책	민간의 각종 이야기, 문체 등을 분 류하여 정리한 책자
24	택리지 (擇里志)	이중환 (李重煥)	미상	1책(유일본)	조선광문회에서 발간한 이중환의 『택리지』
25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金富軾)	미상	9책, 영인본, 책수 확인 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26	동국사략 (東國史略)	권근 등	미상	1책	조선전기 권근 등의 『동국사략』을 후대에 간행한 책자
27	편갈군유적 (片將軍遺蹟)	편갈송장 군기념회	1900년대 후반	1책, 필사본, 복사본 혼합	임진왜란기 참전한 명군장수 편갈 송(片憾頌)의 유적을 정리한 문건
28	육군법률 (陸軍法律)	원수부 (元帥府)	1897년 이후	1책	한국 근대 군형법의 제정과정 및 내용을 보여주는 군법율서
29	한국동란 전란지	전사 편찬회	1951~53	6책, 초간본	6·25전쟁기 국방부 정훈국 전사 편찬회에서 간행한 전란지
30	명치37·38년 일러전사 (明治37~38 年日露戰史)	참모본부	1904~ 1905년	책수 확인 필요, 전체 20책 가운데 일부분	일본 참모본부에서 작성한 러일전 쟁사
31	북관대첩비 탁본			족자형태, 이력 확인 필요	임진왜란기 정문부의 북관대첩을 기리는 북관대첩비의 탁본

6·25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될 때, 국군은 6·25전쟁사와 군사역사를 기록했다. 이 연원에서 시작된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역사 연구와 편찬을 위해 군사사료를 수집해 왔다. 한국 역대 군사사료 뿐만 아니라 근현대 군사사료, 국외 군사사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동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군사사료의 수집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각 도서관, 박물관 등과 협업관계를 맺고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수집 회의를 통해 군사사료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집, 소장된 군사사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는 전문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중장기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사료의 현황과 소장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국내와 국외 소재 군사사료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군사사료 현황에 있어 소장상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과 기관소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관소장의 경우는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소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를 파악하고자 군사편찬연구소는 지속적으로 학술지 『군사』의 매호마다 군사사료 수집 및 기증에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기관소장은 기관업무협조를 통해 사료를 임대, 교환, 대여, 복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군사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소장의 경우는 전적으로 소장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가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24년 장재원선생의 군사사료 기증은 의미가 크다.

개인소장 군사사료의 기증은 개인 소장자의 오랜 기간 사료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수집, 소장한 사료를 전문 연구기관에 기증하여 체계적으로 소장·보관하고, 전문 연구자의 연구에 활용

되는 것이다. 사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수집한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한다는 점과 전문 연구자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 많은 군사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연구성과와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군사사료 기증을 확대하고자 기증예우를 체계화하였다.

군사사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전문 연구자가 직접 1차 방문하여 군사사료에 대한 전문분석 및 검토와 사료이력을 확인하여 소장자에게 사료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다. 군사사료의 기증에 대한 절차와 예우를 더불어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기증절차에 들어간다. 기증대상이 되는 군사사료의 보존과 소장을 위한 절차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는 사료 보존 공간 및 소장목록에 해당 사료의 첨가 작업을 진행한다. 2차 방문을 통해 기증대상 군사사료의 인수, 인계서류를 작성하고, 군사편찬연구소는 해당 사료를 인도받아 사료를 사료보관실에 입고한다. 군사사료 기증일을 선정하고, 해당 일자에 기증자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이 상호 정식 기증식을 거행하고, 관련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기증의 의미를 밝힌다. 기증 이후 군사편찬연구소는 해당 군사사료를 PDF로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보내드리고, 기증사료가 많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기증사료자료집 내지 도록을 작성한다. 일반적인 사료의 경우는 기증사료에 대한 상세한 전문해제를 작성한다. 기증된 사료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및 연구과제에 적극 활용되어 많은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게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군사사 전반에 관련한 연구작업을 통해 군사사학계의 학술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군사사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들에게 최신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역사 연구의 기반은 군사사료의 수집에 있다. 사료가 없는 역사는 불가능하다. 군사사료의 특성상 기관소장이 아니면 구체적인 소장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군사사료의 기증은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향후 보다 많은 소중한 군사사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에 관련 군사사료 소장자의 관심과 연락을 기대한다.

영문제목 : Donation of military materials is a stepping stone
for military history research

영문저자명 : Kim, Kyeong-Lok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67-476
<https://doi.org/10.29212/mh.2024..133.4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한국군과 미군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보존하는가

- 2024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마치고 -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쟁을 통하여 문명은 성쇠를 거듭하였다. 군도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조직 개편과 무기체계를 개발하였다. 전쟁은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주제가 되었고, 전쟁 연구는 단순히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전쟁사를 벗어나 군사 문제와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이념 등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군사사(軍事史)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군사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에 있다. 즉 군사사 연구는 전쟁 관련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과거의 자료를 연구·분석 및 종합하여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해안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한다,

군사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부대(부서)는 군사사 연구의 핵심 원천이 되는 전쟁 준비와 수행, 그리고 전후처리 과정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 전술 활동에 대한 가감(加減) 없는 기록(記錄)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出處)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 관리·보존하는 활동을 통해 군사사 연구를 위한 도서관으로써 임무를 수행한다.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서 굳건해진 동맹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양국 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초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주한미군 역사 기록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차하여 부대를 방문하며 양국의 군사사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실로 2024년 11월 7일, 제1회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24명, 미군 측에서는 주한미군 역사실, 미 8군, 미 제7공군 등에서 5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한미 양국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 및 교류·협력 방안”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간략하게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2. 한국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한 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에 직면하였다. 6·25전쟁을 통해 국군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6·25전쟁 중에 국군은 전쟁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에 전사(戰史) 기록 관련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이 부서들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기능과 역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계(戰史係)로 출발한 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00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평시에는 ①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 ②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 ③ 각종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시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등에 파견되어 군사 자료수집, 전례 분석 및 전파, 전쟁 수행 및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 ① 국방사, 전쟁사 및 전투사 연구·편찬, ② 군사작전 및 민군 관련 사건 조사, 연구·편찬, ③ 국방부 장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원 부서인 기획운영실, 문헌정보실과 연구부서인 국방사부, 전쟁사부, 군사사부, 조사연구부 등 2실 4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창설 이후 총 873권의 단행본을 연

구·편찬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군사사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 학술지인 『군사(軍史)』 지를 발간함으로써 군사사 연구 성과를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보급,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사료 등 총 12만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 자료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군사 종합연구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과는 1990년 10월 합동참모본부 창설 시 4본부 5실 체제의 하나인 군사연구실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군사연구과와 군사자료과로 편성되었으나, 1995년 4월 조직이 축소되어 군사연구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합참 군사연구과의 주요 임무는 ① 합참사 편찬, ② 합참지 발간, ③ 정책발전연구위원 운용, ④ 군사참고 발간 및 군사 학술용역연구 사업, ⑤ 전훈사료(戰訓史料) 수집, ⑥ 군사자료실 운용, ⑦ 특수기록관 운영, ⑧ 합참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합동참모의장 특별참모 역할을 한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육군 군사연구소는 창군 초기 전사 자료 수집, 발간, 전파와 외국 전사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1949년 12월 1일 육군편찬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16년 4월 육군 군사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군 군사연구소의 임무는 평시에는 육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쟁사를 연구·편찬하며, 전시에는 역사 기록 및 전쟁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있다. 수행하는 기능으로 ① 육군의 역사 기록 및 편찬, ② 국내외 전쟁사 연구 및 편찬, ③

육군의 군사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 보좌, 군사(軍史)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육군 군사연구소는 3개 과(課)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내 8개의 기관, 2개의 국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군사연구』지를 발간하고 있다.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은 1951년 해군본부 작전국에 전사과로 편제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06년 1월 창설되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는 해군 기록물 수집·보존·폐기 및 해군 군사(軍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 해군 역사·전사 편찬, ② 군사 업무 계획수립, 통제 및 부대 계보에 관한 업무, ③ 기록물 수집 및 평가·분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④ 해군박물관, 기념관(물), 역사관 및 전적 기념물에 관한 업무, ⑤ 기록물 매체 제작 및 보존, 인쇄·발간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해군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참모총장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은 해군본부 직할부대로 5개 과와 1개 보존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군 역사자료』 등 3만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1950년 10월 공군본부 비서실 정리과로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06년 1월 창설되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는 공군 역사 업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기능은 ① 공군 역사서 편찬, ② 공군 역사 연구, ③ 군사 자료수집 및 관리, ④ 군사재 관리, ⑤ 공군 역사 호국 인물 추모·현양 행사, ⑦ 공군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참모총장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9개 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군일지』 등 총 4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인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1952년 정훈감실의 전사편찬과를 폐합하여 전사과로 개편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10년 1월 창설되었다. 해병대 군사연구소의 임무는 해병대 군사 업무에 관한 계획, 군사 또는 군사 자료 수집·정리·편찬, 역사관(기념관)·전적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 유지 등 해병대 군사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수행, 해병대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 군사 자료의 수집 분류 및 관리 운영, ② 해병대 정기역사 자료수집 발간, ③ 부대 계보 등 부대 역사 자료 유지 업무, ④ 군사 자료실 관리와 유지, ⑤ 해병대 역사관(기념관) 건립·관리 운영 및 조정·통제, ⑥ 해병대 전적 기념물 건립 및 관리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군사/전쟁사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25전쟁 전투상보 등 총 1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3.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¹⁾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합동역사연구실(Joint History and Research Office)이 있다. 이 연구실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같은 전투사령부의 역사학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하위 통합사령부에도 지침

1) 주한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는 벤자민 해리스 주한미군 역사기록실장의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을 제공한다. 미군은 군별로 군사사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창설된 군종인 우주군은 현재 공군의 지침하에 공군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지만, 차후에 독자적인 역사 연구 조직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는 모든 육군 역사학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의 육군 군사박물관을 운영한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육군 군사사 센터가 모든 역사학자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육군 역사학자들이 따라야 할 규정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군 역사와 박물관 프로그램, 해군 역사 및 유산 사령부, 해병대 역사과에도 같이 적용된다. 육군 군사사 센터가 규정을 수정하면 주요 지휘부는 이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하위 부대들은 상위 부대의 지침을 근거로 수정한다. 육군은 역사학자 배치에 있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군사사 조직 체계

육군에서는 일부 주요 사령부와 4성급 본부에 역사학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모든 부대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사령부(TRADOC),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미 육군 공병대 사령부에는 역사학자가 있지만, 육군 미래사령부에는 없다. 미8군의 기획참모부(G5) 차장은 역사학자 역할을 겸직하고 있으며, 미 제2사단은 약 25년 전에 역사학자 편제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막대한 역사를 잃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는 예비 장교와 부사관을 고용해, 이들이 본부에서 매월 2일 그리고 연간 2주 동안 역사학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단급(2성급 사령부) 부대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여단급 이하 제대와 역사학자가 없는 부대에서는 부대원들이 역사학자의 임무를 겸직하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는 이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은 각기 다르며, 이것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해군과 해병대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부대에 편성되어 있던 역사학자를 편제에서 삭제했다. 해군은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중일 때는 ‘덱 로그(Deg logs)’를 작성하여 활동을 기록하고, 비 함정 부대의 경우 ‘사령부 작전 보고서(Command Operations Reports)’를 수집한다. 해병대는 초급 장교에게 부대 역사를 작성하게 하고 있어 산물의 질은 부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군은 육군과 해군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부대, 즉 비행단(대령급) 제대까지 역사학자가 배치되어 있다. 모든 부대에 보직이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많은 역사학자가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마무리하며

현대사에서 한미 군사 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한국군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관계를 넘어서 그 범위와 영역이 확대되어 갈수록 군사사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군사사 연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이념 등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구에서 공동운명체로 살아가고 있는 한미 군사사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이 역사 기록과 관리, 보존에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에서 군사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군의 역사 기록, 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미군 또한 역사기록과 보존 문제로 우리와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학자로서 혹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미 양측의 세미나 참석자들은 상호 간에 연락처를 교환하며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미 간에 공동 전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용 등에 합의하고, 군사사 업무 추진 관련하여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기록과 보존은 역사학자와 군사 업무 담당자들만의 업무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어떻게 변천됐으며, 어떤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작은 관심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첫걸음이다. 오늘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두면 미래의 후임자에게 소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과거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현재 나의 업무는 미래로 연결하는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기록을 남겨 역사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국방 현장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사 업무 담당자의 건투를 빈다.

영문제목 : 2024 ROK-US Joint Military History Seminar

영문저자명 : Choi, Jung-Joon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4년 군사사연구지원사업 종합발표회
 - 주제: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
 - 일자/장소: 2024. 9. 27.(금)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장, 연구지원사업 발표/토론자 등 20여 명

〈2024년 군사사연구지원사업 종합발표회 행사사진〉



○ 2024년 군사사료 기증식

- 일자/장소: 2024. 10. 16.(수) /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실
- 참석: 장재원(기증자), 연구소장, 김경록 선임연구원, 문헌정보실장

〈2024년 군사사료 기증식 행사사진〉



- 2024년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
 - 일자/장소: 2024. 11. 7.(목)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장, 연구소 연구원, 군사사 연구자 등 50여 명

〈2024년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 행사사진〉



- 2024년 하반기 전사적지 답사
 - 일자/장소: 2024. 11. 20.(수) / 춘천지구전적기념관 등
 - 참석: 연구소장, 연구소 연구원 및 직원 등 30여 명

〈2024년 하반기 전사적지 답사 행사사진〉



○ 2024년 한일전사워크숍

- 일자/장소: 2024. 11. 26.(화)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일본방위연구소 후지이 모토히로, 이토 다이스케
이노우에 1좌(무관, 대령), 연구소장
연구원 등 20여 명

〈2024년 한일전사워크숍 행사사진〉



○ 중국 군사과학원 방문

- 주제: 한중 군사학술 교류협의
- 일자/장소: 2024. 12. 2~5. / 중국 군사과학원
- 초청: 중국군사과학원
- 참석: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군사사부장, 선임연구원 한동훈

〈중국 군사과학원 방문 행사사진〉



- 2024년 해외군사전문가 초빙강연
 - 주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 북한군의 파병
 - 일자/장소: 2024. 12. 10.(화) / 연구소 회의실
 - 주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참석: 연구소장, 연구원 및 직원 등 30여 명

〈제2회 군사전문가 초청강연 행사사진〉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6·25전쟁기 민사작전 • 조사연구부 • 신국판(25절) • 2024. 9. 30.	이 책은 근대적 ‘민사’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그 기원을 밝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 적용된 민사와 군정 사례를 통해 민사군정의 지역별·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47년에 새롭게 정립된 ‘민사군정’ 개념이 6·25전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던 민사 관련 협정과 명령서를 새로 발굴하여 분석하였으며, 6·25전쟁기 민사작전의 유형별 사례로 피란민 통제와 구호, 점령지역 행정, 민간 의료와 교육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도 이 책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문헌정보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의 원고지 170매 초과시 접수 제한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a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심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 지급.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1(김경록)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문헌정보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규정

국.군편소규정 1-13

제정 2007. 07. 01

부분개정 2008. 12. 01

부분개정 2009. 11. 01

부분개정 2017. 08. 01

일부개정 2022. 02. 18

일부개정 2023. 03. 01

일부개정 2024. 08. 05



제1조(목적) 493

제2조(적용대상) 493

제3조(적용범위) 493

제4조(용어의 정의) 493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493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495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495

제7조의 2(연구의 진실성)	496
제7조의 3(인용방법 원칙)	496
제7조의 4(중복게재)	497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498
제7조의 6(공동연구)	498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498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498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499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499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499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500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500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500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501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501
제16조(판정)	501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502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502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503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503

제21조(준용법규) 503

제22조(재검토기한) 503

부칙 5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 여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인용방법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

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사업담당 연구원은 연구편찬 및 연구과제 용역사업 추진시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규정 및 연구소장 지시에 따라 논문 유사도(표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

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준용법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시행규칙 및 해당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7. 1.)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8.)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5.)

이 규정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령^Q세상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류한수(상명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신성재(해군사관학교)
심호섭(육군사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형식(고려대학교)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황수현(군사편찬연구소)
한동훈(군사편찬연구소)	윤시원(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4/12(第133號)

2024년 12월 10일 印刷

2024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1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4120798)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33. 2024. 12.

Park, Han-Min	Reconnaissance activities and chart production of Japanese warships in Joseon in the 1870s and 1880s
Park, Woo-Hyun	Expa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 network as a Japanese military supply line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Kim, Deok-Won	Kim Yu-shin's activities in the King Seondeok and Jindeok period of Silla - Focusing on the War against Baekje -
Kang, Jae-Gwang	A Study on the Change of Militar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Dongjin(東眞) before the War period against Mongol
Park, Hyun-Kyu	The Participation of Ming Dynasty Naval Forces and Commanders during the Jeongyu War(丁酉再亂)
Kim, Yong-Jae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Jeseungdang in Hansando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 Centered on 『Jeseungdang Gopungrok(制勝堂 古風錄)』 -
Kim, Min-Sik Kim, Myong-Sob	A Study on Presidential Speeches of Syngman Rhee -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before the Outbreak of the 6·25 War in Korea -
Kang, Tae-Yoon	A Study on the Artillery Ammunition Supply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Rail and Road Transport -
Kim, Seon-Ho	The Actual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Recruitment of Soldiers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Shim, Ho-Sub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ROK Forces'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in Vietnam - Focusing on the 1967 Operations of Oh Jac Kyo and Hong Kil-dong -
Yoo, In-Seok	Nixon Administration's Troop Withdrawal Policy from South Korea - Dynamics of Strategy and Governmental Politics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9 771598 317009
ISSN 1598-317X